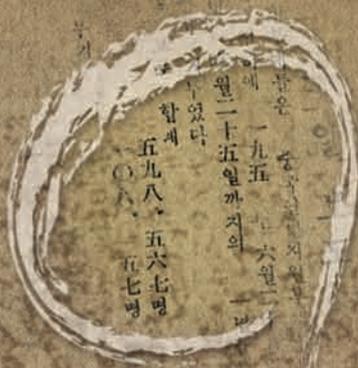


6·25전쟁과

국군포로

조성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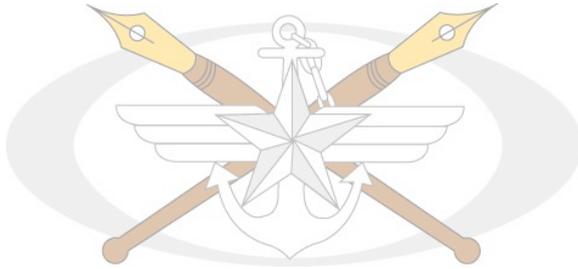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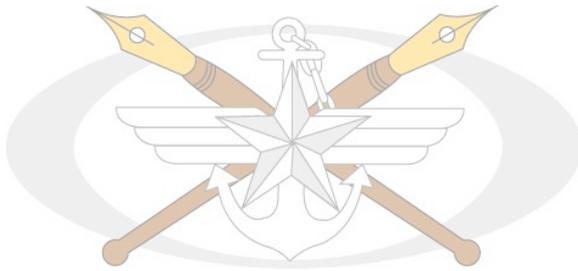
Vertical text fragments and stamps on the right side of the page, including '八월二十四일 보도' (Report of August 24th) and '五八' (58) and '五七' (57) in large characters.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과

국군포로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포로와 실종자가 되었던 국군과 슈엔군 장병들에게 이 책을 드립니다.

●●● 발 간 사 ●●●

금년은 벌써 6·25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1주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쟁 시 발생한 국군포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전자의 연령이 현재 거의 80세 이상임을 고려할 때, 생존자의 귀환 문제는 시급합니다. 6·25전쟁은 포로와 실종자 모두 생사가 확인되고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끝나지 않는 전쟁입니다.

정부는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장관급회담, 적십자회담 등 여러 대화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서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미귀환 국군포로가 발생하게 된 데는 근본적으로 북한의 포로정책에서 기인합니다. 그들은 유엔군 측과 달리 포로의 수를 정확하게 발표하거나 국제적십자사에게 알리지도 않고, 국군포로 중 상당수를 북한군에 입대시키거나 주민으로 편입하여 1951년 12월 포로명단을 교환할 때에 이들을 아예 제외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미 1951년 6월 25일 북한군 총사령부에서 발표한 국군과 유엔군포로의 수는 108,000여 명이었습니다.

미귀환 국군포로 문제는 북한 당국이 휴전협상 당시나 군사정전 위원회에서와 같은 대립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을 반복해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북한에 남아 있는 국군포로의 규모와 생존자의 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북한 당국이 미귀환 국군포로들은 바로 전쟁의 희생자들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미귀환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에 중국 정부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전쟁 당시 중국군은 북한군과 함께 ‘조선인민군 및 중국 인민지원군 전쟁포로 관리처’를 편성하여 공동으로 운영했습니다. 따라서 휴전협상 당시 포로의 명단을 교환할 때나 수용소에서, 그들은 전체 포로의 규모나 수용 중 북한군 편입, 사망자 등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에도 북한을 의식해 6·25전쟁 관련 자료를 매우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중국군이 보존하고 있는 휴전협상과 국군포로 관련 자료를 공유하여 공동연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군포로 연구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와 같은 산물이 나온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본서가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와 실종자 문제 해결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이 책에는 국군포로 외에도 유엔군포로의 고통과 희생을 곳곳에 반영하여 그들도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다시 한번 6·25전쟁 포로와 실종자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결코 잊지 않을 것(They will never be forgotten!)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2014. 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이 양 구

차 례

헌 사

발간사

제1장 문제 제기 3

제2장 한국군 및 유엔군포로의 규모 15

제1절 포로 발생과정 | 15

제2절 포로 규모 | 23

1. 공산 측 자료 · 23

2. 한국군 및 유엔군 자료 · 38

제3장 북한군과 중국군의 포로 대우 55

제1절 포로 관리기구 | 55

제2절 포로수용소 위치 | 60

제3절 포로 대우와 사망자 규모 · 71

1. 전선 부대와 후송 과정 · 71

2. 수용소 시기 · 84

3. 사망자 규모와 매장지 · 93

제4절 포로교육과 북한군 편입 | 100

1. 포로와 ‘해방전사’ · 100

2. 포로교육과 심사 · 106

3. 북한군과 주민 편입 · 111

제4장 포로협상과 국군포로 문제 131

제1절 포로협상 | 131

1. 포로명단의 교환 · 131
2. 포로송환 원칙 및 민간인억류자 석방 · 141
3. 반공포로 석방과 그 영향 · 151

제2절 귀환포로 대우 | 158

1. 귀환포로 규모 · 158
2. 귀환포로 대우 · 170

제5장 미귀환 국군포로 실태 179

제1절 정전 후 군사정전위원회 활동 | 179

1. 유엔군 측 주장 · 179
2. 공산군 측 주장 · 190

제2절 억류 국군포로의 규모 | 192

제3절 북한생활 실태 | 198

1. 건설대 대원으로 재편 · 198
2. ‘무의무탁 제대자’로 처리 · 203
3. 국군포로의 북한생활 실상 · 205

제6장 국군포로의 러시아 시베리아 이송설 215

제1절 이송설 제기 | 215

제2절 포로 이송 가능성 | 219

1. 미군 보고서의 주요 내용 · 219
2. 국군포로의 소련 이송설 · 221

제3절 시베리아 강제노동수용소 실태 | 241

1. 강제노동수용소 건설과 규모 · 241
2. 강제노동수용소의 실태와 포로 생존 가능성 · 245

제4절 향후 추진 방안 | 257

제7장 미귀환 국군포로의 귀환대책 263

제1절 정부 및 포로 단체의 활동과 해결 방안 | 263

1. 정부 및 포로 단체의 역할 · 263
2. 송환 우선순위 고려 · 276
3. 이산가족 방문과 영구귀환 방식 · 282
4. 동서독 정치범 교환 방식 · 286

제2절 북한의 입장 변화 촉구 | 291

1. 국군포로 문제는 전쟁유산 청산의 핵심 · 291
2. 수용소 사망포로의 유해 발굴 · 295

제3절 국제사회와 협력 추진 | 297

1. 미군, 영국군 등 유엔군 실종자 추적과 공조 · 297
2.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 기대 · 302

부록 : 주요 문서 309

1.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적후방에서 활동하는 인민군각종 부대와 빨치산부대들의 인민과의 정치공작에 관하여」 1950. 11. 24, 21/338.
2. 「포로사업을 위한 제강(문서번호 202472)」 1951. 1. 20, 21/338.
3. 국군 및 유엔군 포로수용소 위치와 규모(1953. 7. 11)
4. 한국전쟁 미군포로의 소련 이송보고서 발췌(1993. 8)
5. 전 북한 내무성 부상 강상호 증언록(1992. 11. 21)
6. 미 중앙정보국(CIA) 첩보보고서(1952. 9. 2)
7. 독일군 귀환포로 증언(1954. 2)
8. 일본군 포로등록 카드

참고문헌 358

영문요약(Abstract) 370

찾아보기 377

필자 후기

표 목차

〈표 2-1〉 국군 제8보병사단 피해 현황(1953. 7. 13~21)	31
〈표 2-2〉 북한 측, 아군포로 관련 발표 종합	32
〈표 2-3〉 중국군 전과 종합 통계(1950. 10. 25~1953. 7. 27)	34
〈표 2-4〉 공산 측의 아군포로 통계 차이	35
〈표 2-5〉 미군 보병사단별 참전 시기와 포로 규모	44
〈표 2-6〉 실종자 통계(1952. 12)	45
〈표 2-7〉 실종자 통계표(1956)	46
〈표 2-8〉 전후 전사 처리과정	47
〈표 2-9〉 국군 실종자 통계 변화	49
〈표 3-1〉 북한 억류 중 국군 및 유엔군포로 사망자 규모	95
〈표 3-2〉 전범 희생자	97
〈표 3-3〉 국군포로의 북한군 편입 사례	116
〈표 3-4〉 실종자 본적 분포(2006. 7)	121
〈표 4-1〉 공산 측으로 통보받은 아군포로 규모(1951. 12)	135
〈표 4-2〉 반공포로 석방 현황 통계	154
〈표 4-3〉 포로교환 현황	162
〈표 4-4〉 귀환 국군포로(상병포로 제외)의 계급별 구성	163
〈표 4-5〉 귀환포로 처리현황(1954. 1)	172
〈표 5-1〉 미해명 국군포로 2,224명의 산출 근거	185
〈표 5-2〉 공산 측의 해명 통계	186
〈표 5-3〉 미해명 국군포로의 수 변화	187
〈표 5-4〉 유엔사가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 유해 및 실종자 현황(1964. 8)	188
〈표 5-5〉 국군포로의 귀환 및 사망자 현황	194
〈표 5-6〉 북한 억류포로 탄광 배치 현황(1953)	201
〈표 6-1〉 강제노동수용소의 고려인 규모(1934~1951)	232
〈표 6-2〉 강제노동수용소의 수형자 규모	243
〈표 6-3〉 강제노동수용소 노동 일수	251
〈표 6-4〉 시베리아 강제노동수용소 사망률	253
〈표 7-1〉 1994년 이후 탈북 국군포로 현황(2012. 9)	265

제1장

문제 제기

제1장 문제 제기

6·25전쟁에서 17만여 명의 북한군과 중국군포로와 함께 국군을 비롯해 유엔군포로도 많이 발생했다. 유엔군과 공산군 양측이 각각 포로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을 준수하여 수용 중인 포로를 우대하고 전후에 모두 송환했더라면, 포로 문제는 이미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휴전협상에서 공산군 측은 국군포로의 대다수를 포로명단에서 누락시킨 채 북한군이나 주민으로 편입시킴으로써, 북한에는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많은 국군포로들이 남아 있다. 1994년 10월 조창호 소위의 북한 탈출 이후 최근에는 사망한 국군포로의 가족들이 탈북해 오면서 그 유골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또한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의 실종자 문제도 있다.

클라크(Mark W. Clark) 유엔군사령관은 1953년 10월, 유엔 총회의 연설문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한국전쟁¹⁾ 중 공산군 측에서 돌려보내지 않은 포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또 다시 8년이 걸릴 것인가 하고 자문

1) 국내에서는 6·25전쟁을 주로 쓰고 있으나, 본서에는 유엔군포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6·25전쟁과 한국전쟁을 아울러 썼다.

했다.²⁾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도 한동안 소련과 중국은 상당수의 독일군과 일본군포로를 억류하고 있어서, 국제적인 노력으로 종전 후 8년이 지나서 포로들은 석방될 수 있었다.

그런데 조창호 소위가 1951년 5월 중국군³⁾에 의해 포로가 된 후 43년 만에 탈북해온 지도 벌써 20년이 되어 간다. 2000년 6월 15일 분단 55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면서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을 위한 남북 장관급회담, 군사실무회담, 이산가족 상봉사업 등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귀환 국군포로 문제는 여전히 6·25전쟁의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포로는 전사자, 부상자 등과 같이 전쟁 희생자이다. 금년이 6·25전쟁 발발 64주년이므로 참전자의 연령이 현재 거의 80세 이상임을 고려할 때, 생존자의 귀환 문제는 시급하다. 탈북 국군포로 80명 가운데 2006년 11월 사망한 조창호 예비역 중위를 비롯해 30여 명이 사망했다.⁴⁾

북한에서 송환되지 않은 국군포로 문제는 휴전협상 당시부터 논란이 되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직후에도 일부 미귀환 국군포로가 탈출해 왔으나 북한은 이들의 존재를 계속 부인했다. 그들은 유엔군사령부에서 이를 제기하면, 공산포로를 강제억류하고 있는 점을 은폐하여 세계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북한에 포로로 억류되어 있던

2) “Proposed Speech on Korean Atrocities by General Clark to UNGA”, Oct. 16, 1953, Box 25/ Record Group 319, National Archives Record Administration, USA (이하, 25/319 방식으로 출임), 군사편찬연구소 SN 525, p.11.

3) 전쟁 당시 중공군이라고 불렀고 자신들은 중국인민지원군이라고 했으나, 본서에서는 중국군이라고 일컬었다. 중국 정부는 6·25전쟁을 ‘항미원조전쟁’이라면서 그들의 참전이 중국인민들의 자발적 엄원에 의해 이루어진 ‘지원군(志願軍)’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규중국군 가운데 참전했던 비율은 보병이 73%를 차지했고 포병 67%, 장갑부대 100% 등에 이르렀다.

4) 귀환 국군용사회 회장 유영복, 「환영사」, 「귀환 국군용사회 창립기념 증언 및 정책제언 세미나」, 2014.4.23, p.8.

조창호 소위가 탈출해 오면서 그들의 존재는 더욱 분명해졌다. 그 후에도 계속된 국군포로와 일반 탈북자의 증언으로 북한에서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의 생존 사실과 이들의 강제노역, 차별 대우 등의 실상이 구체적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군포로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비전향 장기수와의 교환을 검토하기도 했다.⁵⁾

하지만 북한 정부는 여전히 휴전협상과 군사정전위원회에서와 같이 “국군포로가 한 명도 없다”고 반박했다. 1998년 6월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전쟁 당시 국군포로를 정전협정에 따라 전원 송환했다고 주장하고, “우리에게 있다면 지난 조선전쟁시기 남한의 반인민적 통치에 항거, 공화국의 품으로 의거해 온 이전 국군 장병과 민간인들이 있을 따름”이라고 강조했다.⁶⁾ 그 후에도 “단지 북한으로 망명했거나 불명예스럽게 피뢰 군대에서 복무하기를 거부한 사람들만이 있으며 그들은 자신이 선택한 직장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2001년 2월 제3차 이산가족 상봉 시 북한 방송에서는 “전쟁 시기 공화국으로 의거한 손원호, 김재덕이 가족과 만났다”고 먼저 공개했다.⁷⁾ 그들은 이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포로들이 ‘잔류’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정부는 6·25전쟁 시기의 포로, 납북자 문제 등을 풀기 전에는 남북관계의 진전이 어렵다는 점을 북한에 주지시키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그 결과 2006년 2월 제7차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에 전쟁 시기 및 그 이후 시기의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

5) 『동아일보』 1998. 11. 24.

6) 『동아일보』 1998. 6. 24.

7) 『중부일보』 2000. 6. 30; 『한국일보』 2001. 2. 28.

람들에 대한 생사 확인 문제를 포함시켜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고 합의함으로써 북한도 현실적으로 이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서 4월에 열린 제18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8개 항의 공동 보도문에 합의했다. 공동보도문에는 “남과 북은 전쟁 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는 문구가 포함되었다. ‘포로’라는 말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은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의미했다. 적십자회담에선 ‘생사 확인’으로 국한됐으나 장관급회담에서는 그 뿐만 아니라 상봉과 송환 같은 해결을 포괄하는 문제로 확대되었다.⁸⁾

국회에서도 이미 2000년 12월 ‘국군포로 및 납북자송환촉구’ 결의를 했고, 2009년 12월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촉구’ 결의안을 다시 채택했다. 이어서 2013년 6월에도 ‘국군포로 송환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은 국군포로와 납북자는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입장으로 북한 내에 억류되고 있는 포로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6·25전쟁사 연구 가운데 국군 및 유엔군포로와 실종자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미국에서 포로 생존자 및 실종자의 추적 사업에서 비롯되었다. 이미 1956년 상원은 미군포로에 대한 공산 측의 심문, 정치교육 등에 관한 조사를 했고, 이듬해에는 포로학살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제 미국에서는 참전 부대별로 포로를 포함한 사상자가 분석되었고, 미 해병대 포로에 대해서는 월별 포로 인원, 수용 중 사망

8) 『세계일보』 2006. 4. 18; 『동아일보』 2006. 4. 25.

자 명단 등까지 모두 정리되었다.)⁹⁾

미군은 정전 후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포로와 실종자 문제를 공산 측에 지속적으로 제기해왔고, 1990년대 초 베트남과 국교정상화가 논의되면서 베트남전쟁에서의 포로와 실종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1991년 국방부에 전쟁포로 및 실종자 문제를 전담하는 부차관보급 직책을 설치했다. 또한 1993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 베트남전 등에서 실종된 미군의 해결을 위해 포로실종국(Defense POW/Missing Personnel Office, DPMO)을 창설하여 이들을 본격적으로 추적했다. 미 의회에서도 베트남 전쟁이 끝난 후에 포로의 강제 억류 사실에 대한 논란에 대하여 ‘포로와 실종자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¹⁰⁾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소홀히 여기다가, 1994년 북한에서 조창호 소위의 탈출로 공산 측에 억류된 국군포로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높아졌다.¹¹⁾

9) Frederick W. Cleaver, “US Army Battle Casualties in Korea”, Operation Research Office, the Johns Hopkins, Univ., 1956; Committee on the Judiciary, US Senate, “Communist Treatment of Prisoners of War, U. S. Gov. Printing Office, Washington: 1972; James A. MacDonald, Jr., “The Problems of U. S. Marines Corps POWs in Korea”, History and Museum Division, HQs, U. S. Marine Corps, Washington, D.C., 1988; Paul M. Cole, *POW/MIA Issues: Vol.1, The Korean War*, National Defense Research Institute, 1994; Richard E. Ecker, *Korean Battle Chronology*, McFarland & Company, Inc., 2010.

10) *POW/MIA'S Report of The Select Committee on POW/MIA Affairs US Senate*,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1993; Tim Wehrkamp, “American Prisoners of War and Missing-in-Action Personnel from the Korean War and During the Cold War Era”, Reference Information paper 102, Washington D. C. : National Archives Records Administration, 1997.

11) 정석균, 「북한에 생존하고 있는 한국포로는 송환되어야 한다」, 『북한』 1994.12, pp.36-37; 제성호, 「북한의 국군포로에 대한 대우의 인도법적 고찰」, 『인도법론총』, 대한적십자사, 1995;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 「북한억류 한국군 포로들의 실태보고서」, 『새물결』 1995. 10; 민경길, 「미송환 국군포로의 송환」, 『서울신문』 1996.11.23; 서주석, 「미국의 대북한 포로송환 정책」,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과 전쟁포로 처리문제」, 1997. 6. 10; 조성훈, 「한국전쟁중 공산측의 유엔군 포로정책에 대한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 6, 1997; 김복동, 「국군포로 현황과 실태」, 1998. 12; 국방부, 『국군포로문제: 실상과 대책』, 1999; 김행복, 『한국전쟁의 포로』, 국방군사연구소, 1996.

기존 연구성과는 6·25전쟁 시 포로송환 협상, 북한군과 중국군의 포로대우,¹²⁾ 미귀환 국군포로의 북한 생활, 미귀환 국군포로의 법적 지위,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집중되고 있다.¹³⁾ 탈북 귀환포로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남한사회 정착 프로그램에도 연구가 진전되고 있다.¹⁴⁾ 전쟁범죄 관점에서 공산군에 의해 희생된 포로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성과도 있었다.¹⁵⁾ 휴전협상, 전후 남북대화, 핵 협상 등을 통해 북한의 협상행태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다.¹⁶⁾

그런데 ‘사라진 국군포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은 북한군 총사령부가 이미 1951년 6월 국군 및 유엔군포로의 규모를 108,257명이라고 발표

-
- 12) 윌리엄 린드세이 화이트(조영철 역), 『한국전쟁 포로』,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6; 조성훈, 「미귀환포로」,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2001; You, Byong-Yong, “A Reappraisal of Prisoner of War Issue during the Korean War”, 『강원사학』 7, 1991. 12; William C. Latham, Jr., “Ordeal of the Tiger Survivors”, *Army History*, Spring 2010; ”Ministry of Defence, *Treatment of British Prisoners of War in Korea*, London: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1955; Albert D. Biderman, *March to Calumny*,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63; Arden A. Rowley ed., *U.S. Prisoners of War in the Korean War*, Korean War Ex-POW Association, 2002; William C. Latham Jr., *Cold Days in Hell: American POWs in Korea*, Texas A&M Univ. Press, 2012; S. P. Mackenzie, *British Prisoners of the Korean War*, Oxford: Oxford Univ. Press, 2012; Sheila Miyoshi Jager, *Brothers at War*,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13.
- 13) 민경길, 「한국전쟁과 포로송환 문제」, 『군사』 35, 1997; 허만호, 「북한여류 한국군포로의 송환: 법리적 판단과 협상론의 한계를 넘어」, 『성곡논총』 29-2, 1998; 서주석,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문제 연구」, 『북한조사연구』 2-1, 통일정책연구소, 1998; 김병렬, 「1949년 제네바 제3협약 제11조에 관한 일고찰-한국전쟁에서의 포로교환을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 7-1, 2000; 국방부, 『국군포로 문제』, 1999.3; 제성호, 「국군포로 및 납북자문제 해결방안」, 『국가전략』 7-1, 2001 봄; 신윤, 「이산가족 정책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연구」, 한국국제정치학회 춘계 학술회의, 2001.4.13; 제성호, 『미귀환 국군포로문제의 해결방안』, 통일연구원, 1999; 김수안·이금순·최진욱·서은성, 『국군포로·납북자문제』, 통일연구원, 200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사』 10~11, 2012~2013 등.
- 14) 오경섭·윤여상·허선행, 『국군포로 문제의 종합적 이해』, 북한인권정보센터, 2008; 허만호,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 명인문화사, 2009 등.
- 15) Philip D. Chinnery, *Korean Atrocity*,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2000.
- 16) 문성복, 「북한의 협상전략과 대응전략」, 『전략연구』 201, 2013.3; 척 다운스(송승중 역), 『북한의 협상전략』, 한울, 1999; 송종환, 『북한 협상행태의 이해』, 오름, 2002; 김계동, 『북한의 외교정책과 대외관계』, 명인문화사, 2012.

했음에도 불구하고, 귀환포로의 규모가 13,000여 명에 불과하기 때문이었다. 필자는 이미 돌아오지 않은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국방부의 정책적 필요성에 부응하여 미귀환 국군포로의 실태와 국군포로의 시베리아 이송설 검토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¹⁷⁾

본서에서는 학계와 필자의 기존 연구를 토대로 포로의 발생 배경으로부터 한국군과 유엔군포로의 규모, 포로수용소 위치와 대우, 북한군과 중국군의 포로수용소에서 수용 중 사망자, 북한군 편입 과정과 규모, 휴전 협상 당시와 정전 후 포로 논쟁, 포로교환과 미귀환 포로 규모 등을 정리했다. 또한 국군포로의 시베리아 이송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귀환대책도 모색했다.

본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포로 발생과정과 관련 육본 부관감실 문서, 전투상보, 유엔군 지휘보고 등을 비롯해 휴전협상 회의록 및 포로교환 관련 문서, 미군 정보 당국이 실시한 귀환포로 인터뷰 보고서(Army Security Center Interview Report), 심문과 교육을 포함한 공산군 측의 포로대우에 대한 보고서¹⁸⁾ 등이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수집한 영국 국립문서보관소(TNA) 문서 가운데 관련 문서도 검토했다. 북한군과 중국군포로 심문보고서에도 자신들이 목격한 유엔군 및 국군포로의 수, 대우 등에 대한 부분적인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¹⁹⁾ 정전 후 교섭 관련 자

17) 조성훈, 「한국전 국군포로 실태분석」, 군사편찬연구소, 2006.11; 조성훈, 「6·25전쟁 중 국군포로의 소련이송 관련 연구」, 군사편찬연구소, 2009.6. 이러한 연구 성과에 이어서 종합적 정리를 추진했으나, 필자가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한미동맹60년사』 등의 발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단행본 마무리가 늦어졌다.

18) Army Security Center, “A Study of U. S. -UN POW Treatment and Handling by North Korean Army and the Chinese Communist Forces” Nov. 1954, RG 59, 국사편찬위원회; U. S. Army, “Findings and Conclusions Concerning Communist Interrogation and Indoctrination Methods on Prisoners Other than US or British,” June 27, 1955.11/319 CIC.

19) HQS, EUSAK, “POW Preliminary Interrogation Report”, 군사편찬연구소 HD 1716; “ATIS Interrogation Report”, 234 Box / Record Group 319, National Archives Record Center. 이 자료는 군사편찬연구소, 국사편찬위원회에 수집되어 있다.

료는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록과 미 합참 보고서 등이 주요한 자료이다. 미 포로실종국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정리한 미 의회도서관 연방연구부(Federal Research Division)의 포로실종자 문서를 포함해서, 국군포로의 시베리아강제노동수용소 이송설과 관련한 러시아, 미국, 독일, 일본 등의 회고록과 연구 성과를 반영했다.²⁰⁾

또한 전쟁 중 탈출한 포로들의 수기, 휴전 후 귀환했던 포로의 회고록과 증언을 청취했다. 미군 비행사, 미 제24사단장 딘(William F. Dean) 소장 등을 비롯한 유엔군포로와 피랍 외국인의 회고와 이를 정리한 구술 기록을 비롯해 귀환 국군포로가 발표한 수기도 참고했다.²¹⁾ 탈북 국군포로와 일반 탈북자의 회고록 및 구술 자료²²⁾와 함께 비전향 장기수로 송환된 이인모 등의 수기도 참고하여 그들에 대한 북한의 인

20) Pael Polian, *Against Their Will*, Budapest : CEU Press, 2004; 미 국방부 포로실종국(DPMO, www.dtic.mil/dpmo); 미 의회도서관 연방연구부(Federal Research Division, www.loc.gov/rr/frd).

21) 최춘영, 「상좌동지! 우리를 총살해 주시고…」, 『월간조선』 2000.8; 유창상, 「6·25전쟁 포로수기」, 2005.6.21(<http://assembly.joins.com>, 검색일 : 2006.8.26); 월레스 부라운, 『고난의 포로생활』, 내외문제연구소, 1963; 노덕영, 『암록강변의 원한』, 양학출판사, 1978; 『포로수용소』, 육본, 1990; 박정인, 『풍운의 별』, 흥익출판사, 1990; 조창호, 『돌아 온 사자』, 지호출판사, 1995; 박진홍, 『돌아 온 패자』, 역사비평사, 2001; 오용일, 『천마포로수용소』 상·하, 박이정, 2001; 최명혁, 『나의 등 뒤에 그림같은 그 손길』, 대한, 2004; 안소니 파라-호커리(김영일 역), 『한국인만 몰랐던 파란 아리랑』, 한국언론인협회, 2003; *EX-POW Bulletin* Mar/Apr 2010; Larry Zellers, *In Enemy Hands*, The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1991; Harry Spiller ed., *American POWs in Korea: sixteen personal accounts*, McFarland & Company, 1998; Cyril Cunningham, *No Mercy, No Leniency*, South Yorkshire, Leo Cooper, 2000; Lewis H. Carlson, *Remembered Prisoners of a Forgotten War*, St. Martin's Press, 2001; Donald E. Donner, *A Death March and Night mare*, Trafford Publishing, 2004; Richard Peters and Xiaobing Li, *Voices of from the Korean War*, the Univ. Press of Kentucky, 2004; William Shadish, *When Hell Froze Over*, New York: iUniverse, Inc., 2007 etc.

22) 허재석, 『국군포로는 분노의 강을 넘어 살아서 돌아왔다』, 작은 숲, 2006; 허재석, 『내 이름은 똥간나새끼였다』, 원복스, 2008; 유영철, 『지옥의 별밤 아래에서』, 원복스, 2010; 유영복, 『운명의 두날』, 원복스, 2011. 국방부에서 실시한 귀환포로의 사후 관리를 위한 증언자료도 활용했으나, 일반 탈북자는 북한 가족의 안전을 위해 신원을 밝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²³⁾

정전 후 귀환했던 국군포로들이 장백산동지회(이기봉), 제6사단포로동지회(김경운), 뽕골동지회(이종덕) 등 일부 모임을 개최했으나 경제적 불안정과 전국적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어서 그들의 활동은 제한이 있었다. 더욱이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포로들도 고령화하여 모임이 거의 중단되어 개별적으로 증언을 일부 들을 수 있었다. 1990년대 이후 탈북한 국군포로들이 2013년 11월 ‘귀환용사회’를 결성해 활성화를 모색 중이다. 미국·영국·호주 등의 귀환포로협회, 포로실종자의 운명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가족협회 및 개인,²⁴⁾ 단체²⁵⁾의 구술자료 등 활동성과를 활용했다.

포로 관련 공산권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나, 『로동신문』·『조선인민군』·『인민일보』, 『조선중앙년감』, 『천리마』 등 북한과 중국의 신문·잡지, 중국군 및 조선족 참전자 회고록, 러시아 문서 등을 검토했다. 이 가운데에는 중국군 포로수용소에서 정치교육을 담당했던 장교의 회고록도 포함되었다.²⁶⁾

23) 리인모, 『신념과 나의 한생』,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3; 김정남, 『나의 동지들』,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5.

24) www.koreanwar.org 는 한국전 참전유공자 아들인 베이커(Hal Baker)가 이미 1979년에 ‘한국전프로젝트’를 시작하여, 1995년 2월부터 한국전쟁 일반과 포로실종자 관련 자료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25) www.koreanwarexpow.org(미군 한국전포로협회); www.tigersurvivors.org(죽음의 행군 생존자협회); www.pow-miafamilies.org(미국포로실종자가족협회); www.koreacoldwar.org(뉴욕주 포로가족협회); www.koreanwarpow.org; www.coalitionoffamilies.org; www.koreanwarpowmia.net; www.prisonerofwar.org.uk(영국 전국포로협회).

26) 王柰慶, 『聯合國軍 戰俘紀事』, 北京: 解放軍出版社, 2000; 郭維敬, 『世界第一等的戰俘營』, 북경: 중국사회과학출판사, 2010. 이들은 아직도 미국이 조선을 침략했으며, 타이완을 점령하고 동북변경을 위협해서 마오쩌둥이 출병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냉전적인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제2장

한국군 및 유엔군포로의 규모

제1절 포로 발생과정

제2절 포로 규모

제2장 한국군 및 유엔군포로의 규모

북한군과 중국군은 전쟁 과정에서 수 많은 국군과 유엔군포로를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부분적인 통계 외에 총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도 침묵하고 있다. 전쟁 당시 공산군 측이 획득했다고 주장한 아군 포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개별전투의 포로발생 기사를 비롯해 기간별 통계를 근거로 추적했다. 북한의 기습을 받아 후퇴를 거듭한 국군은 포로와 실종자에 대한 정확한 명단을 정리하지 못했고, 여기에 경찰, 유격대, 노무단 등이 포함되어 그 규모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1951년 6월 25일 북한군 총사령부가 공식 발표한 108,257명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제1절 포로 발생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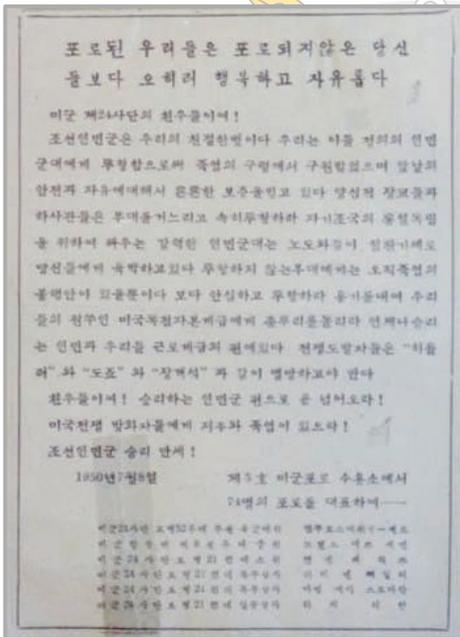
6·25전쟁 중 북한군과 중국군은 첩보를 수집하여 국군과 유엔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포로를 획득하려고 했다. 전쟁 중

국군포로가 많이 발생한 시기는 개전 초기와 인천상륙작전 이후 북진을 계속하다가 중국군의 개입 이후 아군이 후퇴할 때였다.

육군 戰訓 제5항의 “특히 죽음의 길을 찾는 한이 있어도 적의 포로가 되어 포로라는 더러운 이름을 자손 만대에 남기지 않을 것을 명심하겠다”는 훈령처럼 당시 국군 장병들은 만약 포로가 되면 자결을 할 것이라는 결의로 전투에 임했다. 그 이유는 비록 적이 인도적으로 포로를 대우한다 하더라도 포로라는 불명예를 씻을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었다.¹⁾ 실제로 전선에서 장병들은 포로가 되기 전에 자폭하기로 결의를 했고,

패퇴하는 과정에서 다리에 총상을 입고 후퇴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 국군 제6보병사단 이 모 소위처럼 자결을 한 경우도 있었다.²⁾

하지만 국군과 유엔군 장병들은 적의 남진 공세 속에 그들에게 포위가 되었을 때 투항하거나 포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북한군과 중국군은 전선에서 아군의 투항을 유도하기 위해 선전공세를 강화했다. 안전통행증(Safe Conduct Pass)을 비



미 제24보병사단 장병들에게 뿌린 북한군 전단
(출처: NARA)

1) 「국지경계병이 출다가 적의 포로가 됨」, 육본, 『소부대 전례』 11, 1979, p.378.
2) 정경호 증언, 2002. 8. 7; 8. 2동기회, 『노병들은 말한다』, 2002, p.46.

롯데 “지난 날의 나의 동료인 소위 국방군 장병들이여!”, “우리들의 친우인 소위 ‘국방군’ 장병제군!” “미 제24사단 전우들이여”, “형님 빨리 돌아와 주십시오.” 등 동료 장병이나 가족 명의의 호소 전단을 뿌렸다.³⁾

국군과 유엔군포로가 발생한 시기는 전쟁 초기 북한군의 남진 시기, 중국군의 개입 이후 연이은 공세 시기, 휴전협상이 시작된 이후 고지쟁탈전 시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전쟁 초기에 북한군의 남진 공세에 밀려 제24보병사단을 비롯한 미군이 참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군과 유엔군은 많은 손실을 입었다.⁴⁾ 이때는 북한군이 승리하고 있어서 포로의 숫자를 밝혔다. 한 인민군의 수기에 전쟁 직후인 1950년 6월 26일경 개성에는 포로가 매우 많았다고 기술되었다.⁵⁾ 1950년 6월 27일 북한군은 의정부전투에서 국군 800여 명을 생포했고, 6월 28~29일 동부의 강릉~삼척지구에서 후퇴하는 국군을 차단하여 전사상 700여 명, 포로 600여 명과 대량의 전리품을 획득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때 포로 가운데 포병 대대장 2명, 연대 참모 2명, 사단 작전참모 1명 등이 포함되었다고 했다.⁶⁾

개별 전투기사에서 포로의 획득에 관한 보도도 많다. 1950년 6월 국군 1개 대대와 조우한 정학봉 분대는 대대장 등 30여 명을 섬멸하

3) 「북한군 빼라들」, 군사편찬연구소 SN 1246. 이러한 전단에 박범영(소위, 제6사단 19연대), 리창우(제8사단 10연대), 정용귀(제6사단 7연대), 김진술(제6사단 19연대), 김도석(제8사단 10연대) 등의 인명이 등장한다(2011/9/29. RG 242).

4) 1950년 8월까지 참전한 미 육군 병력은 59,139명이었다(Frank A. Reister, *Battle Casualties and Medical Statistics: U. S. Army Experience in the Korean war*, the surgeon general, Department of the Army, Washington D.C., 1986, p.3).

5) 「나의 수기」, 군사편찬연구소 HD 74.

6) 「민주조선」 1950. 9. 18; 『조선중앙년감』 1951-1952, p.411; 『해방 후 10년일지』, 조선중앙통신사, 『해방 후 10년일지 1945-55』, 평양:1955, p.88; 「주 북한 소련대사관에서 한반도 정치형세에 관해 그로미코에게 보낸 보고서」 1950. 7. 18, 심지화 편, 『6·25전쟁: 러시아 문서보관소의 비밀 해제 문서』(중권), 대북: 중앙연구원근대역사연구소, 2003, p.467.

였고 180여 명을 포로로 잡았다고 선전했다. 28일 서울전투에서 김진걸 전사는 혼자 국군 공병 40여 명을 포로로 한 공훈으로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았다. 국군 가운데 민간인 복장으로 갈아입었으나 붙잡힌 경우도 있었다.⁷⁾

북한군 점령시기 미처 탈출하지 못한 국군 장병이 체포자 명단에 올라 있다. 헌병 출신으로 체포된 자는 1950년 8월 22일 통의동에서 체포된 안영진, 8월 26일 성북동 출신 조병하를 비롯해 장세창(낙원동), 전용규(청파동), 이석근(효제동) 등이 있었고, 일반 병사 출신은 정동유(창신동), 김하인(한강로), 김병두(연지동), 이식현(아현동), 서상원(월남동), 서창순(이화동) 등이 있었다. 이외 장교로는 육군 소위 홍하표, 공군 중령 김진일, 이규훈 소위(이화동) 등이 체포되었다.⁸⁾

1950년 6월에는 전사자가 1,073명, 실종자는 2,881명이었고, 7월에는 실종자의 규모가 14,493명으로 늘어나 전선에서 국군의 전열은 크게 약화되었다.⁹⁾ 이를 두고 북한 측은 서울 함락 후 육군본부의 병적부에 있던 98,000명 가운데 불과 22,000명밖에 확인할 수가 없었다고 자랑했다.¹⁰⁾ 그러나 1950년 6월 26일 유엔결의에 의해, 미군을 비롯한 영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터키 등이 참전한 이후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이 강화되면서, 북한군은 일부 전투를 제외하고 막연히 살상·포로(殺

7) 『로동신문』 1950. 7. 9; 「도시폭파를 미리 막은 전사의 위훈」, 『영생하는 전사들』 2, 금성출판사, 1987, pp.38-39; 고바우, 「전쟁 스케치」, 6·25한국전쟁 진실알리기운동본부, 『6·25란 무엇인가?』, 2013, p.117.

8) CIA, “Persons Arrested in Seoul by the North Koreans” Oct. 15, 1950, 남북자가족협의회 제공, 2013.9.11.

9) 1950년 6월 28일 서울 붕괴 후 한강을 건넌 때 이미 국군은 54,000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주장이 있을 형편이었다(Philip D. Chinnery, 『한국전쟁시 공산군의 전쟁범죄』, p.11).

10) 량동수·백운송, 『미제를 타승한 강철의 령장』,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p.14.

傷·捕虜)¹¹⁾로 했다고 합산해서 발표했다.

둘째, 1950년 10월 중국군 개입 이후 1951년 6월 10일까지 5차에 걸친 대공세 시기에 국군과 유엔군포로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중국군의 연이은 공세에 아군의 사기는 크게 떨어졌다. 압록강에 거의 다다르자 전쟁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 통일이 다 된 것으로 여겼고 곧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국군 병사들은 중국군의 등장에 크게 낭패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¹²⁾

중국군의 첫 대공세는 1950년 10월 25일에서 11월 5일까지 10일 정도에 불과했으나, 그들은 북한군과 함께 초산·온정·운산 등지의 전투에서 국군 3,778명과 미군 270명을 포로로 잡았다고 한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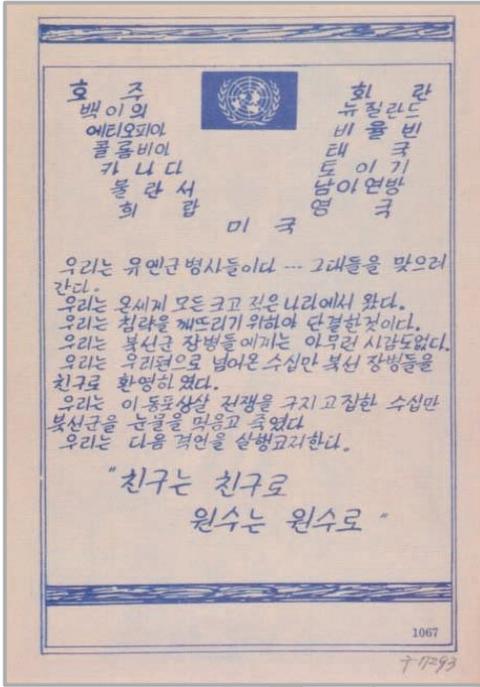
중국군의 제2차 공세는 1950년 11월 25일에서 12월 24일까지였다. 맥아더(Douglas MacArthur) 유엔군사령관이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전쟁을 종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이와는 달리 아군은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 중국군의 초기 공세는 미군도 감당하기 어려웠다. 북한군 총사령부는 중국군과 함께 북한군이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정주·태천·영변·맹산·박천·안주·개천 등지에서 국군 5,353명, 미군 2,272명 등 7,625명을 포로로 잡았다고 보도했다.¹⁴⁾ 이 가운데에는 중국군 제39군

11) 죽거나 다치거나 포로된 경우를 의미한 것으로 북한군과 중국군은 섬멸, 혹은 소멸 등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12) 『6·25전쟁 북한군병사수첩』, 군사편찬연구소, 2001, p.100. 1950년 8월 23일에서 1951년 2월 1일까지 한국군이 상실한 M1 소총은 38,606정이고 카빈소총이 19,229정에 이르렀다(“ROK Security Forces and Mobilization Potential” Apr. 12 1951, 군사편찬연구소 SN 1621).

13) 『인민일보』 1950. 11. 5, 9; 『제12보병사단제32연대제2대대문화부중대장의 일지』 1950. 11. 7-1951. 2. 1, 『해방직후 극비자료』 6, 고려서림, 1998, p.171.

14) 『인민일보』 1950. 12. 9; 『조선인민군』 1950. 12. 17; 任桂蘭·李宗儒, 『統領萬歲軍』, 북경: 중국청년출판사, 2004, p.279, 323. 이때 미군 1,000명을 포함해 모두 24,000명을 획득했다는 주장도 있다(王泰慶, 『聯合國軍 戰俘紀事』, p.1).



유엔군 북진 시 선전전단
(출처: 부산임시수도기념관)

343연대와 345연대는 미 제25보병사단 24연대 3중대 148명을 포로로 했다. 중국군은 거의 1개 중대가 집단 투항한 점에 크게 고무되었고, 또한 흑인 중대라는 점에 놀랐다.¹⁵⁾

휴전 후 돌아왔던 국군 포로도 1950년 11월 27일 덕천전투에서 국군 제7보병사단 5연대장 박승일 대령을 비롯해 2,000여 명이 한꺼번에 포로가 됐으며 인근에 있던 제6보병사단과 8보병사단도 궤멸되어

평남 덕천군 안동리에 수천 명의 포로가 모여 있었다고 회고했다.¹⁶⁾ 1950년 12월 강원도 양구에서 제8보병사단 중대장이었던 정용봉은 북한군 제7사단과 치열한 전투 끝에 부대원 116명 중 100여 명이 포로가 된 아픈 기억 때문에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북한 억류 국군포로 송환위원회’를 만들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국군포로의 실상을 알리고 있다.¹⁷⁾

15) 劉紫煊 等, 『鐵血戰士譚友林』, 북경: 해방군출판사, 2004, pp.272-274.

16) 최춘영, 「상좌동지! 우리를 총살해 주시고...」, p.587, 594; 유창상, 「6·25전쟁 포로 수기」, 2005. 6. 21(<http://assembly.joins.com>, 검색일: 2006. 8. 26).

17) 『세계일보』 2005. 6. 23. 북한군은 1950년 12월 6일부터 27일까지 강원도 방면에서 1,162명을 포로로 했다고 발표했다(『조선인민군』 1951. 1. 1, 21; 『인민일보』 1951. 1. 3).

이후 중국군의 공세에서도 유엔군의 반격으로 1951년 3월 말 38°선에 이르기까지 회복함으로써 전세를 역전시키시기까지 국군을 비롯해 유엔군의 포로가 많이 발생했다. 북한군 제12사단 정치위원은 1951년 1~2월 강원도 인제 동산 전투에서 국군 1개 대대 규모 400명을 포로로 했고, 3월에도 평창지구에서도 미군 포로 41명을 붙잡은 후 대대를 거쳐 군단으로 후송했다고 회고했다.¹⁸⁾ 1951년 5월 31일 베이징방송에서는 영국군 글로스터연대 카르니(James Power Carne) 1대대장을 비롯한 장교 24명을 포로로 했다고 발표했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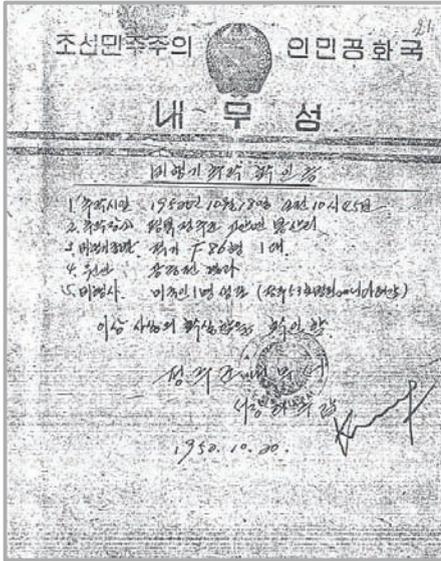
이 시기에 10개 전투비행사단으로 편성된 소련공군 제64전투비행군단이 참전하여, 미군 조종사 포로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소련군 총참모부에서는 미군이 1950년 12월 후반부터 F-86을 투입했지만, MIG-15와 비교했을 때 화력뿐만 아니라 기동성도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공산 측은 전쟁 중 고사포병부대의 전과, 2개 사단으로 편성된 중국공군 등의 전투 활동으로 유엔공군기 2,814대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했다.²⁰⁾

셋째는 휴전협상 이후 전선교착 시기로 정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2년간 계속되었다. 이 시기에 양측은 승리보다는 군사분계선, 포로귀환 등 정전에 유리하도록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지쟁탈전을 계속했다. 1951년 7월 휴전협상이 진행된 후 38°선에서 전선이 교착되면서 대규모 사상자는 줄어들었지만, 전투가 2년 동안 이어짐으로써 포로가 꾸준히 발생했다.

18) 조성훈, “국군포로 소련이송 과제 관련 모스크바, 훈춘 등 현지조사 결과보고”, 2011. 10. 6.

19) *Daily News* June 1, 1951, 국사편찬위원회.

20) 「소련군 총참모부 작전총국의 정보조사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조선전쟁기간 중 제64전투비행군단과 조중연합공군의 전투 활동 결과에 대하여」, 1953.11.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 2006, pp.499-500; 「소련군 총참모부 작전총국 보고서, 1950년 6월 25일~1952년 12월 31일까지 조선에서 미 공군의 전투행동에 대해서」 1953. 1. 27, p.668.



비행기 추락 확인증
(정주군 내무서, 1952. 10. 20, 미 DPMO에서 수집한 러시아 사료 일부)

1951년 8월 31일에서 11월 8일까지 중국군 제67군이 국군과 유엔군 37,333명을 살상했다고 했으나 포로는 25명에 불과했고, 북한군이 1951년 9월 중순부터 11월 10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전투에서 15,800여 명을 살상했다고 했지만 포로는 53명에 불과했다.²¹⁾ 이 시기는 전술적 소강상태였기 때문에

아군 통계에서도 1951년 7월 이후는 사상자는 크게 줄어들어 1951년 12월 사상자 통계에서 포로를 포함한 실종자는 미군 88명, 한국군 199명, 기타 유엔군 259명 등이었다. 이듬해 1952년 4월 사상자 가운데 포로를 포함한 실종자는 미군 7명, 한국군 3명에 불과했다.²²⁾ 1953년 7월 중국군의 마지막 공세를 제외하고 고지전 시기에는 포로는 대규모로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국군이나 유엔군은 기동력이 좋았기 때문에 적의 공격을 받더라도 트럭 등으로 신속하게 후퇴했으므로, 아군의 손실은 예상보다 훨씬 적었다.²³⁾

21) 박한무, 「조국의 고지 1211고지의 영웅적 방어전사들」, 『조국보위를 위하여』, 1958. 5, p.25; 楊成武, 『楊成武回憶錄』, 북경: 해방군출판사, 1990, p.641.

22) EUSAK, “Command Report” Dec. 1951, pp.16-17, 군사편찬연구소 HD 1514; EUSAK, “Command Report” April 1952, p.37.

23) FECOM, “Command Report”, Sep.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175.

제2절 포로 규모

1. 공산 측 자료

가. 1951년 6월까지 국군 및 유엔군포로 규모

북한군과 중국군이 획득한 아군포로의 규모는 이미 휴전협상 당시부터 큰 논란이 있었고, 현재 북한에 억류된 포로의 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도 전제적 요소이다. 또한 수용소 위치와 그 규모를 유추하는데도 기초적인 사안이다. 그런데 우리 군 당국이 전쟁 초기 북한의 기습 공세 탓에 국군의 포로와 실종자 통계를 유지하지 못해, 먼저 공산 측 자료를 검토했다.

그동안 알려진 공산 측의 국군 및 유엔군포로의 수는 전쟁 중 북한 보도나 선전물에 기초하여 첫 6개월 간의 포로 38,500명과 중국군 개입 이후 연합작전을 했던 3개월간 26,868명 등을 더하여, 9개월간 총 65,368명이었다. 이를 토대로 유엔군은 휴전협상에서 공산 측이 억류한 포로의 숫자를 확인하려 했다.

그런데 1950년 6월부터 1951년 6월까지 1년간 공산 측의 전과 발표에서 국군 및 유엔군 포로는 모두 108,257명이었다. 이 외에 1951년 5월까지 11개월 동안 85,428명이라고 주장했다. 전쟁 당시 북한군과 중국

군이 획득했다고 주장한 아군포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그들이 발표한 기간별 통계를 근거로 추적하면 다음과 같다.

SP-31

Shin's Tumbler

15,716 KILLED; 1,736 POWS; 45,000 WOUNDED

(SPECIAL ANNOUNCEMENT BY THE PEOPLE'S FORCES HQ, 0100 7 SEPTEMBER, 1950)

During the months of July and August, the People's forces caused the following damages to the American ground forces:

Date	Battle Front	Enemy Unit	No. of POWs	No. of Dead or Killed
5 July	Sawon	21st Regt/24 Div	18	20
6 July	Hyongtaek	21st Regt/24 Div	60	400
6 July	Osan	21st Regt/24 Div	20	28
6 July	Ansong	21st Regt/24 Div	100	629
8 July	Chonan	21st Regt/24 Div	15	120
14 July	Kongju	19th Regt/24 Div	--	185
17 July	Chochiwon	21st Regt/24 Div	200	600
17 July	Taebyong-Ni	19 & 34 Regt/24 Div	66	1,768
8 July	Chungju	34th Regt/24 Div	13	1,318
21-22 July	Chongju, Poun	34th Regt/24 Div	41	540
20-24 July	Taejon	34th Division	134	1,444
29 July	Yongdong	1st Cav Div	24	450
29 July	Kwanggan	1st Cav Div, 25th Div	--	1,219
29 July	Kochang	25th Div	7	80
31 July	Seohon-Ni	27th Regt/25 Div	8	840
27 July	Hudong	1st Marine Div/25th Regt	100	500
7 Aug	Kumhoh	1st Cav Div/25th Div	20	1,052
15 Aug	Waegwan	1st Cav Div	80	520
12 Aug	Yongsan	1st Cav Div	14	45
1-12 Aug	Chindong-Ni	35th Regt/25 Div	770	2,808
20 Aug	Suwon-San	1st Cav Div	6	150
21 Aug	Okohong-Dong	24th Div	--	200
1 Sep	Changnyong	2nd Div	40	260
TOTAL			1,736	15,176

As shown above, the People's Forces during the last two months captured 1,736 American POWs, killed 15,176 and wounded 45,000 American troops.

RESTRICTED CONFIDENTIAL INFORMATION

북한군 총사령부, 1950년 7~8월 미군포로 획득 규모 발표

북한군과 중국군은 전쟁 과정에서 수 많은 국군과 유엔군포로를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소련군 총참모부 전투일보에 따르면, 1950년 6월 25일에서 7월 14일까지 국군의 병력 손실은 전사 13,300명, 부상 2,743명, 포로 6,544명 등이었다.²⁴⁾ 1950년 8월 15일 북한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82호에서는 국군과 미군 등의 전사자가 이미 29,215명이고, 4만명 이상의 부상자와 포로가 있었다고 기술되었다.²⁵⁾ 이해 9월 7일 북한군 총사령부는 1950년 7월과 8월에 전선과 부대 단위별로 전과를 발표하면서 미군포로 1,736명을 획득했다고 특별히 밝혔다. 예를 들면 아래 자료와 같이 7월 5일 수원전투에서 18명, 6일에는 평택에서 60명, 오산에서 20명, 안성에서 100명, 17일 조치원에서 200명,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진동리(창원시)에서는 770명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²⁶⁾

그 후 북한 외상 박헌영은 ‘조국전선중앙위원회’의 보고에서 1950년 6월 25일부터 같은 해 12월 25일까지 6개월 간 인민군이 유엔군을 169,700명 살상시켰고 38,500명을 포로로 획득했다고 밝혔다.²⁷⁾

이후 북한군 총사령부에서는 북한군과 중국군의 긴밀한 협동작전 아래 1950년 12월 26일에서 1951년 3월 25일까지 3개월 간 유엔군의 살상자가 90,995명이고 포로는 26,868명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1951년 3월 25일까지 9개월 간 전과에 대해서는 유엔군 26만여 명을 살상하고 65,368명을

24) 이재훈 역, 『6·25전쟁 소련군 총참모부 전투일보』, 군사편찬연구소.

25) 『최고사령관 명령』 82호, 1950. 8. 15, 『로동신문』 1950. 8. 15. 김일성은 1951년 1월 신년사에서 전쟁 후부터 8월 15일까지 64,000여 명을 살상포로로 했다고 말했다(『조선인민군』 1951. 1. 1).

26) "Special Report to the UN Relative to Prisoner of War: Enclosure F"(no date), 309/319, NARA.

27) 박헌영, 「현정세와 민주주의 제정당사회단체들의 임무」, 『로동신문』 1951. 3. 25; 김임,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발휘한 영웅적 조선인민군의 혁혁한 위훈」, 『근로자』 2, 1951. 5. 25, p.50.

포로로 억류하고 있다고 선전했다.²⁸⁾ 이 통계는 북한의 신문과 방송에 크게 보도되어 정전협상에서 포로규모를 추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1951년 1월 19일 평덕화이(彭德懷)가 마오쩌둥에게 보내는 전문 속에, 포로로 잡힌 남한 군대 사병 2만 명을 북한군 5개 군단에 나누어 배치하는 안을 제외한 점이²⁹⁾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이미 부상을 입은 포로 외에 전투에 투입할 만한 포로의 규모가 사병만 2만 명 수준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선전전단(『한국전쟁기 뼈라』, p.407)

전쟁 1주년을 앞두고 살포한 북한군 선전전단에서 1951년 5월 22일까지 국군과 유엔군포로 수가 85,428명이라고 선전했다.³⁰⁾ 그 후 1951년 6월 25일 전쟁 1주년을 맞이하여 북한군 총사령부는 한국군 등 유엔군 598,567명을 살상·포로로 하였고 그 중에서 포로가

28) 『로동신문』 1951. 4. 9; 『조선인민군』 1951. 5. 1; 「백전백승의 투지 드높이 전과를 확대하며 앞으로!」, 『조선인민군』 1951. 5. 2; 「인민군의 전투력강화는 우리 인민들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로동신문』 1951년 5월 6일자 사실; 『평양방송』 1951. 2. 9, 3. 25, 4. 8, Office of the Chief of Staff, “Staff Study Relating to Voluntary Repatriation”, Feb. 19, 1952, Tab c, Box 126/Record Group 319, National Archives(이하, Box/Record Group, NA 생략).

29) 「마오쩌둥이 평덕화이의 한반도 작전 문제에 관한 전보를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 1951. 1. 26, 심지화편, 『6·25전쟁: 러시아 문서보관소의 비밀 해제문서』(중권), p.670.

30)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한국전쟁기 뼈라』, 2000, p.407; 이윤규, 『들리지 않던 총성 종이폭탄』, 지식터미, 2006, p.290.

108,257명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다.³¹⁾ 이는 전쟁 당시 북한군이 포로의 숫자를 명시적으로 밝힌 최대 규모였다. 그런데 아군은 이 통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나, 전쟁 당시 남부군 유격대에서는 이날 북한군 총사령부 보도를 입수해 기관지 『승리의 길』에 이미 게재했다.³²⁾

여기에는 좌익 빨치산 활동 전과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국군과 유엔군이 북진하는 동안 북한에서 활동했던 반공 치안대원도 북한 빨치산에 의해 포로가 되었다. 황해도 지역 빨치산들은 1950년 10월 23일에서 12월 8일까지 치안대 115명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강원도 안변군 ‘최상을 인민유격대’에서 1950년 12월 하순 6일 간의 전투에서 900명을 포로로 했다고 했다. 춘천 일대에서 활동하던 ‘윤상철 유격대’에서도 1950년 10월에서 1951년 1월까지 395명을 포로로 했다고 한다. 울산 지역에서 활동하던 빨치산도 1951년 3월 28일에서 5월 17일까지 국군 및 스파이 82명을 획득한 전과를 올렸다고 보고했다. 태백산 ‘홍현기 유격대’도 국군 480명을 포로로 했고, 영월과 정선을 비롯해 제천과 단양 일대에서 활동하던 ‘김응빈 유격대’는 1951년 5월을 전후에 743명을 포로로 했다고 주장했다. 충남빨치산에서도 1950년 10월에서 이듬해 6월까지 9개월 동안 총 673명을 생포했다고 보도했다.³³⁾

한편, 전체 포로 규모 가운데 국군포로가 다수를 차지하겠지만, 그 비중은 알 수 없다. 다만 1951년 3월 26일 10여 명의 중국군의 호송 아래 100여 명 포로가 도로변을 따라 북한으로 이송되고 있을 때, 국군 60%

31) 전후 자료에서는 포로의 수가 누락되어 있다(『해방후 10년일지』, p.91)

32) 조선인민유격대 남부군 기관지, 『승리의 길』 12호, 1951.7,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빨치산자료집』 7, 1996, p.17. 1950년 12월말 북한군 총사령부의 6개월 간 다른 전과와 함께 적군포로 38,500명을 모스크바에 보고했던 점에 비추어 1년 간의 전투 총결도 보고되었을 것이다.

33) 『충남로동신문』 1951.6.25; 『조선중앙년감』 1951-1952, p.413, pp.415-416, 417-419.

미군 30%, 기타 영국·터키·프랑스·캐나다·필리핀 등 유엔군이 10% 수준이었다고 한다.³⁴⁾ 중국군 통계에 따르면, 1950년 10월 그들의 개입 이후 1951년 6월 10일까지 국군포로는 아군포로 36,835명 가운데 29,278명으로 거의 80%를 차지했다.³⁵⁾

나. 1953년 7월 금성전투 포로 규모

미귀환 국군포로 문제와 관련하여 한때 통일부에서 금성전투에 주목한 이유는 탈북포로 가운데 노사홍을 비롯해 상당수가 이 전투에서 포로가 되었기 때문이다. 금성전투에서 국군포로의 규모는 중국군 제20병단 사령관 양용(楊勇)³⁶⁾이 밝힌 최소 2,836명에서 군 당국에서 정리한 전사자와 실종자 총수인 5,569명³⁷⁾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1953년 6월 8일 휴전협상의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포로 문제가 타결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로 이승만 대통령이 송환을 거부한 반공포로를 석방시키자, 중국군은 휴전을 앞둔 상황에서 자신의 군사력 우세를 과시하고 반공포로 석방을 보복하기 위해 7월 중순 김화와 금성천 사이의 돌출부를 점령하기 위한 대규모 공세를 가해왔다.³⁸⁾ 중국군은 7

34) 陣興九, 『朝鮮戰場一千天』, 군사과학출판사, 2003, p.9.

35)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부(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세계사, 1991, p.3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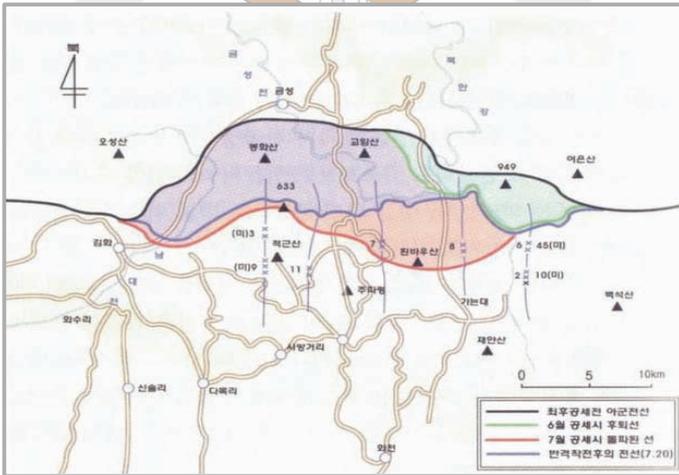
36) 그는 후에 중국지원군 부사령관, 사령관을 거쳐 1958년 귀국했다.

37) 이 규모는 노무자 등이 제외되었으므로 실제로는 약간 늘어날 수 있다.

38) 7월 공세 이전에 이미 '6·10공세'(1953. 6. 10~18)는 휴전에 반대하는 한국정부로 하여금 휴전회담을 촉진시킨다는 명분으로 6월 10일에서 18일까지 중국군 제60군단이 중부전선 화천 북방의 금성돌출부를 방어하고 있던 국군 제2군단의 중앙 및 우익에 배치된 제8사단과 제5사단을 집중 공격했다. 아군 피해 현황은 중공군이 41,000여 명 사상 및 포로로 했다고 주장했다. 아군 전투사에는 7,300여 명의 사상자 발생했다. 전쟁 당시 국군 전체의 6월 실종자 수는 3,259명으로 집계되었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금성전투』, 1987, pp.96-97; 홍학지, 『홍학지 회고록』, 해방군출판사, 2002, pp.649-651; 군사편찬연구소 역, 『항미원조전쟁사』 3, 2005, p.623; EUSAK, "Command Report" June, 1953, 군사편찬연구소, HD 1532).

월 13일에서 중국군 6개 군단(제21·54·60·67·68·24군)을 동원하여³⁹⁾ 국군 제2군단의 제6·8·3·5사단과 인접한 미 제9군단 휘하의 국군 수도사단과 제9보병사단 일부가 방어하고 있는 금성돌출부를 공격했다.

먼저 중국군의 전과를 확인해 보면, 금성전투 시기의 북한 신문, 중국 『인민일보』와 『동북인민일보』 등의 전과 발표에서 포로를 구별하지 않고 78,000여 명을 살상 및 포로로 했다고 공표했다.⁴⁰⁾ 이 전과는 평터화이 사령관이 작전 전에 예상했던 전과 15,000여 명보다 4배 이상의 성과를 얻었다고 높이 평가되었다. 전후에 그 규모는 61,300여 명으로 약간 줄어들었고 중국군만으로는 53,000여 명을 섬멸한 것으로 정리되었다.⁴¹⁾



금성전투 상황도

출처: 『6·25전쟁의 실패사태와 교훈』, 육군군사연구소, 2014, p.506.

39) 인민군 2개 군단도 동원되었다(陣興九, 『朝鮮戰場 一千天』, p.474).

40) 『인민일보』 1953. 7. 25;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전쟁사』 3, 군사편찬연구소, 2005, p.679; 杜平, 『在志願軍總部』, 해방군출판사, 1989, p.601.

41)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p.385;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p.675.

그러므로 포로만의 통계를 알 수 없었으나 다행히 중국군 제3병단 제180사단 사단장 리종췌(李鐘玄)의 전투일기에 따르면, ‘제20병단 통보’에 근거하여 금성전투에서 2만여 명을 사살하고 2,000여 명을 포로로 했다고 기술되어 있다. 양용(楊勇) 제20병단 사령관의 회고록에서 제20병단은 한국군 등 52,783명을 섬멸했고, 그 가운데 2,836명을 포로로 획득했다고 보다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고 있다.⁴²⁾ 소련군사고문단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군 제20병단은 1953년 7월 13일에서 17일까지만 해도 한국군 수도사단, 제3보병사단, 6보병사단, 8보병사단 등과의 전투를 통해서 3,190명을 포로로 했다.⁴³⁾ 이 전투에는 중국군 제20병단 외에 제9병단 24군이 참가했으므로⁴⁴⁾ 이들의 전과 속에서도 일부 포로인원이 있었을 것이다.

아군 전투상보에 따르면, 국군 피해상황은 수도사단의 경우 1953년 7월 13일에서 16일까지 전사 1,026명, 실종 1,418명이었고, 제8보병사단의 경우 <표 2-1>과 같이 7월 13일에서 21일까지 전사 312명, 실종 1,136명이었다.⁴⁵⁾ 이를 종합한 전투사에 따르면, 전사 2,689명, 부상 7,548명, 실종 4,136명 등이었다.⁴⁶⁾

2006년 7월 현재 국군 장병의 병적을 전산화하여 정리한 통계에 의하면, 1953년 7월 12일에서 27일까지 전사자와 실종자는 모두 5,569명

42) 孫阿冰 편, 『李鍾玄戰鬪日記』, 북경 : 해방군출판사, p.482; 舒云, 『楊勇上將』, 북경 : 해방군문예출판사, 2005, p.23.

43)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p.39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2, 2001, p.256. 소련고문단 기록에는 금성전투 기간을 7월 13일에서 18일까지로 기술했다.

44)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p.669.

45) 『한국전쟁사료』 42, p.299; 『한국전쟁사료』 56, p.1,056. 이때 수도사단 육군수 기갑연대장이 전사했다.

4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금성전투』, 1987, p.194.

이었다. 이 가운데 실종자는 31명에 불과하여 최근 탈북해 온 포로 중 전사처리자가 많은 이유를 설명해 준다.

〈표 2-1〉 국군 제8보병사단 피해 현황(1953. 7. 13~21)⁴⁷⁾

(단위: 명)

	전 사		실 종	
	장 교	사 병	장 교	사 병
제10연대	2	75	7	434
제16연대	4	75	4	305
제21연대	4	143	7	365
사령부	2	7	5	9
합계	12	300	23	1,113

다. 3년간 전과 종합

휴전협상이 진행되면서 북한군과 중국군의 전과 통계에서 일부 개별 전투를 제외하고 ‘조중연합사령부’나 북한군 총사령부에서는 포로를 따로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군포로를 포함한 유엔군포로의 규모에 대해 여러 가지로 추정하고 있으나,⁴⁸⁾ 추정치로는 전쟁 중 휴전협상에서 보듯이 포로 규모에 대해 공산 측을 압박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서는 그들이 전쟁 후 1년 간 공식 발표한 108,257명에 대한 해명을 적극 요구해야 할 것이다.

108,257명은 전쟁 개시 후 1년 간의 통계이므로 휴전까지는 포로가

47) 『전쟁사료』 56, p.1056.

48) 논자에 따라 국군포로의 규모만으로도 8~9만 명, 많게는 11만여 명을 주장하기도 한다 (제성호, 『미귀환 국군포로문제 해결방안』, pp.18-19; 김복동, 「국군포로 현황과 실태」, pp.26-27).

더욱 많았을 것이다. 그런데 휴전 후 공산 측으로부터 귀환한 유엔군포로의 총 수가 13,000여 명에 불과함으로, 1951년 12월 18일 교환한 11,000여 명에서 불과 2,000명 정도가 증가된 셈이나 <표 2-2>와 같이 그들의 발표에 의하면 국군과 유엔군포로의 수는 살상자의 규모와 함께 계속 늘어났다.

〈표 2-2〉 북한 측, 아군포로 관련 발표 종합

(단위 : 명)

기 간	포 로		살상·포로 (누계)	비 고
	기간별	누 계		
1950. 6. 25~7. 14	6,544			국군
1950. 6. 25~8. 15			64,000여 명	국군·유엔군
1950. 6. 25~12. 25	38,500	38,500	208,200	국군·유엔군
1950. 12. 26~1951. 3. 25	26,868	65,368	325,368	국군·유엔군
1950. 6. 25~1951. 5. 22		85,428	424,697	국군·유엔군
1950. 6. 25~1951. 6. 25	108,257	108,257	598,567	국군·유엔군
1950.6~1951.10			779,000여 명	국군·유엔군
1950. 6. 25~1953. 6. 24			989,391	국군·유엔군
1950. 6. 25~1953. 7. 27			1,093,839	1953.7 현재
1950. 6. 25~1953. 7. 27			1,567,128	1993.7 현재

중국군이 1951년 6월 중순 이후 1953년 7월까지 한국군포로 8,254명을 포함하여 총 9,253명을 추가로 포로로 했다고 정리한 것⁴⁹⁾처럼 포로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 공산 측은 사상자와 포로의 수를 합쳐서 발표한 경우가 많았다. 전쟁 후 1951년 10월까지 17개월 동안 북한군은 중국군과 함께 국군과 유엔군 등 779,000여 명을 살상·포

49)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p.394 ; 『라주바에프의 6·25전쟁보고서』 2, p.256.

로 하였으며,⁵⁰⁾ 중국군 개입 이후 중국군과 북한군의 1년 전과를 선전하면서 사상자 및 포로가 387,000여 명이고 그 가운데 미군이 176,655 명이라는 성과를 거두어 미군이 받은 손실은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첫해의 사상자를 초월하였다고 주장했다.⁵¹⁾ 1952년 6월 25일 북한군 총사령부는 1951년 6월 26일에서 1952년 6월 15일까지 종합전과로 국군과 유엔군 325,479명을 살상하거나 포로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국군은 185,885명이고 미군은 129,945명이었다.⁵²⁾

1953년 6월 24일, 북한군 총사령부에서 인민군과 중국군은 3년 동안 국군과 유엔군 989,391명을 살상하거나 포로로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그중 한국군은 580,644명이고 미군이 380,773명이었다. 그후 1953년 8월 15일 북한군 총사령부와 ‘중국지원군사령부’는 공동으로 전쟁 이후 정전까지 37개월 간의 전쟁 중 미군 397,543명, 남한군 667,293명, 기타 29,003명 등 모두 1,093,839명을 살상·포로로 했다고 발표했다.⁵³⁾ 이는 1968년에 발간한 『조선인민군』에서도 재확인하였고, 중국 군사과학원에서 발간한 『중공군의 한국전쟁사』에서도 이를 확인했다.⁵⁴⁾

북한군이 선전한 포로 숫자 속에는 우리 정부에서 전쟁 당시나 정전 후 실종자 혹은 전사자로 처리되었으나, 포로인 경우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규군 외에 북한 지역에서 국군과 유엔군이 복진할 때 활동했던 치안대, 반공단체 맹원 등과 같은 민간인역류자와

50) 김재욱, 「조선인민군은 조국 해방전쟁 행정에서 더욱 단련 장성되었으며 조선인민의 강력한 무장력이 되었다」, 『로동신문』 1952. 2. 7; 『조선중앙년감』, 1951-52, p.408.

51) 『인민일보』 1951. 10. 24, 25; 중국군, 『前進戰士』, 12, 1951. 11. 1; 장건 외, 『지원제1일임 참모장 解方將軍』, 군사과학출판사, 1997, p.164.

52) 『해방 후 10년일지』, p.95.

53) 「주 평양 신화통신문」 1953. 6. 25; 『로동신문』 1953. 8. 15; 『동북조선인민보』 1953. 8. 16; 『해방후 10년일지』, p.99; 『조선중앙년감』, 1954-55, p.473.

54) 지원군 영웅전 제1집, 지원군영웅전 편집위원회편집, 1956, 해방군출판사, p.5.

학도의용군, 유격대원, 경찰 등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심지어 남한에서 활동하고 있다가, 전쟁 중 그들에게 붙잡힌 외국인 선교사나 외교관과 같은 민간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⁵⁵⁾

그런데 북한군의 전과 총계는 1970년대 말부터 미군 405,498명, 국군 1,130,965명, 기타 30,665명 등 총 1,567,128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국군의 피해 규모는 60여만 명에서 113만여 명으로 크게 부풀려졌다. 이 통계는 1993년 ‘조국해방전쟁승리 40돌’을 맞이하여 발표한 종합전과에서도 재차 확인되었다.⁵⁶⁾ 그 이유로 <표 2-3>와 같이 중국군의 전과가 70여만 명인데 비해 북한군 전과는 30여만 명에 불과했으므로, 북한당국이 이를 조정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하다.

<표 2-3> 중국군 전과 종합 통계(1950. 10. 25~1953. 7. 27)⁵⁷⁾

(단위: 명)

구분	1950. 10. 25-1951. 6. 10	1951. 6-1953. 7	합 계
살 상	111,775	542,541	654,316
포 로	36,567	9,495	46,062 ⁵⁸⁾
투 항	149	286	435
계	148,491	552,322	700,813

55) 『조선일보』, 1953. 9. 8; 박진홍, 『돌아 온 패자』, pp.74-75; Larry Zellers, *In Enemy Hands: A Prison in North Korea*, 991; Philip D. Chinnery, *Korean Atrocity*, pp.14-16.

56) 『조선신보』 1979. 7. 27; 『조선중앙년감』, 1954-1955, p.473; 『조선인민군』, 평양: 외국문출판사, 1968;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27,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511; 박태호,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 p.349;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p.392.

57) 군사과학원군사역사연구소 편(한국전략문제연구소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세경사, 1991, p.392.

58) 국방대학 ‘전사간편’ 편사조, 『중국인민지원군전사간편』, 해방군출판사, 1992, p.201. 이 전 통계에는 전체 포로 수를 46,088명으로 정리했다(『중공군의 한국전쟁사』, p.392).

〈표 2-4〉와 같이 중국군이 포로 통계를 전후에 정리하여 발표했지만, 북한 측은 포로교환 문제와 연관되어 포로만의 통계를 발표하고 있지 않아서 전체 포로 통계를 알 수 없다. 중국군의 전과 가운데 포로 규모는 1950년 10월 25일에서 1953년 7월 27일까지, 국군 37,532명을 포함하여 총 46,088명이었다. 그런데 구 소련 국방부 문서에 따르면, 1950년 6월 25일에서 1953년 7월 27일까지 한국전쟁 3년 간 국군포로 41,350명, 미군 등 14,450명을 합쳐서 모두 55,800명이라고 정리되어 있다.⁵⁹⁾ 이 규모는 중국군이 획득한 포로 46,088명을 빼면 북한군이 3년간 획득한 포로가 9,712명에 불과하므로 전체 인원이 반영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표 2-4〉 공산 측의 아군포로 통계 차이

(단위 : 명)

구 분	계	국군포로	미군 등 유엔군
러시아 자료	55,800	41,450	14,450
중국군 전과 자료	46,088	37,532	8,556
북한군 자료	108,257		

전쟁 중 중국군 보도에 의하면 포로 규모를 살상포로 통계의 1/5로 추산한 적이 있다.⁶⁰⁾ 전투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이 비율을 적용하면 전후 공산 측의 전과 규모가 약 100만 명이 되므로 포로만의 규모는 최

59) 심현용 편, 『6.25전쟁 연구경향 및 사료해제』, 군사편찬연구소, 2009, p.410.

60) 『인민일보』 1951. 5. 9; 『동북조선인민보』, 1951. 5. 10. 1950년 11월 25일에서 12월 1일까지 23,700명을 살상 포로로 했다는 주장 중 포로 인원은 7,625명을 차지하여 1/3 수준인 적도 있었다(기석복, 「조선인민군의 역사적 승리와 정전 협정 2주년」, 『역사과학』, 1955. 7, p.9).

대 20만 명까지 추산할 수 있다. 이 규모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휴전 후 북한 당국은 전쟁 기념일을 전후하여 노동당원이나 군인에게 6·25전쟁의 승리, 김일성의 전략전술 및 전과 등을 가르칠 때, 국군을 비롯한 미군·영국군·호주군 등의 포로 인원이 12~13만 명이라고 교육을 했다고 한다.⁶¹⁾

하지만 당시 전황에 비추어 북한 측은 전투성적을 과장하였을 것이다. 앞에서 정리한 대로 수많은 국군과 유엔군을 살상포로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김일성은 북한군이 전쟁 초기에 국군과 유엔군을 포위 섬멸하여 유생역량을 소멸하지 못하고 한갓 밀고만 나갔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⁶²⁾ 그들의 전과는 유엔군 측이 발표한 피해 규모와 크게 차이가 난다. 즉, 휴전 직후 유엔군사령부는 한국군의 사상자와 행방불명자가 30만 명 수준이었고 미군 약 141,000명, 기타 유엔군 14,000명 등으로 정리했다.⁶³⁾

개별 전투에서도 차이가 있다. 소련군사고문단의 자료에 따르면, 1950년 6월 26일 인민군 제3경비여단이 웅진반도를 완전히 점령할 때, 2,000여 명의 국군포로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당시 웅진반도에 있었던 국군 제17연대의 병력은 2,719명이었고, 자신들의 손실로 전사 113명, 실종 64명으로 기록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후방으로 철수하였으므로 과장된 전과로 여겨진다.⁶⁴⁾ 다만, 여기에는 이

61)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교육받을 당시 교육제강이라는 팜플릿에는 구체적인 숫자가 있었지만, 기억을 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62) 기석복, 「조선인민군의 역사적 승리와 정전협정 2주년」, 『력사과학』 55-7, p.5.

63) 「한국휴전에 관한 유엔군사령부의 특별보고서」, 1953. 8. 7, 『한국전쟁4년지』, 1955, C34-341.

64) 『라주바에프의 6·25전쟁보고서』 1, p.145, 151, 190; 김광수, 「한국전쟁 개전 당시 북한군의 작전계획과 웅진전투」, 『군사』 41, 2000. 12, p.342; 『6·25전쟁사』 2, 군사편찬연구소, 2005, pp.162-163.

지역에서 국군을 지원하였던 대한청년단원을 비롯한 준 군사부대원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중국군도 1950년 10월 25일에서 11월 5일까지 중국군의 제1차 공세시기에 평터화이는 국군 제6보병사단과 8보병사단, 미 제1기병사단 등 국군과 유엔군 13,147명을 살상포로로 했다고 보고했고, 1951년 8월 북한로동당이 발간한 책에도 13,000여 명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후에 15,000여 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⁶⁵⁾ 제3차 공세시기의 경우도 『조선인민군 중국인민지원군과의 공동작전』에는 13,000여 명이었으나⁶⁶⁾ 후에 19,000여 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개전 후 9개월간 포로의 수가 65,000여 명에서 3개월 후 10여 만 명으로 4만 여 명이나 증가한 것은 이전의 규모를 재정리하는 과정에서 늘어났을 수도 있지만 이 시기 중국군의 전과와 비교하여도 과장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국군포로의 규모를 75,000명이었다고 선전했다는 주장도 있으나,⁶⁷⁾ <표 2-4>와 같이 공산 측의 발표로는 북한, 중국, 구 소련의 통계가 차이가 있어 국군포로의 총 규모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규모의 차이에 대한 해명 요구와 함께, 북한에 대해 1951년 6월 25일 북한군 총사령부가 공식 발표한 108,257명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65) 「入朝第一次戰役的基本總結及第二步作戰方針」 1950. 11. 13, 『평택회군사문선』, p.335; 『조선인민군 중국인민지원군과의 공동작전』, 평양: 로동당출판사, 1951. 8, p.17; 『해방후 10년일지』, p.88.

66) 『조선인민군 중국인민지원군과의 공동작전』, 평양: 로동당출판사, 1951. 8, p.20.

67) 『韓戰祕史』, 홍콩: 현대출판사, p.354. 평양과 베이징방송에서 방송에서 국군 65,000명, 유엔군 1만 명 등 약 75,000명을 획득했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민경길, 「한국전쟁 포로에 대한 송환문제」,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과 전쟁포로 처리문제」, 1997. 6, p.53).



북한군 총사령부 보도(『로동신문』 1951. 6. 25)

2. 한국군 및 유엔군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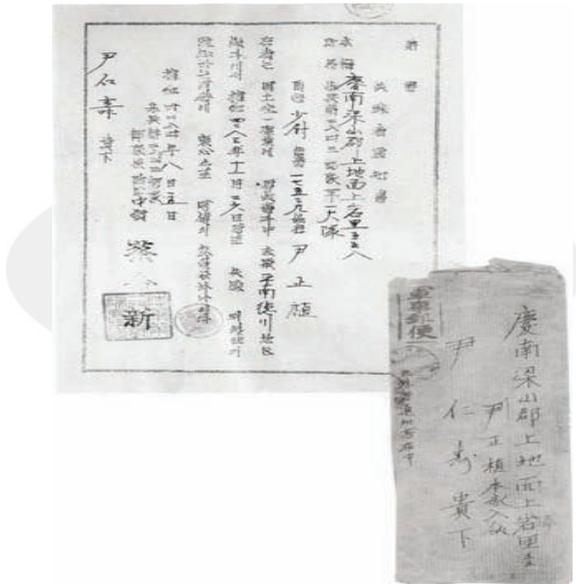
가. 정규군 포로 규모

1) 전시 자료

전쟁 시기와 전후에 정리된 군 당국의 자료를 토대로 국군포로의 규모를 추정하면, 귀환자(영현 포함) 11,000여 명과 실종자 등을 합쳐서 파

약할 수 있다. 실종자로 처리된 인원 가운데 탈북 국군포로 80명과 이들을 포함해 일반 탈북자 등을 통해 확인된 포로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국군 당국에서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포로들을 대부분 실종자로 분류했다. 그러므로 실종자 규모 가운데 일부 전사자를 제외하고 상당수가 포로일 것이다. 병사의 가족들은 실종통지서를 전사로 해석하여 제사를 지냈다.⁶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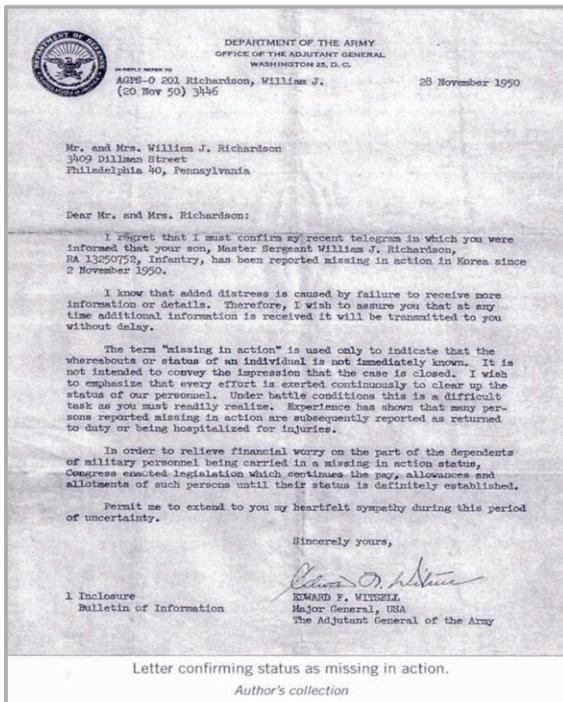


윤정식 실종자 통지서

육군 당국은 6·25전쟁 발발 이후 1950년 12월까지 실종자 규모를 47,556명으로, 이듬해 3월 9일까지는 63,959명으로 파악했다. 전쟁 직후 국

68) 성달오, 「대상도 지냈는데 돌아 온 남편 - 포로전말기」, 해병대3·4기전우회, 『참전실록』, 2002, p.375; 「포로수용소에서 탈출 성공한 윤정식씨」, 『조선일보』 2010.3.23; 윤정식, 『두 번하는 생일』, 지평, 1998.

방부 인사국장이었던 황헌친 장군은 1950년 7월 20일경 당시 병력이 33,000명에 불과해 10만 명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마산, 부산 등지의 가두에서 트럭을 동원해 탄실해 보이는 청장년을 징집했다고 기억했다.⁶⁹⁾ 미군이 아마도 한국군에서 전달받았을 포로를 포함한 실종자 수는 1950년 6월 25일에서 1951년 9월 13일까지 65,262명이었다. 그런데 이듬해 5월 26일까지는 실종자 복귀, 재확인 등을 통해 61,100명으로 조정되었다.⁷⁰⁾



미군 실종통지서

출처: William(Bill) Richardson, *Valleys of Death*, p.234.

69) 황헌친 증언, 창군동우회, 2012. 7. 18.

70) Office Chief of Staff, Department of Army, "Casualty Report" Sep. 14, 1951, RG 319, 국사편찬위원회; "UN Casualties" May 26, 1952, RG 554, 국립도서관.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의 참전 이후 유엔군 포로도 발생했다.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은 김일성의 남침을 소련의 세계 공산화 시도로 간주하여 적극 개입했다. 1950년 6월 24일 밤(워싱턴 시각) 북한이 전면적인 남침을 감행했다는 보고에, 미국 정부는 당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이튿날 ‘적대행위의 즉각 중지’ 결의와 27일에는 ‘한국원조’를 결의했다. 동시에 25일 백악관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군사지원 결정과 함께, 이튿날 회의에서는 38°선 이남에 해군과 공군이 참전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그래도 전황이 계속 악화되자 6월 30일에는 지상군의 참전이 결정되었다.

국군은 한강방어선이 무너진 후 지연작전을 위해 평택, 안성, 장호원 등을 선택했다. 하지만 주일 미군이 신속하게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의 남진은 계속되었다. 일본에서 달려 온 미 제24보병사단 스미스부대는 1950년 7월 5일 오산 북방 죽미령에 배치되어 북한군 제4보병사단의 남진을 저지하려했다. 그러나 스미스부대는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 제4사단 5연대를 맞아 첫 전투를 벌였으나, 북한의 탱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약 6시간의 전투 끝에 스미스부대원 430명 가운데 54명이 전사하고, 83명이 포로로 되었으며 실종자는 15명이었다. 7월 20일에는 북한군 제4사단 주력과 청주 쪽에서 탱크부대와 함께 정면을 공격하는 북한군 제3사단에 의해, 이날 오후 중반에 이미 대전이 무너지면서 미 제24보병사단 장병 가운데 465명이 죽고 295명이 포로와 실종자가 되는 타격을 입었으며, 사단 장마저 포로가 되었다.⁷¹⁾

북한군은 1950년 “8월을 전 한반도 해방 승리의 달”이라고 선포하면

71) Richard E. Ecker, *Korean Battle Chronology*, pp.5-7; Allan R. Millett, *The War for Korea, 1950-1951*, Univ. Press of Kansas, 2010, p.153.

서, 공세를 거듭했다. 이에 맞서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전선에서 필사의 전투를 벌여, 매일 사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했다. 8월 6일 하루에만 국군 225명이 전사하고, 127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85명이 실종되었고, 9월 15일 전투에서는 국군 355명이 전사하고 491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663명이 실종되었다. 미군도 8월 2일에서 9월 중순까지 전사자 4,599명, 부상 12,058명, 포로 401명, 실종 2,107명 등이 발생했다.⁷²⁾

인천상륙작전의 성공 이후 국군과 유엔군의 대대적인 반격으로, 북한군에 포로가 된 레이드(Kenneth R. Reid) 소위, 닐센(Robert R. Nielsen) 병장 등 91명을 구출해 일본에 후송시키는 기쁨도 있었다.⁷³⁾ 그러나 중국군의 공세 속에 아군포로가 크게 늘어났다. 1950년 12월 당시 한국군 병력은 208,556명(해병대 2,374명 포함), 미 8군에는 미군 136,525명과 배속된 카투사 12,573명, 미 10군단에 미 육군 44,121명과 미 해병대 22,679명 및 이에 배속된 카투사 12,758명, 영국군과 호주군 12,269명, 터키군 4,322명, 태국군 1,130명 등 총 473,663명이었다.⁷⁴⁾

미 육군부에서는 전쟁발발 이후 1951년 9월 중순까지 유엔군 실종자는 미군 10,681명, 기타 유엔군 1,415명, 한국군 65,262명 등 모두

72) 조성훈, 『한미군사관계의 형성과 발전』, 군사편찬연구소, 2008, pp.70-71. 1950년 9월 1일 미 8군은 참전 이후 실종자를 2,484명으로 보고했다. 후에 실종자 가운데 포로 인원은 약 900명으로 분류되었다(Allan R. Millett, *The War for Korea, 1950-1951*, pp.154-155).

73) 25th Infantry Division HQ, "Letter Orders- Liberated American POWs" Sep. 30, 1950, RG 319, 군사편찬연구소 SN 1895(7) 7. 그러나 숙천과 순천 지역에 투하된 미 제187공정대는 아군포로를 찾지 못했다(Allan R. Millett, *The War for Korea, 1950-1951*, p.288).

74) EUSAK, "Command Report" Dec. 1950, 군사편찬연구소 HD 1502, p.100.

77,358명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휴전협상에서 포로명단 교환 시, 유엔군사령부에서는 최소한 국군포로 6만 명과 유엔군포로 1만 명 등 총 7만 명을 기대했다.⁷⁵⁾ 유엔군포로 가운데 미 정보 당국은 미군포로 인원을 5,000명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었고 포로교환 후에 사망자를 포함해서 미 육군 포로는 6,628명이었고, 해병대, 공군 등을 합쳐 모두 7,140명으로 정리했다. 포로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육군 가운데 <표 2-5>와 같이 제2보병사단이 2,836명으로 제일 많았고, 이어서 제24보병사단이 1,177명이었다. 제1기병사단은 710명, 제25보병사단은 614명 순이었다.⁷⁶⁾ 영국군 포로 규모는 1953년 2월 10일까지 실종자 1,277명 가운데 996명으로 추정되었다.⁷⁷⁾



75) 정성관, 『판문점비사』, 평문사, 1953, p.72; Office Chief of Staff, Department of Army, “Casualty Report”, Sep. 14, 1951, RG 319, 국사편찬위원회. 1951년 7월 미군사고문단은 한국군포로 규모를 최대 4만 명으로 추정했다(PMG Advisor to G 1 Advisor: Repatriation of UN POWs, Jul. 25, 1951, 42/338, 국사편찬위원회).

76) 서주석, 『미국의 대북한 포로송환 정책』,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과 전쟁포로 처리문제』, 1997. 6. 10, p.32;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pp.191-192; Army Security Center, “Total US Army Personnel Captured in the Korean Operation”, June. 30, 1954, Arden A. Rowley ed., *U. S. Prisoners of War in the Korean War*, Korean War Ex-POW Association, 2002, p.23; Office Assistant Chief of Staff, G-1, Department of the Army, “Battle Casualties of the Army”, 816/ 407; “Missing in Action/ Prisoners of War”(www.thekwe.org/topics/pow_mia/index.htm, 검색일: 2014.10). 포로교환 후 실종자 12,608명 가운데 귀환자, 사망자 등을 포함해서 미군포로 규모를 5,822명으로 정리한 적도 있었다(Office of the Zone Staff Judge Advocate, HQ, KCOMZ, “Report on Operation ‘Big Switch’” Fe. 28, 1954, 23/ 319 CI files, p.8).

77) 郭維敬, 『世界第一等の戰俘營』, p.4; “British Commonwealth Missing In Action and POW Lists”, Jan. 1, 1953, 24/ 38, Office of Naval Intelligence, POW Desk, Operational Sect., 1949-1954, 국사편찬위원회.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시 영국군포로는 365,000명이었지만, 한국전 포로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어 회고록이 많지 않다(S. P. Mackenzie, *British Prisoners of the Korean War*, p.1).

〈표 2-5〉 미군 보병사단별 참전 시기와 포로 규모⁷⁸⁾

부대별	한반도 도착 일시	포로(명)
제24보병사단	1950.7.4~9	1,177
제25보병사단	1950.7.10~15	614
제1기병사단	1950.7.18~22	710
제2보병사단	1950.7.1~8.19	2,836
제7보병사단	1950.9.17~19	473
제3보병사단	1950.11	190
제45보병사단	1951.12	33
제40보병사단	1951.12	16

그런데 국군의 실종자 규모는 실종처리 후 복귀된 장병의 포함 여부에 따라 자주 바뀌었다. 즉, 1951년 12월 공산 측의 포로명단 교부 후, 유엔군 측은 한국군 88,000명과 유엔군 11,500명 등 총 99,500명에 이르는 실종자를 제시하여 반박했다. 당시 한국군 정전협상 대표인 이형근 소장도 육군본부의 실종자의 수를 토대로 국군포로 88,000명, 유엔군포로 12,500명 등 모두 10만 명 정도로 파악했다.⁷⁹⁾ 6개월 지난 1952년 6월 30일까지 국군 사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육군 피해 통계에서 실종자가 65,033명이었고,⁸⁰⁾ 1952년 10월 현재 국군 사상자 통계에 의하면, 〈표 2-6〉과 같이 실종자는 62,414명에 그쳤다.

78) Operations Research Office, the Johns Hopkins Univ., “US Army Battle Casualties in Korea”, Oct., 1956, p.31; Richard E. Ecker, *Korean Battle Chronology*, pp.185-190. 통계마다 포로 차이가 약간씩 있으나, 이 통계는 1954년 9월 30일 현재 미 육군부에서 정리한 원원이다(Albert D. Biderman, *March to Calumny*, p.160).

79) “CINCFE Tokyo to DA WASH DC for JCS”, Dec. 24, 1951, 1/218; 「국무부에서 포로문제 논의」 1952. 7. 25, 『남북한관계사료집』 12, pp. 260-261; 이형근, 『군번 1번의 외길인생』, 중앙일보사, 1993, p.73. 1951년 7월 당시 공산 측에 억류된 국군포로의 규모가 53,000명이라는 주장도 있었다(정성관, 「역사적인 반공포로석방」, 오소백편,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다』, 광화문출판사, 1962, p.200).

80) 『한국전란2년지』, 1952, p.D2. 유엔본부 비공식 통계에 의하면, 1952년 4월 30일 현재 국군 포로는 65,601명이라고 집계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통계에는 포로 외에 실종자가 105,672명이 따로 있어서 신뢰하기 힘들다(『한국전란2년지』, p.D4).

〈표 2-6〉 실종자 통계(1952. 12)⁸¹⁾

(단위 : 명)

구분	전 사	부 상	실 종	총 계
미군(~1952.12.24)	22,519	92,805	11,366	126,690
국군(~1952.10.18)	33,801	124,076	62,414	220,291
기타(~1952.10.18)	1,987	7,010	1,546	10,543
	58,307	223,891	75,326	357,524

포로명단이 교환된 후에도 전투는 계속되었으므로 포로와 실종자 규모는 변화했다. 정전 직전 미군이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통계에 따르면, 국군의 실종자와 포로는 대략 73,799명이었다.⁸²⁾ 정전 직후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언론에서는 귀환포로 외에 행방불명된 아군포로 규모가 유엔군포로 8,000명, 국군포로는 4~5만 명이라고 보도했다.⁸³⁾

정전 후인 1953년 9월 30일, 총 실종자 162,855명 가운데 복귀자가 85,822명으로 순 실종자는 77,033명이었으나,⁸⁴⁾ 1953년 8월 7일 유엔군사령부가 유엔에 제출한 ‘휴전에 관한 특별보고서’에는 국군포로와 실종자 수를 82,318명으로 정리했다.⁸⁵⁾ 이는 이전 통계를 활용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규모가 널리 소개되어 최근 미국의 한 연구자는 국군을 포함한 유엔군포로의 총수는 92,970명이고, 이 가운데 국군포로가

81) “Statistics Pertaining to Combat in Korea”, Jan. 6, 1953, 47/ 319, 군사편찬연구소, SN 1620.

82) 「유엔군사령부에서 미 육군부로」 1953. 7. 23, 8/218.

83) 『경향신문』 1953.8.8.

84) 『한국전란2년지』, p.D4(유엔본부 비공식발표 의거); “CINCUNC Tokyo to DEPTAR Washington”, 23 Jul 1953; 한국군 통계에 의거함(US Military Advisory Group to ROK, KMAG Statistical Summary, Sep. 30, 1953, SN 1845, p. 31).

85)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요약』, 1986, p.358; 정책기획관실, 『조국은 당신들을 잊지 않습니다』, 국방부, 2007, p.13. 국방부에서는 이 규모를 토대로 하고 있다(『국방백서』, 2012, p.110).

84,715명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⁸⁶⁾ 그런데 1956년에 발행된 육본 부관감실 자료에 의하면, 귀환된 포로의 수가 반영되어 전쟁 기간 중 실종자 수는 <표 2-7>과 같이 약간 줄어든 70,308명이었다.

<표 2-7> 실종자 통계표(1956)⁸⁷⁾

(단위: 명)

연도별	1950	1951	1952	1953	계
전 손 실	39,110	43,706	1,617	8,930	93,363
복 귀	6,066	13,086	1,067	2,836	23,055
실 손 실	33,044	30,620	550	6,094	70,308

2) 전후 실종자 재정리

<표 2-8>에 정리된 대로 1954년에서 1976년까지 8차에 걸쳐 유족신고와 관할 행정관서의 확인 등을 받아 정리한 실종자의 통계는 88,466명으로 늘어났다. 포로가 되었다가 탈출한 이항구, 이기봉, 조창호, 양순용 등은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많게는 8만여 명까지 추산했다.⁸⁸⁾

1956년 11월 육군본부는 예하 모든 부대장 앞으로 “실종 및 불명자 유가족 주소 확인”을 지시했다. 각 부대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유가족으로 하여금 빠짐없이 신고하도록 했다. 주소 확인자는 해당지구 병사구 사령관에게 친권자로 하여금 신고하도록 하고, 주소 미확인자는 실종

86) Pat McGrath Avery, *They Came Home : Korean War POWS Tell Their Stories*, Branson Creek Press, Kimberling City: MO, 2004, p. 13. 미군포로는 5,145명으로 정리되었다(Conduct of American POW, Chief, Collection and Dissemination to Commanding Officer, Army Security Center, 1954. 12. 12).

87) 육본, 『6·25사변 후방전사-인사편』, 1956, p.115.

88) 제성호, 『미귀환 국군포로문제 해결방안』, pp.18-19.

당시 소속 부대장이 병적 및 인적 사항을 조사한 후 해당 병사구에 통보하여 유가족으로 하여금 신고하도록 했다. 주소 및 소속을 알 수 없는 자는 각 부대장이 부하 장병에게 공시하여 당시 전우 또는 관련된 장병의 입증서를 구비하여 친권자로 하여금 신고하도록 했다.⁸⁹⁾

〈표 2-8〉 전후 전사 처리과정

횟수	처리기간	인원(명)	처리지침	근거
1차	1954. 1. 8-1956. 10. 30	15,179	유족 신고 행정 관서장 확인	국방부령 제2877호 (1954. 1. 18)
2차	1956. 11. 1-1957. 7. 30	55,407	유족신고 (미귀환 재복자 제외)	국방령 제950호 (1957. 2. 13)
3차	1957. 8. 1-1960. 1. 30	7,370	신고절차 강화 내무부 조사	국방령 제302호 (1957. 1. 4)
4차	1960. 2. 4-8. 31	3,313	병사구 사령부 월 2회 종합신고	국방령 제816호 (1960. 2. 5)
5차	1960. 9. 1-1962. 8. 31	4,306	관서장 확인 폐지, 출정자 신원조사서로 대치	국방령 제816호 (1960. 2. 5)
6차	1963. 3. 25-1964. 1. 2	1,192	실종불명확인서 접수	국방령 제1851-5989호
7차	1968. 1. 1-10. 31	54	군사원호법 개정	원호법 제2026호 (1968. 7. 10)
8차	1972. 8. 17-1976. 9. 30	1,645	시효 경과자 구제	특별조치법 (1972. 8. 17)
계		88,466		

경기도 이천 출신이고 외동아들인 이명환은 용산 포병교도대 나팔수로 의정부지구 전투에 투입되었으나 서울 함락 후 고향으로 피신해 있다가 1950년 8월 초 포로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쟁 직후 귀환한

89) 육본, 「실종 및 불명자 유가족 주소확인」 1956. 11. 17, 육본 기정단(필름 번호 117-11).



전쟁 이전 군복입은 이명한 모습

장호원 출신 친구가 함경도 포로수용소에서 목격했다고 가족에게 말했다고 한다. 그는 1950년 6월 25일 전쟁 당일 전사자로 처리되어 있었다. 또한 한 동안 납북자 명부에 올라 있었는데, 가족의 노력으로 포로로 재정리되었다.⁹⁰⁾

이렇게 접수된 인원 가운데 이미 군번이 있는 자 43,390명을 제외한 45,076명에게 군번 미 제시자로 신군번을 부여했다. 이 가운데 전역자, 노무자와 이중 군번 부여자 등을 제외한 41,767명⁹¹⁾을 실종자로 관리했다.

이어서 1997년 10월 국방부에서는 <표 2-9>처럼 그동안 추가로 확인된 인원을 포함하여 실종자 규모를 41,971명으로 정리했다. 이 가운데 전사자로 처리한 22,562명을 제외하고 본적 및 주소지 불명, 연고자와 유족도 없고 실종 및 사망과 행방불명 사유 등이 불명확한 19,409명을 ‘6·25참전 행불자(실종자)’로 정리했다. 이들도 1998년 3월과 4월에 각군 전사망 심의에서 정규군 19,409명과 비정규군⁹²⁾ 5,086명, 추가신고자 264명 등 총 24,759명 가운데 이중 등재자, 중복된 자를 제외한 24,215명을 전사자로 처리했다.

90) 홍기호(외 조카) 증언, 군사편찬연구소, 2012.5.8.

91) 1974년 행방불명자 55,108명을 17권으로 작성했다. 이 가운데 이중 등재자와 전역자 13,341명을 제외한 41,767명으로 정리했다. 그런데 이미 1957년 실종자 통계에서 장교 952명, 사병 41,429명, 군속 4명 등 총 42,385명으로 파악한 적이 있었다(「6·25동란 중 실종자통계」, 「포로관계 내한철」 1954-1958, 군정위 한국군 대표단 ETC00042), 이때도 실종자 중 2만 명 이상을 전사자로 처리했다.

92) 국방부에서는 ‘비군인’이라고 분류했다.

〈표 2-9〉 국군 실종자 통계 변화

연 도	실종자 규모 통계(명)
1951. 12	88,000
1952. 10	62,414
1953. 7	73,799
1956	70,308
1976	88,466
1997. 10	41,971(전사처리자 22,562명 포함)

그런데 이 통계 가운데 전사처리자는 그들의 생사가 확인되어 전사자로 분류한 것이 아니라, 전시에 3년 이상 실종된 자를 전사자로 처리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 예를 들면, 전쟁 당시 1953년 7월 14일 김화전투에서 실종자로 처리되었던 수도사단 제1연대 은태룡 하사는 1998년 전사자로 처리되었다. 제6보병사단 19연대 이종수 이등중사도 1953년 7월 16일 김화지구에서 실종자로 처리되었다가, 1998년 전사자로 정리했다.

이 가운데 미귀환 국군포로가 상당수 포함돼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이 명부에 근거하여 국군포로의 규모를 실종자 규모로 제한한다면, 국군포로의 총 규모는 귀환자와 합쳐도 3만여 명에 그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실종자 규모를 41,000여 명을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에 따라 정규군 국군포로의 규모는 귀환자(영현 포함) 11,000여 명과 실종자 41,000여 명 등 52,000여 명 이상이다.

나. 비정규군 포로 규모

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군 당국의 자료에 의한 포로와 실종자 규모

는 북한 측에서 주장한 포로규모와 차이가 많이 난다. 이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인원이 정규군이 아닌 군속, 노무자, 경찰 등이다. 휴전 후 귀환자 중에도 ‘비군인’ 출신자가 있었다. 부상병 귀환자 471명 가운데 장교와 사병이 아닌 인원이 47명이었고, 일반 귀환자 7,861명 가운데에는 759명이 정규군이 아니었다.⁹³⁾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각각 10% 규모가 정규군이 아니었다.

예를 들면 유격대원도 많았다. 중국군은 북한에서 활동을 하고 있던 황해도 수안군 ‘멸공구국회’, 신대리 치안대, ‘대한민족축진회’ 등 반공인사 90명을 획득하였던 것 외에도 미군 지원을 받아 동서해안에서 활동한 미 제8240부대 반공유격대원도 포로가 되었다. 이들 중 일부는 간첩죄로 처벌을 받거나 일부는 포로수용소로 보내졌다.⁹⁴⁾

노무사단 출신도 많았다. 1951년 7월 하순 한 해병대원이 포로가 되었을 때 노무자도 몇 명이 있었다.⁹⁵⁾ 경기도 가평군에서 정을준(하면상판리), 송영두, 이한직 등 노무자 7명이 북으로 끌려갔다. 북으로 이송되는 도중에 하면 하판리 양 모는 폭격을 맞아 사망했고, 이무영은 세뇌교육을 받아서 귀환을 거부했다.⁹⁶⁾

1953년 7월 김화 전투에서 포로가 된 김 모는 제103노무사단 출신으로 김화지구에서 수도사단을 지원하다가 1953년 7월 14일 중국군에 의해 포로가 되었다. 전후 북한에서 국군포로로 편성된 내무성 건설대 제1702부대 대원 가운데 125명이 노무자 출신이었다고 한다. 천마수용

93) 육본 인참부, 「포로관계철」, 1953-54, 육본 기정단.

94) 『衛國前線』, 1951. 4. 5,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한국전쟁기 중공군문서』 2, 2000, p.443; 조성훈,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군사편찬연구소, 2003, pp.590-594.

95) 해병대3·4기전우회, 『참전실록』, 2002, pp.618-619.

96) 송영철 증언, 경기도 남양주시, 2013. 4. 15.

소에서 수용되어 있던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 출신 허윤은 잦은 기침 끝에 1952년 7월경 사망했다.⁹⁷⁾

국군포로 귀환명부에도 ‘군속’ 혹은 ‘문관’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경기도 양주군 이담면(현 동두천시 생연동)에 주둔하고 있던 육군 제6보병사단 2연대 3대대 소속 수색대에서 귀향해 있던 학생들을 징발하여 수색대원으로 편입시켰다. 이 가운데 포로가 된 정경호는 귀환명부에 ‘군속’으로 처리되어 있다.⁹⁸⁾ 국민방위군으로 동원되어 나갔다가 영천에서 육군 제3보병사단 공병대대 중대본부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군속이 된 김원복은 1951년 5월 16일 현리전투에서 중대원 개인 배낭 수송을 지원하다가 포로가 되었다. 1952년 11월 포로가 된 신창균은 국군첩보대 제1지대 소속으로 포로가 되어 정전협정 후 귀환했으나 군번과 계급이 없는 ‘문관’ 신분이었다.⁹⁹⁾

전쟁 중 정규군이 아니라 사단에서 현지 입대시킨 청년들은 병적이 없었다. 이들 가운데도 포로가 발생했다. 예를 들면, 충북 청주시 출신 이상복은 청주대 1학년 재학 중이었다. 그는 육군 제8보병사단 16연대에 현지 입대한 후 1951년 2월 11일 전투에서 매형인 수송병과 연구섭 소위 등과 함께 포로



중학교 5학년경 이상복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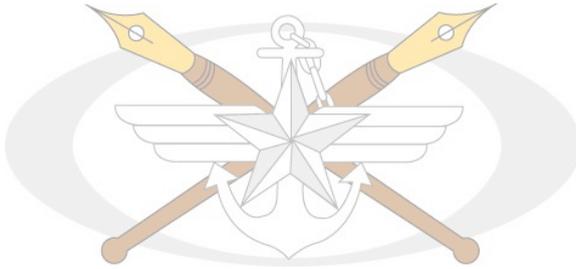
97) 김원복 증언, 한솔회 모임, 2013. 3. 21.

98) 정경호 증언, 군사편찬연구소, 2002. 8. 7.

99) 신창균, 「북한 11포로수용 생활수기」, 2004. 4. 8; 김원복 증언, 한솔회 모임, 2013. 3. 21. 김원복은 귀환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다시 징집되어 만기 제대했다.

가 되었다. 원산으로 이송된 후 매형과 다른 수용소로 분리되었다. 변구섭 소위는 휴전 후인 1953년 11월 15일 돌아왔으나 이상복은 귀환하지 못했다.¹⁰⁰⁾

북한군은 용산경찰대 서당석 순경을 포로로 처리했다.¹⁰¹⁾ 그러므로 전쟁 발발 이후 1950년 12월까지 경찰의 행방불명된 인원 6,492명¹⁰²⁾ 가운데 상당수는 포로로 처리되었을 것이다.



100) 이봉복 증언, 2012. 10. 19, 군사편찬연구소. 변구섭은 귀환 후 육군 제8사단에 복귀하여 대위로 진급했으나, 1958년 10월 3일 지뢰사고로 순직했다.

101) 「포로병들이 말하는 침입한 '국방군'의 와해상」, 『로동신문』, 1950. 7. 5; 문화부대장, 「지령: 적군와해공작 및 포로취급에 대하여」, 1950. 7. 16, 『해방직후 극비자료』, 6, 고려서림, 1998, p.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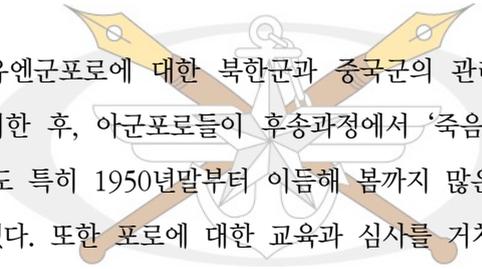
102) 『한국전란3년지』, p.D2.

제3장

북한군과 중국군의 포로 대우

- 제1절 포로 관리기구
- 제2절 포로수용소 위치
- 제3절 포로 대우와 사망자 규모
- 제4절 포로교육과 북한군 편입

제3장 북한군과 중국군의 포로 대우



국군과 유엔군포로에 대한 북한군과 중국군의 관리기구, 포로수용소 위치를 정리한 후, 아군포로들이 후송과정에서 ‘죽음의 행군’을 겪었고 수용소에서도 특히 1950년말부터 이듬해 봄까지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음을 규명했다. 또한 포로에 대한 교육과 심사를 거쳐 특히 국군포로가 노동부대를 포함한 북한군과 주민으로 편입된 규모를 추정했다.

제1절 포로 관리기구

전쟁 초기에는 북한군 후방총국이 국군과 유엔군포로를 관리했으나,¹⁾ 중국군 개입 이후 점차 역할을 분담하여 미국과 영국 등 유엔군 포로는 중국군이 주로 관리하고 국군포로는 북한군이 담당했다. 그러나 전선에서 포

1) 이기봉, 「5만 국군노병 포로, 북한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북한』 1998.6, p.40.

로를 인근 북한군에 인도하기가 여의치 않아 중국군이 관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1950년 12월, ‘중국인민지원군사령부’와 북한군 참모부는 북한군과 중국군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조·중연합사령부를 설치하였으나, 북한군이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포로를 관리하고 중국군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배후에서만 관리하거나 중국군이 국군포로에 대한 통제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1951년 4월 1일부터 중국군이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포로를 직접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수용소에서 북한군은 떠났다. 경비병도 중국군으로 교체하고 정치장교도 수용소에 왔다.²⁾

‘지원군사령부’는 중국군 총정치부에 건의하여 벽동 ‘지원군정치부’에서 포로관리를 위해 4개 포로수용소, 2개 포로대대, ‘志願軍政治部 俘虜管理訓練處’³⁾ 등을 설치하여 왕양공(王央公)과 쉬위웬푸(徐元甫)를 주임과 부주임으로 임명하여 포로수용소 연대를 통괄하도록 했다. 전선으로부터 후송되어 온 유엔군과 국군포로를 접수하여 4개 포로수용소 중 2곳은 유엔군포로, 나머지는 2곳은 국군포로를 관리하도록 했다. 그 후 중국군 정치부 주임 두핑(杜平)이 김일성을 만나 저우언라이(周恩來) 수상의 안을 전달했다. 그 내용은 포로석방 공작을 비롯해 외국군포로는 중국군이 맡고, 국군포로는 북한군이 담당하자는 것으로 김일성도 이에 동의했다.⁴⁾

이러한 합의 이전에도 국군포로의 경우, 대부분 북한군에 인계했다.

2) William(Bill) Richardson, *Valleys of Death: A Memoir of the Korean War*, p.240.

3) 전쟁 당시 북한 언론에는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전쟁포로관리처’로 성명을 발표했다(『민주조선』, 1953. 9. 7).

4) 杜平, 『在志願軍總部』, 해방군출판사, 1989, p.338, 486; 郭維敬, 『世界第一等的戰俘營』, p.3.

당시 국군포로는 중국군이 인근 북한군 부대로 인계하거나 북한군 호송병이 와서 데려 갔다. 이미 중국군 제1차 공세와 제2차 공세 초기에 포로가 된 1만여 명의 국군포로가 1950년 12월 12일에서 15일까지 북한군에 인계되었다.⁵⁾

중국군 참전 회고록이나 귀환포로의 증언에 의해 포로 인계과정이 구체적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면, 1951년 1월 1일 중국군 모 사단 제373연대 분대원 8명이 국군포로 50명을 후방으로 호송했다. 분대원 王繼文·徐國富 등은 재학 중 입대하여 전투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임무를 완성할 수 있을지 계속 불안해하면서, 국군포로를 북쪽으로 행군시켜 가평 북쪽 북한군 임시포로수용소에 도착했다. 그러나 북한군은 이미 철수해 버렸으므로, 그들은 이튿날 북한군 수용소를 찾아서 포로를 넘겼다.⁶⁾

1951년 1월 1일경 의정부에서 중국군에 의해 포로가 된 권 모는 다른 포로 20여 명과 함께 서울로 이송되었고 10일경 중국군 인솔 아래 도보로 철원으로 이동하여 북한군에 인계되었다가 이천 등지를 경유하여 평양외곽 강동포로수용소에 도착했다. 이 무렵 중국군에 의해 포로가 된 정모는 1월 3일경 북한군 제5군단 예비연대 소속 군관 등이 와서 국군포로 100여 명을 인계해 갔다고 진술했다.

이상과 같이 중국군은 주로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포로의 관리를 담당했다. 그러나 북한군은 포로가 된 딘(William F. Dean) 미 제24보병사단장을 중국군에게 빼앗길 것을 우려하면서 전후까지 그들이 관리했다.⁷⁾

5) 중앙일보사 편, 『민족의 증언』 3, 1983, p.304.

6) 「押解俘虜的路上」, 中國人民解放軍75200部隊政治部編, 『浴血朝鮮』, 北京: 解放軍出版社, 2001, pp.138-139.

7) 윌리엄 F. 딘(김희덕 역), 『딘 장군의 수기』, 창우사, 1995, p.172.

북한 정부는 1950년 7월 13일 북한군이 포로에 대한 제네바협약을 전적으로 준수할 것을 선언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포로를 획득하면 적정 수집이 우선이었다.⁸⁾ 중국군은 이미 내전시기로 부터 ‘인민을 위한 군대’를 표방하면서 대민관계를 중시하고 포로에 대한 관대정책을 강조했다. 마오쩌둥은 내전 시기에 국민당군 포로에게 교육을 시켜 여비를 주어 석방하거나 공산주의에 호의적인 자는 공산군에 편입시켰다. 1947년 10월 10일, 중국군 총사령부에서 중국군 행동지침으로 ‘3대 기율·8항주의(三大紀律·八項注意)’를 공포했다. ‘8항’ 가운데 “포로를 학대하지 말 것”이라는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⁹⁾

중국군 개입 이후에도 초기부터 포로에 대해서 관대한 대우를 한다고 선전했다. 유엔군의 투항을 권유하는 선전전단에서 생명의 보전, 인격모욕 금지, 개인 물품 몰수 금지 등을 보장한다고 했다. 나아가서 포로들이 총을 버리면 친구가 될 수 있다(放下武器, 就能成爲朋友)고 강조했다. 중국군 정치부에서는 북한군의 포로 학대, 살해 등이 잘못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¹⁰⁾ 중국에서 발간된 한국전쟁사에서는 모드 인도주의적 관대정책의 성과를 시종일관 강조하고 있다. 칭화대(淸華大) 출신으로 중국군 포로수용소에서 정치공작을 담당했던 궈웨이징(郭維敬)은 자신들이 세계에서 제일 나은 포로수용소를 운용했다고 주장했다.¹¹⁾

8) 경비국 참모부, 「적정 보고에 대하여」, 1951. 4. 20, 군사편찬연구소 SN 1363; 「소련 외무성 제1부상이 소련 내각회의 의장에게 보낸 보고서」, 1951.7.29, 군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 2006, p.726.

9) 최태환, 『젊은 혁명가의 초상』, 공동체, 1989, p.21; 이태호, 『압록강변의 겨울』, 다섯수레, 1991, pp.208-210; 손요우지에(조기정·김경국 역), 『압록강은 말한다』, 살림, 1996, p.74.

10) 朝鮮人民軍·中國人民志願軍, 「通知」, 군사편찬연구소 SN 1388; “Chinese Documents Found on PW”(Batch No.2007) Dec. 4, 1951, SN 1786; 「抗美援朝 三大守則」, 1951, 『한국전쟁기 중공군문서』 2, 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 2000, p.362; 북한군 제37사단 장교 증언, 2006. 10. 11.

또한 그들의 관대정책을 알리고 아군 기만, 와해 등을 목적으로 아군 포로 일부를 석방했다. 예를 들면, 1950년 11월 하순 국군과 유엔군이 크리스마스 공세를 개시하기 직전에, 중국군은 유엔군을 기만하기 위해 그동안 억류하고 있던 미군 27명, 한국군 76명을 풀어주었다. 이때 육군 제6보병사단 소속 김석수, 신차수 등도 아군 부대로 복귀할 수 있었다.¹²⁾ 이후 1951년 2월 9일 버클랜드(Lawrence E. Buckland) 병장을 비롯한 3명의 오스트레일리아군이 석방되었고,¹³⁾ 같은 해 5월 24일 미 해병대 포로 18명을 비롯해 59명을 춘천 인근에서 석방했다. 이는 중국군에게 포로관리 부담을 경감시키고, 한편으로는 포로우대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국군이나 유엔군포로는 북한군보다 중국군의 포로관리를 선호하게 되었다.¹⁴⁾

그러나 1951년 7월 휴전협상이 시작되기 전, 공산군 측은 국제적십자사에 단지 100여 명의 유엔군포로를 보고했을 뿐이다. 그들은 개전 이후 계속하여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를 선전했으나 실제로는 포로 규모도 보고하지 않고, 국제적십자사나 다른 구호기관의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11) 祝繼光, 『戰俘營奧運紀實』, 북경: 해방군출판사, 2005; 郭維敬, 『世界第一等的戰俘營』, 북경: 중국사회과학출판사, 2010, p.2, 71; 袁永生 主編, 『항미원조珍藏圖片集』, 四川大出版社, 2010, pp.328-329; 西虹, 『항미원조戰地日記』, 長征출판사, 2011, pp.563-570.

12) 국방부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단, 『6·25전쟁 국군 유해소재 증언집』, 2001, p.5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사』 7, p. 206. 당시 석방된 인원에 대해서는 유엔군 25명, 국군 77명 등으로 기억하기도 했다.

13) "Australian prisoners"(http://korean-war.commemoration.gov.au/prisoners-of-war/australian-prisoners-of-war-in-korea.php(검색일: 2014.2.24))

14) 「지원군 중상전부를 이렇게 처리했다」, 『해방군보』, 2000. 11. 13 ; 押解俘虜的路上, 『浴血朝鮮』, pp.138-139; GHQ, FEC, SCAP and UNC, "Chinese Communist Treatment and Attempted Political Indoctrination of U.S. Marine POW" July 11, 1951, NARA/ 국립도서관; Lewis H. Carlson, *Remembered Prisoners of a Forgotten War*, p. 122; Cyril Cunningham, *No Mercy, No Leniency*, South Yorkshire, Leo Cooper, 2000, p.58, 62. 중국군 휴전협상 대표단이었던 리커닝은 이렇게 석방된 규모를 1,000명이라고 기억했다(『중국군 장군들의 한국전쟁 회고』, p.296).

했다. 중국군의 관대정책도 그들에게 협력했을 때에는 보상이 있었지만, 저항하게 되면 야만적인 대우를 했다. 한 귀환포로의 지적처럼 관대정책은 동물적 생존 수준에서 대우를 향상시킴으로써 호감을 샀던 측면이 있었다.¹⁵⁾

제2절 포로수용소 위치

유엔군이 북한군과 중국군포로를 수용하였던 수용소는 부산·거제도·제주도 등으로 잘 알려져 있었으나, 공산군 측의 포로수용소 가운데 국군을 수용한 곳이 만포 부근이고 유엔군을 수용한 곳이 벽동이었다¹⁶⁾는 사실만 알려졌을 뿐 위치부터 잘 알려지지 않았다. 중국군도 포로수용소의 위치를 밝히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벽동수용소에 구장(ball field)을 만들어 속이기도 했다.¹⁷⁾

전쟁 추세에 따라 수용소가 폐쇄, 이동, 신설 등 위치가 바뀌고 규모가 달라졌다. 초기부터 알려진 수용소는 벽동, 만포진 등으로 압록강변에 위치했다. 이는 전후 북한 정치범수용소가 북한 내륙 산간에 있는 것과 구별된다. 15,000명이 수용된 것으로 알려진 제14호수용소는 평안

15) "Command Report", 1951.6,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p.115; James A. MacDonald, Jr., "The Problems of U.S. Marines Corps POWs in Korea", History and Museum Division, HQs, U.S. Marine Corps, Washington, D.C., 1988, pp.60-61; Richard Peters and Xiabing Li, *Voices of from the Korean War.*, p.238.

16) 배동길, 『북한포로수용소를 찾아서』, 1962, p.13.

17) William(Bill) Richardson, *Valleys of Death: A Memoir of the Korean War*, p.276.

남도 개천군에 있다. 3만 명이 넘게 수용된 것으로 알려진 제15호 요덕 수용소는 이전 함경남도 영흥군(요덕군으로 편입)에 위치하고 있다. 제18호수용소는 평안남도 북창군에 소재하고 있다.¹⁸⁾

공산 측은 국제적십자사에 포로규모를 통보하지도 않았고 적십자사 대표의 포로수용소 방문을 거부했다. 유엔군사령관은 1950년 7월 18일 비에리(Frederick Bieri)를 국제적십자사의 남한 지역 대표로 인정하여 각지의 수용소를 감시할 수 있게 하였고, 그들에게 충분한 협조를 하도록 했다.¹⁹⁾ 그런데 공산 측은 포로에 대한 인도적인 주의와 관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므로 국제적십자사의 포로수용소 방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제네바협약의 준수를 선언하면서 포로수용소 방문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적합하므로 중립국감시위원회의 대표로 하여금 수용소를 방문하도록 하거나 보호국의 동기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활용하여 거부하도록 고민했다.²⁰⁾

1951년 12월 포로명단 교환 시, 공산 측으로부터 국군포로 7,142명이 수용된 수용소가 명시된 명단을 받았다. 이때 국군 포로수용소로 언급된 곳은 제7, 8, 9, 10, 11수용소에 불과한 것으로²¹⁾ 수용소별로 배치된 인원은 제7수용소 831명, 제8수용소 1,591명, 제9수용소 1,528명, 제10수용소 2,235명, 제11수용소 957명 등이었다. 이처럼 북한 측이 국군포로의 규모를 크게 축소하면서 수용소의 숫자와 각 규모에 대해 제대로 밝혀지

18) 강철환, 『수용소의 노래』, 시대정신, 2005, pp.56-57; 블레인 하든(신동숙 역), 『14호수용소 탈출』, 아산정책연구원, 2013, p.31.

19) "SCAP Tokyo to Sec State" 1950.7.23, 17/338.

20)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원 팡덕회, 「유엔군 총사령관 릿지웨이 앞」 1951. 12. 24, 『조선중앙년감』, 1951-52, p.227; 「소련 외무성 제1부상이 소련 내각회의 의장에게 보낸 보고서」 1951.7.2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 pp.726-727.

21) 「포로의제에 관한 참모장교회의 부록」 1952. 1. 24, 『남북한관계사료집』 7, p.16.

지 않았다.

정전협정이 조인된 후 포로위문을 위해 유엔군 측과 공산 측의 적십자사 대표가 각각 포로수용소를 방문하기로 했다.²²⁾ 1953년 7월 말 회의에서 북한 적십자사 대표 장익이 송환될 포로들이 수용되어 있는 국군과 유엔군포로수용소 14곳과 강계에 있는 병원수용소에 대해 언급했다. 이때 처음으로 국군과 유엔군포로수용소의 위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알게 되었다. 국군포로는 대부분 의주 인근의 천마,²³⁾ 강계, 만포 등지에 위치해 있었다. 제1수용소에서 제5수용소까지 유엔군포로가 수용되어 있고, 벽동에 있는 제6수용소부터 국군포로들이 수용되어 있었다.²⁴⁾

공산 측이 판문점 유엔군사령부에 제공한 것에 따르면, 만포에 7개 수용소와 약 6,000명의 포로가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서 미국 적십자사 대표인 코론(Gerald Coron)이 각 수용소에 있는 포로의 수, 수용소 위치 등을 요청했으나, 그들은 여전히 거절했다.²⁵⁾ 부상병을 포함한 국군포로들이 귀환하면서 벽동·화풍·천마·우시·외귀(外貴)·만포진·삭주·북진(北鎭)·강동·황주 등이 알려졌다.²⁶⁾

전쟁 중 전체 포로규모와 사망자·북한군 편입인원 등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용소와 포로의 행방을 추적하는 방법은 북한 수용소에서 탈출한 포로의 진술, 상병포로와 휴전 후 돌아 온 포로들의

22) 유엔군 측 적십자단 한국 측 대표는 배동걸(수석 대표), 박재옥, 신제범, 박제식, 정도순, 장익진, 장시죽, 최종산, 김영옥 등이었다(육본 정보참모부, 『판문점』 하, 1972, p.595).

23) 원래 평안북도 의주군 고령사면 천마동이었으나, 천마군 천산리로 바뀌었다(오용일, 『천마수용소』 하, p.39)

24) 유엔군사정전위원회 본부, 「제2차 합동적십자사 회의」, 1953. 7. 31, 8/333, 군사편찬연구소 SN 1918(4)-1.

25) The Joint Red Cross Teams in Korea, "The Draft of the POW Report", 28 Jan. 1954, p.17, p.21, 3/389.

26) 중앙일보사 편, 『민족의 증언』 3, p.298.

증언이다. 그리고 전쟁 중 미군 통제 아래 첩보부대에서 각 수용소별 규모에 대한 첩보를 수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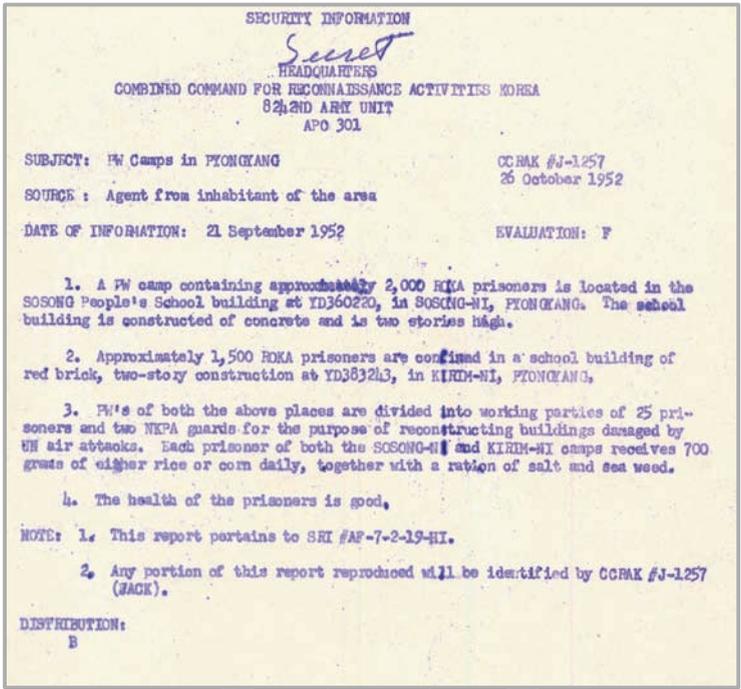
미군은 전쟁 당시 북한에 있는 국군 및 유엔군포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귀환한 포로가 제공하는 정보 이외에 제302군사정보대(MISD), 제6004공군첩보부대(AISS), 연합정찰사령부(CCRACK) 등을 통해 수용소 위치와 포로 규모를 계속 추적했다.²⁷⁾ 북한 측은 국군포로를 수용소 외에 학교, 공장 등지에 포로 표지도 없이 임의로 수용시켰기 때문에 그 규모에 대한 추적은 제한적이었다. 북한군은 포로를 수용소에 모두 수용하지 않고, 노동부대나 일반주민으로 편입시킨 후 포로수용소를 폐쇄시키기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1951년 11월 2일 미 극동군사령부는 북한 지역에 30~35개의 포로 수용소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 외에 18개 수용소는 만주를 비롯한 중국 지역에 있을 것이며, 이 가운데 12개를 영구수용소로 추정했다.²⁸⁾ 포로명단이 교환된 직후에도 미군은 북한에 있는 29개 수용소 가운데 11개 수용소의 포로들만 등재하였을 뿐이고, 만주를 비롯한 중국에 있는 최소한 18곳의 수용소에 있는 포로들이 탈락되어 미군포로 가운데 40~50%는 만주 등지로 보내진 것이라고 추정했다.²⁹⁾ 하지만 국군과 유엔군의 북진 시기에 일시적으로 만주지역으로 이송한 경우 외에 포로 수용소는 북한 내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7) CCRACK 8242nd Army Unit Combat Report, April-Aug. 1953, 군사편찬연구소 HD 1967-1971 ; HQ Partisan Command, FEC LD(K), 8240th AU, "Monthly Command Report," March 4, 1953, CCRACK, 8242nd AU, "Combat Report File" 1952-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65.

28) "CINCFE Tokyo to DA, WASH", Dec. 30, 1951, 1/218.

29) "JCS to CINCFE Tokyo", Dec 20, 1951, 1/218.



수용소 관련 연합정찰사령부 첩보보고서(1952. 10. 26)

휴전 무렵 공산 측이 발표한 수용소는 모두 17개 소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 외에도 미군 정보부서는 귀환포로, 첩보원, 현지주민 등으로부터 확인한 수용소 15개소, 미확인되었지만 수용소로 추정된 곳 18개소로 파악했다(구체적인 수용소 리스트는 부록 4) 참조).³⁰⁾ 이 가운데 주요 포로수용소는 다음과 같다. 이 가운데 제1포로수용소에서 5수용소까지는 주로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포로들이 수용되었다.

제1포로수용소는 1951년 3월 창성군 창리(임산동)³¹⁾에 설치되었을

30) "CGAFFE(ADV) Tokyo to DEPTAR Wash DC", July 11, 1953, 45/ CIC 319.
31) 포로교환 직전에 유엔군 측 적십자단이 방문한 제1수용소 위치는 창성 부근 옥계(玉溪)였다(육본 정보참모부, 『판문점』 하, 1972, p.595).

때, 미군과 영국군포로 2,000명이 수용되었다. 1951년 10월경 장교포로는 모두 제2수용소로 이송되었고, 이듬해 8월에는 부사관포로가 제4수용소로 떠났으며, 흑인포로는 제5수용소로 옮겨갔다.³²⁾ 전쟁 중 제1포로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유엔군포로의 규모로 400명, 800명, 혹은 1,300명까지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첩보를 수집했으나, 1953년 8월 한국과 국제적십자사 대표가 이 수용소를 방문했을 때 미군 841명, 영국군 616명 등 총 1,457명이 수용되어 있었다. 1~4중대는 미군포로, 5~7중대는 영국군포로로 편성되었다.³³⁾

제2포로수용소는 1951년 10월 우시군 평상리, 충만강 인근 충하동, 오상동 등³⁴⁾ 4곳에 설치되었다. 평상리에는 장교포로 약 400명이 수용되어 있었고, 오상동에는 주로 미 공군 장교 150여 명이 있었다.³⁵⁾

제3포로수용소는 아래 지도와 같이 1951년 8월경 벽동수용소의 남서

-
- 32) Army security Center, "ASCIR # 0055: Charles W. Sherron, Jr, M/Sgt" May 18, 1954, Bx 7/ RG 319; Harry Spiller ed., *American POWs in Korea: Sixteen Personal Accounts*, McFarland & Company, 1998, p.165; Philip D. Chinnery, *Korean Atrocity*, p.117; Arden A. Rowley ed., *U. S. Prisoners of War in the Korean War*, p.32. 이 수용소는 원래 3수용소였는데, 1952년 1월 1수용소로 다시 지정되었다("HumRRO Analysis of Interrogation Data Derived from Little Switch Returnees" Aug. 5, 1953, 4025/ 407, p.6).
- 33) 배동걸, 『북한포로수용소를 찾아서』, pp.59-61; 8242nd Army Unit, HQ, CCRAK, "POW Camp at XE 874801: CCRAK # J-1723" Jan. 10, 1953, 38/ 349; Army Security Center, "A Study of U. S. -UN POW Treatment and Handling by North Korean Army and the Chinese Communist Forces" Nov. 1954, pp.302-303; Ministry of Defence, *Treatment of British Prisoners of War in Korea*, p.37.
- 34) 신의주 동북쪽 약 70마일에 위치한 빈촌리와 여기에서 동쪽으로 10마일 떨어진 오계동, 오계동 북쪽 10마일에 위치한 장리 등에 있었다는 증언도 있다(Philip D. Chinnery, *Korean Atrocity*, p.117). 오상동을 상동으로 기억한 경우도 있었다.
- 35) Army Security Center, "ASCIR # 0062: Alarich L. E. Zacherle, Lt. Col" June 11, 1954, Bx 1027/ RG 319; Army Security Center, "A Study of U. S. -UN POW Treatment and Handling by North Korean Army and the Chinese Communist Forces" Nov. 1954, p.305; Harry Spiller ed., *American POWs in Korea*, pp.166-167.

쪽으로 약 14마일 떨어진 전창면에³⁶⁾ 설치되었다. 이곳의 포로 규모는 850~1,000명으로, ‘반동적인’ 사병 포로들이 수용되어 있었다. 수용소는 남서쪽과 동북쪽으로 나뉘었는데, 특히 남서쪽 수용소는 미군 세이버 제트기와 미그기가 전투를 벌이는 장면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다. 제4 포로수용소는 위원강 북쪽 구읍동에 위치했으며 수용 인원은 200명 수준에서 포로의 이동으로 600명까지 늘어나기도 했다. 포로 구성은 미군을 비롯해 영국군, 터키군, 프랑스군 등이었다.³⁷⁾



제3포로수용소 위치

- 36) 육본 정보참모부, 『판문점』 하, 1972, p.596. 한 포로는 수용소가 있던 마을을 빈정리(Pin Chong ni)로 기억했다(William Shadish, *When Hell Froze Over*, pp.65-66).
- 37) “HumRRO Analysis of Interrogation Data Derived from Little Switch Returnees” Aug. 5, 1953, 4025/ 407, p.5; Army Security Center, “ASCIR # 0055: Frank J. Page, Sgt” June 1, 1954, 7/ 319; Harry Spiller ed., *American POWs in Korea*, p.168; John N. Powers, “American POWs in Korea”, EX-POW Bulletin Mar/Apr 2010; Oscar Cortez, “Home in North Korea”(http://koreanwarexpow.org, 검색일: 2014.1.16.; Philip D. Chinnery, *Korean Atrocity*, p.117.)

벽동 포로수용소(제5수용소)는 평안북도 벽동읍에서 남쪽으로 약 8km를 남하하다가 우측 계곡에 화전민 농가에 국군포로들이 수용되었고 좌측에는 미군 포로수용소가 있었다. 그 길이는 1.6km이고 폭은 0.8km 규모였다. 벽동수용소를 세울 때, 북한 주민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 만들었다. 대부분의 집은 대개 방이 3개 있고 창호지로 만든 문이 있는 초가였다.³⁸⁾ 중국군은 그들의 제1차 공세 후 국군과 유엔군포로가 많이 발생하자, 보위부장 양린(楊霖)을 후방으로 파견해 포로수용소 부지를 물색하여 중국과 북한의 변경지대이고 3면이 강으로 둘러싸인 벽동 지역을 선정했다.³⁹⁾ 처음에는 북한군이 관리하다가, 1951년 3월부터 중국군이 완전 장악했다. 1951년 1월 중순경 설치되었을 때 포로의 규모는 약 3,000명에 이르러 75개 동(compounds)으로 나뉘어졌다. 이곳에는 1951년 2월경 국군포로도 2,500여 명이 수용되었고, 영국군 180명도 있었다.⁴⁰⁾ 그해 7월 이들 가운데 릴스(William Lilles) 하사, 서더랜드(Jack Sutherland) 상사 등 저항적인 포로는 제3포로수용소로 이송시켰다. 장교도 벽동 북동쪽 48km 떨어진 제2포로수용소로 이동시켜, 사병포로 1,800명으로 줄어들었다.⁴¹⁾ 벽동수용소 인근에는 공산 측에 잔류하려던 유엔군 포로 약 150명을 따로 수용했다.⁴²⁾

제6포로수용소는 인근에 폭 60~70미터의 강이 있었다. 70개 동 건물

38) William(Bill) Richardson, *Valleys of Death: A Memoir of the Korean War*, pp.237-238.

39) 杜平, 『在志願軍總部』, 해방군출판사, 1989, p.484.

40) 중앙일보사편, 『민족의 증언』 3, p.304; 박정인, 『풍운의 별』, p.227; 오용일, 『천마수용소』 하, pp.49-50; 박진홍, 『돌아온 패자』, p.81; Philip D. Chinnery, *Korean Atrocity*, p.117.

41) Army security Center, "ASCIR # 0056: Richard T. Artesani Jr, M/Sgt" July 9, 1954, 7/ 319.

42) The JJIPB, "UN Personnel Received and Processed by the JJIPB" Aug.-Oct. 1953, 24/319, p.18.



벽동포로수용소 유엔군포로(좌로부터 미군, 호주군, 영국군, 터키군)

출처: 호주 전쟁기념관(AWM)

에 국군포로 약 700~800명과 민간인 200명도 수용되어 있었다고 했다. 수용소에는 20명상 정도의 의무실이 있었지만 중국 의사는 의약품이 없어서 충분히 진료할 수 없었다.⁴³⁾

제7포로수용소는 천마광산(XE655435) 입구로부터 2km 남서쪽 지대에 설치되어 한 때 2,700명이 수용되었으나, 포로의 이동이 잦아 평균 1,000명이 수용되었다. 6개 중대로 편성되었으며, 이 가운데 제4중대는

장교, 5중대는 병원중대였다. 1953년 7월 송환될 무렵 장교 출신 120명, 사병 포로 750명이 수용되어 있었다.⁴⁴⁾

강동 제8포로수용소는 평안남도 승호리 탄광에 있어서, 초기에는 탄광지대 골짜기를 따라 동굴이 수용소 시설로 이용되었다. 후에 20개 동의 목조 건물에 국군포로 1,000명이 수용되어 있었다.⁴⁵⁾ 그런데 1952년 1월 14일

43) 500th Military Intelligence Group, Interrogation Report: 송영철, 1953. 9. 26, No. 30-2-1/338; 이동규 1953. 9. 26, No. 30-2-1/338.
 44) 500th Military Intelligence Group, Interrogation Report: 이성덕 소위, 1953. 9. 26, 36-1/338; 500th Military Intelligence Group, Interrogation Report: 김종수 중령, 1953. 10. 12, 36-1/338.
 45) 박진홍, 『돌아온 패자』, p.70; 500th Military Intelligence Group, Interrogation Report: 박수조, 1953.4.26, 군사편찬연구소, No. 30-1. 국군포로의 규모만 2,000명이었다고 주장한 포로도 있었고, 1951년 6월 하순 포로 규모가 3,500명이었다고 기억한 포로도 있고 (500th Military Intelligence Group, "Mil # 6765, Pfc" March 5, 1954, 31/338; 육군본부, 『포로수용소』, p.67; "CGAFFE(ADV) Tokyo to DEPTAR Wash DC", July 11, 1953, 45/ CIC 319.

공산 측은 미군 폭격에 의한 포로들이 희생당했다고 주장할 때, 강동 포로 수용소에 국군포로 155명이 수용되어 있다고 말했다.⁴⁶⁾

제9포로수용소는 평양 인근에 있는 강동 동굴수용소로 미군, 영국군 등 유엔군포로들이 다른 수용소로 거쳐 가는 악명높은 곳으로 기억했다. 한 국군포로들은 만포진 남쪽에 위치해(BA769375), 1953년 2월 국군포로 1,000명이 수용되어 있었다고 기억했다.⁴⁷⁾ 제10포로수용소는 자성군 군청에서 인근에 위치했으며 중국군이 세운 첫 수용소로 장진호전투를 포함한 동북지역 전선에서 붙잡힌 유엔군포로를 수용했다.⁴⁸⁾ 미군들은 북진 포로수용소를 제11수용소로 기억했으며, 이곳에 국군포로 300명이 수용되어 있었다.⁴⁹⁾

제12수용소 평양 인근 재동리(BU606736)에 있는 포로수용소로 포로의 규모는 많을 때 1,000명 정도 수용되었다. 1952년 12월경 제12수용소는 제9수용소로 재조정되었다.⁵⁰⁾ 제12수용소는 선전센터로 이용되었고 인근에 공산 측에 협력한 포로들이 수용된 ‘중앙평화위원회(the Central Peace Committee) 수용소가 있었다. 이 수용소에서 플레밍(Fleming) 소령을 비롯한 일부 포로는 1951년 2월부터 12월까지 200회 이상 선전방

46) 『동아일보』 1952. 1. 17.

47) 500th Military Intelligence Group, Interrogation Report: 장세호, 36-1/338; Ministry of Defence, *Treatment of British Prisoners of War in Korea*, p.37; Cyril Cunningham, *No Mercy, No Leniency*, pp.29-30.

48) 500th Military Intelligence Group, Interrogation Report: 김영환, 1953.11.17, 36-1/ 338; .Philip D. Chinnery, *Korean Atrocity*, p.118; Cyril Cunningham, *No Mercy, No Leniency*, p.48; Sheila Miyoshi Jager, *Brothers at War*, p.217.

49) 500th Military Intelligence Group, Interrogation Report, “Mil # 2825, Civ”, No. 30-2-1/338; <http://www.koreanwar.org/html/units/pow/camp11.htm>. 신창균은 제11수용소가 만포진 시중면에 있었고, 국군포로들이 수용되어 있었다고 기억했다(신창균, 「북한 11포로수용 생활수기」, 2004. 4. 8).

50) 500th Military Intelligence Group, Interrogation Report: 김영규, 1953. 5. 28, No. 30-1/338.

송에 동원되었다.⁵¹⁾

미군 첩보당국에서 포로수용소의 위치에 대한 첩보를 수집했어도 포로의 규모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 수 없지만, 1953년 8월 1일 현재 한국군을 포함하여 최소 약 15,000명 이상으로부터 최대 23,000명이 수용소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⁵²⁾ 이는 정확히 확인된 것은 아니었지만, 북한 측이 송환한 포로규모가 실제 포로된 인원과 크게 차이가 났으므로 돌아오지 못한 포로를 추적하는 여전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외에도 추가 확인이 필요한 포로수용소로 유엔군 2,000명이⁵³⁾ 수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강제수용소(BA975375)에는 1951년 3월 초까지 미 보병 245명, 영국 18명 등 약 300명이 수용되어 있었다.⁵⁴⁾ 한국군 300명이 수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회령수용소에는 1950년 8월경 경찰 포로 30명을 포함해서 야군 포로 700~800명이 수용되어 있었다.⁵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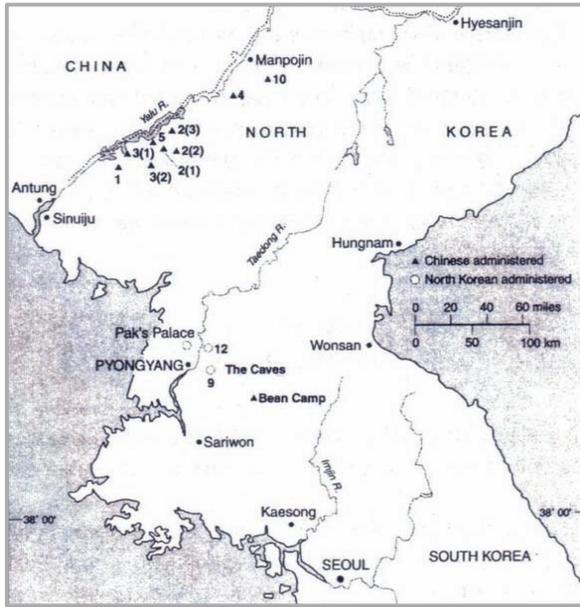
51) Sheila Miyoshi Jager, *Brothers at War*, pp.220-221.

52) 8007th Army Unit, "CCRAK Summary of Accepted NK PW Camps" Aug. 1, 1953, CCRAK 8242nd Army Unit Combat Report, April-Aug. 1953, 군사편찬연구소 HD 1971. 미 극동군 사령부에서는 1951년 10월 하순에 공산 측에 잡혀 있을 포로의 수가 미군 등 6,000명과 한국군 2만 8,000명이라고 추산한 적도 있었다(Army Intelligence Project Decimal File, 1951-1952, 47/319, 군사편찬연구소 SN 1620; Office of the Chief of Staff, "Staff Study Relating to Voluntary Repatriation" Feb. 19, 1952, Tab c, 126/319).

53) 강제수용소에서도 3,000명 가운데 굶어죽거나 발진티푸스 등으로 2,000명이 사망했다는 회고도 있다(최춘영, 「상좌 동지! 우리를 총살해 주시고」, p.604).

54) GHQ, FEC, SCAP and UNC, "Chinese Communist Treatment and Attempted Political Indoctrination of U.S. Marine POW" July 11, 1951, NARA/ 국립도서관.

55) 오경섭·윤여상·허선행, 『국군포로 문제의 종합적 이해』, p.70. 이곳에 수용되어 있는 포로규모를 1,500명 수준으로 기억하는 포로도 있고, 손창수 일병·백덕기 일병 등 국군포로 3,000명 수용되었다는 증언도 있다(오경섭·윤여상·허선행, 『국군포로 문제의 종합적 이해』, p.74; 이우학(귀환 포로) 증언, 1994.11). 그런데 1953년 7월 18일 인민군에 편입되었다가 다시 야군포로가 된 제8보병사단 출신 이두현은 회령수용소에 10,000명의 포로가 수용되었다고 진술했다("Communist Indoctrination of ROK Prisoners of War Returnees", Oct. 24, 1953(file no., Kor-308-203(5a), 군사편찬연구소 HM 1926).



주요 포로수용소 위치⁵⁶⁾

제3절 포로 대우와 사망자 규모

1. 전선 부대와 후송 과정

가. 전선 부대

북한군은 전쟁 시기 포로를 인도주의 원칙과 국제법에 따라 우대하고

56) 김행복, 『한국전쟁의 포로』, p.92; Philip D. Chinnery, *Korean Atrocity*, p.116.

있다고 선전했다. 미군이 북한군의 포로학대를 주장하자, 스탈린(Joseph Stalin)은 북한으로 하여금 북한군이 포로에 대해 제네바협약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고, 미군의 포로 학대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포로 중에서 선발하여 방송을 통해 포로대우가 양호하다는 것을 말하도록 지시했다.⁵⁷⁾ 그러나 포로우대 선전과 달리 전선에서 북한군에게 포로가 되면 구타는 물론 살해될 위험이 있었다. 전쟁 당시 소대장이었던 한 미군 장성은 중국군이 미군포로를 학대한 것을 보지 못했으나, 북한군은 중국군과 커다란 차이(tremendous difference)가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전장에서도 북한군이 중국군에 비해 훨씬 잔인했다고 비교했다.⁵⁸⁾

전쟁 초기 전선 부대에서 국군과 유엔군포로는 북한군에 의해서 적대적으로 처리된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북한군 주력인 제105탱크여단의 정치장교 오기완 대위는 의정부를 지나면서 예하부대에서 사로잡혀 끌려 온 일단의 국군포로를 목격했다. 첫 포로여서 여단장 유경수 소장에게 넘겼을 때, 여단장은 몇 마디 포로신문 같은 것을 하다가 신통한 대답이 안나오자 귀찮다는 식으로 “해치워버려”라고 명령했다고 한다. 이 무렵 서울에서 미처 후퇴하지 못한 국군 가운데 7~8명이 무기와 군복을 버리고 민가에 숨어 있다가 북한군에 의해 발견되어 총살되었다.⁵⁹⁾ 심지어 1950년 6월 28일 새벽 6시에 북한군 제4사단 5연대 참모장 허응련 중좌의 지시에 의해 이낙기 중대장, 김성열 소대장, 이강국 문화부 중대장 등 50명이 서울대학 병원에 입원해 있던 국군 부상병 150~180

57) 『조선인민군』 1950. 7. 15, 『로동신문』 1950. 7. 20, 28.

58) “Gen. Volney F. Warner’s interview”, US Army Military History Institute, 1983, p.28, pp.41-42.

59) 「40년 만에 다시 풀어보는 6·25의 수수께끼 3」, 『한국일보』 1990. 6. 17; 박갑동, 『통곡의 언덕에서』, 서당, 1991, p.346. 박갑동은 이 사실을 목격한 후 공산주의에 대해 회의를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여 명을 살해했다. 이 사건에 가담했다가 나중에 포로가 된 북한군포로의 증언에 의하면, 다발총 외에 이남규를 포함한 4명의 소대원은 심지어 수류탄을 부상병에 던졌다고 진술했다.⁶⁰⁾

이러한 포로 학살을 방지하기 위해 1950년 7월 16일, 인민군 문화부대에서 전사, 하사, 군관들이 적에 대한 경각심과 증오심으로 전투 중 포로 취급에서 과오를 범함으로써 적을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와해시키는데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면서, 투항하는 적들은 반드시 포로로 할 것이며 그들을 함부로 살상하는 행위를 엄금하도록 했다.



서울대병원 부상병 학살 장소

또한 부상한 포로는 반드시 치료해주며 포로를 모욕하거나 무기와 탄약 외에 개인물품을 탈취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⁶¹⁾ 그러나 1950년 8월 12일 포로가 된 허 모는 북한군 제5사단 12연대 부대원이 영덕전투에서 붙잡은 국군포로를 모두

60) Office of the Zone Staff Judge Advocate, HQ Korean Communication Zone, "Legal Analysis of Korean War Crimes Case No. 36", June 14, 1953, 군사편찬연구소 HD 215. 이때 가담했던 광O규(포로번호 83759), 이강국(포로번호 71264)는 정전 후인 1953년 9월 6일 북한으로 송환되었다. 당시 5연대장 이임철도 나중에 포로가 되었으나, 사건 책임을 참모장에게 미루었다. 그도 북한으로 송환되었다.

61) 문화부대문화부대장, 「지령: 적군와해공작 및 포로취급에 대하여」 1950. 7. 16, 『해방직후 극비자료』 6, 고려서림, 1998, p.33; 「북한군 포로신문보고서」, 『남북한관계사료집』 25, 군사편찬위원회, 1996, p.93.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8월 15일에는 대구 근처에서 북한군 제206기갑보병연대 제2대대 제4중대원에 의해 포로가 된 미 제1기병사단 5연대 장병 34명이 총살되었다.⁶²⁾

더욱이 전투시 패배하였거나 동료의 희생이 발생하였을 때, 포로학대가 늘어났다. 1950년 11월 15일 북한군 제12사단 모 대대 회의 석상에서 “금번에는 적을 포로로 하면 직접 총살하겠다. 특히 반동분자들을 모조리 총살시키겠다. 죽이는 방법은 눈을 빼고 총창으로 찢러 죽이겠다”는 의견이 나왔다.⁶³⁾ 빨치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조선로동당 전북도당 유격사령부’의 황대용 문화부 중대장은 포로가 된 국군 5명에 대해, 심약한 대원들에게 시범을 보여 주고 일일이 지명해서 찢러 총을 시켜 살해하게 했다.⁶⁴⁾

나. 후방으로 이동과정

포로의 후송과정은 두 가지 경우였다. 전선에서 포로가 된 후 후방으로 이동하는 과정과 포로수용소에서 작업현장으로, 혹은 포로의 규모를 위장하기 위해 수용소에서 수용소로 잦은 이동이 있었다. 특히 전자의 이송과정에서 ‘죽음의 행군(Death March)’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많은 포로들이 희생되었다.

62) “ATIS Interrogation Report No. 605” Aug.19, 1950, 『남북관계사료집』 21, p.42; Philip D. Chinnery, *Korean Atrocity*, pp.24-25.

63) 「제12보병사단제32연대제2대대문화부중대장의 일지」 1950. 11. 7-1951. 2. 1, 『해방직후 극비자료』 6, 고려서림, 1998, p.155.

64) 이태, 『남부군』, 두레, 1988, p.89.

목격하였다. 그는 미군포로들이 “몸은 여월 대로 여위고 다리는 절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의복은 남루하기 짝이 없고 거의 전부가 맨발이었다. 어떤 사람은 잠뱅이 하나만 걸치고 있다. 몇 사람은 걷지도 못하여 전우의 어깨에 매달려 고통스럽게 끌려갔다.”면서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은 가슴에 사무치나 그것을 표시할 도리가 없다”고 안타까워했다.⁶⁶⁾

북한군이 승리하고 있던 초기에는 후송과정에서 희생되는 경우가 없었지만,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이후 북한군이 후퇴할 때와 중국군 개입 이후 아군포로가 대량으로 발생할 때, 포로들은 후방으로 이동 중 부상·악화·질병·기아·혹한·북한군의 살해 등으로 많이 사망했다.⁶⁷⁾

1950년 8월 중순 포항 384.2고지 전투에서 11명을 생포하여 탄약을 이송케 했다는⁶⁸⁾ 경우도 있었지만, 현지부대에서 상급부대로 점차 후송하여 군단사령부로 이송하도록 했다.⁶⁹⁾ 특히 유엔군포로들은 전선부대에서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웠으므로 심문을 하지 말고 즉시 이송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1951년 4월 북한군 제12사단 8중대는 생포한 미군 40여 명을 그날로 상급기관에 압송했다.⁷⁰⁾

66) 조성훈, 『한미군사관계의 형성과 발전』, pp.94-95.

67) 함경북도 함주에서 살다가 탈북한 납북어민은 공장지배인 김참배가 인민군 군관 출신인데, 중공군 개입 이후 획득한 국군포로의 후송시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으면 즉석에서 많이 사살했던 점을 자랑스럽게 얘기했다고 기억했다(이재근 증언, 거여동, 2013. 11. 26.).

68) 「16용사 모두가 영웅되었다」, 『영생하는 전사들』 3, 금성출판사, 1988, pp.88-90.

69) 장한철(전 북한군 제2사, 제47사단 연대 참모장 겸 작전과장) 증언, 2006. 6. 21.

70) 동북군정대학길립분교사연구회편, 『광휘적족적』, 연변인민출판사, 2006, pp.441-442.



평양 시내를 행진하는 미군포로

북한군은 미군포로를 이미 1950년 7월 하순경에 평양에서 행진하도록 강제하여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민들에게 인민군의 우월감을 과시하는 한편, ‘미군 무장간섭 중지’, ‘철병’ 등을 선전하도록 했다.⁷¹⁾

1950년 8월 15일 왜관에서 포로가 된 미군 41명은 손이 뒤로 묶인 채 대전으로 이송되다가, 묶인 줄을 풀었던 미군 2명은 발각되어 참호를 파는 도구로 구타를 당하여 죽었고, 나머지는 8월 17일 총격전의 소리가 들리자 모두 학살되었다. 유엔군이 인천상륙작전과 낙동강 전선에서 대반격하자, 북한군은 후퇴하면서 1950년 9월 26~27일 대전교도소에 많은 사람이 학살될 때 미군 42명, 한국군 17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건에 살아남은 미군은 제2보병사단 23연대 소속의 와인벨(Carey

71) 이때 평양 제8인민학교에 수용된 미군포로 가운데 2명이 탈출하여 유엔군 복진 시까지 주민들의 보호를 받아 살아난 경우도 있었다(최국송, 『슬픈지역』, 자유문화사, 1955, pp.176-178).

H. Weinel) 중사였다.⁷²⁾

전쟁 초기에 상대적으로 나왔던 북한군의 포로대우는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 직후인 1950년 10월부터 급격히 나빠졌다. 아군에 대한 적대감이 고조되면서 유엔군의 추격을 피해 포로를 살해하는 사례가 늘었다. 예를 들어, “이 포로는 전투에서 아군 6명을 사살하였으니 즉결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영천전투와 인천상륙작전에서 국군과 유엔군에 의해 커다란 손실을 입은 북한군 제6사단의 부대원이 국군포로의 후송을 맡았을 때, 여러 가지 구실을 만들어 포로를 총살했다.⁷³⁾

1950년 10월 20일 북한 내무성 보안군 제316부대는 순천 북쪽 10마일 터널에서 평양으로부터 이송된 미군 부상병 76명을 살해했다.⁷⁴⁾ 탈북자의 진술에 의하면 1950년 말 패주하던 북한군이 국군포로를 함북 은덕군 지역으로 이송하여 수백 명을 오봉탄광 폐갱에 수용시킨 후 갱도를 폐쇄하여 이들을 전원 사망케 했다고 들었다거나, 회령포로수용소에서도 부상자, 병약자 등 쓸모없는 포로들은 갱도에 넣어 생매장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국군포로는 북한군에게 넘어가면 죽는 줄 알고, 중국군에게 자신들을 감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 귀환포로는 북한군은 포로에게 서술

72) 해병대3·4기전우회, 『참전실록』, 2002, p.619; US Representative to UN, “Question of Atrocities Committed by the North Korean and Chinese Communist Forces against UN POWs in Korea”, Nov. 26, 군사편찬연구소 SN 952. KWC No. 16; Subcommittee on Korean Atrocities, *Korean War Atrocities*, p.6; Philip D. Chinnery, *Korean atrocity*, Annapolis, MD: Naval Institute Press, 2000, pp. 45-50. 거제도 포로들의 진술 가운데 과장이 있을 수 있다. 의용군 출신 이종우는 미군포로 500명, 국군포로 300명이라고 주장했다(전갑생, 「살아남은 자와 죽은 자, 고통은 똑같았다」, 『민족21』, 2011.1).

73) 『부산일보』, 1951. 5. 12; 박정인, 『풍운의 별』, 홍익출판사, 1990, pp.221-222.

74) KWC No. 76, 897/153, NARA; Subcommittee on Korean Atrocities, *Korean War Atrocities*, pp.4-5.

이 시퍼런 적대감을 보인 반면, 중국군은 따스한 빛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특히 국군과 유엔군 반격전에서 타격을 입었던 북한군이 호송한 경우에는 국군에 대한 양심이 극에 이르렀다.⁷⁵⁾

북한 유격대를 비롯한 북한군의 잦은 포로살해에 대해, 중국군은 포로를 살해하지 말라고 말리는 형편이었다.⁷⁶⁾ 북한군도 고산진에서 1950년 11월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김일성과 동 총정치국장 박헌영의 명의로 된 포로 지침을 지시했다. 각 부대들은 포로의 절대 다수가 조선인민의 자제들이며, 남한 정부의 강압과 기만에 의하여 복무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포로에 대한 관대한 정책을 실시하며 심각한 정치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첫째 무기를 가지고 투항한 자는 관대히 용서할 것, 둘째로 포로 중에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자에게는 가능하다면, 식료와 여비를 주어서 고향으로 돌려보낼 것, 셋째로 포로들 중에 아군부대에 편입되어 적들과 진정으로 싸우기를 희망하는 자들은 대담하게 부대에 편입시킬 것, 넷째는 포로들을 사살 혹은 천대하는 것을 엄금할 것 등이었다.⁷⁷⁾

하지만, 1950~1951년 겨울에 붙잡힌 포로들은 영하 25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에도 도보로 북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걷고 걷는 과정에서 국군과 유엔군포로는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부상과 질병의 치료를 받지 못해 이질, 폐렴 등으로 죽거나, 명령 불복종

75) 김광연 증언. 신당동, 20014. 4. 9; 최춘영, 「상좌동지! 우리를 총살해 주시고…」, p.597; 「押解俘虜的路上」, 中國人民解放軍75200部隊政治部編, 『浴血朝鮮』, 解放軍出版社, 2001, pp.138-139.

76) “Prisoner of War Preliminary Interrogation Report : Pak, Chol won”, Nov. 19, 1950, 군사편찬연구소 HC 1810.

77)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적후방에서 활동하는 인민군각종부대와 빨찌산부대들의 인민과의 정치공작에 관하여」 1950. 11. 24, 21/338.

이나 낙오 혹은 탈출⁷⁸⁾을 시도하여 살해되기도 했다. 임시 거처에서 부상을 입은 포로들은 밤사이 고통 속에서 추위로 사망했다. 굶주림과 추위, 과로 때문에 밀려오는 잠을 자다가 심장이 멎어 죽는 경우도 있었다.⁷⁹⁾

미군포로의 희생자가 많았다. 북한군과 경기도 오산에서 첫 전투를 벌였던 스미스부대원과 신부, 수녀, 외교관, 기자⁸⁰⁾ 등 민간인 등 850명이 1950년 10월 31일부터 11월 9일 만포진에서 중강진에 이르는 동안 89명이 희생되었다. 첫 희생자는 텍사스 출신의 쏘튼(Cordus H. Thornton) 중위였다. 당시 ‘타이거(tiger)’라고 불렸던 잔인하고 살인하기를 좋아한 후송 책임자인 북한군 소령은 도망자가 발생했던 점에 대한 책임 추궁과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머리에 총을 쏘았다. 이를 후에는 76세의 수녀(Béatrix)가 병약한 몸으로 행렬을 따라가지 못해 사살되었다.⁸¹⁾ 행군 과정에서 심한 경우에는 미군포로의 희생비율이 한 때 50%가 넘었다. 예를 들면, 미군포로 700명이 평양으로부터 도보로 3주 후에 창성 제1포로수용소에 도착했을 때 250명만 남기도 했다.⁸²⁾ 그런데 터키군포로는 공산군의 학대 대

78) 이때 탈출에 성공한 포로 가운데에는 부대에 복귀해서 전장에서 탈출과 회피 등 생존방법을 교육시키기도 했다(Lewis H. Carlson, *Remembered Prisoners of a Forgotten War*, p.2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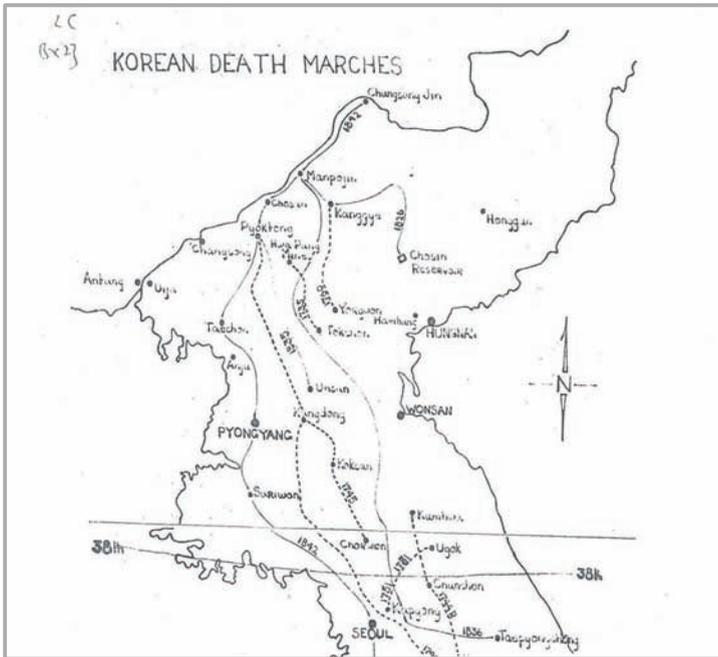
79) 최춘영, 「상좌 등지! 우리를 총살해 주시고」, 『월간조선』 2000.8, p.597; 육본, 『포로수용소』, p.40; 김가인, 『패주5천리』, 태양문화사, 1952, pp.88-89; 안소니 파라-호커리(김영일 역), 『한국인만 몰랐던 파란 아리랑』, pp.291-293.

80) 전쟁 첫날 포로가 된 첼렐롭(Maurice Chantelop) 기자를 비롯해 6명이 포로가 되었다(Walter Karig·Malcom W. Cagle·Frank A. Manson, *Battle Report*, N.Y.: Rinehart and Com., Inc, 1952, p.476).

81) “The Tiger Survivors Story: Capture and Beyond”(http://24thida.com/stories, 검색일: 2014. 3. 7). 생존자들은 이때 모두 16명이 처형된 것으로 파악했다(William C. Latham, Jr., “Ordeal of the Tiger Survivors”, p.10).

82) 「귀환 부상포로들의 포로생활 경험」, 『서울신문』 1953.4.25; 김태일, 『거제도 포로수용소 비사』, 북산책, 2011, p.186; Office of the Adjutant General, DA, “Communist Treatment of United States Prisoners of War,” Oct. 23, 1953, 4225/ 407.

상이 아닌 점 외에 포로 내부의 높은 규율과 단결로 사망자가 많지 않았다. 그들은 나중에 영구수용소에서도 분리되지 않고 그룹이 유지되었으며, 잦은 이동도 없었다.⁸³⁾



‘죽음의 행군’ 경로(점선: 국군포로, 실선: 유엔군포로)

83) 라종일, 『끝나지 않은 전쟁』, 전예원, 1994, p.234; 「한국전쟁중 유엔군 포로에 대한 북한군과 중국군에 의해 자행된 학살문제에 관한 미국대표가 유엔사무총장에 보내는 서한」 1953. 11. 26, 35/319 Korean war Atrocities; Office Assistant Chief of Staff, J-2, “A Study of Repatriation U. S. Military Personnel” Oct. 6, 1953, 42/ 319; U. S. Army, “Findings and Conclusions Concerning Communist Interrogation and Indoctrination Methods on Prisoners Other than US or British,” June 27, 1955. 11/319 CIC, p.4; Richard M. Bassett with Lewis H. Carlson, *And the Wind Blew Cold*, The Kent State Univ. Press, p.x; “POW Journal of Louis Harris, Camp # 1 at Chungson, North Korea” (www.koreanwar.org/html/units/frontline/harris-pow.htm, 검색일: 2006. 9. 18); William(Bill) Richardson, *Valleys of Death: A Memoir of the Korean War*, N.Y.: Berkley Calber, 2010, p.210.



쏟든 중위 묘비(Honolulu Memorial, 그의 유해는 아직 돌아오지 못했다)

영덕에서 포로가 된 국군 제3보병사단, 수도사단 포로 300여 명이 월산을 지나 고원 근처까지 왔을 때, 도중에 죽은 사람과 살아남은 사람은 반반이었다. 이동 중에 때로는 하루에 옥수수 한 개로 끼니를 때웠다. 고원 읍내 제일인민학교 교실에는 국군 수도사단과 3사단 포로의 시체가 마른 고기처럼 널려 있었다.⁸⁴⁾

1950년 12월 북한군은 국군포로 1,500여 명을 북으로 이동시키는 도중 낙오하는 포로 100여 명을 사살했다. 특히 국군 부상병 포로 가운데 걸을 수 없는 자들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었다. 1951년 1월초 화풍광산포로수용소에서 벽동 포로수용소로 이동하였던 한 국군포로도 포로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점을 행군으로 기억했다. 피로하고 반쯤 얼고 굶주린 상태에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편했고, 죽는 것이 좋은 해결이

84) 박남식, 『실낙원의 비극』, 문음사, 2004, pp.198-199.

었다.”고 기억했다.⁸⁵⁾ 이러한 정황을 반영하듯, 1951년 1월 북한군 제12사단 중대 군관회의에서 포로구타 등을 지적하면서 전사들이 애민공작사업을 전혀 망각하고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⁸⁶⁾ 하지만 이후에도 이러한 희생은 계속되었다. 1951년 3월 초 강제수용소에서 미 해병대 포로 24명이 남쪽 수용소로 이동 중 러벅(Leon Roebuck) 일등병이 질병으로 12일에 사망했고, 며칠 후 동료에게 의지해서 대열을 따라오던 그랄(Hans W. Grahl) 일등병은 중환으로 결국 버려졌으나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었다. 환자들이 인민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했지만, 포로들은 그들이 떠난 후 총소리를 들었다.⁸⁷⁾

공산 측에 의해 포로와 민간인의 학살 등이 보고됨에 따라, 미군은 1950년 8월 19일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이 공산군의 전범 사실에 대해 김일성과 예하 사령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력한 경고를 하였고, 1950년 10월초 미 제8군 법무참모부 내에 전범과(War Crime Divisions)를 설치하도록 했다.

그 후 1951년 11월 14일, 헨리(James Hanley) 미 제8군 법무부장은 그동안 전범과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산군이 최소한 5,790명의 포로를

85) 「이경봉씨가 말하는 그때의 포로생활」, 『동아일보』 1990. 6. 25; 박정인, 『풍운의 별』, p.217; 박진홍, 『돌아 온 패자』, p.80; David Mc K. Rioch, Army Medical Service Graduate School, “Report of Temporary Duty in Japan and Korea Apr. 14 to Jul. 17, 1953”, 1/338; 500th Military Intelligence Group, Interrogation Report: 김영환, 1953. 11. 17, 36-1/338; US Representative to UN, “Question of Atrocities Committed by the North Korean and Chinese Communist Forces against UN POWs in Korea”, Nov. 26, 군사편찬연구소 SN 952; Philip D. Chinnery, *Korean atrocity*, pp. 56-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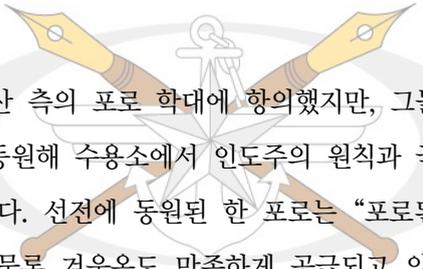
86) 「제12보병사단제32연대제2대대문화부중대장의 일지」 1950. 11. 7-1951. 2. 1, 『해방직후 극비자료』 6, p.174.

87) 정경호 증언, 2002. 8. 7; 육본, 『포로수용소』, pp.58-66; James A. MacDonald, Jr., “The Problems of U.S. Marines Corps POWs in Korea”, pp.78-80; Donald E. Donner, *A Death March and Night mare*, p.85.

살해했고, 그 가운데 미군이 5,500명이라고 발표했다.⁸⁸⁾ 이러한 포로 학대에 대해 정전 후 포로교환이 이루어지면서 국민들은 “포로들을 학대 치사케 하는 비인도적인 처사를 어떻게 시인할 것인가?”라며 더욱 분노했다.⁸⁹⁾

이에 대해 공산 측은 미군의 주장이 황당무계하고 완전한 헛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들은 포로우대 정책을 엄격히 집행한다고 반박하면서, 미군이나 영국군포로 등으로 하여금 포로우대 진술기사를 연이어 발표했다.⁹⁰⁾

2. 수용소 시기



유엔군 측이 공산 측의 포로 학대에 항의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미국과 영국군포로를 동원해 수용소에서 인도주의 원칙과 국제법에 따라 잘 대우했다고 선전했다. 선전에 동원된 한 포로는 “포로된 것을 행복하게 생각한다. 식사는 물론 겨울옷도 만족하게 공급되고 있다. 나는 공화국 정부의 관대한 정책에 감사한다.”고 했다. 이때 선전에 동원된 것이었지만, 포로들은 인명이 공개되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⁹¹⁾

88) 『조선일보』 1951.11.26; 정성관, 『판문점비사』, 평문사, 1953, pp.60-63; War Crimes Division, Judge Advocate Section, KCOMZ, “Information Extracted from Final Historical and Operational Report”, 1954. 5. 31, 10/319; War Crimes Division, Judge Advocate Section, KCOMZ, “Interim Historical Report”, 1953. 6. 30, 27/319, p. 37; William H. Vatcher, JR., *Panmunjom: The Story of the Korean Military Armistice Negotiations*, New York: Frederick A. Prager, Inc., 1958, p.126.

89) 「포로문제를 재구명하라」, 『조선일보』 1953.8.14.

90) 『인민일보』 1951. 11. 20, 21, 27, 30, 12.1; 『중국군 장군들의 한국전쟁 회고』, p.285.

91) “From Peking to Foreign Office” Dec. 20, 1951, Radio Broadcast Messages from British POWs, 국사편찬위원회; Foreign Broadcast Information Service, “Pyoktong POW's Give Farewell Address” Apr. 30, 1953, 24/ 38.4 Office of Naval Intelligence POW Desk, Operation Sect, 1949-54,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1951년 1월, 북한군은 외국군포로에 대한 정책을 포함한 더욱 자세한 포로처리의 방침을 제시하였다. 즉, 한국군과 외국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대한 정책으로 우대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포로에서 외국인과 조선인으로 분류하고 이들 포로에 대한 사업은 그 방향, 취급방법, 교양사업 등에서 각각 별개로 취급하도록 하였다. 특히 외국군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서 사단 또는 군단에서 직접 처치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이들을 포로수용소에 보내어 상부의 처리에 따르도록 하였다.⁹²⁾

포로우대 선전과 달리 전선에서 북한군에 포로가 되면 구타는 물론 살해될 위험이 있었다. 임시수용소와 영구수용소에서도 국군과 유엔군포로들은 많이 희생되었다. 임시수용소는 자연 동굴·광산 갱혈·민가 등으로 좁은 공간에 많은 포로를 수용하여 급식이나 의료지원이 개선되지 않았다. 평양 인근의 ‘박의 궁전(Pak’s Palace)’은 수용소장 박 모 대령의 성을 따른 곳으로 가혹한 고문과 높은 사망률로 악명을 떨쳤다. 평양 남동쪽 수안에 위치한 ‘콩밥수용소(Bean Camp)’는 중국군이 운용한 임시 수용소로 콩이 주식이었다.⁹³⁾

1951년 2월 중순경 화풍아연광산에 수용돼 있던 국군포로 1,000여명 가운데 영양 부족, 발진티푸스 등으로 2개월 동안 400명이 죽었다.⁹⁴⁾ 벽동의 외곽수용소에서는 약품이 없어서 필라델피아 출신 동료 포로(Graves)가 정신력으로 폐렴이 악화되기를 바라지 않을 뿐이어서, 그는 결국 사망했다. 포로를 돌보면서 정신적 위안을 주었던 카파운

92) 「포로사업을 위한 제강(문서번호 202472)」 1951. 1. 20., 21/338. 문서 위에 연필로 1951년 1월 20일이 적혀있으나 내용상으로는 1950년 말경에 발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93) Philip D. Chinnery, *Korean Atrocity*, p.118.

94) 이기봉 증언, 1994. 11. 11 ; 박진홍, 『돌아 온 패자』, p.70; William(Bill) Richardson, *Valleys of Death: A Memoir of the Korean War*, p.246.



카파운 신부의 건강한 모습

(Emil J. Kapaun) 중군 신부도 영양 실조와 폐렴으로 1951년 5월 23일 사망했다. 그는 미 제1기병사단 소속으로 1950년 11월 2일 운산전투에서 포로가 되었다. 모두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한 탓이었다.⁹⁵⁾ 북진(北鎭) 근방에 있었던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에서 1950년 12월 25일부터 이듬해 2월 28일까지 800명의 미군 포로 가운데 이질, 영양결핍, 불을 때지 않는 숙소에서 동사 등으로 거의 400명이 죽었다.⁹⁶⁾

영구 포로수용소에서도 희생자가 많이 발생했다. 공산 측은 국군과 유엔군이 포로로 잡힌 후 학살을 당한 사람들은 오직 미군 항공기 폭격과 사격을 받은 경우라고 반박했다. 그들은 미군과 영국군포로 등으로 구성된 ‘전쟁포로평화위원회’를 통해 미 공군의 폭격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미군의 폭격에 의한 유엔군포로 중 일부가 희생된 것은 사실이었다.

공산 측은 미군 공습으로 1951년 2월 19일 미군포로 19명이 죽거나

95) James A. MacDonald, Jr., “The Problems of U.S. Marines Corps POWs in Korea”, p.78; William(Bill) Richardson, *Valleys of Death: A Memoir of the Korean War*, N.Y.: Berkley Calber, 2010, pp.225-226, p.228, 237; www.army.mil/medal of honor/kapaun(검색일: 2014.5.27). 2013년 4월 11일 오바마 미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운산전투의 공로로 최고훈장인 명예훈장(medal of honor)을 카파운 신부에게 수여했다.

96) Army security Center, “ASCIR # 0049: Michael J. Lorenzo, Major” June 3, 1954, 1027/ 319. 비슷한 기간에 미군포로도 300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기억도 있다 (William(Bill) Richardson, *Valleys of Death: A Memoir of the Korean War*, p.217).

부상을 당했고, 4월 22일 미군포로 32명이 죽거나 사망하였으며 10월 13일에도 미군과 영국군포로 및 주민 21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했다.⁹⁷⁾ 1951년 11월 17일 베이징방송은 유엔군의 폭격으로 유엔군포로 65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강동 제8포로수용소 장교 숙소에 미군의 폭탄이 떨어져서 25명이 즉사했다. 이 때 제7보병사단 모 연대 부연대장도 희생되었다.⁹⁸⁾ 그후 강동 제8포로수용소에서 1952년 1월 14일 미군의 폭격에 의하여 15명이 즉시 사망하고, 12명이 중상, 52명이 경상을 당했다. 북한군은 이 사건을 판문점 휴전회담에서 항의했다. 제12수용소에서만도 미군의 오폭에 의한 희생자 수가 1952년 7월 11일에 83명이 희생되었고, 1953년 2월 23일에도 53명이 살상 당했다고 주장했다.⁹⁹⁾

탈북 국군포로도 공산 측이 수용소에 ‘포로(P.W.)’라는 대공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미군 전투기의 공격을 받아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기억했다. 거꾸로 ‘P.W’ 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투기는 이를 위장으로 간주했는지 폭격을 한 경우도 있었다.¹⁰⁰⁾

하지만 포로수용소에서 포로들이 많이 희생된 주요 원인은 ‘죽음의

97) 「주 평양 신화통신문」 1951. 11. 1, 군사편찬연구소, HH 78; 『인민일보』 1951. 11. 1, 18. 영국군포로도 1951년 4월 중순 17~18명이 폭격으로 사망했다고 기억했다(Lewis H. Carlson, *Remembered Prisoners of a Forgotten War*, p.118).

98) 박진홍, 『돌아 온 패자』, p.134; 「1951년 11월 17일자 보고」, RCI A II, p.164. 모 연대 부연대장은 육군 제7사단 8연대 부연대장 박용복 중령으로 추정되었다.

99) 『로동신문』 1952. 1. 17; 『동아일보』 1952.1.14; 김소민, 「포로수용소 방문기, 외국할 수 없는 진실」, 『로동신문』 1953. 9. 15. 1953년 7월 10일 한국군 공습으로 국군포로 5명이 사망했고, 15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주 평양 신화통신문」 1953. 7. 14).

100) 신창균, 「북한 11포로수용 생활수기」, 2004. 4. 8; 박진홍, 『돌아 온 패자』, p.134; 해병대3·4기전우회, 『참전실록』, 2002, p.374; 유영철, 『지옥의 별밤 아래에서』, p.51; “Daily Korean Bulletin” Nov. 17, 1951, *Intelligence Report of the CIA*(『한국전쟁 자료총서』 17), 국방군사연구소, 1997, p.164. 이러한 공습이 있으면, 수용소에서는 “미군과 남한은 당신들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전을 강화했다.

행군' 과정에서 얻은 건강 악화와 이질, 발진티푸스, 결핵 등 질병이나 영양 부족이었다. 포로들은 무엇보다 괴로운 것이 배고픔이었다고 기억했다. 한 끼에 잡곡밥 한줌 정도이고 부식은 소금물로 하루에 두 끼 식사로 야맹증, 각기병, 이질이 많이 발생했다. 천마수용소에 있었던 국군 포로들은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개구리와 뱀을 잡아 먹어서 수용소 내 개울가와 언덕에 개구리, 뱀이 없을 지경이었다고 회고했다.¹⁰¹⁾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포로들도 혹한, 음식 등에 적응하기 더욱 어려웠다. 한 미군포로는 그들이 먹었던 식사를 '소먹이(cow food)'로 기억했고, 또 다른 포로는 배고픔을 '우주의 중심부'로 표현할 형편이었고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간다고 해도 치료율은 높지 않아서 수용소병원을 '죽음의 병원'이라고 회고했다.¹⁰²⁾

의사와 의약품 부족 상황은 휴전협상이 시작된 1951년 중반까지 계속되었다. 이 때문에 수용소는 고통과 죽음의 계곡이 되었다.¹⁰³⁾ 미 제24사단 소속으로 1950년 7월 조치원에서 포로가 된 존슨(Johnnie Johnson) 일등병은 후송 과정과 수용소에서 사망한 동료 포로 496명의 명단을 적어서 알렸다. 그는 선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포로 가족을 위해 적었다고 말했다.¹⁰⁴⁾

101) 신창균, 「북한 11포로수용 생활수기」, 2004. 4. 8; 최명혁 증언, 2014. 3. 21. 이에 비해 1951년 1월 초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배식 비중은 쌀 0.54파운드, 보리 혹은 밀 0.54파운드, 콩 0.2파운드, 생선 0.1파운드, 야채 0.5파운드 등으로 2,000칼로리 이상의 열량을 낼 수 있었다(3D Logistical Command, "POW Ration" March 8, 1951, 3D Logistical Command, "Command Report" Feb.-Mar. 1951, 군사편찬연구소, 1951;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p.127).

102) 토마스 로저스(이덕형 역), 『암흑강 포로수용소』, 해동문화사, 1988, p.228, 233.

103) William(Bill) Richardson, *Valleys of Death: A Memoir of the Korean War*, N.Y.: Berkley Calber, 2010, p.227.

104) 그가 정리한 명단은 포로실종국의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다(http://dtic.mil/dpmpo/korea/johnnie_johnson_list, 검색일: 2014. 1. 24.).

창성 포로수용소에서는 하루 4명꼴로 사망했다고 기억했다. 각기병과 비타민 부족으로 인한 니코틴산 결핍증후군은 흔한 질병이었다.¹⁰⁵⁾ 포로들은 벽동 포로수용소의 병원을 ‘시체안치소(the morgue)’로 불렀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 살아 돌아 온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수용소에서는 치료도 하지 않은 채 보이지 않는 곳에 격리했을 뿐 환자의 배설물과 냄새 등으로 불결한 환경이었다. 포로들도 자신들의 생존에 급급해 동료 환자를 돌보지 않았다. 1951년 봄에 이르기까지 발진티푸스, 결핵, 폐렴 등의 질병으로 거의 매일 30~40명 씩 죽었다. 제3포로수용소에서는 1951년 1월부터 3월까지 약 1,600명이 사망했고, 벽동 포로수용소에서도 1950년 12월부터 1951년 7월까지 1,500명 이상이 죽었다. 남은 포로들은 다음이 자신들의 차례가 될 것을 두려워했고, 이는 포로의 사기를 저하시켰다. 벽동 포로수용소 중 국군포로가 수용된 우시수용소에서도 많을 때에는 하루에 100명이 죽었을 정도 희생자가 많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박해구(朴海九), 조봉구(趙鳳九) 등 1,000여 명이 사망했다.¹⁰⁶⁾

1952년 2월부터 천마 포로수용소에서 인플루엔자가 유행하여 많은 포로들이 사망했다. 귀환한 포로들은 이때 사망자를 수용소 인근 골짜기에 매장했다고 한다. 귀환한 김광연 중위의 증언에 따르면, 제7수용소에서 국군포로들은 티푸스, 이질, 결핵, 폐렴, 인플루엔자 등으

105) Army security Center, “ASCIR # 0055: Frank J. Page, Sgt” June 1, 1954, 7/319; Richard Peters and Xiaobing Li, *Voices of from the Korean War*, p.238.

106) 『민족의 증언』 3, p.310; Office of the Adjutant General, DA, “Communist Treatment of United States Prisoners of war,” Oct. 23, 1953, 4225/ 407; Milton Kovner, “A Study of the Internment Experience of the Turkish pows in Korea”, March 1955, 2/ 338; William(Bill) Richardson, *Valleys of Death: A Memoir of the Korean War*, pp.245-246, 254-260. 사망자 규모는 진술자에 따라 적게는 하루에 10명에서 많게는 50여 명에 이른다고 차이가 있다.

로 478명이 사망했다. 이 가운데 육군 제9보병사단 28연대 3대대 통신대에서 활약했던 박철 일병은 인플루엔자에 걸려 1953년 3월 경 결국 사망했다.¹⁰⁷⁾ 이곳에서 군의관 출신 포로였던 김광연은 맹장염으로 죽을 뻔한 이모 중위(육사 8기 출신)를 군화의 바닥에 붙어있는 스테인리스 깔창을 예리하게 갈아 수술해서 목숨을 살린 경우도 있었다.¹⁰⁸⁾

1951년 7월 강동 제8포로수용소의 어느 동에서는 영양부실 상황에서 발진티푸스로 80명 가운데 40명이 죽고, 또 어느 동에서는 70명 중 17명만 남았다고 한다.¹⁰⁹⁾ 강계 포로수용소에서도 3,000명 가운데 굶어죽고 발진티푸스 등으로 2,000명이 사망했다고 한다.¹¹⁰⁾

이외에 한 민간인 포로 귀환자는 평안북도 자성 위쪽 한장리와 안동에 1950년 겨울 동안 미군과 민간인 억류자 400명이 사망하여 묻혔다고 주장했다.¹¹¹⁾

그 후 휴전협상이 진행되면서 포로 대우가 향상되기 시작했다. 이 무렵 구 소련 외무성에서는 평양 주재 소련대사에게 포로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을 송부해 포로문제에 참고하도록 했던 것으로 보인다.¹¹²⁾ 1951년 12월 이래 판문점에서 양측 포로에 대한 편지 교환이

107) 오용일, 『천마수용소』 하, pp.94-100; 500th Military Intelligence Group, Intelligence Report Files(PROKAP Interrogation Report Nos. 1 thru 155), 1953, 30-1.

108) 김광연 증언, 신당동, 2014. 4. 9.

109) 「이기봉씨가 말하는 그때의 포로생활」, 『동아일보』, 1990. 6. 25; 중앙일보사편, 『민족의 증언』 3, p.310; 육본, 『포로수용소』, pp.72-73; 박진홍, 『돌아 온 폐자』, p.91; 『한국일보』, 1996. 9. 3; David Mc K. Rioch, Army Medical Service Graduate School, "Report of Temporary Duty in Japan and Korea Apr. 14 to Jul. 17, 1953", 1/338; "Proposed Speech on Korean Atrocities by General Clark to UNGA", Oct. 16, 1953, 25/319, 군사편찬연구소 SN 525, p.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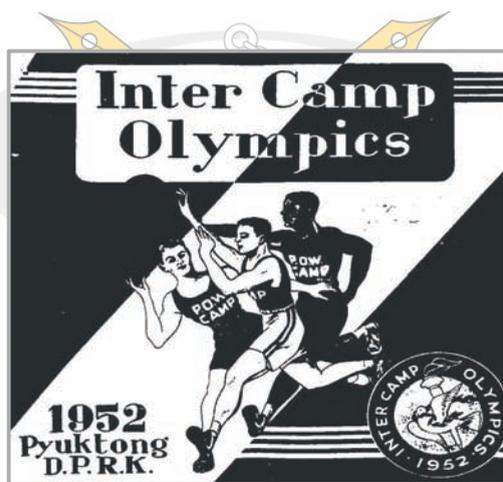
110) 최춘영, 「상좌 동지! 우리를 총살해 주시고」, 『월간조선』 2000.8, p.604.

111) Larry Zellers, *In Enemy Hands*, p.xi.

112) 「소련 외무성 제1부상이 소련 내각회의 의장에게 보낸 보고서」 1951. 7. 29.,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 pp.721-727.

이루어졌다. 포로가 된 딘 미 제24사단장도 자신의 편지를 12월 24일 유엔군 대표에게 보낼 수 있었다. 중국군은 관대정책을 과시하기 위해 이미 1951년 1월에 일부 포로들로 하여금 가족에게 편지를 보내도록 했다.¹¹³⁾

1952년 겨울에 공산 측은 포로의 우대를 선전하기 위해 포로수용소에서 ‘수용소 올림픽(Inter Camp Olympics)’을 개최하기도 했다. 중국군의 지도 아래, 수용소에서 포로들이 선전물인 “New Life”, “Toward Truth & Peace” 등을 제작하여 배포했다.¹¹⁴⁾



포로수용소 올림픽 선전포스터

(출처: NARA)

- 113) 「공화국 당국의 따뜻한 배려 밑에 띤은 평온한 포로생활을 하고 있다」, 『로동신문』 1951. 2. 26; 「도쿄 유엔사령부에서 국방부로」 1952. 10. 18, SN 1867(5)4; 윌리엄 F. 딘(김희택 역), 『딘 장군의 수기』, 창우사, 1995, p.190; James A. MacDonald, Jr., “The Problems of U. S. Marines Corps POWs in Korea”, pp.64-65.
- 114) “Life in a North Korean P.O.W. Camp”, *Peoples' China*, July 16, 1953; “U.S. POW in the Korean Operation”, 1954, 9/319.



수용소에서 터키군포로의 자국 명절 축하행사 모습

점차 포로들도 경비대원과 대화를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수용소 당국에 도전하면 보급이 중단되거나 구타 등으로 사망에 이르는 포로는 계속 발생했다. 오스트레일리아군 마덴(Horace W. Madden) 이등병은 1951년 4월 24일 가평전투에서 포로가 된 후 그해 11월 6일 수용소에서 영양실조와 학대로 사망했다. 그는 오스트레일리아군 포로 30명 가운데 유일한 희생자였다.¹¹⁵⁾



오스트레일리아군 마덴(Horace W. Madden) 이등병

115) Robert O'Neill, Australia in the Korean War 1950-53, the Australian War Memorial Australian Gov. Publishing Service, Canberra, 1985, p.710: "Australian prisoners" (<http://korean-war.commemoration.gov.au/prisoners-of-war/australian-prisoners-of-war-in-korea.php>(검색일: 2014. 2. 24.).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이러한 저항활동을 기려 훈장(the George Cross)을 수여했다.

한편 도로·터널·건물 등의 복구공사에서 희생된 경우가 있었다. 포로들은 작업장에서 하루에 10여 시간씩 동원되는 동안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도 많았다. 언제 미 공군기의 폭격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해야 하는 탄약 하역이나 비행장 복구 작업은 매우 위험했다. 사리원역에서 국군포로와 동원된 북한주민 약 300명이 어느 날 밤 1시쯤 탄약 하역작업을 하다가 유엔군의 야간 폭격에 의해 절반 이상이 죽고 탄약은 전소되었다.¹¹⁶⁾

포로 가운데 탈출하다가 체포되어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현리전투에서 포로가 된 제7보병사단 8연대 부연대장 박용복 중령은 포로가 되어 억류 중 사망했다. 그는 탈출을 기도하려는 의지가 있었으므로 탈출하려다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실상은 알 수 없다.¹¹⁷⁾ 한 탈북 국군포로의 증언에 따르면, 제103건설여단에 배치되어 있던 변을규는 탈출을 기도하다가 13년형을 받았으나 1957년경 평양 승호리 임시교화소에서 재차 탈옥하려다 체포되어 무기수 독방에 수감 중 사망했다.

3. 사망자 규모와 매장지

이상과 같이 공산 측은 포로의 우대를 널리 선전했지만, 많은 포로들이 희생되었다. 포로가 된 후 희생된 국군포로의 규모는 북한 측이 통보한 868명이 아닌 최대 5,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유엔군 가운데 희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미군은 5,330명이 희생되었다고 주장했으나, 공산 측은 수용 중 사망자로 1,022명만 통보했다.

116) 육군본부, 『포로수용소』, p.119.

117) 오용일, 『천마수용소』 상, pp.246-247.

오히려 공산 측은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유엔군 측의 포로학살을 강조했다.¹¹⁸⁾

국군 및 유엔군포로는 도보로 후방 지역으로 이동할 때, 임시 포로 수용소와 영구 포로수용소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포로가 된 후 사망한 포로의 수는 공산 측이 제시한 것은 1,651명에 불과하나, <표 3-1>과 같이 유엔군 측이 공산포로와 송환포로 등의 증언과 자료를 토대로 파악한 이송과 수용 중 사망자는 훨씬 많은 14,930명이었다. ‘죽음의 행군’과 포로수용소에서 사망한 포로는 한국군의 경우가 행군에서 710명과 수용소에서 7,624명으로 총 8,334명이었고, 미군이 행군에서 959명과 수용소에서 5,178명으로 총 6,137명이었으며, 그 외의 유엔군의 사망자를 합쳐서 국군 및 유엔군포로 가운데 행군에서 1,756명이 사망하였고, 수용소에서 13,174명이 사망하여 총 14,930명이 사망하였던 것으로 추정했다.¹¹⁹⁾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전쟁 당시에 공산 측은 조작된 학살(faked massacre)이라고 중상적이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거제도에서 공산포로의 희생자 발생에 대하여 항의했다.¹²⁰⁾

118) 『동아일보』 1953. 8. 16; The Red Cross Society of China, *Atrocities of the U. S. Armed Forces against Prisoners of War in Korea*, Dec. 1953, “US Allegations of Atrocities against POWs in Korea”, 국사편찬위원회.

119) HQ, KCZ Office of the Zone Staff Judge Advocate APO 234, 「포로송환에 대한 보고」 1954.2.28., pp.9-10; War Crime Division Judge Advocate Section, Korean Communications Zone, Information Extracted from Final Historical and Operational Report, May 31, 1954, Appendix 1, 10/319 CIC.

120) 「박헌영 성명」 1951년 11월 19일, 「소련 외교문서」 4, p.137; *New York Daily Worker* Nov. 18, 1951; China Information Bureau, Press Administration, *Daily News Release* Nov. 19, 21, 22, 28, 1951.

〈표 3-1〉 북한 억류 중 국군 및 유엔군포로 사망자 규모¹²¹⁾

(단위:명)

구 분	한국군	미군	기타 유엔군	총 계
수용소	7,624	5,178	372	13,174
행 군	710	959	87	1,756
총 계	8,334	6,137	459	14,930

위의 추정된 통계에서 진술자의 불분명한 기억, 과장 등으로 다소 변동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군 측은 현장 검증이나 생존자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통해 검토를 거듭했다. 이러한 희생 가운데 상당수가 전쟁 중 전쟁법과 관습법을 위반하여 살인, 포로의 학대, 인질 살해 등 전범 성격을 띤 희생자의 규모로, 1953년 6월 30일까지 1,615건에 57,000여 명에 대한 조사결과, 유엔군 11,622명과 민간인 17,354명 및 불명자 839명 등 총 29,815명이 희생되었다고 동년 10월 28일 발표했다. 그 후 1954년 5월 31일 최종 보고서에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경우는 총 1,956건 가운데 326건이었고, 나머지 1,630건은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희생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군이 5,330명으로 줄어들고, 한국군과 민간인은 각각 5,945명 늘어나서 총 규모는 12,093명이었다.¹²²⁾

121) HQ, KCZ Office of the Zone Staff Judge Advocate APO 234, "Report on Operation 'Big Switch'", Feb. 24, 1954, pp.9-10, 23/319; War Crime Division Judge advocate section, Korean Communications Zone, Information Extracted from Final Historical and Operational Report, May 31, 1954, Appendix 1, 10/319.

122) War Crimes Division, Judge Advocate Section, Korean Communication Zone, "Interim Historical Report" 1953.6.30, 27/319, p.37; Office of the Adjutant General, DA, "Communist Treatment of United States Prisoners of War," Oct. 23, 1953, 4225/ 407; War Crimes Division, Judge Advocate Section, KCOMZ, "Information Extracted from Final Historical and Operational Report" May 31, 1954, 10/319. 1953년 6월 말까지 미군의 전범 희생자가 3,924명, 한국군 4,531명으로 추정한 통계도 있다(김기진, 『한국전쟁과 집단학살』, 푸른역사, 2006, p.175).

이와는 달리 1951년 12월 18일 휴전협상에서 공산 측은 포로명단을 교부할 때, 569명이 수용 중 사망했다고 통보했다. 이후 전쟁포로 송환위원회에서 양측이 수용 중 사망한 포로에 관한 자료를 교환할 때, 공산 측은 국군포로 601명과 유엔군포로 1,050명이 사망했다고 알렸다.¹²³⁾ 정전을 전후하여 상병포로와 일반포로가 교환되면서, 국군포로 가운데 억류 중 사망 인원은 868명으로 늘어났고, 미군은 1,022명이었다.¹²⁴⁾

하지만 <표 3-2>에 정리된 대로 유엔군 측이 공산포로와 귀환포로 등의 증언과 첩보를 토대로 파악한 이동과정과 수용 중에 사망한 아군포로 규모는 국군 5,945명, 미군 5,330명 등 총 12,093명이었다. 그러므로 포로수용소에서 희생된 국군포로의 수는 북한 측이 인정한 868명으로부터 최대 5,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미군의 경우는 1,022명에서 5,330명¹²⁵⁾에 이를 것이다.

123) 『해방후 10년일지』, pp.195-196.

124) 국련군총사령부군사정전위원회, 「미귀환 영현 명단 송부의뢰」 1957. 10. 29, 국가기록원; Office of the Zone Staff Judge Advocate, HQ, KComz, “Report on Operation ‘Big Switch’” Feb. 28. 54, 국립중앙도서관. 영국군포로가 미군포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에 희생된 점에 대해, 포로수용소 관리에 참여했던 한 중국군은 그들의 연령이 높아 제2차 세계대전 참전 경험이 있어서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郭維敬, 『世界第一等的戰俘營』, p.4).

125) 미군 당국은 포로가 된 후 사망한 수를 1,857명, 2,634명, 2,651명, 2,701명, 2,849명 등으로 다양하게 파악하고 있으나, 그 나머지는 8,100명에 이르는 실종자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Army Security Center, “Total US Army Personnel Captured in the Korean Operation”, June 30, 1954, Arden A. Rowley, *U. S. Prisoners of War in the Korean War*, Korean War Ex-POW Association, 2002, p.23; William P. Skelton III, “American Ex POWs”, Department of Veteran Affairs Employee Education System, April 2002, p.30; Anne Leland·Mari-Jana “M-J” Oboroceanu, “American War and Military Operations Casualties: Lists and Statistic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CRS 7-5700), Feb. 26, 2010, p.10; Albert D. Biderman, *March to Calumny*, p.111; Arden A. Rowley ed., *U. S. Prisoners of War in the Korean War*, p.23; Defense Manpower Data Center, “Korean War Casualty Summary”, May 16, 2008, www.koreanwareducator.org, 검색일: 2014. 1. 9).

〈표 3-2〉 전범 희생자

국적	보고된 경우	희생자 추정치 (): 1954년	시체 수습	생존자
미국	10,233	6,113(5,330)	511	216
한국	10,334	5,460(5,945)	1,004	14
터키	135	13	0	0
영국	57	10(9)	3	2
벨기에	6	6(2)	6	0
호주	20	20	0	0
소계	20,785	11,622(12,093)	1,524	232

이에 대해 박헌영 북한 외상은 유엔군 측이 사살된 포로를 2,643명이라고 했다가 다른 데에서는 5,800명 또는 15,000명이라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거꾸로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공산포로의 희생자 발생에 대해 ‘죽음의 섬’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양민들을 학살하기 위해 도시와 농촌에 대한 폭격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¹²⁶⁾ 귀환포로의 증언에 의존한 것이기 때문에 그 규모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많은 포로들이 희생되었다.

포로들이 희생된 데에는 대개 북한군에게 책임이 있으나, 중국군도 포로를 살해한 적이 있었다. 탈북 국군포로의 진술에 의하면, 1950년 11월 25일 국군포로 2,000여 명이 4일간 걸어서 강계 인가리 포로수용소로 이동하는 중 한 장교 포로가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반항하

126) 「박헌영 성명」 1951년 11월 19일, 「소련 극비 외교문서」 4, p.137; 「소련 외무성 제1부상이 소련 내각회의 의장에게 보낸 보고서」 1951.7.2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 2006, p.738; *New York Daily Worker*, Nov. 18, 1951; China Information Bureau, Press Administration, *Daily News Release*, Nov. 19, 21, 22, 28, 1951. 미군 포로 중 일부는 공산군에 살해되었다기보다는 흑한에 삶을 포기한 경우도 있었다.

자 중국군이 사살했다고 한다. 1951년 4월 10일, 중국군 제65군 예하 부대가 연천 지역에서 터키군 32명을 포로로 잡은 후, 부상자 7명을 살해하고, 나머지는 후송했다. 또한 벽동 포로수용소에서 미군포로가 중국군에 의해 구타당해 사망한 경우도 있어, 전쟁 중 전체 전범행위에 의한 희생자 가운데 10% 정도는 중국군이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었다.¹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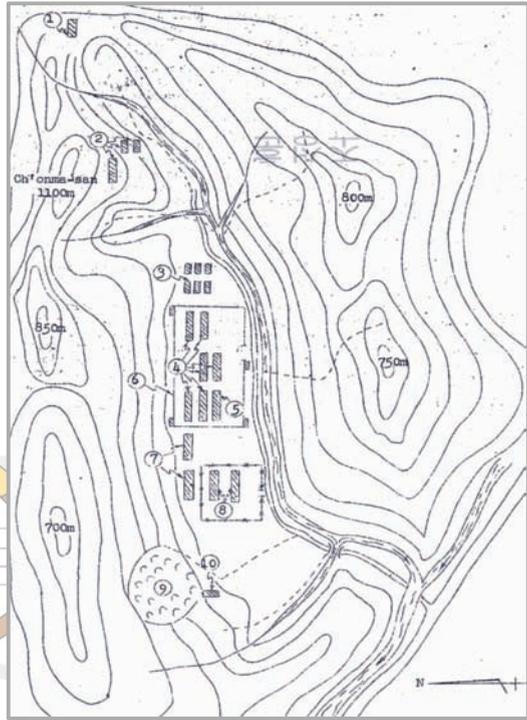
한편, 사망한 포로의 매장지는 수용소 인근에 존재하지만, 정확한 매장지를 확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¹²⁸⁾ 벽동수용소 동북쪽 언덕에 7곳의 매장지가 있었다. 포로수용소에서 포로들이 사망하면, 군복과 코트 등을 벗겨 동료들이 나눠 입었고, 땅이 얼어서 구덩이를 깊게 팔 수 없어서 어느 때는 시체를 안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버렸다. 겨울에 언 땅을 팔수 없을 때에는 눈을 파서 시신을 덮고 올 때도 많았다. 포로들은 시체를 흙과 돌로 묻는 밤이면 들짐승들이 시체를 두고 싸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릴 때, 묘지의 흙이 씻겨 내려가서 개나 들짐승이 드러난 시신을 침범하기도 했다.¹²⁹⁾

127) 박진홍, 『돌아 온 패자』, pp.46-47; Office of the Adjutant General, DA, "Communist Treatment of United States Prisoners of war," Oct. 23, 1953, 4225/ 407; War Crime Section Commission, Judge Advocate Section, KCOMZ, "Final Historical and Operational Report" May 31, 1954, 10/319; Philip D. Chinnery, *Korean atrocity*, pp.166-167.

128) "Camp 1 Burial Site Location", <http://www.koreanwar.org/html/units/pow/camp1.htm>; Harry Spiller ed., *American POWs in Korea*, p.9.

129) 육군본부, 『포로수용소』, p.47; 박진홍, 『돌아 온 패자』, pp.91-92; 안소니 파라-호커리(김영일 역), 『한국인만 몰랐던 파란 아리랑』, p.301; Army security Center, "ASCIR # 0052: Raymond L. Mendell, Jr, Sgt" May 20, 1954, 7/ 319; Army security Center, "ASCIR # 0056" July 9, 1954, 7/ 319; Lewis H. Carlson, *Remembered Prisoners of a Forgotten War*, pp.140-141. William(Bill) Richardson, *Valleys of Death: A Memoir of the Korean War*, p.246; William C. Latham Jr., *Cold Days in Hell: American POWs in Korea*, Texas A&M Univ. Press, 2012, p.192.

귀환포로의 심문보고서에서는 일부 매장지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 천마 포로수용소의 묘지는 아래 지도에 표기된 것처럼 수용소 남서쪽 40미터에 있었다. 또 다른 귀환포로인 오수점의 진술에 의하면, 수용소에서 500미터 떨어진 골짜기에 묘지가 있었다고 했다.¹³⁰⁾ 그 규모는 500~600명이라고 했고, 또 다른 귀환포로인 리재국은 그 규모가 1,000명에 이른다고 했다. 이때 나무 표말을 세워주었다고 한다.¹³¹⁾



제7수용소 스케치(김종수 중령 진술, 매장지: 9번)

130) 500th Military Intelligence Group, Interrogation Report: 김광연, 1953. 10. 12, 36-1/338.

131) 김원복 증언, 「한술회 월례모임」, 2010. 2. 17; 500th Military Intelligence Group, Intelligence Report Files(PROKAP Interrogation Report Nos. 1 thru 155, 1953, 30-1.

제4절 포로교육과 북한군 편입

1. 포로와 ‘해방전사’

북한에서 아군포로 가운데 특히 병사 출신 국군포로를 “미제국주의자로부터 해방된 전사”라는 의미로 ‘해방전사’로 불렀다. 북한의 정의에 의하면 해방전사란 “조국해방전쟁 시기 치욕스러운 괴뢰군 살이에서 해방되어 인민군대에 복무하는 전사”를 가리킨다.¹³²⁾ 일반 주민도 해방전사라고 불렀다. 중국군도 붙잡은 미군에게 “포로로 생각하지 말고 해방되었다(Don't think of yourselves as captured, but as liberated)”고 생각하라고 말했다. 즉, 유엔군포로를 전향시키기 위해 ‘포로’ 대신에 ‘새로 해방된 친구들(newly liberated friends)’이라고 불렀다.¹³³⁾

북한 당국은 6·25전쟁을 ‘해방전쟁’으로 정당화시키면서, ‘해방전사’의 논리로 “국군포로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탈린은 레닌의 이론을 발전시켜 전쟁에는 정의의 전쟁과 불의의 전쟁이 있다고 정리했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정의의 전쟁은 침략적 전쟁이 아니라 해방전쟁이어서 외국으로부터 공격이나 예속화하려는 음모로부터 인민을 방위하며 혹은 자본주의의 노예제로

13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현대 조선말사전』(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2,400, 제성호, 「국군포로 및 남북자문제 해결방안」, 『국가전략』 7권 1호 2001년 봄호에서 재인용.

133) Lewis H. Carlson, *Remembered Prisoners of a Forgotten War*, New York : ST. Martin's Press, 2002, p.107.

부터 인민을 해방시키며 제국주의의 억압에서 식민지나 예속국을 해방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전쟁이다. 부정의 전쟁은 침략전쟁으로 타국의 영토와 외국 인민을 정복하고 노예화하려는 목적을 가진 전쟁이라고 규정했다.¹³⁴⁾

김일성·박헌영 등 북한지도부는 6·25전쟁은 “동족 간에 피를 부르는 전쟁이 아니라 미 제국주의자와 친일반동파들에 시달림을 받고 있는 남조선 동포들을 해방시키는데 있다”고 주장했다.¹³⁵⁾ 그들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6·25전쟁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이승만 괴뢰군을 앞장에 내세워 조선인민에 대한 강도적인 침략전쟁을 일으킨 것으로 조선인민에게는 불의에 강요당한 전쟁”이라고 호도했다. 전후에도 북한주민에게 “1950년 6월 25일, 미제의 조종 아래 남한군이 북한에 대한 불의의 침공을 감행했다”¹³⁶⁾고 교육시키고 있다.

그들은 미군포로에게 쫓겨대회를 열게 하여, “우리는 북한군이 전쟁을 도발했다는 전제아래 한국에 왔으나, 이곳에 와 보니 실제로 전쟁을 일으킨 것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이었다”고 주장하게 했다. 딘 장군에게도 미국이 6월 25일에 전쟁을 시작하라고 명령했다고 주장할 것을 강요했다.¹³⁷⁾

하지만 이러한 북침론은 이미 증명된 대로 사실관계부터 틀렸다. 북한은 전쟁을 남한과 미국이 도발한 것으로 주장했지만, 6·25전쟁이 북한에 의한 남침전쟁이라는 사실은 1990년대 초 소련으로 망명한 북한

134) 「정의의 전쟁과 부정의 전쟁에 관한 레닌과 스탈린의 명제」, 『로동신문』, 1952. 10. 2.

135) 『조선인민보』, 1950. 8. 15; 백봉,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 2부, 1976, pp.219-224; 『북괴군 군사사상』, 육본, 1984, p.34; 최태환, 『짧은 혁명가의 초상』, 공동체, 1989, p.125.

136) 김천해, 「조선에서의 미제 침략정책의 파탄」, 『인민』 1954. 6, p.73; 『청년영웅전』,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출판사, 1965, p.133.

137) 윌리엄 F. 딘(김희덕 역), 『딘 장군의 수기』, 창우사, 1995, p.110, 122.

군 인사의 증언을 비롯해 구 소련 문서공개로 더욱 분명해졌다. 전쟁 당시에 이미 북한군 간부들은 ‘남한의 침공, 북한의 반공격’ 주장에 의문을 가졌고, 수송 수단의 미비와 물품 부족으로 약탈을 일삼는 자신들이 ‘해방군’이 아니라고 인식했다.¹³⁸⁾

북한의 해방전쟁 논리에 의한 ‘해방전사’는 얼마나 될까? 사실 그들의 해방전쟁 논리에 의하면 포로는 모두 석방되어야 했다. 1950년 6월 23일, 북한군 모 사단에서 대대장급 이상 군관을 소집했다. 이 회의에서 “이건 국가와 국가가 맞붙는 전쟁이 아닙니다. 다만 서울을 해방시키자는 것이니 붙잡힌 국방군은 그 자리에서 풀어주어야 합니다”라고 지시했다고 한다.¹³⁹⁾

일부 포로를 석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북한군 총사령부에서는 전쟁 초기부터 분명히 ‘포로’라고 발표했다. 1950년 6월 28일 용진 지역에서 국군 제17연대 중위 한서환을 “생포된 소위 국방군 포로병”이라고 불렀다. 개성 방면에서 “생포된 포로” 가운데에는 국군 제1사단 박춘건(이등중사)와 오정혁 등이 있었다.¹⁴⁰⁾

북한군과 중국군은 “투항 및 포로된 장병들을 억압과 암흑에서 해방된 형제로 대우한다”고 했지만, ‘해방전사’의 범주는 포로의 전부가 아니라 북한군에 투항하거나 자발적으로 편입하여 적극적으로나 소극적으로 협력한 ‘전향포로’들이고¹⁴¹⁾ 나머지는 협력을 위장하거나 완강히 협력을 반대하는 자 등을 비롯한 대부분은 여전히 포로이다.¹⁴²⁾ 포로가

138) 김석중, 『사풍』, 극동문제연구소, 1991, p.101, pp.115-116.

139) 최태환, 『젊은 혁명가의 초상』, pp.100-113.

140) 『로동신문』 1950. 6. 30, 7. 4.

141) ‘의거자’로 1952년 11월 13일 선전 좌담회에 참석했던 포로들은 다음과 같다. 리영규(견습 수병, 해병대 제5대대), 김기문(이등중사, 미 제2사단 38연대), 리남석(탄약수, 해병대 5대대), 김동식(일등병, 제7사단 3연대), 소수남(이등병, 제1사단 11연대), 박승만(일등병, 수도사단 26연대), 김업(소령, 제7사단 3연대), 서관규(일등병, 제6사단 2연대), 「유쾌하고 행복한 우리의 생활」, 북한 노획문서 No. 206925, 군사편찬연구소 누 1438).

되었다가 전쟁 당시 탈출했거나 휴전 직후 귀환했던 국군포로 가운데 ‘전향포로’는 ‘변절자’로 포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순종했던 이들도 포로대우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¹⁴³⁾

해방전사의 첫 범주인 투항자는 북한군이 승리하던 초기 전투와 중국군의 제1, 2, 3차 공세시기에 발생했을 것이다. 북한군이 승승장구했던 1950년 7월 하순까지 국군포로들은 정신적 혼돈상태에 있었을 것이다. 물론 이 시기의 국군포로도 전부 북한군의 승리를 믿었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미군이 참전하고 그들의 공습이 강화되면서 북한군의 승리를 확신할 수 없었으므로, 북한에 협력하는 국군포로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다. 중국군이 승리하고 있을 때 북한군은 “이제 남조선도 곧 해방될 것”이라고¹⁴⁴⁾ 장담했으나, 중국군이 전쟁 중 포로로 했던 인원 가운데 투항자 규모는 유엔군을 포함해 435명에 불과했고 휴전 후 송환을 거부한 국군포로는 325명에 그쳤다.¹⁴⁵⁾

북한군의 경우는 중국군보다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전쟁 이전 전투지역에서는 포로와 투항자를 구분하여, 직무, 계급, 성명, 연령, 출신도, 소속 등의 통계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¹⁴⁶⁾ 국군 장병의 투항을 유도하기 위해 토지와 종곡, 주택건축용 목재 등을 비롯하여 공장 제조소 탄광 철도 등 직업과 인민학교 초급 및 고급 중학, 전문학교, 대학에서 무료 교육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선전했다.¹⁴⁷⁾

142) 중국지원군사령부편, 『虜俘詢審樣』 1951. 3. 20, 『한국전쟁기 중공군 문서』 2, p.371; 『한국전쟁기 뼈라』, p.470; 허재석, 『국군포로는 분노의 강을 넘어 살아서 돌아왔다』, 작은 숲, 2006, pp.29-30.

143) 이덕수 증언, 대전시, 2006. 8. 11; 박경석, 『빛바랜 훈장』, 홍익출판사, 2001, p.31.

144) 육본, 『포로수용소』, p.28.

145)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p.392.

146) 제3157부대 참모부, 『정찰지령』 1950. 6. 24, 군사편찬연구소 SN 119.

147) 이윤규, 『들리지 않던 총성 종이폭탄』, 지식테마, 2006, p.417.

전쟁 초기에 북한 언론은 국군의 투항을 크게 보도했다. 이 시기 국군의 사기는 크게 떨어져 부대의 규율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투항자가 발생한 것은 사실일 것이다. 모 탈북 국군포로도 1950년 7월 제2보병사단 제16연대에서 부대를 탈영하여 인민군에 스스로 입대했다. 이외에도 전쟁 전 국군 내부에 남아있던 좌익적 요소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예를 들면, 육군 제3보병사단 22연대는 전쟁이 일어난 지 4일 만에 병력의 2/3를 상실했다. 이 연대의 전신이 전쟁 이전 대구폭동과 연관된 제6연대로 미처 색출되지 못한 공산주의자들이 당시까지 노출되지 않고 있었을 가능성에 비추어 1개 대대 병력 정도는 자진 귀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되었다.¹⁴⁸⁾

그 후에도 부분적으로 투항 소식을 보도하였지만, 그 규모는 그다지 많지 않다. 미군의 개입 이후 북한군은 사기가 상당히 낮아진 반면에, 한국군이나 국민들은 미국에 커다란 기대를 했다. 따라서 국군의 군기가 와해되었던 기간은 그다지 길지 않았다.

북한군은 1950년 9월 안강전투에서 수도사단 소속 소대장 이하 57명이 의거 투항했다고 발표했다. 9월 2일 동해안 방면 전투에서 국군 대위 1명과 병사 80여 명이 인민군으로 의거했다고 했다.¹⁴⁹⁾ 인천상륙작전 이후 영월전투에서 국군 제7보병사단 8연대 2대대 7중대 2, 3소대원 마영락 등 19명이 투항하였으며, 국군 82명을 생포하여 김일성으로부터 영웅칭호를 받았던 북한군의 전투사례도 발표했다.¹⁵⁰⁾

휴전협상이 진행되면서 이루어진 진지전 시기에는 투항하는 인원이

148) 정수암, 「나의 6·25전쟁 수기」, 50동우회편, 『국군의 뿌리』, 삼우사, 1998, pp.274-275.

149) 『해방 후 10년일지』, p.88.

150) 『승리를 위하여』 1950.9.7; 『조선인민군』 1951.1.4; 『로동신문』 1951.3.20; 『민주조선』 1951.3.27.

많을 수 없었다. 북한 측이 밝힌 인원 가운데 1951년 12월 국영암 소위가 의거 투항했고, 1953년 2월 13일 국군 제6보병사단, 12사, 15사 등 100여 명과 제11보병사단 김두관 중대 부관, 김승준 소위 외 17명이 인민군에 의거·투항했다고 했다.¹⁵¹⁾

‘해방전사’는 전쟁 시기 북한군에 편입된 포로들로 노동당에 일찍 가입할 수 있었다. 이들과 전후에 송환 희망이 사라진 후 북한 사회에 적응한 경우는 다르다. 이들은 북한에서 일반포로들 보다 직장배치, 승급, 입당 등에서 우대를 받았다. 1993년 7월 27일 정전협정 40돌을 맞아 참전자를 격려하기 위해 ‘노병대회’를 각 시군별로 개최했다. 당 중앙위원회에서는 ‘전쟁승리’에 기여한 군인들과 근로자들을 국가적으로 표창하기 위해 ‘40돌 기념훈장’을 제정했다. 이때 일반포로 출신들은 참석을 시키지 않고, 전향포로들만 참석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가족이나 주민들에게 “국군포로 출신이기 때문에 노병대회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전향포로들은 노병대회에서 인민군, 의용군 출신과 함께 양복지 한 벌, 공로메달을 받았다.

이러한 ‘전향포로’ 외에는 모두 포로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포로들은 의거입북자나 의용군 출신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았다. 의용군 출신은 평양 인근 거주가 가능했고, 입당이 빨랐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 의용군에 입대한 후 1956년 7월에 제대한 박일준, 김계진, 심상주, 김동식 등은 김일성대학, 송도정치경제대학 김책공업대학 등에 입학했다. 그들은 북한 내각결정 제40호와 7호에 의해 학용품과 옷을 무상으로 받았고 장학금도 지원받았다.¹⁵²⁾

151) 『민주조선』 1952. 12. 11; 『해방 후 10년 일지』, p.98.

152) 박일준, 「너와 나는 총부리를 맞댈 수 없다」, 『청년생활』, 1957. 5, p.12.

2. 포로교육과 심사

공산군 측은 포로들로 하여금 아군의 투항을 유도하거나 쫓기대회를 열어 미군의 전투중지를 요청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선전에 이용했다. 특히 국군포로에게는 북한군 입대와 주민편입을 위해 송환을 거부하도록 교육시켰다.

중국군과 북한군은 포로교육을 ‘벽동세계대학’으로 선전했지만, 아군 포로에게 강제노동, 고문, 정치적 훈련 등을 이용해 공산주의 사상을 강제로 주입(compulsory indoctrination)시키려는 교육을 강화했다. 중국군은 포로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기초 조사로 먼저, ‘평화계곡(Peaceful valley)’이라 선전했던 강제 포로수용소에서 1950년 12월 20일부터 이듬해 3월 3일까지 미 해병대원 18명과 다른 300명에 대해 8주 간의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했다. 그들은 이들 포로 중에서 보다 진보적인 포로를 선발하여 다른 병사들의 투항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엔군 전선에서 석방할 예정이었다. 이후 본격적인 사상 교육은 강의를 비롯해 독서, 토론과 그룹스터디, 자아비판, 영화감상, 시험 등으로 이루어졌다. 강사는 모두 중국인이었으나, 친공적인 서방기자인 윈닝턴(Alan Winnington), 버쳇(Wilfred Burchett)도 초청 강사로 나왔고, 터키군포로에게는 러시아인이 교육을 하였다고 한다.¹⁵³⁾

153) 조성훈, 「한국전쟁중 공산측의 유엔군 포로정책에 대한 연구」, pp.246-248; 郭維敬, 『世界第一等の戰俘營』, p.158; Office of the Adjutant General, DA, “Communist Treatment of United States Prisoners of War,” Oct. 23, 1953, 4225/ 407 decimal file 1953-1954 383.6; Lewis H. Carlson, *Remembered Prisoners of a Forgotten War*, pp.112-113; S. P. Mackenzie, *British Prisoners of the Korean War*, pp.126-127.

영국군 그로스터 대대의 호커리(Anthony Farrar-Hockley) 대위는 1951년 4월에 정치학습을 매일 9시간씩 받았다고 회고했다. 교육 내용은 누가 한국전쟁을 일으켰나, 유엔군의 간섭, 자본주의 초기단계, 자본주의 국가의 제국주의, 공산주의 사상, 소련생활, 세균전 등에 대한 것이었다.

이미 이질과 각기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던 영국군 카바낙(Laurence Kavanagh) 하사는 교육 강사로 온 친공 서방언론인에 대한 살해 위협을 하고 교육 참석을 거부해 수용소에서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고 처벌을 받아 1951년 9월 4일 사망했다.¹⁵⁴⁾ 그런데 포로의 사상교육의 결과, 미군 당국은 귀환한 미 육군포로 중 12%가 공산주의에 경도 되었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 가운데 테네시 주 출신 아담스(Clarence C. Adams) 일등병을 비롯한 21명이 고향을 돌아오길 거부했다.¹⁵⁵⁾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포로는 북한군으로 편입되지는 않았으나, 일부 포로는 북한에 억류되거나 중국이나 시베리아 등지로 보내졌다는 주장은 계속 제기되었다.¹⁵⁶⁾

북한군도 국군포로에게 1951년 4월경부터 정치교육을 본격적으로 시

154) Cyril Cunningham, *No Mercy, No Leniency*, p.31.

155) 「管教美俘의點滴經驗」, 『志願軍』 1951. 2. 15, 『한국전쟁기 중공군문서』 2, p.510; 「對美軍俘虜訓練大綱」, 같은 책, p.375; 윌리엄 F. 딘(김희덕 역), 『단장군의 수기』, p.111; 안소니 파라-호커리(김영일 역), 『한국인만 몰랐던 파란 아리랑』, 한국언론인협회, 2003, p.166; David Mc K. Rioch, Army Medical Service Graduate School, “Report of Temporary Duty in Japan and Korea Apr. 14 to Jul. 17, 1953”, 1/338; “Background Material on No-Repatriated Prisoners”, Jan. 29, 1954, 23/407. 귀환한 미군포로 가운데 보안 위협이 있는 비중이 27%에 이른다(분석하기도 했다(“True Magazine Story re Corporal Edward S. Dickenson” 18? 319 files, NARA, p.3).

156) 『신한민보』, 1952. 3. 13; James A. MacDonald, Jr., “The Problems of U .S. Marines Corps POWs in Korea”, p.71; Philip D. Chinnery, *Korean atrocity*, pp. 133-135.

켰다. 천마 포로수용소에는 공산주의 관련 서적 300권이 소장되어 있는 도서관이 있었고, 선전영화도 상영했다. 그들은 교육에 순응하는 포로에게는 보다 나은 음식, 피복 등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였으며, 정치교육을 받은 후에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고 교육했다. 천마 수용소에서는 매일 4시간씩 사상교육을 시켰고, 일부 수용소에서는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교육이 있었다고 한다. 당시 포로들은 교육을 잘 받은 것으로 인정받아 인민군에 편입되면 탈출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이해했다고 한다.¹⁵⁷⁾



벽동포로수용소 정치교육 모습

그들은 공산주의란 무엇인가, 공산주의를 어떻게 세상을 발전시켰는가, 북한군 승리 이유, 김일성 투쟁사, 남북한 통일 필요성, 북한의 민주개혁,

157) 이원혁, 「17세의 포로」, 『6·25참전 용사의 수기』, 공보국 조사국, 1962, p.88; 박진홍, 『돌아 온 패자』, pp.153-154; 성달오, 「대상도 지냈는데 돌아 온 남편 - 포로전말기」, 해병대3·4기전우회, 『참전실록』, 2002, p.374; 500th Military Intelligence Group, Interrogation Report: 유희봉, 1953. 4. 27, No. 30-1/338.

미국은 제국주의적 국가, 소련과 공산국가의 위대한 경제발전 등을 교육시켰다. 장교의 경우는 사병포로보다 깊이 있게 다루어졌다. 전쟁 이전 월북한 강태무와 표무원이나 정치보위부 장교가 강사로 나와서, 수용소에서 “강냉이 몇 알 먹고 배고프게 있지 말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인민군에 자원 입대하면, 쌀밥에 고깃국을 준다”는 것이 사상교육의 요지였다. 후에 억류시킨 포로에게는 북한 체제의 우수성과 김일성의 영도력에 대한 찬사 등이 강조되었다.¹⁵⁸⁾

이러한 교육 후에 북한 측은 포로명단 교환 전에 포로심사를 비밀리에 실시하여 그 규모를 조정했다. 그들은 수용소에서 국군포로를 대상으로 “조국과 인민을 위해 북한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남한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심사의 실시와 강제성 여부가 중요하다.

심사관은 학력에 따라 위관급과 영관급이 담당했다. 북한군 강동제8포로수용소에서 포로명단을 교부하기 1달여 전인 1951년 10월 말에 포로 심사가 있었다고 한다. 포로들은 송환여부가 포로들의 의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불안해 했다. 정치보위부 장교는 그동안의 사상학습, 전쟁의 성격, 통일되면 무엇을 할 것인가, 남한에 간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북한에 남게 된다면 무엇을 희망하는가 등을 조사했다. 심사 장소는 지하실이어서, 그 입구부터 공포심을 자아냈다. 심사를 밤에만 실시하는 경우도 있었다.¹⁵⁹⁾

158) 박진홍, 『돌아 온 패자』, pp.165-167; 유영철, 『지옥의 별밤 아래에서』, p.53; “Communist Indoctrination of ROK Prisoners of War Returnees”, Oct. 21, 1951(file no., Kor-308-203(5c), 군사편찬연구소 HM 1925.

159) 박진홍, 『돌아 온 패자』, pp.136-138.

휴전 후 귀환했던 포로 중 일부는 북한군이 포로를 엄격히 심사하여 원하는 사람만 잔류시켰다고 주장했다. 북한군은 6개월 이상 관찰하여 포로가 원한다고 해서 잔류시키는 것이 아니고, 학습 동향과 행동 등을 심사했다. 정전 직후 귀환했던 한 포로는 ‘빨갱이’라고 해야 남을 수 있었으므로 잔류자는 남한의 반공포로와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자이므로 국군포로는 없다는 것이었다.¹⁶⁰⁾

하지만 탈북 국군포로들이 증언하듯이 상당수 포로는 심사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억류되었다. 북한군은 포로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지난 과오는 다 덮어 줄 테니까 인민군에 입대해서 국가에 봉사하라고 강권하거나, 국군포로에게 포로교환 시 강제로 북한에 남겠다는 서약서를 받은 후 잔류시켰을지 모른다. 또한 그들로부터 남한으로의 귀환의사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나, 만약 돌아간다고 할 경우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귀환의사를 밝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을 것이다.¹⁶¹⁾

북한 측은 “국군포로의 인민군 편입을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the principle of individual choice)”으로 주장했다.¹⁶²⁾ 구 소련의 개혁 개방정책으로 서울을 방문했던 이상조 북한군 휴전협상 대표는 “아시아 사람들은 포로가 되는 것을 수치로 생각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북한에) 떨어진 사람이 많았다”고 변명했다.¹⁶³⁾

북한군 편입은 생존의 방편이기도 했다. 포로들 가운데에는 배고픔과 발진티푸스 등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수용소에서, 인민군에 입대하면 차별 없이 대우해주고 그들과 같이 먹여준다는 선전에 흔들리는 자들이

160) 이덕수 증언, 대전시, 2006. 8. 11.

161) 일부 탈북 국군포로는 휴전 직후 귀환된 포로중 상당수가 공산 측에 협력했다고 주장했다.

162) “CINCUN to American Embassy for Muccio”, 26 Dec. 1951, 군사편찬연구소 SN 1767.

163) 이상조 증언: 한국전쟁과 휴전회담, 전사편찬위원회, 1990.6.28., 군사편찬연구소 HA 3835.

많이 나왔다. 그들은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런 수용소에서 있다가는 다 죽을 것이 확실한데 살기 위해서” 인민군에 입대했다.¹⁶⁴⁾ 이와 같이 북한 측은 포로들이 겪고 있는 배고픔과 장래에 대한 불안한 심리를 충분히 활용했다. 일부는 부대에 배치된 후 전선에서 탈출하기 위해 북한군에 편입을 원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1994년 탈북한 조창호 중위는 1951년 5월 포로가 된 후 북한군이 그의 포병장교 경력 및 영어·일어 등 수준을 파악하고 협조를 강요당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제네바협약에 따른 포로대우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민군 제8사단에 배치되었다. 그러나 박진홍 등은 의대를 다니다 국군에 징집된 사실을 알고도 그냥 돌려보낸 경우로, 심사 과정이 매우 자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은 포로들이 도망했다거나 다른 수용소로 이송한 것처럼 분리시켰다. 심지어 포로를 교환할 때에도 각 수용소마다 포로들을 통일적으로 후송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섞어서 개성으로 이송했다고 한다.¹⁶⁵⁾

3. 북한군과 주민 편입

가. 정규군 편입

1) 북한군 편입 사례

공산군 측은 포로를 이용하여 국군의 투항을 권유하는 심리전에 활용

164) 「휴전후 첫 무장간첩 귀순자의 인생유전」, 『신동아』 1999. 6; 박진홍, 『돌아 온 패자』, pp.99-101.

165) 최춘영, 「상좌동지! 우리를 총살해 주시고……」, 『월간조선』, 2000. 8, p.601; 이택수 증언, 대전시, 2006. 8. 11.

하거나, 미군포로들로 하여금 미군의 전투 중지를 요청하는 쥘기대회를 개최하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선전에 이용했다.¹⁶⁶⁾ 그런데 미귀환 포로와 관련하여 보다 중요한 요소는 북한군으로의 편입이었다. 공산군 측은 포로를 이용하여 정보 획득이나 선전 수준을 넘어 북한군으로 입대시키거나 주민으로 편입시켰다. 그 결과 포로수용소에는 일부 포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용되지 않고 송환을 위한 포로명단에도 들어 있지 않았다.

북한군은 전쟁 초기에 승승장구하고 있을 당시에는 승리를 낙관하여 포로를 북한군으로 편입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미군의 반격으로 전황이 악화되자 국군포로 중 일부를 입대시켰지만, 그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남한 출신 의용군을 전선에 더 많이 배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이후 북한군이 후퇴할 때 국군포로의 편입 규모가 늘어났다.

국군포로의 북한군 편입 사실은 그들의 포로 처리지침에도 분명히 나타난다. 1950년 11월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김일성과 동 총정치국장 박헌영의 명의로 된 포로 지침에서 “포로에 대한 관대한 정책을 실시하고 심각한 정치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포로들 가운데 아군부대에 편입되어 적들과 진정으로 싸우기를 희망하는 자들은 대담하게 부대에 편입시킬 것, 부대에 편입시키되, 이승만 군대와 경찰에 복무한 지 오랜 된 자들은 고향으로 보낼 것이며, 입대한 지 오래지 않은 자들을 편입시킬 것”을 지시했다. 이 무렵 ‘포로사업을 위한 제강’에서도 “입대시킬 때에는

166) 윌리엄 F.딘(김희덕역), 『딘 장군의 수기』, 창우사, 1995, p.110; “Propaganda Publications of the North Korean Puppet Government”(obtained in the Andong area about 7 Oct. 1950), 군사편찬연구소, SN 1246.

구병을 취하지 말고 1950년 9월 이후 입대한 신병을 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¹⁶⁷⁾

실제로 전쟁 중 북한 언론에서 발표한 사례를 통해서도 찾을 수 있다.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이 있기 전 그들이 승리하고 있을 때, 붙잡힌 국군포로는 후방으로 이송되어 북한군으로 편입되었다. 그들은 이러한 조치를 “희망에 따라 재생의 길”을 선택했다고 선전했다.¹⁶⁸⁾

1950년 7월 23일 모 포로수용소에서 김동춘·이동인·김전중 등은 포로결기대회를 개최하여 지난날의 죄과를 뉘우치면서 전쟁에 참가하여 싸울 것을 결의했다고 하였고, 국군 제7보병사단 8연대의 김현옥도 “인민군이 되었다”며 전단지에 등장했다.¹⁶⁹⁾ 최근 중국에서도 중국군과 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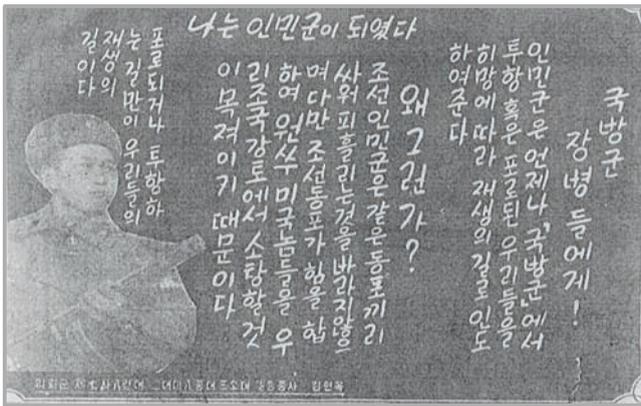
포로결기대회 기사(『로동신문』 1950. 7. 29)

167)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적 후방에서 활동하는 인민군각중부대와 빨찌산부대들의 인민과의 정치공작에 관하여」 1950. 11. 24, 21/338; 「포로사업을 위한 제강(문서번호 202472)」 1951. 1. 20, 21/338.

168) 제8사단 정보처, 「적의 빼라철」 1952. 5, 군사편찬연구소 66-2.

169) 「저주로운 과거를 청산하고 조국과 인민에 복무할 것을 맹세」, 『로동신문』 1950. 7. 29; 『로동신문』 1950. 8. 3; 제8사단 정보처, 「적의 빼라철」, 1952. 5, 군사편찬연구소 66-2.

한군은 포로석방을 선택하든지 남한 포로를 설득하여 북한에 참전시키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전쟁포로의 수는 매우 적었다고¹⁷⁰⁾ 인정하기 시작했다.



북한 선전전단(1952. 5)

그 절차는 전선부대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직접 포로나 남한 출신 의용군을 편입시키지 않았다. 즉, 북한군은 포로를 전선부대에서 임의로 편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 군단 예비연대에서 교육을 시킨 후 전선의 여러 부대에 분산 배치시켰다. 이 예비연대는 북한 신병 외에 전선에서 후퇴한 병력, 중국군 출신 조선동포, 포로 출신 등으로 이루어졌다.

전쟁 첫날인 1950년 6월 25일 전곡에서 박인규·윤석호·염준기 등은 포로가 된 후 다른 포로들과 함께 트럭을 타고 연천으로 이동했다. 27일 연천역에서 3일간 열차를 타고 회령역에 도착하여 1950년 7~12월까지 함북 회령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다. 그 인원은 약 1,800여 명(1개 중대

170) 吳少京, 『중공군의 한국전쟁 교훈』, 육군본부, 2005, p.115.

150명×12개 중대) 수준이었고 부상병으로 편성된 의무중대도 있었다. 북한군은 포로를 환자·헌병·경찰·정보원 등으로 분류하고 전투병 출신을 비롯한 쓸만한 사람은 차출해서 교육훈련을 시킨 후 인민군에 입대시켰다.

북한군 후퇴시기 일부 포로들은 만주 지역에서 훈련을 받아 인민군에 편입되기도 했다. 1950년 7월 15일 안성에서 포로가 된 채병인은 함경북도 회령수용소에서 8월 15일부터 11월 3일까지 사상교육을 받은 후 11월 15일 인민군대에 다른 국군포로 4,000명과 함께 입대했다. 그들은 중국 만주에서 1950년 12월 25일까지 군사훈련과 정치교육을 받은 후 북한으로 돌아왔다. 그는 이듬해 4월 제8군단 42사단에 편입되었다.¹⁷¹⁾

탈북한 조창호 중위처럼 훈련없이 포로로 된 직후 편입된 경우도 있었다. 1951년 1월 홍천에서 5명과 함께 포로가 된 김모는 ‘해방전사’라면서 곧 인민군 12사단 군의소에 편입되어 군의소(軍醫所)에서 다른 포로 20여명과 함께 복무했다. 1951년 2월 12일 횡성에서 중국군에 의해 포로가 된 윤종우는 다른 6명의 국군포로와 함께 북한군으로 인계되었다. 3월 13일 김화에 주둔하고 있던 북한군 제9사단 86연대 76mm 박격포부대에 배치되었다.¹⁷²⁾

가장 전형적인 예를 들면 1951년 5월 23일 현리에서 북한군 제2군단에 의해 포로가 된 주효구는 이포리(DT2354) 포로집결소로 이동하여 다른 포로 100명과 함께 6월 20일 북한군 제2군단 예비연대 3대대에 편성되었다. 대대는 5개 중대로 약 1,000명 규모였다. 이들은 주로 국군 수도

171) “Communist Indoctrination of ROK POWs Returnees” Oct. 17, 1951, 군사편찬연구소 HN 1925.

172) 「포로 예비보고서 : 윤종우」 1951. 12. 8, HQS, EUSAK, “POW Preliminary Interrogation Report” 군사편찬연구소 HD 1716.

사단·제3·7·9사단 소속 포로로, 8월 26일까지 8주간 보병 기초훈련과 사상교육을 받은 후 제2군단 예하 사단에 각각 배치되었다. 그는 8월 27일 다른 포로 60명과 함께 북한군 제27사단 14연대 1대대 1중대에 편입되었다.¹⁷³⁾ 이 제27사단은 제18·19·31·32·41·42·43·45·46·47사단 등과 함께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후 새로 편성된 부대 중 하나였다.¹⁷⁴⁾

1951년 5월 중·하순 포로가 된 윤효식과 김성옥도 국군포로 3,000명과 양구로 이동한 후 북한군 제3군단 제398예비연대에 편성되었다. 이 연대는 신고산 동남방 56km 지점에 위치해 있고, 북한군 신병 1,000명과 함께 2개월 동안 훈련한 후 김윤철 등 600명은 북한군 제3사단으로 배치되고 다른 포로들은 제3군단 예하 제1, 15, 45사단으로 배치되었으며, 김성옥과 다른 22명은 제3군단 본부 정찰대대로 편입되었다.¹⁷⁵⁾

〈표 3-3〉 국군포로의 북한군 편입 사례

성 명	피포일시	편입일시	편입부대명
김 ○ ○	1950. 6. 30	1950. 11. 15	제42사단
리 현 대	1950. 11		제6사단 15연대
윤 종 우	1951. 2. 12	1951. 3. 13	제9사단 86연대
조 창 호	1951. 5	1951. 5	제8사단 정찰대대
백 찬 종	1951. 5. 19	1951	제5군단 공병대대
주 효 구	1951. 5. 23	1951. 8. 27	제27사단 14연대
박 ○ ○	1952. 3		제12사단

173) “Chu, Hyo Ku(주효구)” Dec. 8, 1951, HQS, EUSAK, “POW Preliminary Interrogation Report”, 군사편찬연구소, HD 1716, pp.55-58. 그는 거제도포로명단에 없는 것으로 보와 원래 복귀한 것으로 추정된다.

174) 김광수, 「낙동강전선에서 패배 이후 북한 인민군의 재편과 구조변화」, 『군사』 59, 2006, 6, p.102.

175) 「포로 예비보고서 : 윤효식」 1951. 12. 14, HQS, EUSAK, “POW Preliminary Interrogation Report”, 군사편찬연구소 HD 1716; 「포로 예비보고서 : 김성옥·김윤철」 1951. 12. 15, HQS, EUSAK, “POW Preliminary Interrogation Report”, 군사편찬연구소 HD 1716.

이렇게 편입된 국군포로는 점차 후방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전선에서 탈출하기가 어려웠다. 육군 제7보병사단 8연대 소속 윤백환 이등병은 1951년 5월 15일 중국군에 의해 포로가 된 후 북한군에 인계되어 2개월간 교육을 받았다. 그는 북한군 제45사단에 배치되었는데 간부는 인민군이고, 사병은 국군포로가 많았다고 기억했다. 당시 북한군 측은 전방에 배치시켰던 국군포로 가운데 탈출하는 자가 많아서 이들을 제2전선에서 호를 파고 군수물자를 나르도록 강요했다.¹⁷⁶⁾

중국에서 전쟁 중 북한군 장교로 참전했다가 돌아온 동포도 철로병단의 중대마다 국군포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함경북도 학성군 성진 출신으로 3·1운동 후 중국으로 가서 이미 1948년 7월 중국 공산당에 입당했다. 전쟁 직후 북한군 제2군단 24사단으로 편성되어 제32연대 9중대장으로 참전하였으나, 1951년 5월경 38°선 부근 강원도 태백 매봉



철로병단 간부와 친구들

176) 윤백환(경기도 여주군), 「6·25사변 당시 겪은 진술서」 2012. 3. 28.

산 전투에서 부상 후, 철로병단에 배치되었다. 이 부대는 철로의 복구, 수리를 담당한 특별부대로 나중에는 평안북도 구장(개천-구장-영변)의 터널 공사에 동원되었다. 이 부대는 3개 연대로 편성된 여단편제 규모로 포로를 1개 중대에 15~20명씩 배치했다고 한다.

일부는 유격대에 편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승엽을 비롯한 남로당 계열이 황해도 사리원에 국군포로를 남한에 침투시키기 위해 북한군 작전국 직속으로 유격지도처, 일명 제526군부대를 설치했다. 이 부대는 남한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빨치산과 연락부대로 평남 중화군에 제1지대, 황해도 옹진에 제2지대, 남연백에 제9지대, 연안에 제10지대 등을 각각 편성하여 훈련시켰다. 그러나 아군 주저항선의 병력밀도가 대단해서 남한으로 침투시키지 못하다가, 1953년 남로당의 숙청으로 해체되었다.¹⁷⁷⁾

2) 편입된 국군포로 규모

북한군이 국군포로를 각 부대에 분산 배치하는¹⁷⁸⁾ 한편 공식 통계를 발표하지 않았으므로, 북한군에 편입된 포로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에는 매우 제한적이다. 북한군에 편입된 국군포로의 규모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다.

전쟁 당시 미군은 북한군으로부터 노획한 문서와 포로신문 등을 통해 북한군으로 편입된 국군포로의 규모를 추정했다. 1951년 5월 25일

177) 「포로 예비보고서: 홍금주」 1951. 12. 10, HQs, EUSAK, "POW Preliminary Interrogation Report", 군사편찬연구소 HD 1716; 이태, 『남부군』, 두레, 1988, p.271.

178) 북한군 모 사단정치부는 연대정치부에 '해방전사'의 대대별 인원 수, 그들의 직위별 통계를 1951년 6월 24일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었다(이윤규, 『들리지 않던 총성 종이폭탄』, 지식터미, 2006, p.326).

에서 9월 27일까지 북한군 내 국군포로 출신의 구성을 5.9%에서 14.8%로 추산한 것을 토대로 이를 평균 9.5%로 하여 이 시기 북한 병력 207,445명 가운데 전 한국군은 19,700명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외에 북한군 편입 후 죽거나 다친 자가 다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¹⁷⁹⁾

포로명단 교환 후 유엔군 측의 비판을 받은 공산 측은 한 때 그들이 붙잡은 국군포로와 유엔군포로 5만 명을 전선에서 석방했다고 주장했다.¹⁸⁰⁾ 이에 대해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은 공산군 측이 전쟁 초기에 5만 명의 한국군 포로를 석방이라는 미명 아래 그들의 군대로 징발하여 전선에 투입시켰다고 회고했다.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던 반공포로는 거의 5만 명의 국군 포로가 인민군에 ‘해방전사’로 편입되었음이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¹⁸¹⁾

휴전협상에서 공산 측이 5만여 명의 국군포로를 석방했다거나 1952년 3월 5일 “유엔군 측이 강제로 편입된 한국군을 포기한다면 유엔군사령부 아래 억류되고 있는 민간인억류자에 대한 주장을 포기하겠다”¹⁸²⁾고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북한군에 편입된 국군포로의 수는 민간인억류자 규모인 4만여 명 이상 수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정 규모 가운데 우선 명확히 파악된 경우는 휴전 후에 포로 교환 시 북한으로부터 송환을 거부한 국군포로 325명¹⁸³⁾과 북한군에

179) Office of the Chief of Staff, “Staff Study Relating to Voluntary Repatriation”, Feb. 19, 1952, Tab c, 126/319.

180) 「도쿄 유엔군사령부에서 국방부로」 1952. 10. 17, 군사편찬연구소 SN 1867(5)4.

181) 「부산수용소 7구역 F동 포로대표 이동창이 클라크 장군에게」, 1953. 5. 10, 205/319; 마크 클라크(김형섭 역), 『다뉴브강에서 압록강까지』, 국제문화출판공사, 1981, p.127.

182) 「극동군사령관 리지웨이 가 합참으로」, *FRUS* 1952-54, Vol XV, p. 108; William H. Vatcher, *Panmunjom*, p.140.

183) 이들을 비율적으로 검토하면 귀환자 8,000여 명에 325명 수준이므로 포로 규모를 7만 명 수준으로 상정하면 송환거부 포로는 2,000여 명 수준에 그친다.

편입되었다가 다시 유엔군의 포로가 된 경우이다. 후자의 규모는 민간인 억류자에 대한 부산지구 포로심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00여 명이 있었다.¹⁸⁴⁾

또 하나 분명한 범주는 국군포로 중 북한 출신자이다. 휴전 직후 포로 교환에서 일부가 귀환했으나, 실종자 가운데 북한 출신이 많다. 6·25전쟁 시기 장병의 거주표 상의 실종 인원 가운데 출신지 별 통계에서 출신지가 공백으로 처리된 경우가 3/4에 이르고 있어 그 의미가 반감되지만, 기재된 인원 가운데 <표 3-4>처럼 평남 57명, 평북 30명, 함남 52명, 황해 47명 등 북한 출신이 상당수 있었다. 1976년 당시 6·25전쟁 시 실종 및 행방불명자 28,099명 가운데 북한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경우는 1,611명이고 이 가운데 장교 364명, 사병 1,247명이었다.¹⁸⁵⁾ 이들은 북한 측에서 강제하기가 더욱 용이했을 것이다.

북한 벽동 출신으로 육군 제7보병사단 7연대 부연대장이던 최영수 중령은 수용소에서 반공적인 태도를 견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귀환되지 못하고 억류되었다. 황해도 곡산 출신인 신영섭도 송환되지 않았다.¹⁸⁶⁾ 북한 정권은 북한 출신인 국군포로를 반동으로 여겨서 처음부터 돌려보낼 생각이 없었다. 반동인 이들을 다시 남쪽으로 보낸다는 것은 자신의 체제를 부정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여겼을 것이다.¹⁸⁷⁾

184) 『한국전란 2년지』 D 6-7; 「미해명포로 명단 작성경위」(날짜 불상), 육본 중앙문서관 리단 소장문서. 이들 가운데는 포로가 된 후 원대 복귀를 하지 않고 민간인억류자로 재분류되어 1952년 하반기에 석방되었다가 휴전 후 군대에 재입대한 사례도 다수 있다. 최용경(포로번호 126877)도 국군에 입대했다가 아군에 포로가 되어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석방되었다고 주장했다.

185) 국방부 인사국, 「실종 및 행방불명자 처리」, 1976. 10.

186) 오용일, 『천마수용소』 하, pp.19-20, p.70.

187) 조창호, 『돌아 온 사자』, p.146, 165.

〈표 3-4〉 실종자 본적 분포(2006. 7)¹⁸⁸⁾

(단위 : 명)

본 적	합 계	본 적	합 계
강 원	270	제 주	32
경 기	534	충 남	135
경 남	1,871	충 북	166
경 북	1,802	평 남	57
대 구	19	평 북	30
부 산	37	함 남	52
서 울	428	함 북	13
인 천	2	황 해	47
전 남	231	(공 백)	15,624
전 북	184		
합 계		합 계	21,534

이외에 북한군으로 편입된 규모는 부분적으로 밖에 드러나지 않는다. 1950년 7월 초 대한민국 호국군 총사령이었던 송호성이 국군장병에게 북한군과 빨치산에 협력하도록 호소하면서, “국방군으로부터 인민군과 빨치산에 넘어 온 수천의 병사들로 인민의용군을 조직하여 인솔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성전투에서 포로가 된 임익순 대령은 송호성이 ‘해방사단’을 지휘하고 있었다고 기억했다.¹⁸⁹⁾ 국군의 투항을 권고하는 선전빨라에서도 전쟁 전에 월북한 강태무·표무원 외에도 최일명 소령·조학봉 등 70여 명의 장교와 수천 명의 사병들이 인민군대의 장병으로서 전쟁에 참가하고 있고, 이들이 전쟁 과정에서 진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188) 육본 인사사령부 자료. 별도로 포로로 정리된 인원은 91명이다.

189) 「송호성의 방송」, 『로동신문』 1950. 7. 6; 김종희, 『한국전쟁』 10, 아카데미, 1983, p.257.

훈장을 받았다고 선전했다.¹⁹⁰⁾

1950년 10월 유엔군과 국군이 38°선 이북으로 진격한 이후에, 북한에서 예비병력 확보를 목적으로 3개 군단 사령부 예하에 9개 보병사단과 특수부대가 창설되면서, 1951년 1월 1일에서 4월 1일까지 50개 개별부대가 편성되었다. 포로들은 북한군사령부 예하 3개 예비연대(12,000~30,000 명 규모)를 통해 각 부대에 배치되었다.¹⁹¹⁾ 이때 제1군단을 제외하고는 3~5개 사단으로 편성된 인원을 제대로 충원하지 못하자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평터화이가 “1951년 1월 중순 포로로 잡힌 남한 군대 사병 20,000명을 5개 군단에 분배해 주는 건의를 제의했다. 그러나 이 안이 채택되지 못했다.”¹⁹²⁾는 보고는 당시 중국군이 획득한 국군포로가 인민군에 편입되지 않았던 것을 시사한다.

1951년 9월 전선부대는 예비연대에서 북한출신 신병 외에 포로를 포함해 6,900명을 보충했다.¹⁹³⁾ 평양 제1예비연대(제527구분대)의 고사기 관총 중대에 1개 소대별 5~6명씩, 정찰소대 1~2명, 의무중대 지도원 1명 등이 국군포로 출신이었고,¹⁹⁴⁾ 북한군 제27사단 14연대 1대대 1중대의 사병 가운데 33%가 전 한국군이었다.¹⁹⁵⁾

190) 『민주조선』 1951. 3. 12; 『로동신문』 1951년 12월 6일자 사설; 『국민보』 1952. 2. 27;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참된 생활을 시작할 날은 당신들에게도 돌아왔다.(날짜없음), 군사편찬연구소 SN 896. 리현대는 1951년 11월 국군에 복무하다가 포로가 된 후 북한군 제6사단 15연대에 편입되어 제823고지에서 수류탄으로 아군 6명을 살상했으며 공격을 물리친 공로로 수훈자추천서를 받았다고 한다(『6·25전쟁 북한군 병사수첩』,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1, p.233).

191)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2, pp.59-65.

192) 「마오쩌둥이 평터화이의 한반도 작전 문제에 관한 전보를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 1951. 1. 26, 심지화편, 『6·25전쟁: 러시아 문서보관소의 비밀 해제문서』(중권), p.670.

193)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2, p.201.

194) 이 예비연대는 신병훈련소가 아니라, 전선에서 후퇴한 병력, 중국군 출신 조선족, 포로 출신 등으로 이루어졌다.

195) 「포로 예비보고서: 주효구」, 1951. 12. 8, HQS, EUSAK, “POW Preliminary Interrogation Report”, 군사편찬연구소, HD 1716.

북한군 선전전단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포로 처리 상황을 알리고 있다. 영원, 덕천에서 포로가 된 국군 1,580명 중 고향으로 가기를 원하는 포로 620명은 석방했고, 332명은 각자 희망대로 직장에 나가거나 학교에 보냈으며 628명은 인민군에 입대했다고 선전했다.¹⁹⁶⁾ 이에 따르면 국군포로 중 약 40%가 정규군에 입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선전전단(『한국전쟁기 뼈라』, pp.397-398)

196) 이윤규, 『들리지 않은 총성 종이폭탄』, 지식테마, 2006, p.298.

나. 노동부대와 주민 편입

공산 측은 유엔군 포로수용소에 있는 공산포로들이 수용소 건설 등에 동원된 사실을 “제네바협약을 위반하는 강제노동”이라고 항의하면서,¹⁹⁷⁾ 북한군은 국군포로를 노동부대에 편입시켜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김일성은 1953년 8월 로동당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전쟁 중 입대와 인명 손실은 로력 전선에 영향을 미쳐 전후 경제복구 발전을 위한 방대한 수요에 비해 노동력이 부족하다며, “우리 앞에 가장 날카롭게 나서고 있는 문제는 로력 확보, 로력 원천에 관한 문제이다”¹⁹⁸⁾라고 주장했다. 이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도 소련은 송환하지 않는 일본군과 독일군포로 등을 강제로 노동시켰던 사례가 있었다.¹⁹⁹⁾

전쟁이 교착되면서 포로들은 점차 정규군보다 노동부대에 투입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탈북 국군포로 대부분은 정전협정 체결 시기에 피포되어 노동부대에 편입되었다. 그 이유는 전선에 배치된 ‘해방전사’들의 잦은 탈출과 낮은 사기 때문이었다. 포로가 편입된 건설부대는 2개 비행장 건설대대, 비행장건설노동연대 1개, 철도건설연대 3개, 독립건설연대 등을 비롯해²⁰⁰⁾ 북한군 제502부대, 제218부대, 제22여단, 후방총국, 내무성 건설대 등이다.

노동부대에 국군포로가 편입된 배경으로는 전쟁으로 인한 군사력 동

197) 『美軍對中朝軍 戰俘的資料集』, 1953, pp.107-112.

198) 『조선중앙년감』 1954-1955, pp.3-4.

199) “G-2 Period Report”, 1947. 8. 13-14, 『주한미군정보일지』 4,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p.497.

200) 『라주바에프의 6·25전쟁보고서』 2, pp.59-65.

원과 많은 월남민의 발생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보충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북한 측은 중국군 개입 이후 수십만 명의 북한 주민이 국군과 유엔군에 의해 납치되었다고 유엔총회와 안보이사회에 항의했다. 그들은 충청남도에만 77개 수용소에 903,834명이 북한으로부터 납치되어 수용되었다고 주장했다.²⁰¹⁾ 내부적으로 북한 측은 전쟁중 남한으로 납치되거나 실종된 자는 모두 796,000명으로 평가했다.²⁰²⁾

노동부대에서 철도여단(제584부대), 포로들은 모두 인민군 복장과 계급장으로 위장했다. 그 이유는 미군이 공중촬영을 하더라도 포로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수용소에서는 보급이 부족하고 활동이 자유롭지 못했으므로, 건강한 포로들은 작업에 자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포로들은 작업장에서 하루에 10여 시간씩 동원되는 동안 사고사로 죽거나 다친 경우도 많았다. 미 공군기의 폭격을 언제 받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일해야 하는 비행장 복구작업은 매우 위험했다.

평양 인근에 노동부대로 제502부대, 제980부대(신안주), 제988부대가 편성되어 있었다.²⁰³⁾ 이 노동부대에서 일부는 정규부대로 편입시키기도 했다. 이중 제502부대는 1개 중대에 300명씩 4개 중대로 편성되어 철도 도로 교량을 복구하고 의주비행장 건설작업을 했으며 사리원에 있는 중대는 방공호건설과 탄약작업을 했다고 한다.²⁰⁴⁾

201) 『조선중앙년감』 1951-52, p.114.

202)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에프의 6·25전쟁 보고서』 3, p.36. 전후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실항사민 규모가 200여만 명이라고 주장했다(『조선중앙년감』, 1956, p.23).

203) 이미 전쟁 중 첩보원들은 평양에서 230명이 피복 및 구두공장에 일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황해도 백천(YD219991) 750명, 해창리(YC230684)에 2,300명, 평양 승호리에 3,730명, 순천 900명 등 그 규모가 거의 1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CCRACK 8242nd Army Unit Combat Report, April-Aug. 1953, 군사편찬연구소 HD 1967-1971).

204) 『민족의 증언』 3, pp.312-316; 육본, 『포로수용소』, pp.75-118.

제218부대는 항공사령부 직속 건설연대로 평양, 신의주, 황해도 온천과 황주 등의 비행장 복구 작업에 투입됐다. 1952년 초, 제218군부대 포로들이 평안북도 영변군으로 이동하여 북한군 최고사령부 직속 제22여단²⁰⁵⁾에 배속되었다.

영변에 있던 ‘조선인민군 제22여단’은 1951년 10월 초 창설됐으며 간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포로들이었다. 당시 이 부대의 여단장은 국방경비대 총사령관을 지낸 송호성이었고 정치부장은 남로당계의 한철, 대대장은 강태무²⁰⁶⁾·표무원 등이었다. 포로에게 6~8개월간 제식훈련, 고지점령 및 방어전술을 비롯해 주로 정치 사상교육에 중점을 두어 훈련을 시켰다. 제22여단이 해체된 후 포로들은 평양에 있는 철도사령부(제575군, 사령관: 김주봉 중장) 예하 제584부대와 제681부대 독립대대에 배치되었다. 제584부대는 여단 규모로²⁰⁷⁾ 인민군, 조선족 출신 중국군, 포로, 납북자 등 혼성부대로 대동강 철교 및 철도복구공사에 동원되었다.²⁰⁸⁾ 철도사령부 운수중대 운전수는 대부분 포로 출신이며 서울 태생이 많았다고 한다.

후방총국²⁰⁹⁾에는 제967, 998, 999부대 등이 있었다. 1950년 12월 황성에서 포로가 된 김 모는 강동포로수용소에 수용 중 1951년 5월초에 후방총국 보급기지에서도 도하작업대(제967부대)로 편성되었다. 제967부대는 1개 대대 규모로 전방으로 보급하는 피복, 연료 등을 적재하는 일을 했다. 제999부대는 국군포로 120여 명으로 편성된 중대급 부대로 1951년 10월경 제998부대로 통합되어 전쟁물자를 전방으로

205) 원산지역의 제2군단 관하 북청 22여단(여단장 강태무) (김석중, 『사풍』, pp.255-256).

206) 그는 「여기가 나의 조국이다」 (『천리마』 1996년 9호)라는 수기를 남겼다.

207) 이항구는 제584군 예하에 3개 여단이 있었다고 한다.

208) 「6·25 미송환 국군포로들 실상/인민군 출신 이항구씨 증언」, 『조선일보』 1994. 11. 5.

209) 참모장은 박철이고, 산하에 건물관리국 등이 있었다(김석중, 『사풍』, pp.295-297).

수송하는데 동원되었다.

내각 직속 복구지휘부 1여단은 1954년 8월경까지 있었다. 이 여단의 1개 대대 650여 명은 강원도 천내군 천내리로 이동하여 1954년 2월말까지 천내리 시멘트 공장을 복구한 후 평양 내각 종합청사와 민족보위성 청사 건설을 위한 골재채취를 위해 평양시 미림에서 작업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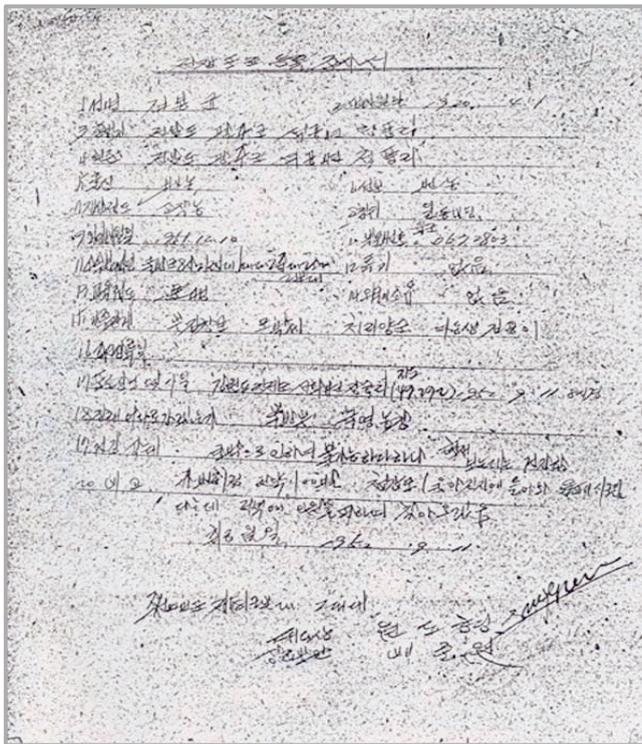
평남 지역에서 포로가 된 경우, 평남 내무성 건설대(평남 영원군 소재)로 편성되었고, 함남 지역은 함남 내무성 건설대로 편성되었다. 각 소대별로 포로 출신이 절반 정도였고 나머지는 내무성 출신 부상자들이었다. 평남 건설대 제6중대에서는 주로 평남 대흥에서 함남 함주군 오로리까지 도로건설에 동원되었다. 정전 직후 평양 소재 벽돌 공장에 수용된 국군포로는 모두 2,000~3,000명 정도였다.²¹⁰⁾

그 밖에 포로들은 주민으로 편입되기도 했다. 전쟁 중 인력이 부족한 북한군에서도 가능한 한 많은 노동력을 확보하려고 하였을 것이다. 영원과 덕천에서 포로된 1,500여 명 가운데 300여 명은 각자 희망대로 직장에 배치했다고 한다. 전쟁 시기 북한군 전단에 거창에서 투항한 최용길 소령은 고향인 뚝섬에서 토지를 분배받아 농사를 짓고 있다고 선전했다.²¹¹⁾ 이외에도 미군 노획문서 가운데 1952년 9월 북한군 제581부대에서 국군포로 김봉균(육군 제8사단 21연대 1대대 2중대 2소대 2분대)에 대한 포로등록 조서를 작성하면서, 성명·생년월일·출생지·현주소·소속 외에 성분·재산 정도·교육 정도·외국어 능력 등을 심사하여 그가 북한에 잔류하여 국영농장으로 가기를 원한다고 처리했다(「전쟁포

210) 최 모 증언, 2006. 1. 3.

211) 최용길, 「지난날의 나의 동료인 소위 ‘국방군’ 장병들이여!」, 「북한군 뼈라들」, 군사편찬연구소 SN 1246.

로등록 조사서」 참조).²¹²⁾ 1953년 1월 군사위원회의 결정에서도 “의거자들이 직장을 희망할 시에는 적당한 직업을 알선하여 주며 농업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토지 및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제 조건을 해결하여 주며, 배움을 요구하는 자에게는 희망하는 해당 학교에 입학시켜 국비로써 공부시킨다”고 규정했다.²¹³⁾



「전쟁포로등록 조사서」(북한군 제581부대 2대대, 1952. 9. 11.)

212) 조선인민군 제581부대 2대대 참모부, 「전쟁포로 등록 조사서」, 1952. 9. 11, 군사편찬연구소 SN 1439;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참된 생활을 시작할 날은 당신들에게도 돌아왔다」(날짜없음), 군사편찬연구소 SN 896.
 213) 「개별적 또는 집체적으로 의거하여 오는 적 군대복무자들을 대우함에 관하여」 1953. 1. 19, 『조선중앙년감』 1954-55(상), 1954, p.120.

제4장

포로협상과 국군포로 문제

제1절 포로협상

제2절 귀환포로 대우

제4장 포로협상과 국군포로 문제

포로협상에서 유엔군과 공산군 측이 송환원칙을 둘러싸고 자발적 송환과 강제송환원칙을 둘러싸고 대립했지만, 이는 포로명단 교환에서 나타난 것처럼 양측이 서로 교환할 포로 규모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포로명단의 교환을 계기로 유엔군 측이 사라진 국군포로를 요구하면, 공산 측은 남한 의용군 출신 민간인억류자 석방과 1953년 6월 반공포로 석방에 대해 반발하였다. 특히 국군포로 문제는 송환거부 공산포로 문제와 맞물린데다가 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의 일방적인 포로처리 때문에 발생했다.

제1절 포로협상

1. 포로명단의 교환

가. 휴전협상

6·25전쟁은 오랜 휴전협상 때문에 협상전쟁(a talking war)이라고도

불렀다. 통일에 대한 기대와 전후 전쟁 재발 가능성을 비롯한 안보 불안을 이유로 한국 정부와 국민은 휴전을 반대했다. 하지만, 정전협정은 1951년 7월 8일 시작된 연락장교회의로부터 1953년 7월 조인될 때까지 무려 25개월 동안, 모두 500여 회가 넘는 회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본격적인 휴전협상 이후, 양측은 전투하다가 쉬고 쉬었다가 싸웠다(打打停停, 停停打打).¹⁾ 이 때문에 조기 귀환을 고대하던 수용소의 포로들은 커다란 좌절감을 가졌다.

휴전협상의 주요 의제²⁾는 군사분계선의 설정, 전투행위와 정전상태를 감시하기 위한 기구설치 문제, 전쟁포로의 교환 등이었다. 군사분계선 확정을 둘러싼 논쟁은 38°선이 아닌 유엔군 측의 주장대로 휴전협정 체결 당시 전선으로 결정되었다. 휴전감시 기구의 구성 문제는 소련을 중립국으로 포함시키려는 공산 측의 주장이 철회됨으로써 1952년 5월 말 합의되었다.



조이(C. Turner Joy) 제독을 비롯한 휴전회담 유엔군 대표와 이들을 전송하러 나온 리지웨이 유엔군사령관(1951.7.10)

출처: 『백선엽 장군 6·25전쟁 기록사진집』, p.112.

1) Bong K. Lee, *The Unfinished War: Korea*, New York: Algora Publishing, 2003, p.199; 張景富·楊立中 編, 『40軍在朝鮮』, 遼寧人民出版社, 1996, p.455.
 2) 북한과 중국 측은 의정이라고 했다.

전쟁포로의 교환 문제는 군사분계선 설정 합의 이후에도 휴전협상을 가장 오래 동안 지연시킨 가장 큰 난제였다. 그 이유는 송환원칙을 둘러싼 양측의 대립이었다. 유엔군 측이 송환을 거부하는 다수의 공산포로를 보호하기 위해 인도주의를 내세우면서 북한 측에 포로의 자원송환원칙을 제시한 반면에, 공산 측은 포로를 강제적으로라도 전원 송환할 것을 주장하면서 즉각 반대했다. 양 진영의 이념대결의 장이 되었던 6·25 전쟁에서 유엔군과 공산군 측은 포로이슈를 양 진영의 ‘체면’이 걸린 문제로 인식했기 때문에 교환될 포로의 규모에 집착했다.³⁾

이 과정에서 공산 측의 국군포로 규모의 축소와 기만으로 미귀환 국군포로 문제는 소홀히 다루어졌다. 여기에는 한국 정부의 휴전반대와 유엔군 측의 무시에서 기인한 점도 있었다. 유엔군 휴전협상 대표에 국군 대표도 참석했지만 옵서버로 참여하였을 뿐이어서, 미군 측과 협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⁴⁾

1951년 12월 휴전협상에서 포로명단이 교환되었으나, 공산 측은 국군포로를 임의로 군대와 주민으로 편입시킨 후 나머지 최소한의 인원으로 그 규모를 크게 축소했다. 이는 유엔군 측의 민간인역류자 석방이나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 석방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포로송환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미귀환 국군포로가 발생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3)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p.423; “USAmbassador, Tokyo to Secretary of State” Oct. 17, 1952, 39/389.

4) 『중국군 장군들의 한국전쟁 회고』, 공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2004, p.263; William H. Vatcher, JR., *Panmunjom*, p.206; Sheila Miyoshi Jager, *Brothers at War*, p.195. 하지만, 국군 대표는 국방부 장관을 경유해서 대통령에게 “정전회담 경과 및 의견상신서”를 보고했던 것으로 보인다(이형근, 「휴전협상 자료」, 군사편찬연구소 HD 1101).

1951년 7월 휴전협상이 시작되었지만 그해 11월 하순까지 공산 측 협상대표는 포로 문제에 대해 착수할 의향을 조금도 보이지 않았을 만큼 매우 소극적이었다.⁵⁾ 유엔군포로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유엔군 측은 1951년 12월 명단 교환 이전에 포로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관련 자료 요구와 국제적십자사의 수용소 방문을 제안했다. 그러나 공산 측은 포로 전원의 송환이 중심 문제이므로 먼저 이에 대한 방침을 유엔군 측에 요구했다. 결국 그들은 포로명단의 교환에 동의하였으나, 국제적십자사의 포로수용소 방문요구가 의제 4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식 거부했다.⁶⁾

포로의제는 1951년 12월 11일 논의가 시작되어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20개월이 소요되었다. 휴전 협상 중 공산군 측은 유엔군이 공산 포로를 강제로 억류했다고 줄곧 주장하였지만, 그들의 포로처리는 더욱 불투명했다. 유엔군사령부에서 국제적십자사에 북한군과 중국군포로의 수를 17만 명 이상으로 통보하였을 때, 공산군 측이 알려 준 유엔군포로의 수는 1951년 9월 말에도 169명에 불과했다.⁷⁾

유엔군과 공산 측은 1951년 12월 4일 현재를 기준으로 포로명단을 교환하기로 합의하여, 1951년 12월 18일 포로교환 명단을 교환했다. 공산 측은 유엔군사령부에서 제시한 자료가 영문 발음기호로 적

5) James F. Schnabel·Robert J. Watson(채한국 역), 『한국전쟁』 하,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91, p.109. 이에 대해 중국군 대표단이었던 리커농은 포로문제가 국제분쟁 이후 포로 교환이 필수이고, 인도주의와 관련된 것이어서 그다지 논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한다(『중국군 장군들의 한국전쟁 회고』, p.296).

6) “CINCFE Tokyo to DA WASH for JCS” Dec. 13, 15, 1951, 1/218; 척 다운스(송승중 역), 『북한의 협상전략』, pp.131-133.

7) “Estimates of PWs taken in the Korean War: Policy on ‘Disposition of CCF POW’”, Sep. 12, 1951, Report on Situation with Respect to Repatriation of POW, 32/Truman Library.

힌 포로의 이름과 자신들이 붙인 번호 이외에는 한글이나 중국어 명단, 소속부대 번호, 계급 등 모든 것이 빠져 있어서 아무 것도 쓸모가 없는 폐지라고 비판했다. 대신에 그들이 제시한 명단에 포로 인명·군번·부대 번호·계급 등을 적었고, 각국 포로의 이름 및 각국의 문자로 된 서명을 적어서 완전하고 충분한 자료를 주었다고 자랑했다.⁸⁾ 그런데 유엔군 측이 제시한 공산포로의 수는 132,474명(북한군 95,531명, 중국군 20,700명 및 남한 출신 16,243명)이었는데 비하여, 그들이 통보한 국군과 유엔군포로의 수는 <표 4-1>처럼 11,599명(국군 7,142명, 유엔군 4,417명)에 불과했다.⁹⁾ 그러므로 유엔군포로의 규모는 이미 공산 측이 일부 발표한 포로의 수와 크게 차이가 있었다. 중국군 협상 대표단이었던 리커농(李克農)도 상상했던 규모보다 훨씬 많은 공산포로의 수에 놀랐다고 회고했다.¹⁰⁾

<표 4-1> 공산 측으로 통보받은 아군포로 규모(1951. 12)

(단위: 명)

계	국군	미군	영국군	터키	필리핀	프랑스	호주	남아공	기타
11,559	7,142	3,198	919	234	40	10	6	4	6 ¹¹⁾

8) 『인민일보』 1951. 12. 20.

9) 대대 병력으로 연인원 6,037명이 참전했던 에티오피아 군대만이 부상당하거나 전사자가 있었지만 포로가 없었다(키문 스크립스(송인엽 역), 『강뉴』, 오늘의책, 2010, p.20; Office Assistant Chief of Staff, J-2, “A Study of Repatriation U. S. Military Personnel” Oct. 6, 1953, 42/ 319).

10) 『중국군 장군들의 한국전쟁 회고』, p.299.

11) 이 가운데에는 일본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중국에서는 일본병이 참전했다고 널리 선전했으나(『동북조선인민보』 1951. 1. 20), 미군을 지원했던 민간인이었다. 1953년 7월 25일 유엔군사령부는 극동군(AFFE) 사령관에게 공산 측으로부터 귀환하는 포로 중 3명이 일본 국적 소유라고 알렸다(GHQ FEC & UNC, Command Report, Aug. 1953, HD 1563, pp.120-121).

사실, 전쟁 당시 남한에서도 북한포로는 공산당의 명으로부터 해방된 우리 자신의 형제로 인식했다. 변영태 외무부장관은 “북괴군 포로들이 그 자유의사를 발표할 찰나에 곧 해방된 우리 시민이고… 해방된 국민으로 아는 사람을 보내고서야 무슨 독립국가니 주권국가니 하는 것은 도리 없는 것으로 바로 주권 침해”라고 말했다. 즉, 그는 제네바협약이 우리나라 국내에서 일어난 일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영국과 소련 같은 나라가 싸우는 국제전쟁에 적용되는 것으로 주장했다. 그는 북한과 남한이 각각 독립한 국가로 제네바협약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¹²⁾ 최덕신 휴전협상 한국군 대표도 전쟁이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정부에 대하여 반역집단이 불법하게 공격하여서 일어난 전쟁인 만큼, 우리 편에 항복하여 온 ‘북한포로’를 반란군이 정부에 항복하여 온 것으로 보았다.¹³⁾

이러한 한국 측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유엔군사령부는 포로에 관한 제네바협약의 준수를 약속하였기 때문에, 포로명단의 교환에서 남한 출신 의용군 포로인 민간인억류자를 제외한 전부를 등재했다. 북한 측이 반공포로의 석방을 최근까지도 제기하였지만, 그들은 이미 1951년 12월 18일 포로명단 교환 시에 전체 포로 중 7,000여 명만을 알려주었다.

공산 측은 그들이 제시한 ‘포로에 관한 정확한 명단’(필자 강조)이 그들의 포로에 대한 인도주의와 관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므로 국제적십자사의 포로수용소 방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¹⁴⁾ 그러나 최소

12) 「국회속기록」 제15회 75호, 1953. 5. 28, p.13, 18; 변영태, 『나의 조국』, p.252.

13) 최덕신, 『내가 겪은 판문점』, 삼구문화사, 1955, p.27.

14)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원 팽덕희, 「유엔군 총사령관 릿지웨이 앞」, 1951.12.24, 『조선중앙년감』 1951-’52, p.227.

한 국군포로 6만 명과 유엔군포로 1만 명 등 총 7만 명 규모를 기대했던 유엔군과 국군은 크게 실망했다.¹⁵⁾

번호	성명	복무번호	직명	소속부대	수용소명
✓ 1	김인수	10278	2등병	8사 21련	0계8수용소상14-13
✓ 2	김해식		군속		11✓
✓ 3	김영우	19245	1등병	5사 36련	△11달606-218.
✓ 4	김유숙		"	8사 10련	011261-10
✓ 5	김연수	9901542	2등병	"	011262-13
✓ 6	김유욱	1126598	"	3사 7련	11✓
✓ 7	김홍민	5707692	학사	8사10련	01179-1
✓ 8	김종만	021076	2등병	2사 31련	01168-1
			"	8사 16련	0112578-577

1951년 12월 18일 북한이 교부한 국군포로 명단 일부

북한 측은 후에 유엔군 측이 포로들을 심사했을 때 ‘비합법적인 선별’이라고 비판했으면서도¹⁶⁾ 그들이 먼저 국군포로들을 임의로 군대와 주민으로 편입시킨 후 나머지 최소한의 인원만 통지했다. 그들은 휴전협상에서 유엔군의 자발적 송환원칙을 반대하였지만, 국군포로를 임의로 북한군에 입대시키는 모순된 행동을 했다. 즉 유엔군 측은 포로명단을 교부한 후에 송환거부자 심사를 실시하였던 반면에, 북한 측은 포로명단 교부 이전에 포로 심사를 자의로 실시하여 그 규모를 조정했다. 이상조 휴전협상 북한대표는 “오기 싫다는 포로는 그만두고, 우리 쪽에서도 가기 싫다는 것을 남겨 두었다”고 회고했다.¹⁷⁾ 그러나 이는 상호적인 조

15) 정성관, 『판문점비사』, 평문사, 1953, p.72.

16) 『미군대중조군전부적자료집』, 1953, p.126.

17) 이상조 증언: 한국전쟁과 휴전회담, 전사편찬위원회, 1990.6.28., 군사편찬연구소 HA 3835.

치가 아니라, 그들은 유엔군 측의 송환거부 공산포로에 대한 심사를 격렬하게 비판하면서도 먼저 일방적인 조치를 했다.

공산 측의 “양측이 현재 수용한 모든 포로를 석방한다”¹⁸⁾는 송환원칙에서 보듯이 이미 대부분의 포로는 수용소에 있지 않고 북한군이나 주민으로 편입되었다.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첫 번째 회담할 때 조이 유엔군 협상 대표가 그들에게 포로수용소 리스트를 제공하고 국제적십자사의 수용소 방문을 요청했으나, 그들은 국제적십자사의 방문 문제는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고 유보시키면서 회피했다.¹⁹⁾

포로명단이 교환되자, 유엔군사령부는 1950년 12월 21일 공산 측이 공표한 자료를 토대로 항의했다. 공산 측이 1950년 8월 18일과 9월 14일 국제적십자사에 110명의 이름을 제공했는데 이중 85명과 그들의 방송, 언론 등에 공표한 인원 가운데 1,010명이 누락되었으며, 공산 측이 제시한 한국군 포로명단의 수는 전쟁발발 후 9개월간 붙잡았다고 인정된 65,368명의 20%에도 못 미치는 것이라고 추궁했다. 같은 날 리지웨이 유엔군사령관은 김일성과 평터화이에게 국제적십자사의 포로수용소 시찰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23일 공산 측은 자신들이 포로를 인도적으로 대우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십자사의 수용소 방문은 불필요하다는 답변했다. 다만 정전협정의 조인 후에 북한과 중국 적십자사 대표와 국제적십자사의 수용소 방문이 가능하다고 수정 제안했다.²⁰⁾

또한 유엔군 측은 1951년 12월 18일 현재 한국군의 88,000명과 유

18) 『인민일보』 1951. 12. 14.

19) James F. Schnabel·Robert J. Watson(채한국 역), 『한국전쟁』 하,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91, p.110.

20) Public Information Section-GHQ, FEC, Annex 23, 1952. 4. 25, 3/407; William H. Vatcher, Jr., *Panmunjom*, p.127.

엔군의 11,500명으로 총 99,500명에 이르는 실종자를 제시하여 반박했다.²¹⁾ 공산포로의 수는 민간인 억류자를 제외하고도, 전 실종자의 약 70.5%에 이르고, 빨치산을 비롯한 남한 출신 포로 16,000명을 제외한 116,000명으로 환산을 하여도 62%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유엔군 측은 국군과 유엔군 포로의 수가 실종자의 99,500명의 62% 수준인 약 62,000명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유엔군사령부에서는 62,000명에서 공산 측이 제시한 포로명단의 수인 약 12,000명을 뺀 나머지 5만 명 이상에 대한 해명을 강력히 요구했다.²²⁾ 바로 ‘5만 명’의 국군포로가 사라진 것으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산 측은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포로 누락문제(필자 강조)”에 대해 주장한다면서, 미국 측이 ‘실종’ 인원을 전부 포로로 계산하는데 힘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유엔군이 제출한 포로의 명단은 본래 국제적십자사에 보낸 176,733명(1951년 6월 8일 현재) 가운데 44,000여 명의 포로가 누락되었다고 상세한 명단을 요구했다.²³⁾

그 후에도 유엔군사령부에서는 포로 소위원회에서 공산 측이 포로명단 이외에 아군포로의 존재에 대한 부인을 거듭 항의했다. 유엔군 측은 아군포로에게 정치교육을 통해서 강제로 북한군에 편입한 것은 논쟁할 필요가 없는 사실(irrefutable fact)임을 강조하고, 그 중 일부를 중국으로 이송시킨 것이 아니냐고 항의했다. 1953년 5월 28일 최덕신 한국군

21) 이 규모를 토대로 미 정보국에서도 유엔군사령부에서 공산 측에 있는 국군포로는 9만 명 이상이라고 주장한다고 했다(Office of Current Intelligence, CIA, “Daily Digest” Dec. 19, 1951, NARA),

22) “CINCFE Tokyo to DA WASH DC for JCS”, Dec. 24, 1951, 1/218; 『국무부에서 포로문제 논의』 1952. 7. 25, 『남북한관계사료집』 12, pp. 260-261.

23) 『인민일보』 1951. 12. 27, 28; 『로동신문』 1952. 1. 19; 국사편찬위원회, 『남북한관계사료집』 5, 1994, pp.131-132, 642-644; 『도쿄 극동사령부에서 육군성에 보낸 전문』 1952. 1. 3, Sec. 4/1/218.

휴전협상 대표는 해리슨(William K. Harrison) 유엔군 수석대표에게 보내 성명서에서 “적군은 제네바협약을 비인도적으로 위반하여 5만 명의 한국인을 임의로 처리하여 그 중 대부분을 북한군에 편입시켰다”는 사실을 강조했다.²⁴⁾

1951년 12월 30일 포로의제에 대한 소위에서 유엔군사령부는 전 한국군 문제를 제기했다. 북한군 협상대표 이상조는 그들이 개인적으로 스스로 결정한 것(individual self determination)이라고 말하면서, 이들을 포로의 지위로 회복하도록 설득할 생각이 없음을 밝혔다.²⁵⁾ 유엔군 측의 비판을 받은 공산 측은 한 때 그들이 붙잡은 국군포로와 유엔군포로 5만 명을 전선에서 석방했다고 주장했다.²⁶⁾ 그러나 공산 측은 이러한 주장이 전적으로 근거가 없고 무책임한 조작이라고 반박하면서, 오히려 유엔군 측이 국제적십자사에게 통보한 인員 중 제외된 44,000여 명을 문제 삼았다. 또한 전쟁 중 월남한 50만 명 이상의 북한인이 강제로 붙잡혀 있으므로 그들의 송환을 주장할 수 있지만, 포로를 볼모로 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²⁷⁾

당시 중국 외교부 차관이었던 리커농(李克農)이 포로협상에 대해 마오쩌둥에게 44,000여 명의 포로 문제로 상대방의 5만여 명의 문제 제기를 계속 대항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보고하여 그의 승인을 얻었

24) 「유엔군사령부에서 육군부」 1953. 5. 29, 7/218.

25) 「도쿄 극동사령부에서 육군부로」 1951. 12. 30, 807/338 AG Sec. Gen. corr.

26) 「도쿄 유엔군사령부에서 국방부로」 1952. 10. 17, 군사편찬연구소 SN 1867(5)4; 허만호,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 p.181.

27) 「1951년 12월 24일 휴전협상 의제4 분과위원회 회의록」, 『남북한관계 자료집』 12, pp.133-154; 「도쿄 극동사령부에서 육군부에 보낸 전문」, 1952. 1. 3, Sec. 4/1/218; China Information Bureau, Press Administration, *Daily News Release*, Jan. 5, 8, 9, 1952; “CINCFE, Tokyo to DA WASH for JCS”, Mar. 10, 1952, 군사편찬연구소 SN 1692.

다. 그러므로 중국 측도 이러한 대응이 매우 유효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²⁸⁾

변영태 외무장관은 리지웨이(Matthew Ridgway) 유엔군사령관에게 한국군 실종자 규모가 7만 명 이상인데, 공산군 측이 단지 7천여 명만 명단을 제공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북한이 국군포로의 60%를 전선이나 노무부대에 강제로 편입시켰고, 그들 중 많은 수가 죽거나 다쳤을 것이나 아직 수천 명이 살아있을 것이므로 명단에 있는 포로들과 같이 귀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²⁹⁾ 또한 유엔군 측의 포로의제 분과위원회 대표인 리비(L. E. Libby) 제독은 1952년 1월 초에 공산 측이 강제로 인민군에 편입한 전 한국군을 포로의 지위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³⁰⁾ 그러나 협상에서 이 문제를 강력히 요구하지 못했다.

2. 포로송환 원칙 및 민간인억류자 석방

가. 송환원칙 대립

후전회담에서 공산 측이 처음부터 포로의 의사에 관계없이 전원송환을 주장했지만, 유엔군 측은 유엔군과 한국군포로와 함께 특히 납북된 민간인

28) 「적을 대처하며 답판시간을 지연하는 방법에 동의한데 관하여 이극농에게 보내는 전보」 1951. 12. 28, 『建國以來毛澤東文稿』 2, 中央文獻出版社, 1988, pp.642-643; 『로동신문』 1951. 12. 29, 30; 「도쿄 극동사령부에서 육군부에 보낸 전문」, 1952. 1. 3, Sec.4/1/218; “CINCUNC Tokyo to DA for JCS”, Mar. 28, 1952, 309/319.

29) “Y.T.Pyun Minister of Foreign Affairs, ROK to General Ridgway”, Jan. 16, 1952, 243/ PSF Korean War File TL.

30) William H.Vatcher, *Panmunjom*, pp.131-133.

의 귀환을 확보하기 위해 1:1 송환원칙을 적극 추진했다.³¹⁾ 이를 위하여 제네바협약 제118조에 “포로는 종전 후 지체 없이 석방하고 송환되어야 한다”는 규정과는 달리 미국 정책당국자들은 1:1 송환과 자원송환원칙을 검토했다.

1952년 1월 2일, 휴전협상에서 유엔군은 포로의 교환을 위해 1:1 방안(one for one basis)과 자발적 송환원칙을 제안했다. 공산 측과 포로명단을 교환한 결과, 유엔군사령부에서 제시한 포로는 132,474명이었고, 공산 측의 명단은 11,599명에 불과하여 포로의 수가 크게 차이가 나자, 유엔군은 이러한 입장을 더욱 강화했다. 이 원칙이 공산 측에 제시된 목적은 포로 명단에서 쌍방의 포로의 수가 10만 명 이상의 차이가 남으로 공산 측에 억류되었을 5만 명의 한국군 포로들의 석방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또한 실현은 되지 않았지만, 북한군에 피랍된 한국인의 교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³²⁾ 당시 한국군 대표였던 이형근 소장도 1:1 교환원칙은 시종일관한 주장이라고 했다.³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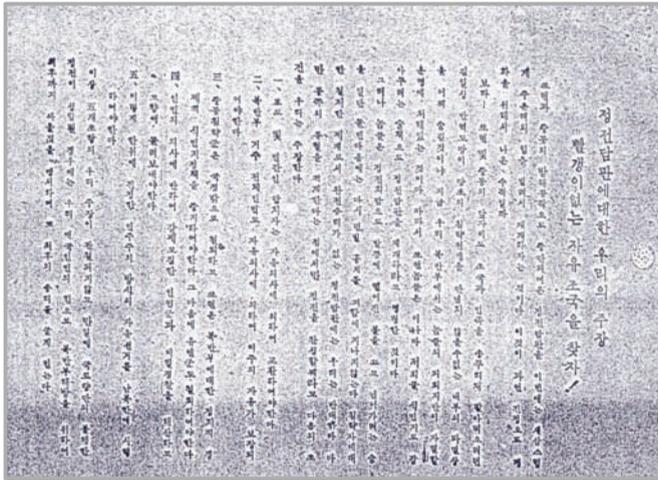
1952년 1월 3일 휴전협상에서 북한군 대표인 이상조가 유엔군 측의 1월 2일 안을 전면 거절하면서, 1:1 제안이 포로의 다수를 인질로 삼아 민간인과 교환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 안이 참을 수 없고, 야만적이며 수치스러운 것으로 비난하면서, 사실상 미국이 16만 명의 포로를 억류하기 위한 것이고, 일부 포로를 남한과 타이완에 인계해 주려는 책략이라고 비판했다. 중국군 입장에서도 유엔군 측이 북한군과 중

31) “JCS to CINCFE, Tokyo” Dec. 15, 1951, 9/ 218, NA, 군사편찬연구소 SN 1870(4) 4. 민간인 가운데는 유엔 민간인과 한국 정부 인사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32)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pp.201-202; 군사편찬위원회, 『남북관계사료집』 5, 1994, pp.342-343.

33) 이형근, 「휴전협상 자료」, 군사편찬연구소 HD 1101.

국군포로를 강제로 억류하기 위한 의도라고 간주했다.³⁴⁾ 공산 측은 유엔군의 제안을 비도덕적, 비인도적, 불공정,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제네바협약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세계에 선전했다. 오히려 그들은 미국 측이 전원송환에 동의한다면, 정전협정은 한달 안에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포로명단에 근거하여 전원송환원칙을 고수했다.



휴전협상 관련 아군 선전전단(출처: NARA)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엔군 측은 1:1 교환원칙을 철회하고 포로의 의사를 존중하자는 자원송환원칙(voluntary repatriation)을 제시했다. 자원송환원칙 혹은 비강제적 송환(non-forced repatriation)은 공산군 측

34) HQ, UNC, “Staff Section Report Office of the CIC and Office of the Chief of Staff” 1952.1, 2/407, pp.19-20; 『로동신문』 1951. 1. 16.; 楊風安·王天成, 『北緯三八度線: 彭德懷與朝鮮 戰爭』, 북경: 해방군출판사, 2001, p.392.

에 수용되어 있는 포로의 생명에 대한 위협과 휴전협상의 파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유엔군 포로수용소에 있는 공산포로 중 송환거부포로의 존재 때문에 자원송환원칙을 모색했다.³⁵⁾

미국은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강제송환은 없었다는 논리로 인도주의 원리를 내세웠다. 1951년 7월 5일 미 육군 심리전 참모 맥클루어(Robert A. McClure) 준장이 공산군 포로 가운데 송환될 경우, 일부가 가혹하게 탄압을 받아서 결국 죽기도 할 것이라는 주장으로 전원 송환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자원송환원칙이 등장했다. 이 원칙이 가장 도덕적이고 인도주의 원리에 충실한 것이며 전제주의적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심리전의 일환이라고 미국 정책 담당자는 인식했다. 즉, 많은 송환거부 포로가 발생한다는 것은 공산군 측에 큰 타격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산군 측의 반발로 휴전협상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특히 군부 지도자는 반대했다.³⁶⁾

한국 정부에서도 자원송환원칙을 지지했다. 변영태 외무장관은 1952년 1월 리지웨이 유엔군사령관에게 포로교환에 있어서 자원송환원칙을 지지한다고 알렸다. 그는 세뇌된 공산주의자나 치유될 수 없는 공산군포로만 공산 측에 인도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중국군포로에 대해서도 중국이나 타이완으로 갈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³⁷⁾

이에 대해 공산군 측은 전원송환을 고수하면서 자원송환원칙에 크게

35)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pp.198-205.

36) "Memo for the President", 1952.2.8, PSF Korean War File, 243/HSTL; Robert A. McClure, Chief of Psychological War, "Repatriation of Communist POW", 1952.12.18, 672/407; Charles Turner Joy, *Negotiating while Fighting: The Diary Admiral C. Turner Joy at the Korean Armistice Conference*, CA.: Hoover Institution Press, 1978, pp. 150-152.

37) "USARMA to DeptAR", 1952.1.25, *Jiont WeekA* 4, p.11.

반발했다. 김일성은 “우리는 전쟁포로들을 모두 데려 와야 한다. 이것은 우리 당의 시종일관한 주장이다. 우리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싸운 그들을 절대로 적에게 내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원송환원칙이 국제적으로 전쟁포로를 전부 석방하고 송환시킬 것에 대한 1949년 제네바협약 제118조에 전적으로 합리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³⁸⁾ 중국 정부도 자신들의 포로를 전부 데려오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심지어 북한이 일부 양보를 하더라도 중국군 포로가 모두 귀환되기를 원했다. 공산 측은 유엔군이 내세운 자발적 송환이 인도주의의 간판을 걸고 포로의 송환을 강압하지 않는다는 구실로 포로를 억류하여 남한과 타이완에 인도하려는 계책이라고 비판했다.³⁹⁾

유엔군 측의 자원송환원칙의 고수는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있는 반공포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냉전적인 측면에서 전쟁포로가 강제로 송환되지 않는 전례는 장래 전쟁에서 공산국가의 병력이 이탈할 수 여건을 마련해 두는 점도 있었으나,⁴⁰⁾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국군포로의 귀환에는 어려움을 주었다. 이러한 송환원칙의 대립은 결국 교환될 포로의 수로 귀결되었으므로, 협상과정에서 유엔군의 협상목표가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의 귀환을 위한 노력보다는 송환을 거부한 공산포로의 인도적 고려를 우선하였으므로 미귀환 국군포로 문제는 밀리게 되었다.

38) 그러나 김일성은 내부적으로 포로문제를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전쟁을 조기에 종결하려 했다. 이미 1952년 2월 미 공군의 폭격이 계속되면서 손실이 늘어나자 협상을 지연시키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식해 가능한 빨리 협상을 끝내자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서 전쟁을 계속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김일성이 ‘모든 포로의 송환’이라는 원칙을 포기하고 전쟁포로 문제에 대해 양보하게 된 배경에는 인명 손실이 가중되고 경제재건에 장애된다는 요인 외에 다수의 국군포로를 억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선즈화(최만원 역),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 선인, 2010, pp.457-459).

39) 『인민일보』 1952. 10. 3; 中國人民保衛世界和平委員會編, 『朝鮮停戰談判中的戰俘問題』, 世界知識出版社出版, 1952, pp.483-486; 『조선전사』 27, pp.142-144.

4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사』 10, 2012, p.150.

나. 민간인억류자 석방

전쟁 중 적군과 함께 하거나 복무한 민간인억류자의 석방은 휴전협상에서 공산 측의 반발을 초래했다.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은 이 문제를 “공산 측의 분노와 혼란을 일으킬만한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회고했다.⁴¹⁾

6·25전쟁의 경우, 민간인억류자는 북한군이 남한을 점령할 때 징집한 남한 출신 의용군을 주로 의미하는 것으로 그 규모는 약 49,000여 명이며, 이 가운데 약 38,000명이 석방되었고 약 1만 명이 북한으로 올라갔다. 북한으로 송환된 민간인억류자 규모는 정전 후 북한이 송환한 국군포로의 전체 인원보다 많았는데, 유엔군 측은 이를 토대로 반박하지 않았다.⁴²⁾ 오히려 공산군 측은 민간인억류자를 모두 포로로 간주하여 휴전협상과 정전 후에도 계속 요구했다.

전쟁 당시 북한 언론에서는 인민군의 진격에 남한 민중이 호응하여 원조하였던 측면을 강조했다. 1950년 6월 29일 대학생 일부가 전선출동을 탄원하였고, 7월 2, 3일에는 민주학련 산하 16,000명이 시위를 벌여 전선에 참가할 것을 주장했다고 선전하였다. 7월 3일 서울운동장 앞과 금화초등학교에서 학생 약 16,000여 명은 “전선을 지원하자”라는 명분으로 시위를 벌인 후 그날 오후에 동대문과 광화문에서 ‘애국학생결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때 그들은 인민군을 지원하기 위한 학생의용대를 편성하자는 안을 가결시켜 그 자리에서 의용군을 편성했다. 노동자들도

41) 마크 클라크 (김형섭 역), 『다뉴브강에서 압록강까지』, p.185.

42) 조성훈, 「6·25전쟁 휴전협상 중 남한출신 의용군 문제 누락 배경과 해결 방안」, 『통일문제연구』 55, 2011 상반기, p.128.

궐기대회를 개최하여 1950년 7월 2일부터 10일까지 서울시에서 의용군에 지원한 인원은 모두 7,612명이었다.⁴³⁾

하지만 이미 1950년 7월 6일 ‘의용군 초모사업에 대하여’라는 북한당국의 결정에 따라, 18세 이상의 광범한 청년층으로 하되, 빈농층 청년을 많이 포함시킬 것, 각 도에 할당된 징모 수는 책임완수 할 것, 노동당원으로서 변절자(보도연맹가입자)도 의무적으로 참가시킬 것 등이 강조되어 좌익 청년단체인 ‘민청’을 중심으로 의용군이 조직적으로 모집되었다. 7월 중순 이후부터 모집인원이 크게 줄어들었고 낙동강전선에서 병력 소모가 심해진 8월 초부터 북한당국은 강제적으로 의용군을 모집했다. 즉 북한 점령당국은 수요 인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책임동원의 성격이 강한 할당제로 모집했다.⁴⁴⁾

그 규모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북한의 『조국해방전쟁사』와 『조선전사』에서는 40만 명 수준으로 주장했다. 전쟁 당시 북한군 제12사단 문화부 중대장의 일지에도 40만 명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는 1950년 8월 15일 축사에서 김일성은 남한 지역에서 벌써 40여 만 명의 노동자와 농민이 의용군과 빨치산에 참가하고 있다고 허풍을 떨었던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1950년 9월 말 김일성과 박헌영은 남한에서 동원된 병력 규모가 10만 명이라고 밝혔다.⁴⁵⁾

의용군은 전쟁 중 피난민과는 달리, 북한군과 함께 전투에 참가하였

43) 『로동신문』 1950. 7. 6, 29; 『조선인민보』 1950. 7. 14.

44) 조석호, 『해부된 흑막』, 서울신문사, 1953, pp.33-37; 배경식, 「남한지역에서 북한의 전시 동원」, pp.275-276.

45) 『로동신문』 1950. 8. 16; 「김일성·박헌영이 스탈린에게」 1950. 9. 29, 「소련 극비 외교 문서」 4, p.72; 「제12보병사단제32연대제2대대문화부중대장의 일지」 1950. 11. 7-1951. 2. 1, 『해방직후 극비자료』 6, p.167, 169; 배경식, 「민중의 전쟁인식과 인민의용군」, 『역사문제연구』 6, 2001;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2권, 1979, p.29.

거나 인민위원회의 복구사업과 치안대 조직에 참여했다.⁴⁶⁾ 북한군은 낙동강 전선에서 전황이 다급해지자, 북한에서 모병된 신병 외에도 남한 출신 의용군을 대거 투입했다. 예를 들면, 북한군 제1군단 제1보충연대에는 1950년 8월 8일에서 9월 20일까지 약 5,000명의 남한 징집병이 1~5일간 훈련을 받고 북한군 제2, 4사단에 배속되었다.⁴⁷⁾ 북한군 제13사단은 1950년 8월 말까지 2,000명의 병력이 보충되었는데, 대부분 서울에서 징집된 병사였다. 북한군 제4사단의 70%는 신병으로 보충되었는데 그 대다수는 남한 출신 의용군이었고, 제15사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형편이었다고 한다.⁴⁸⁾

그러나 전선에 투입된 의용군은 싸울 의지도 훈련도 받지 않아서 싸우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사기가 매우 저조해서 기회만 되면 아군에 투항했다. 특히 인천상륙작전 이후 북한군이 후퇴할 때 투항 혹은 도주하다가 포로가 많이 되었고, 나머지는 북한군을 따라 북으로 철수했다. 남한 출신 의용군이 포로가 되면, 국군의 경우에는 전선에서 간단한 심사를 거쳐서 귀향조치를 취했지만, 의사소통이 어려운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은 의용군을 포로로 간주하여 포로수용소로 이관했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포로에 대하여 이를 제대로 분리하여 처리할 행정능력이 모자라서 혼란이 가중되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피난민에 대한 적절한 원조체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이들 중 일

46) 「전남 청년 학생들 패잔병 소탕에 협조」, 『로동신문』, 1950. 8. 5; 「행진하는 의용군부대 사진」, 『승리를 위하여』 1950. 8. 15; 「인민군부대들과 협동 하에 의용군부대들 혁혁한 전과 획득」, 『조선중앙통신집』, 1950. 9. 22, 통일원 MF 593.

47) 「전쟁포로 예비 신문조사: 소위 황덕주」 1950. 10. 5, 군사편찬연구소 사료 90-3330.

48) “Prisoner of War Preliminary Interrogation Report: Kim, Ik Chun”, Sep. 16, 1950, 군사편찬연구소, HC 1810; “Prisoner of War Preliminary Interrogation Report: Shin, Chong Han, Che Ju Yong, Pang Ke Un”, Sep. 25, 26, 28, 1950, 군사편찬연구소, HC 813.

부분이 포로로 분류된 경우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북한에서 치안대 활동을 하다가 후퇴하면서 포로로 처리되어, 아들·사위·조카 등이 한꺼번에 포로수용소에 억류되었던 경우도 발생했다.⁴⁹⁾ 1951년 8월까지 북한에서 온 피난민은 40만 명이었고 남한 내의 실향민까지 합친 수는 1951년 8월까지 370만 명에 이르렀다.⁵⁰⁾ 더욱이 남·북한인은 서로 인종적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인민군은 많은 수의 피난민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했다. 즉, 전쟁 중 수많은 피난민 틈에는 민간인 복장으로 갈아입은 북한군 패잔병이 많이 섞여 있었다. 유엔군은 이들을 모두 포로로 간주하여 처리했다.

유엔군 측은 민간인억류자의 이적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출신지별로 개인면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한국 정부가 남한의 각도 지역을 대표하는 인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파견해 줄 것을 이승만 대통령에게 요청했다.⁵¹⁾ 이에 따라 1950년 11월 20일부터 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부산지구 포로심사위원회가 조직되어 이듬해 2월 말까지 남한 출신 포로 49,415명을 심사했다. 그 결과 전 한국군 985명, 전직 경찰관 90명, 의용군 44,739명, 피난민 3,693명, 기타 88명이었다. 이중에서 여자는 180명이었다.⁵²⁾

정부에서는 인민군이 강점했던 3개월 동안 강제로 의용군이 된 자에 대하여 “어디까지나 관용하여 석방할 방침”이었다. 유엔군 측도 이들을 자발적으로 가담한 자들과는 구별하여 민간인억류자로 분류했다.⁵³⁾ 그

49) 홍송식, 『가시밭 길을 헤치고』, 국제출판사, 1984, p.178, 187.

50) UNC, “Civil Assistance and Economic Affairs-Korea”, 1952. 7-53. 6, 4/469 Mission to Korea, A-Division, p. 9.

51) William Lindsay White(조영철 역), 『한국전쟁포로』, p.170.

52) 『한국전란 2년지』, pp.D6-7.

53) 「극동사령관이 합참에게 보낸 전문」 1951. 12. 25, *FRUS*, 1951, Vol. VII, pp. 1444-1445;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142.

러나 유엔군사령부에서 이들에 대한 심사가 끝난 후에도 민간인억류자를 억류하였던 이유는 잠재적으로 유엔군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보다 일단 포로로 분류되었던 이상 이들의 일방적인 석방이 휴전협상의 지연과 공산 측에 억류되어 있는 미군포로에 대한 보복을 우려하여 민간인억류자를 휴전협정이 조인될 때 석방할 예정이었다.⁵⁴⁾

그 후 휴전협상이 포로 문제로 지연되면서, 민간인억류자의 석방은 공산 측에 하나의 압력수단이 되었다. 이들의 석방은 또한 포로의 송환에서 인도주의 원리에 기초한 자발적 송환원칙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기도 했다.⁵⁵⁾

1952년 6월 12일 미 합참의 승인을 받은 유엔군사령부는 같은 달 22일 남한 출신 민간인억류자 27,000여 명을 책임있는 한국 정부기관에 인도하여 민간생활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발표했다.⁵⁶⁾ 이 과정에서 국제적십자사 등의 제3의 중립기구에 의한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공산군 측이 포로를 민간인억류자로 재분류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다고 줄곧 주장했지만,⁵⁷⁾ 1952년 6월과 10월 사이에 남한 출신 의용군 포로들은 석방되었다. 이들은 제10포로수용소(부산)와 제14수용소(영천)에 집중되어 있었다. 6월 29일 영천 포로수용소에 있던 민간인억류자를 시작으로 10월 까지 제7수용소(마산)와 제2수용소(부산)에 있는 모두 약 38,000명이 석방되었다.

54) EUSAK, Command Report Jan, 1952, 군사편찬연구소 HD 1515; 「도쿄의 유엔사령부에서 합참을 위한 육군부에 보낸 전문」 1952. 6. 5, 309/319 Army-AG, Command Reports.

55) 「도쿄의 유엔사령부에서 합참을 위한 육군부에 보낸 전문」 1952. 6. 5, 309/319; U. Alexis Johnson, *The Right Hand of Power*, Prentice-Hall, Inc. New Jersey, p.137.

56) 「국무성에서 포로문제논의」, 『사료』 12, 1952. 7. 25, p. 261; 마크 클라크(김형섭 역), 『다뉴브강에서 압록강까지』, p.185.

57) 『남북관계사료집』 7, p.13, pp.260-261.

이러한 석방에 대해 공산 측은 이들의 ‘자기 조국으로의 송환’을 가로막는 일이라면서 항의하면서, 석방된 인원 37,944명에 대한 해명을 계속 요구했다.⁵⁸⁾ 그런데 남한 출신이 모두 석방된 것이 아니라 송환을 희망하는 민간인억류자는 상병포로를 교환할 때 449명, 휴전 일반포로 교환 시 9,352명 등 모두 9,801명이 북한으로 갔다.⁵⁹⁾ 이들은 남한 출신이면서도 이념적 성향이나 포로수용소에서 공산주의자들과 미처 분리되지 못해 북한으로 넘어갔다.

3. 반공포로 석방과 그 영향

이승만 대통령은 미군 측이 휴전협상 타결을 위해 송환거부포로를 중립국에 의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공산 측과 합의하자, 이에 대한 반발로 1953년 6월 18일 반공포로 27,000여 명을 석방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송환거부포로의 중립국 이송 안이 “죽어도 공산당 지배하에 돌아갈 수 없다”는 반공포로들에게 ‘죽음의 명령’이라고 거부했지만,⁶⁰⁾ 반공포로의 석방은 이승만 대통령의 정전협정 이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구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쟁포로는 공산군 측의 주장처럼 종전 후 지체 없이 송환하는 것이

58) 「휴전협상 포로의제 회의」 1952. 1. 16, 『남북한관계사료집』 5, p.617; 「자유와 독립을 위한 조선 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 『조선전사』, p.316. 공산 측의 해명요구 규모가 유엔군 측이 국제적십사에 통보한 176,000여 명으로부터 포로명단 교환시 제시된 132,000명으로부터 제외된 44,000명인 경우도 많았다. 지난 2005년 제6차 적십자회담에서 북한대표는 37,952명의 북한군 포로를 석방하여 국군에 강제 편입시켰다고 주장했다.

59) “Statistical Reports Relating to EPW”, 1/497 Records of HQ, U. S. Army Forces, Far East, 1952-57; 조성훈, 「6·25전쟁 휴전협상 중 남한출신 의용군 문제 누락 배경과 해결 방안」, p.128.

60) 신화봉, 『휴전선이 열리는 날』, 한국논단, 1993, pp.274-275.

원칙이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에서 공산포로는 그 구성이 단순하지가 않았다. 북한군포로 가운데 상당수가 강제로 징집된 남한 출신이거나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고, 중국군포로 중에서도 타이완으로 가기를 원하는 포로들이 많았다.

휴전협상에서 1952년 9월 28일 유엔군 측은 포로의 자유선택권 인정, 비무장지대에서 중립국에 의한 포로의 면담, 어떠한 심사나 면담 없이 중립지대에서 포로들의 정치적 자유 선택 등 3가지 안 가운데 어느 하나를 공산군 측이 채택한다면, 즉시 휴전에 응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그들은 유엔군 측이 여전히 자원송환원칙을 고수한다고 거부하면서, 협상은 다시 중단되었다. 다만,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를 중립국으로 보내자는 안이 소련 국적의 유엔 관리 친첸코(Constantin Zinchenko)에 의해 제안되어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남겨 두었다.⁶¹⁾

1953년 3월 스탈린이 사망한 후 양측이 병상포로 교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같은 해 5월 25일 유엔군 측은 송환거부포로를 둘러싼 협상의 타결을 위해 ‘최종안’으로 송환거부포로를 중립국으로 인도하는 공산 측의 4월 26일 제안을 절충하여 중립국으로 하여금 판문점으로 와서 그들을 관리하도록 했다. 이 안은 공산 측이 제기한 유엔군 포로수용소의 포로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반공포로의 석방을 주장해 온 한국 정부는 배반감을 느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 제안이 “너무나 유화적이어서 굴복한 인상을 금할 수 없으며, 이것은 장차 우리 모두에게 큰 재액으로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⁶²⁾ 최덕신 한국군 휴전협상 대표는 회담 참석을

61) Sydney D. Bailey, *The Korean Armistice*, New York : St. Martin's Press, 1992, p.113.

거부했다.

더욱이 휴전 전에 상호방위조약에 대한 조인요구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1953년 6월 7일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상호방위조약에 관한 협상은 휴전협정이 조인되면 곧 개시될 것이라고 제의했다. 이는 휴전 전의 조약 체결을 요구하였던 이승만 대통령이나 변영태 외무장관을 크게 실망시켰다. 그 사이에 6월 8일 판문점에서 유엔군 측과 공산 측이 포로송환에 대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제 정전협정은 양측과의 정식조인만이 남게 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1953년 6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포로를 석방했다. 이 대통령은 포로협정이 조인되기 이틀 전인 6월 6일 원용덕 헌병총사령관을 경무대로 불러 “판문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휴전회담이 우리나라의 뜻과 달리 진행되고 있고, 더구나 북쪽으로 가기를 반대하고 있는 반공포로들을 인도군의 심사에 맡겨서 교환한다고 하니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이들을 석방하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지시했다.⁶²⁾

이에 따라 원용덕 헌병사령관은 6월 18일 영시를 기해 산하 지휘관에게 포로수용소를 접수하도록 명령했다. 그는 석방된 ‘애국청년’을 자신의 허가 없이 불법구금 또는 억류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단호한 무력행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석방 당일 성명을 통해 “자신의 책임 아래(on my own responsibility)” 반공포로를 석방하도록 했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반공포로는 벌써 제네바 협정과 인권정신에 의하여 석방되어야 할 것이나, 국제적 관련으로 해서 불공평하게도 그들

62) 국회속기록 제15회 75호, 1953. 5. 28, p.19; 마크 클라크, 『다뉴브강에서 압록강까지』, 427면; 이호재, 『한국외교정책의 이상과 현실』, 법문사, 1986, p.364.

6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1, p.131.

을 너무 오래 구속했다”고 주장했다.

반공포로의 석방은 한국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미국과 유엔에 대해 해 서라도 이에 단호히 대처했다는 사실에 한국인과 반공국가의 찬사를 받 았다. 당시 여론은 이 사건을 “유화적인 조치로 기울어 가는 자유세계 에 대한 위대한 모험이며 충격을 준 인상적인 사건”으로 평가했다. 하 지만 당시 미국을 방문해 전후 복구 문제를 협의하던 백두진 국무총리 는 이승만 대통령이 몇몇 인사들의 매우 잘못된 조언에 의한 것이라고 국무부 관리들을 무마했다.⁶⁴⁾

〈표 4-2〉 반공포로 석방 현황 통계⁶⁵⁾

수용소명	수용 인원	탈출 인원	사망	잔류인원			계
				부상	피체	미탈출자	
거 제	3,065	392	1		116	2556	2,672
영 천	1,171	904	1		116	150	266
대 구	476	232	2		180	60	242
광 주	10,610	10,432	5	8		165	173
논 산	11,038	8,024	2	2	336	2,674	3,012
마 산	3,825	2,936	3	11	144	731	886
부 산	4,027	3,930				97	97
부 평	1,486	538	42	60	39	807	906
계	35,698	27,388	56	81	931	6,740	8,254

한국군은 미군의 반대를 피하기 위해 포로들을 탈출시키자, 미군은 즉각 경비임무를 한국군으로부터 인수하고 경계를 강화했다. 미군이 계

64) 「휴전회담과 포로문제」, 『한국전란3년지』, p.A29; 마크 클라크(김형섭 역), 『다뉴브강에서 압록강까지』, p.149;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pp.361-362.

65) 육본, 『6·25사변 후방전사』(인사편), 1956, p.137; “CINCFE Tokyo to DEPTAR WASH” Juen 19, 1953, 42/333.

속해서 조명탄을 쏘아 올리며 기관총을 난사하는 과정에서 한국군 경비대의 희생적인 엄호가 있었다.⁶⁶⁾ 6월 18일 포로들이 탈출할 때 사망자는 10여 명이었으나, 이튿날에는 부평 포로수용소에서 400명이 탈출하면서 30명이 사망했다. 광주 상무대 포로수용소에서는 미군 총격으로 포로 5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러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포로의 탈출은 부산과 광주 포로수용소 등에서 21일까지 계속되었다. 부산 병원수용소에서는 중국군 반공포로도 일부 탈출했다. 이때 탈출한 규모는 <표 4-2>와 같이 27,388명이다. 석방 당일 변영태 국무총리 서리는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에게 반공포로의 석방은 포로의 의사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라면서, 아직도 석방되지 않은 포로들도 석방시킬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⁶⁷⁾

반공포로의 석방은 그들에게 “공산주의 억압 속의 죽음에서 소생하는 기쁨”을 주었지만,⁶⁸⁾ 미귀환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을 북한 측의 주장대로 중립국송환위원회에 인계했다고 해도 그들이 국군포로를 귀환시키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반공포로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되지만, 양측의 합의대로 준수하는 것은 국제적인 기준에 맞다.⁶⁹⁾ 그러나 북한 측이 1951년 12월 국군포로의 대부분을 인민군에 편입시킨 후 나머지만 교환된 포로명단 수준에서 송환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항의는 그만큼 설득력이 없었다.

1953년 6월 16~17일 회담에서 유엔군 측은 휴전회담의 교착상태를

66) 강용준, 「반공포로석방」, 조선일보사 편, 『전환기의 내막』, 1982, pp.649-652; 육본, 『6·25사변후방전사』, 1956, p.137.

67) 박영실, 「반공포로 63인의 타이완행과 교육 및 선전 활동」, 『정신문화연구』 135, 2014년 여름호, pp.68-70;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pp.364-365.

68) 『동아일보』 1953. 6. 20.

69) 일방적인 석방이 국제적인 신용이 실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박찬용, 『6·25일지』, p.288).

조속히 타결하려고 18일 오후에도 다시 회합하기로 했다. 그러나 18일 새벽 기습적인 반공포로 석방으로 공산측은 물론 미국·영국·캐나다 등의 반발을 받았다. 공산 측은 이 조치가 미국의 조종 아래 이뤄진 것이라고 항의했다. 6월 20일 재개된 판문점 회담에서 남일은 “탈출포로를 재수용하라”고 요구한 다음 일방적으로 휴회를 선언했다. 한편으로 상술한 대로 반공포로 석방에 대한 보복으로 마오쩌둥은 정전협정을 추진하되 한국군 1만여 명을 섬멸하도록 지시하여 금성 지역에 대한 대규모 공세를 취했다.⁷⁰⁾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포로의 석방으로 전후 한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휴전 전에 미국과 군사동맹조약의 체결을 요구하여 미국으로부터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즉 반공포로의 석방은 계속 소강상태를 보였던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체결에 실마리가 되었다.

그러나 반공포로의 석방으로 정전협정의 조인은 늦어졌다. 휴회 20일 만인 1953년 7월 10일에 휴전협상이 재개되었다. 반공포로의 석방 때, 중국과 북한은 이승만의 조치에서 미국의 묵인을 항의하였지만, 1953년 여름에 휴전을 절실히 원했던 그들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소련은 6월 16~17일에 있었던 베를린 폭동에 대한 더 큰 우려를 가졌다. 인도 외무부는 남한 정부의 포로석방 이후 남아있는 송환거부포로를 계속 석방할 음모가 우려됨으로 이들을 한국 밖으로 이송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라 하였지만, 그 방안은 실현되지 않았다.

김일성은 포로석방 사건이 미국에서 의도적으로 이승만을 조종하여

70) 정성관, 『판문점의 비사』, 평문사, 1953, pp.136-138; 胡仲持, 『항미원조운동史話』, 북경: 중국청년출판사, 1956(군사편찬연구소 HD 2836), p.71; 邊麗君·馮金暉, 『朝中戰俘遣返內幕』, 華藝出版社, 1990, pp.185-187; 홍학지, 『홍학지 회고록』, 해방군출판사, 2002, pp.652-653.

포로협정을 파괴하고 정전 달성을 방해하려는 음모를 실현하도록 했다고 비난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포로석방이 강제 혹은 비합법적으로 석방한 것으로 포로의 강제억류를 위한 것으로 인식했다. 북한 측은 이승만 정권이 미국의 사주 없이 독단적으로 정전을 파탄시킬 망동을 감행하리라고 믿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비난했다.

공산군 측은 한국군이 클라크 유엔군사령관 휘하에 소속된 것이 분명한데 한국군이 독단적으로 행위를 감행하는 것을 보고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었는가에 대해 항의하면서, 미국은 자기들의 용인 아래 감행된 포로석방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들을 재수용하라고 요구했다. 북한은 미군 측에 공고한 정전협정의 보장을 위하여 석방된 포로 27,000명을 원상태로 회복하여 중립국송환위원회에 넘겨 실질적 행동을 보일 것을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이 석방된 포로를 다시 수용하려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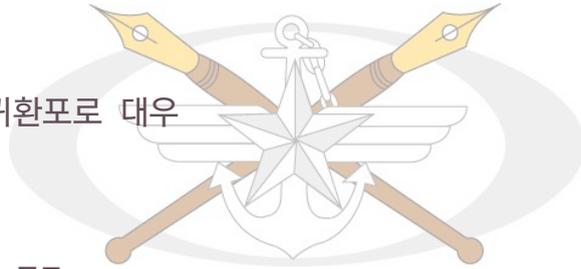
포로석방에 대한 김일성과 평터화이의 항의에 대하여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은 이미 석방된 27,000여 명에 대해 다시 거두어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⁷¹⁾ 석방된 포로의 전부를 재수용하는 일은 공산 측이 적대적 행위 기간 중에 ‘석방’한 5만 명을 회수하는 것과 같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미국 측은 석방된 포로가 희망한다면, 정전협정에 의하여 정전발효 후 ‘실향사민귀환협조위원회’를 거쳐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후에도 공산 측은 도망한 포로의 재수용과 이들 중 일부가 국군에 편입되는 것을 방임한 사실을 항의했다. 공산 측은 일부 포로들이 군대에 편입되었는데도 민중 속으로 종적을 감추었기 때문에 재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

71) 클라크 사령관은 이미 1953년 3월 6일 송환거부포로의 석방을 워싱턴에 건의한 적이 있었다(마크 클라크(김형섭 역), 『다뉴브강에서 압록강까지』, pp.436-440).

편으로는 공산 측은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송환되지 않는 제주도에 있는 1만여 명의 중국군포로와 포로수용소에 남아 있는 북한군포로 8,000여 명에 대한 석방을 우려했다.⁷²⁾

결국 중국과 북한이 이승만 대통령의 조치에 대한 미국의 묵인을 항의하였고 석방된 반공포로를 즉시 재수용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정전협정의 체결을 파탄시키는 데에까지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정전 후 공산군 측은 우리 정부의 미귀환 국군포로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반공포로 석방문제로 반박했다.

제2절 귀환포로 대우



1. 귀환포로 규모

가. 포로교환

포로교환은 포로들이 오랜 억류생활에서 드디어 자유를 얻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났음을 의미한다. 한 포로는 판문점 송환을 위한 이동 과정에서 자유의 달콤한 냄새를 느꼈다고 했다.⁷³⁾ 그러나 정전 후 북한

72)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pp.367-368.

73) William(Bill) Richardson, *Valleys of Death: A Memoir of the Korean War*, p.300. 김희갑(서울 출신), 오삼준(충청도 출신) 등은 1953년 7월 포로송환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공개처형되었다고 한다(「박선영, '귀환원한 국군포로를 북이 때려죽였다」, 『뉴데일리』, 2012. 8. 6).

에서 돌려받은 국군포로는 상병포로, 일반포로, 사망자, 탈출자 등을 모두 합해도 11,000여 명에 불과했다.

송환원칙을 둘러싸고 대립을 하던 휴전협상은 양 진영 간의 대결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사실 김일성은 이미 1952년 1월 말 “전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마오쩌둥에게 표시했다. 그 후 휴전회담이 지연되면서 7월 14일, 김일성은 또다시 마오쩌둥에게 미국 측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즉각 휴전을 실현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마오쩌둥은 미국의 군사적 압력에 굴복하면 자신이나 김일성 둘 다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으로 지극히 불리한 것이라고 김일성을 설득했다. 한반도에서 미군의 전력 소진을 원했던 스탈린은 마오쩌둥을 지지했다.⁷⁴⁾ 미국도 자원송환원칙을 포기하지 않아 1952년 10월 8일, 휴전회담은 무기한 연기되었다.

1953년 3월 5일 스탈린이 사망한 후 휴전협상은 반전되었다. 소련 지도부는 더 이상 스탈린노선을 맹종하지 않았다. 먼저 양측은 상병포로 교환으로 그 돌파구를 모색했다.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은 1953년 2월 22일 포로 가운데 부상자와 병자를 즉시 송환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하고 공산 측도 그들이 억류하고 있는 상병포로의 송환을 촉구했다. 이에 대한 공산군 측은 같은 해 3월 28일 상병포로 교환원칙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휴전회담이 무기한 연기된 지 6개월이 지난 1953년 4월 6일 회기가 재개되어 11일에 상병포로 교환협정이 조인됨으로써 포로 문제

74) 일본학자 和田春樹는 달리 말한다. 그는 1952년 저우언라이가 소련을 방문할 때에 북한이 휴전을 요구하였고, 소련도 휴전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이 휴전을 원하지 않았고, 스탈린은 단순히 저우언라이의 생각에 동의하였을 뿐이다(Haruki Wada, "Stalin and Japanese Communist Party, 1945-1953: In the Light of New Russian Archival Documents", CWIHP Conference on New Evidence on the Cold War in Asia, Hong Kong, January 1996). 다만 이러한 주장은 논거가 부족하다.

의 타결 계기가 되었다.

1953년 4월 20일에서 5월 3일 사이에 판문점에서 상병포로의 교환(Operation Little Switch)이 있었다. 북한군포로 5,640명과 중국군포로 1,030명이 북으로 송환되고, 국군포로 471명, 미군 149명, 영국군 32명, 터키군 15명 등 총 684명이 남으로 귀환했다. 상병포로 명단 교환 시 공산 측에서 통보받았던 인원보다 약간 늘어나, 국군 포로의 경우 435명에서 471명으로 늘어났다. 그들은 당시 전선에서 포로된 부상자를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⁷⁵⁾ 당시 평양 제1예비연대 정찰소대는 아군 상병포로를 만포진 별오리에서 인계받아 개성으로 이송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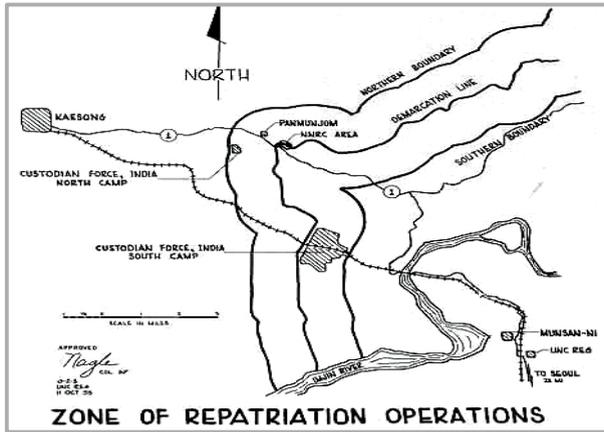
금성전투 후 1953년 7월 19일 휴전회담이 속개되어 양측은 상호 교환할 규모를 통보했다. 7월 28일, 판문점에서 양측은 포로송환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휴전직후인 1953년 8월 5일부터 포로송환을 시작할 것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8월 5일에서 9월 6일까지 33일 동안 송환을 원하는 쌍방의 포로를 교환했다. 이때 공산군 측은 정전협정 조인 직전 전투에서 포로가 된 아군을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⁷⁶⁾

이미 상병포로가 귀환한 후, 1953년 6월 8일 “송환을 원하는 모든 포로는 60일 이내에 송환한다”는 포로교환협정이 조인되었다. 포로교환 사업을 위해 양측은 군사분계선 내에서 합동작전팀(JOT)의 감독 아래 지뢰제거, 도로확충 등을 완료했다.⁷⁷⁾ 이후 1953년 7월 28일 포로송환 위원회에서 5일부터 교환을 시작하기로 합의하여, 12월 23일까지 송환을 원하는 포로를 대상으로 교환(Operation Big Switch)이 이루어졌다.

75) 『동북조선인민보』 1953. 5. 7.

76) 『로동신문』 1953. 7. 29, 9. 9; 『주평양신화통신문』 1953. 9. 12.

77) GHQ FEC/UNC, “Command Report” Aug. 1953, 군사편찬연구소 HD 1563, pp.56-57.



판문점 포로교환 장소

(출처: www.koreanwareducator.org)

8월 5일 첫날 유엔군사령부에서는 북한군포로 2,158명과 중국군 600명을 송환했고, 공산 측은 국군포로 250명, 미군 70명, 기타 유엔군 10명 등 400명을 보냈다. 1953년 4월 24일 김화지구 해리(Harry) OP에서 미 제3보병사단 출신으로 중국군과 접전 중 포로가 되었던 데이비드 밀스는 다행히 4개월 간의 포로생활을 마치고 귀환했고, 9월 4일 대전 전투에서 포로가 된 후 3년 12일 만에 단 소장이 귀환했다.⁷⁸⁾ 이 기간에 귀환한 국군과 유엔군 포로는 <표 4-3>의 포로 처리 결과에서 보듯이 총 13,444명이었다. 이 가운데는 영국군 922명, 터키군 228명, 필리핀군 40명, 콜롬비아군 22명, 캐나다군 14명, 호주군 15명, 프랑스군 12명, 남아공화국군 6명 등이 포함되어 있다.⁷⁹⁾

78) 육본 정보참모부, 『판문점』 하, 1972, p.620. 귀환용사 명단은 1953년 8월 9일에서 9월 10일까지 신문에 게재되었다.

79) 『한국전 참전 미 노병 ‘그래도 우리는 고지를 지켰다’』, 『노컷뉴스』 2012.7.5; Paul M. Cole, *POW/MIA Issues: Vol.1, The Korean War*, p.78; The OutPost Survivors Association(www.ophsa.org). 미군 통계도 시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표 4-3〉 포로교환 현황⁸⁰⁾

처리 결과	송 환 포 로			송환거부포로				총 계	
	상병포로 교환시	휴전후 포로 교환시	소계	공산측 복귀/ 잔류	UN측 잔류/ 복귀	중립국 (인도) 선택	도피/ 행불/ 사망		소계
북한군	5,640	70,183	75,823	188	7,604	74	34	7,900	83,723
중국군	1,030	5,640	6,670	440	14,236	12	17	14,704	21,374
소 계	6,670	75,823	82,493	628	21,839	86	51	22,604	105,097
한국군	471	7,862	8,321	325	8	2	-	335	8,656
미 군	149	3,597	3,746	21	2	-	-	23	3,769
영국군	32	945	977	1	-	-	-	1	978
기 타	31	369	400	-	-	-	-	-	400
소 계	684	12,773	13,444	347	2	-	-	359	13,803



도쿄 병원에서 인터뷰하는
던 소장(1953. 9)

이 외에 포로수용소에서 사망한 것으로 통보된 경우는 국군 601명, 미군 1,016명, 기타 34명으로 총 1,651명이었다. 이를 모두 합하면, 총 15,454명이다.⁸¹⁾ 이와 같이 1951년 12월 교환된 포로명단 보다 그 규모가 약간 늘어났던 것은 그 이후에 증가한 포로의 수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립국송환위원회의 감독 아래 설득과정을 거친 후 공산 측에 잔류한 국군 포로

80) 군사정전위원회 자료(『한국전란4년지』, p.D5;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Center of Military History US Army, Washington, D.C., 1992, pp.514-515.

81) 『한국전란 4년지』, p.D2; 최중태, 『한국전쟁일지』, 군사문제연구소, 1991, pp.1062-1063.

325명과 미군 포로 21명, 인도로 이송된 국군포로 2명 등 359명이 덧붙여진다.

그런데 귀환된 포로의 규모를 국군포로의 경우만 살펴보면 그 차이가 분명해질 것이다. 예를 들면, 1951년 1월 12일 북한군과 중국군이 개시한 신년공세에서만 국군 36연대 부연대장·부참모장, 국군 31연대 소속 미군 고문 소령 등 군관 116명을 포로로 했다고 북한군 총사령부에서 발표하였다.⁸²⁾ 그러나 <표 4-4>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수 많은 국군포로들이 사라지고 그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명을 제외하고 부상 포로 교환 외에 송환된 포로 가운데 장교는 단지 275명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귀환 당시 포로명단을 보고 중위 이상 장교급은 “보름 달밤에 별보기보다 어렵다”고 지적했다.⁸³⁾

<표 4-4> 귀환 국군포로(상병포로 제외)의 계급별 구성⁸⁴⁾

(단위 : 명)

구분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특등 상사	일상	이상	일등 중사	이중
	1	1	1	14	59	119	4	65	204	364	688
7,861	하사	일병	이병	카투사	군속	경찰	민간인	해병대	방위군	사망	
	1,175	2,547	1,642	154	189	5	384	63	1	1	

그 외에도 여러 사실에서 북한에서 송환되지 않은 포로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전 직후인 1953년 8월 탈북 국군포로의 진

82) 『조선인민보』 1951. 1. 16; 『조선인민군』 1951. 1. 19.

83) 채대식, 「귀환용사의 명단을 읽고」, 『경향신문』 1953. 9. 23.

84) 『조선일보』 1953. 9. 8.; 군사정전위원회 대한민국 국군대표단, 「포로관계 래한철」 1954-1958. 대령 1명은 1953년 7월 15일 금성전투에서 포로가 된 임익순 수도사단 부사단장이었다. 그는 표무원과 송호성 등을 만났으나, 돌아왔다(『동아일보』 1953. 8. 22; 김중희, 『한국전쟁』 10, pp.255-257).

술에 따르면, 일부 포로는 고향으로 돌아 갈 수 있다는 언질을 받고 강동 포로수용소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포로교환은 끝났다. 더 이상 포로교환은 없다”는 북한당국의 답변을 들은 후 광산으로 배치되었다고 한다. 또 다른 탈출포로는 북한에서 시설대에 편입되어 공민증과 시설대원증까지 교부받아 각종 도로 보수와 가축을 같이 사육하였던 포로 일부가 1953년 8월 12일 송환을 요구하며 폭동을 일으켰으나, 북한 당국은 그들이 공민증까지 있는 인민이라 거부했다고 했다.⁸⁵⁾

나. 송환거부포로의 설득

국군포로와 미군포로 가운데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들을 대상으로 설득활동이 전개되었다. 포로교환협정에서 “송환을 선택하지 못한 이들은 중립국송환위원회에 인도한다. 그후 90일 동안 포로의 소속 국가 대표가 포로들에게 고국으로 복귀할 권리에 대한 ‘해설’을 하도록 했다. 이 과정을 거쳐서도 송환을 거부하면 120일이 지나 민간인 신분으로 석방하도록 했다.⁸⁶⁾ 공산군 측은 처음에 설득기간으로 6개월 간을 주장하였으나, 유엔군 측의 60일간 주장과 타협하여 90일간으로 결정되었다.

양측의 송환거부포로들은 1953년 8월 하순에 비무장지대로 이송되었다. 국군과 유엔군포로 가운데 송환을 거부한 포로들은 국군 335명, 미군 23명, 영국군 1명 등이었다. 국군포로 가운데 송환을 거부한 포로 외에도 천마수용소에서 저항적인 제3보병사단 18연대 이종무 상사, 9보병사단 통역장교 이용한 등처럼⁸⁷⁾ 수용소 당국에 반항적인 포로들은 송

85) 『조선일보』 1953. 10. 29, 11. 22.

86) 김보영, 「한국전쟁 휴전회담 연구」, p.231.

환되지 않았다. 물론 수용소에서 친공포로들은 송환되지 않았다.⁸⁷⁾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티마야(K. S. Thimayya) 중장의 지휘 아래 인도군 제1진 1,400명이 8월 11일 인천에 도착한 이래 모두 5,000명이 한국에 왔다. 송환거부포로는 중립국송환위원회의 감독 아래 포로의 모국 정부의 대표로부터 9월 9일에서 12월 23일까지 90일 동안 송환에 대한 ‘설득’을 들어야 했다. 설득 팀은 1,000명 당 7명 수준이었다.

포로가 중립국송환위원회에 인계된 후, 곧 설득이 시작되어야 했으나 설득 장소의 지정 문제로 지연되어 1953년 10월 15일이 되어야 비로소 시작될 수 있었다. 설득이 시작된 후에도 포로의 반대와 한국과 타이완 측에서 특수요원을 투입하여 포로들이 설득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다는 공산 측의 주장으로 몇 차례 중단되었다.

유엔군사령부는 송환거부포로를 설득하고 감독을 위해서 송환설명단(UNCREG: Repatriation Explainer Group)을 구성했다. 단장은 햄블런(A. L. Hamblen) 준장이었고, 한국군 해설지휘부장은 박영준 준장이었다. 포로설득을 위해 유엔군사령부는 8월 31일부터 대구에서 극동군(AFFE) 정보교육국의 감독아래 설득요원에 대한 교육이 시작되었다. 그 내용은 공산 측의 세뇌와 이에 맞서는 반세뇌공작에 관한 것이었다. 극동해군(NAVFE)에서도 장교를 파견했다.⁸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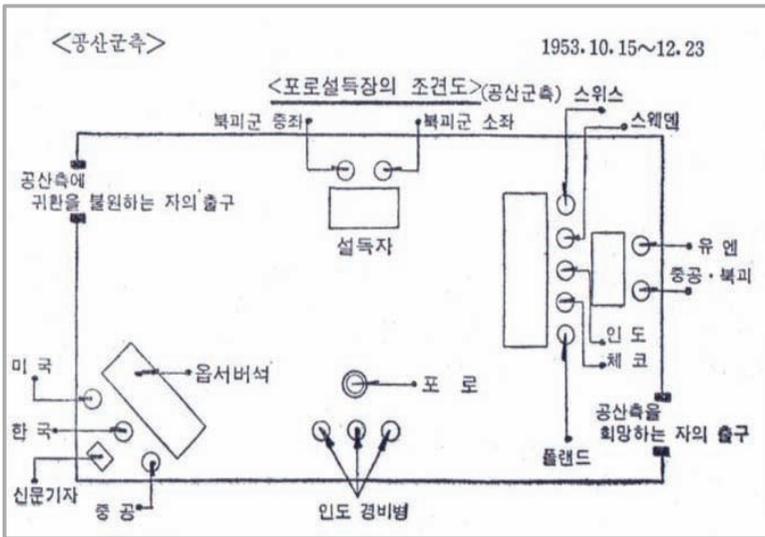
미군 당국은 귀환을 거부한 미군포로에게 설득하기 위한 방법을 몇 가지로 논의했다. 첫째는 자유선택을 존중하여 포로들에게 설득요원을 보내지 않고 단지 중립국송환위원회에 귀환하는 포로를 기꺼이 받아들

87) 오용길 증언, 2014. 3. 21.

88) 제3보병사단 18연대 고병열은 북한군에 협력했던 까닭에 송환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오용길 증언, 2014. 3. 21).

89) GHQ FEC/UNC, “Command Report” Aug. 1953, 군사편찬연구소 HD 1563, p.82.

이겠다고 성명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포로들을 포기했다는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었다. 둘째로 모든 미군을 귀환시키기 위해 귀환포로와 정신과 전문가, 유명인사 등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설득시키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설득결과가 적으면 공산 측의 선전에 빠질 우려가 있어서 채택되지 않았다. 결국 선발된 요원들이 포로들의 태도와 저항정도, 귀환포로의 권리와 특권을 설명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완전 사면(blanket immunity)은 약속되지 않았다.⁹⁰⁾



송환거부포로 설득장 배치도(김석영, 『판문점』, p.281)

송환설명단은 비무장지대의 중립국송환위원회에 있는 포로를 두고 공산 측과 한국전쟁의 마지막 싸움인 ‘설득전쟁(explaining war)’을 치렀

90) 「22명의 미귀환자」 1954. 9. 14, 23/407; GHQ FEC/UNC, “Command Report” Aug. 1953, 군사편찬연구소 HD 1563, pp.88-89.

다. 유엔송환설명단은 미군 포로 23명, 영국군 포로 1명, 한국군 포로 325명 등을 상대로 한 설득활동을 할 예정이었고, 23,000여 명의 송환 거부 공산포로에 대한 공산 측의 설득활동을 감시했다.

국군포로에 대한 해설은 1953년 12월 2일부터 시작되었다. 1회에 5명씩, 1일 30명 기준으로 실시할 예정이었다. 처음에는 순순히 설득에 응했으나, 나머지는 해설받기를 거부해 설득사업은 중단되었다.⁹¹⁾ 강대홍·박의선·이종두 등 귀환을 거부한 국군포로 335명 가운데 255명이 설득을 받았으나 귀환한 자는 없었고 설득을 거치지 않고 ‘탈출귀환’한 자가 조기도·박기도·김재학 등 7명이었다. 미군과 영국군 송환거부포로에 대해서, 12월 14일부터 해설을 할 예정이었으나 포로들의 거부로 전부 실시되지 못했다. 그들은 연명으로 편지를 써서 송환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포로 가족들은 설득 장소에 직접 방문해 설득하기를 원했으나, 감정적 호소는 공산 측의 선전 자료가 될 우려가 있어서 실현되지 못했다. 결국 유엔송환설명단에서는 미군포로에 대한 설득 과정에서 단지 2명을 귀환시키는 데에 성공하였을 뿐이었다.⁹²⁾

1954년 1월 10일 국군, 미군, 영국군 등 송환거부포로 350명이 티마야 중립국송환위원단장을 비롯해 폴란드, 체코, 스웨덴, 스위스 대표와 인도군 장교를 초청해 합창, 민속춤, 연극을 공연했다. 티마야 장군은 이때 송환을 원하는 포로가 있었다면 감독위원단으로 뛰쳐나올 수 있었

91) 『경향신문』 1953. 12. 3, 12. 13; 『동아일보』 1953. 12. 6., 15.

92) 『경향신문』 1953. 12. 14 : 『동아일보』 1953.12.28.; 국방부, 『한국전란4년지』, pp.A3-4; K. S. 티마야(라운드 역), 『판문점일기』, 소나무, 1993, pp.318-319; 「23인의 송환거부 미군포로」 1953.12.11., 4025/407; 「송환거부 미군포로」 1953. 12, 707/407; “US-British non directly repatriated POWs’ letter” Nov. 24, 1953, 16/319; Richard Stern, “The Crucifixion of Corporal Dickenson”, *True* Nov. 1954, pp.72-76; S. P. Mackenzie, *British Prisoners of the Korean War*, p.139.

을 것이라고 말했다.⁹³⁾ 송환거부 공산포로 가운데 북한군포로 7,900명 중 188명과 중국군포로 14,704명 중 441명만이 공산군 측으로 귀환했다.⁹⁴⁾

그 밖에 최종적으로 제3국을 선택한 포로는 국군포로 2명을 포함하여 103명이었으나, 1954년 2월 4일, 석방되는 마지막 날 다시 마음을 바꾼 15명이 유엔군에게 인도되어, 결국 인도로 간 포로의 수는 북한군포로 74명, 중국군포로 12명, 국군포로 2명⁹⁵⁾ 등 총 88명이었다.⁹⁶⁾

1954년 1월 20일, 중립국송환위원회로부터 송환거부 북한군포로 7,574명, 중국군 포로 14,227명 등 21,000여 명을 인수받았다. 유엔군 측은 이로써 말썽 많은 송환거부포로 처리가 완결된 것으로 인식했다.⁹⁷⁾ 이에 대해 북한 측은 설득 결과에 불만을 품은 유엔군 측이 이들 포로를 ‘납치’해 갔다고 비판했다.⁹⁸⁾ 이후에도 이들에 대한 해명요구를 계속했다.

상병과 일반 포로교환 후 쌍방 군사인원의 시신 교환업무가 1954년 9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 이루어졌다. 포로가 된 후 억류 중 사망한 포로의 수로 공산 측이 1953년 8월 13일 598명, 8월 20일 3명, 10월 3일 268명 등 총 868명을 인도했고,⁹⁹⁾ 그 외에 일반 영현 귀환자 교환

93) “U. S., British, South Korean POWs in Songkokni gives performance to Gen. Thimayya and other guests” Jan. 11, 1954, 20/ 319 CIC.

94) GHQ FEC & UNC, “Command Report”, March-April, 1954, 군사편찬연구소 SN 1570; The handling of POW during the Korean War, p. 97.

95) 이종일과 손천기이다(「중립국을 선택한 포로명부」, 군사편찬연구소 SN 1795).

96) 인도국방부 역사부, 『한국에서 인도관리군 역사 1953-54』, KBS6. 25 40주년 특별제작반, 1990, p.67; 『내가 겪은 조선전쟁』 2, pp.412-415; 『판문점일기』, p.260; HQ Neutral nations Repatriation Commission, “Final Report of the Neutral nations Repatriation Commission” Feb. 20, 1954, 18/389, p. 13.

97) GHQ FEC & UNC, “Command Report”, March-April, 1954, 군사편찬연구소 SN 1570.

98) 『조선중앙년감』 1956, pp.22- 25.

99) 유엔군사령부에서 공산 측에 통보한 사망자 수는 중국군 481명 등 총 8,418명이었다.

시 606명이 더 있었다.¹⁰⁰⁾

미군포로는 언어나 피부색 때문에 탈출하기 어려웠지만, 국군포로 가운데 일부는 탈출에 성공했다. 그러나 북한 사회는 통제된 데다가 배급제여서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1주일 정도면 체포되었다. 일부 국군포로는 북진할 때 활동했던 치안대원과 연결되어 탈출해 성공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성공해도 미군에 의해 포로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¹⁰¹⁾

일부는 중국군의 ‘관대정책’ 아래 석방되어 돌아왔다. 1950년 11월 중순, 평덕회이 사령관은 중국 내전과 항일전쟁시기 포로에 대한 관대정책이 투항자를 유발하여 적군을 와해시켰던 점을 상기하여 포로를 석방하도록 했다. 11월 17일 이러한 사항을 마오쩌둥에게 보고한 후 곧 그의 승인을 받아 포로수용소에서 미군 27명, 국군 76명(제6사단 54명, 8사단 22명) 등 총 103명을 처음으로 석방했다. 그 후 이러한 석방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1951년 2월 미군 41명, 영국군 5명, 오스트레일리아 3명, 한국군 83명 등 총 132명을 석방했다.¹⁰²⁾

위의 석방자와 북한군에 편입된 후 1954년 5월까지 도망하여 귀환한 포로의 수는 모두 1,174명이었다. 포로들은 끊임없이 탈출을 시도했다. 북한에서 억류기간이 짧은 경우는 탈출자는 곧 원대 복귀를 했으나, 기간이 오래되었거나 보안상 검토가 필요가 경우 포로로 처리되었다. 송상은 2등 상사(당시 28세), 박하식 일등병(28세), 길후봉 일등병(29세) 등

100) 「포로귀환자 통계」 1956. 8. 6, 국가기록원; 국련군총사령부군사정전위원회, 「미귀환 영현 명단 송부의뢰」 1957. 10. 29, 국가기록원; 『해방 후 10년일지』, p.204.

101) 박진홍, 『돌아온 패자』, pp.120-121; 이덕수 증언, 대전시, 2006. 8. 11.

102) 『인민일보』 1951. 2. 18; 杜平, 『在志願軍總部』, 해방군출판사, 1989, pp.82-91; “First’ in the Korean war”(50th anniversary of the war to resisit US aggression and aid to Korea; www.china.org.cn/e-America/historical /war.htm, 검색일: 2014.2.13).

3명은 포로교환이 끝난 직후인 1953년 11월 19일 중립지대로 탈출하여 왔다. 그해 12월 10일 인민군 복장을 한 채 2명이 귀순하여 왔다.¹⁰³⁾

이후에도 1958년 7월까지 탈주한 포로는 46명이었다. 이 가운데에는 간첩으로 남파되었다가 귀순하거나 체포된 경우도 있었다. 육군 제3사단 23연대 대대장이었던 김재현 중령은 1953년 7월 13일 514고지에서 중국군의 포로가 되었다. 그는 1954년 12월 간첩으로 남파되어 왔다. 우무흥은 전쟁 시기 학도병 출신으로 중국군에 의해 포로가 된 후 인민군에 입대했다가 전후에 노동당원이 되었다. 그는 간첩으로 남파되었다가 1958년 6월 동료 간첩 2명을 살해하고 자수했다.¹⁰⁴⁾

2. 귀환포로 대우

1953년 8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판문점에서 북한으로부터 귀환포로를 인수받았다. 포로들은 ‘귀환용사’로 이승만 대통령 내외가 문산에 나가서 환영식을 개최했고 방한 중이던 딜레스(John F. Dulles) 미 국무장관도 이들을 위로했다.¹⁰⁵⁾ 국군포로 가운데 상이용사는 서울36육군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건강한 포로는 문산에서 열차편으로 인천으로 이동한 후, LST를 타고 용초도에 이송되었다. 유엔군포로 가운데 중환자는 영등포 121병원으로, 나머지는 인천으로 이송되었다.¹⁰⁶⁾

‘돌아 온 패자’라는 회고록 제목에서 시사하듯이, 귀환용사는 포로가 되

103) 『동아일보』 1953. 8. 4; 『조선일보』 1953. 10. 29, 11. 22; 「유엔 군사정정위원회에서 도쿄 유엔사령부로」 1953. 12. 12, 46/319; “Field Report 507: Han Yong Su”, August 1953, 368/319.

104) 「후전 후 첫 무장간첩 귀순자의 인생유전」, 『신동아』, 1999. 6, p.427.

105) 『동아일보』 1953. 8. 7; 『경향신문』 1953.8.28.

106) 『동아일보』 1953. 10. 2.

었다 돌아 온 사실을 불명예로 여겼기 때문에 알리려 하지 않았다.¹⁰⁷⁾ 영국에서는 포로를 ‘돌아온 영웅’으로 환영했지만, 미군포로의 귀향은 쓸쓸했다. 미군포로도 전쟁에 참전하러 나올 때의 시민의 뜨거운 환송과는 달리, 고향에서는 대중의 환영도 없이 오로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대할 수 있었다.¹⁰⁸⁾



‘귀환용사’ 인수 환영식에 참석한 이승만 대통령(문산, 1953. 9. 3, 이승만연구원)

‘귀환군집결소’에서 1953년 9월 10일부터 3개 교육대로 편성하여 조사와 교육을 받았다. 이때 정신문화, 사상강좌, 정치토론회, 군가 교육을 받았다.¹⁰⁹⁾ 귀환포로들이 용초도에서 수용되어 있는 동안, 일부 포로는 군 정보대에서 조사를 받았다. 교육을 받은 후 본인 희망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었는데, <표 4-5>와 같이 귀환용사의 대부분은 부대에 복귀했다. 이는 귀환 장병들이 상부의 전역 방침에 반대하여 혈서 단식을 통해

107) 북한 측이 전쟁 중 빨치산 활동을 하다 복송된 ‘비전향 장기수’들은 영웅 대접을 했지만, 일반 귀환포로는 냉대했다. 중국이나 구 소련군도 마찬가지였다.

108) William(Bill) Richardson, *Valleys of Death: A Memoir of the Korean War*, pp.309-310; S. P. Mackenzie, *British Prisoners of the Korean War*, p.138.

109) 『동아일보』 1953. 8. 13, 9. 13, 9. 24.

그 방침을 철회시키고 원대 복귀하여 재복무할 것을 요구한 점도 반영되었다. 35세 이상 귀환 사병 123명은 복무연령 초과자로서 제대 조치를 했다. 다른 포로들은 고향으로 돌아간 후 약 2주간의 휴가를 마치고 보충대를 거쳐서 원래 소속부대로 복귀했다.¹¹⁰⁾ 군 당국에서 소집할 때 응소하지 못해 도망병으로 몰렸다가 2년간 군 복무를 한 경우도 있었다.¹¹¹⁾ 그런데 육군 첩보대 출신으로 추정되는 신창균은 군적이 없어서 1956년 1월 재차 입대하여 1959년 9월 제대했다. 덤프 트럭 운전을 했던 군속 출신인 김원복은 휴전 후 다시 현역으로 징집되었다.

〈표 4-5〉 귀환포로 처리현황(1954. 1)¹¹²⁾

	장 교	사 병	타 기관	계
인수 인원	264	6,838	759	7,861
재복무	255	6,139		6,394
입 원	7	253	21	281
기소 대상자	2	48		50
사 망		14	2	16
귀 향			736	736
재복무 불응		261		261
제대상신자 (35세 이상)		123		123

귀환 국군포로는 밀린 봉급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일반 사병들의 금액은 운동화 구입이나 식당에서 며칠 사용할 수 있는 정도에 그쳤다. 한 장교는 밀린 급여로 카메라 한 대를 구입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¹¹³⁾

110) 육본, 『포로수용소』, p.166.

111) 신창균, 「북한 11포로수용 생활수기」, 2004. 4. 8.

112) 육본 인참부, 「포로관계철」, 1953-54, 육본 기정단.

113) 이택수 증언, 대전시, 2006. 8. 11; 김광연 증언, 신당동, 2014. 4. 9. 미국이나 영국

우리 군 당국은 후송과정에서 동료포로를 구했거나 포로수용소에서 북한군에 대한 저항 투쟁을 했던 귀환포로에게 특별히 포상을 하지 않았다. 제7보병사단 출신 박진홍은 귀환 직후 화랑무공훈장을 받았지만, 이는 포로되기 이전 덕천지구의 전과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참전자의 상훈은 전투 관련 전과에 그쳤다. 그후 1994년 11월 25일 김영삼 대통령은 전쟁 중 포로가 된 지 43년 만에 북한을 탈출해 조국을 찾은 조창호 중위에게 군인정신의 귀감으로서 보국훈장 통일장을 수여했다.¹¹⁴⁾



김영삼 대통령, 조창호 중위에게 보국훈장 통일장 수여
(1994. 11. 25, e 영상역사관)

미군도 포로가 된 후 후송 과정과 수용소에서 사망한 동료 496명의 명단을 몰래 적어서 돌아온 존슨(Johnnie Johnson) 일등병에 대해 귀환

등에서는 귀환포로가 수용 중 입은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치료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독일 정부가 시베리아강제노동수용소에서 귀환한 포로에게 공산주의자에 의한 희생자 보상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사례는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Jenker Siegfried's interview, 베를린, 2012. 1. 9).

114) 이후 탈북포로에게는 훈장이 수여되지 않았으므로, 이들에게 훈장을 수여하자는 의견 제시도 있다(김현, 「국군포로 송환 서두르자」, 『국민일보』 2013. 10. 18).

당시에는 주목하지 못했다.¹¹⁵⁾ 1995년에 비로소 미 국방부 포로실종국(DPMO)에서 뒤늦게 그의 노력을 재평가하여 그에게 은성무공훈장을 수여했다. 영국 정부는 수용소에서 탈출시도에 대한 정보를 많은 구타와 고문에도 불구하고 끝내 발설하지 않았던 공로로 기본(A. H. Gibbon) 대위에게 최고훈장에 버금가는 훈장(the George Cross)을 수여했다. 호주에서도 포로수용소에서 공산 측의 심문에 저항을 했고, 동료포로를 보살피는 데에 헌신한 마덴(H. R. Madden) 이등병에게 이 훈장을 주었다.¹¹⁶⁾

한편, 수용 중 협력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국군포로들은 용초도에서, 미군포로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함상에서 심문에 가까운 조사를 받았다. 포로들은 이러한 조치가 수용소의 열악한 여건을 무시한 것으로 옳지 않다며 반발했다.¹¹⁷⁾ 공산 측에 협력한 미군포로들은 귀환 후 월급과 연금을 박탈당하고 심한 경우에 처벌을 받았다. 미군 당국은 귀환한 포로 가운데 215명을 수용 중 공산 측에 협력한 혐의로 조사하여 82명을 육군부 포로위원회(Department of Army Board on POW Collaboration)로 이관했고, 이 중 10명에게 제대권고를 하고 72명은 처벌조치를 취했다.¹¹⁸⁾

115) 키크(Kirk) 중사도 461명의 사망자 명단을 몰래 작성해서 돌아왔고, 새디쉬 군의관도 죽음의 행군과 벽동수용소에서 사망한 동료포로 300여 명의 명단을 적어서 돌아왔다 (Star, Oct. 25, 1953; William Shadish, *When Hell Froze Over*, p.37).

116) http://dtic.mil/dpmo/korea/johnnie_johnson_list, 검색일: 2014.1.24; "Australian POWs in Korea"(www.awm.gov.au/exhibitions/korea/faces/pow, 검색일 : 2014. 4. 1); Cyril Cunningham, *No Mercy, No Leniency*, p.32.

117) William(Bill) Richardson, *Valleys of Death: A Memoir of the Korean War*, p.304, p.315-316; William Shadish, *When Hell Froze Over*, pp.86-87.

118) Final Report for Phase II, Recap-K, Department of Army, Office of the Assistant Chief of Staff, G-2, Intelligence, 1955. 7. 1, 17/319, CI Files 1950-58, 383.6 Korea; Sheila Miyoshi Jager, *Brothers at War*, p.226.

여기에는 미군이 세군전을 실시했다는 공산 측의 선전에 동조했던 포로들도 포함되었다. 미군 당국은 귀환포로 가운데 공군 28명, 해병대 5명, 해군 1명 등 34명이 중국군의 심문을 받아, 에녹(Kenneth L. Enoch) 중위와 퀴(John Quinn) 중위를 비롯한 공군 20명, 쉬와블(Frank H. Schwable) 대령을 비롯한 해병대 2명 등 장교 22명이 세군전에 대해 거짓으로 자백한 것으로 파악했다.¹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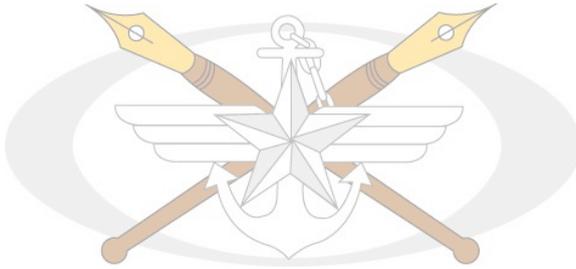
국군의 경우도 <표 4-5>처럼 상병포로 가운데 2명, 일반포로 중 장교 2명과 사병 48명이 기소 대상자였다.¹²⁰⁾ 포로를 귀환시킬 무렵, 북한군은 국군포로에게 ‘구국투쟁동맹’에 강제로 가입시켜 협조자로 만들었다.¹²¹⁾ 특별히 일부 포로에게 밀명을 지시하기도 했다. 귀환포로 가운데 수용소 내에서 자치위원장을 맡거나 동료포로의 감시, 밀고 등으로 북한군에 협력한 자는 귀환 후 용초도로 가는 길에 감판에서 뛰어 내리거나 동료 포로에 의해 집어던져진 경우도 있었다. 또한 용초도에서 동료포로로부터 못매를 맞아 죽는 사례도 있었다. 이미 공산 측의 앞잡이가 되어 동료 포로를 못살게 굴었던 ‘최악질’은 북한에 남았지만, 일부 협력자가 이를 감당하지 못해 자살을 했다. 이들 가운데 어느 날에는 10여 명, 그 이튿날 7~8명, 그 다음날 4~5명이 목을 매달아서 죽었다

119) 조성훈, 「한국전쟁의 세군전 논쟁비판」, 한국전쟁연구회, 『한국전쟁과 중국』, 백산서당, 2000, pp.476-477; “Captured US Airmen Admit Germ Warfare,” *China Monthly Review*, July 1952; Raymond B. Lerch, Tortured into Fake Confession: The Dishonoring of Korea War POW Col. Frank H. Schwable, *USMC*, Jefferson: McFarland, 2011.

120) 육본 인참부, 「포로관계철」 1953-54, 육본 기정단. 상병포로로 돌아왔던 포로 가운데 수용소에서 포로의 대화를 수용소 당국에 밀고하거나 북한군의 선전을 지원했던 포로의 인명을 제공했다(“Communist Indoctrination of ROK Prisoners of War Returnees : Choe, Chang Dal”, May 15, 1953(file no., Kor-308-203(5a), 군사편찬연구소 HM 1926).

121) 최명혁 증언, 군사편찬연구소, 2012. 8. 1.

는 주장도 있지만, 당시 군 통계에 따르면 모두 16명이 사망했다. 그 후 수용소 당국의 예방조치로 포로의 자살은 그쳤다.¹²²⁾ 전쟁 중 포로가 되었다가 탈출한 장교들도 인민군 방공호를 뚫고 공산주의자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군사재판을 받았고, 계급이 강등된 경우도 있었다.¹²³⁾



122) 육본 인참부, 『포로관계철』 1953-54, 육본 기정단; 이덕수, 대전시, 증언, 2006. 8. 11; 김광연 증언, 신당동, 2014. 4. 9; 박진홍, 『돌아 온 패자』, pp.218-220; 오용일, 『천마포로수용소』 하, pp.198-200.
 123) 최춘영, 『상좌동지! 우리를 총살해 주시고...』, pp.616-617.

제5장

미귀환 국군포로 실태

제1절 정전 후 군사정전위원회 활동

제2절 억류 국군포로의 규모

제3절 북한생활 실태

제5장 미귀환 국군포로 실태

정전 후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유엔군사령부는 포로의 교환 후에 여전히 공산군 측에 억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군 2,410명, 미군 944명 등 3,400여 명 등 포로명단을 공산군 측에 제시하면서 이들의 석방이나 해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공산 측은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유엔군 측의 민간인억류자와 송환거부 반공포로의 석방인원 등을 계속 반박했다.

귀환한 포로를 제외하고 인민군과 주민으로 편입된 미귀환 국군포로는 ‘무의무탁한 제대군인’으로 북한의 ‘공민’이 되었다. 그러나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없이 이 대부분 탄광과 광산에 배치되었으며, 성분에 따른 차별이 심해 월남가족·지주가족 등과 같이 최하위 계층이었다.

제1절 정전 후 군사정전위원회 활동

1. 유엔군 측 주장

남북교류가 활성화되었던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에도, 북한은 국

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국군포로 문제는 정전협정에서 일단락됐다”고 주장하고 있다.¹⁾ 그러나 북한에 억류된 포로 가운데 생사가 확인된 사람만도 500여 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휴전 후 군사정전위원회에서 공산 측으로부터 교부된 명단에 근거하여 이 문제를 계속 제기했었다.

이미 부상병 포로를 인수할 때 한국군 대표인 최석 소장은 당시 아군 귀환포로의 숫자가 적군에 비해 현격히 적은 데에 대해, “국군포로를 대부분 괴뢰군에 편입시켰기 때문에 돌려보낼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보고했다.²⁾ 정전협정 직전 국군 자료에 의하면 실종자와 포로는 73,799명이었는데, 공산군 측이 송환대상으로 8,000여 명만 제시했으므로 6만 명 이상은 제외되었다. 그러므로 유엔군 측은 수석대표 해리슨 장군에게 공산 측이 제시한 규모를 수용하지만, 미송환포로 문제를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고 논의할 권리가 있다고 지시했다.³⁾

전쟁 당시 탈출했거나 휴전 전후 귀환한 포로로부터 국군 장병 가운데 포로였음이 확인되었으나 결국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의 생사확인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덕천전투에서 포로가 된 제8보병사단 10연대장 고근홍 대령을 비롯해 제7보병사단 5연대장 박승일 대령, 제6보병사단 7연대 부연대장 최영수 중령 등은 널리 알려진 장교들이다.⁴⁾ 이들 가운데 같은 수용소에 있었던 귀환포로의 증언에 따르면 박승일 대령은 포로교환이 되기 약 1주일 전에 없어졌다고 한다.⁵⁾ 천마 포로수용소에서

1) 『조선일보』 2000. 7. 13; 『부산일보』 2000. 9.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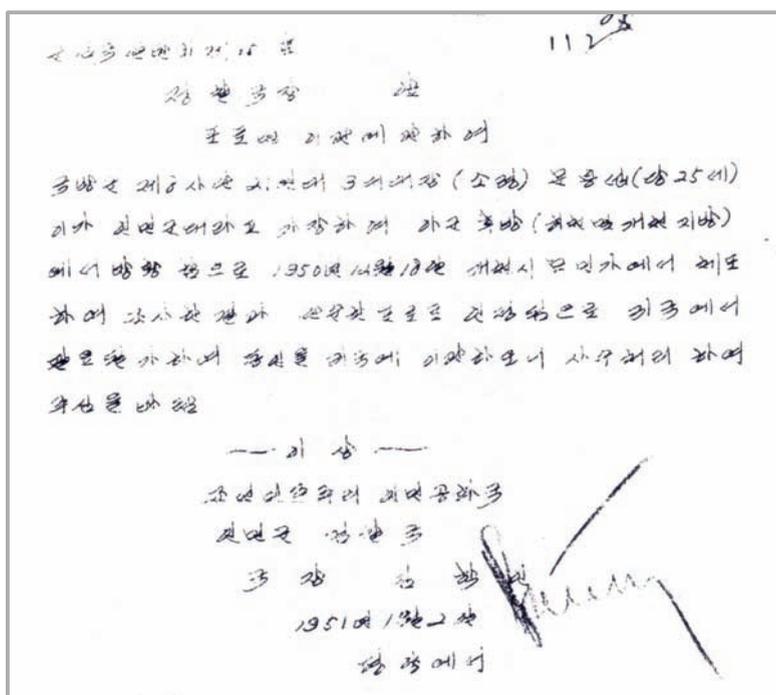
2) 백선엽, 『군과 나』, 1989, p.268.

3) 『유엔군사령부에서 육군부로』 1953. 7. 23, 8/218.

4) 『노병들의 증언』, pp.760-762; 박정인, 『풍운의 별』, pp.225-227.

5) 「미전향 장기수-在北 국군포로 맞교환 어떻게 볼 것인가」, 『신동아』 1999. 4.

탈출을 시도하다가 붙잡힌 고동훈 중위·한병진 소위·장성택 상사 등이
나, 영월 출신 채병섭 상사도 수용 중 사라진 후 인민군에 편입되었는
지, 귀환포로 명단에는 없었다.⁶⁾



포로가 된 문용섭 소령(제8사단 21연대 3대대장) 이관 문서
(1951.1.2, 북한 노획문서)

1953년 8월 31일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유엔군 대표는 공산군 측의
고위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많은 유엔군 포로를 억류할 것이라고 선언
한 사실을 지적하고 그들의 송환을 요구했다.⁷⁾ 이어서 같은 해 9월 9

6) 오용일, 『천마수용소』 하, 박이정, 2001, pp.115-117; 한솔희 증언, 2010. 2. 17.

7) "UNCMAC to CINCUNC" Sep. 2, 1953, 42/333.

일 제18차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유엔군사령부는 포로의 교환 후에도 여전히 공산군 측에 억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군및 유엔군 포로가 3,100명 넘는다면 송환이나 해명을 요구했다. 이러한 미해명 유엔군포로 명단은 공산 측의 방송에서 언급된 자, 포로명부 누락자, 포로수용소에서 편지를 썼거나 다른 포로들에 의해서 목격되었으나 돌아오지 않는 자 등이었다.⁸⁾

이와 별도로 1953년 11월 19일, 유엔군사령부에서는 공산 측이 그들로부터 탈출한 국군포로 3명을 강제억류하고 있음을 알고, 이에 대해 1954년 1월 18일 아군포로들이 공산 측에 강제로 억류되고 있는지 조사를 요청했으나, 그들은 이를 거부했다. 같은 달 26일 유엔군 측이 다른 지방 부대 내에 억류하고 있는 포로조사를 요청했지만, 공산 측은 이 또한 거부했다.⁹⁾

정전 직후 군 당국은 포로명부에서 해명되지 않은 포로 외에 실제로 더 많은 포로가 있을 것이라고 인식했지만, 제한된 정보 때문에 북한신문 등에 공표된 자료나 실종자 명단을 토대로 요구하지 않고 공산군 측이 교부한 명단에 의존하는데 그치고 말았다.¹⁰⁾ 이는 전쟁 중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정책이 휴전협상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

8) 합동정보참모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4, 1999, p.15; “Thruston B. Morton, Assistant Secretary to Senator Bricker” Oct. 1, 1953, 「미 국무부 보고서」 1953. 6. 1~1954.3. 15, 군사편찬연구소 20; Office Assistant Chief of Staff, J-2, “A Study of Repatriation U. S. Military Personnel” Oct. 6, 1953, 42/ 319; Paul M. Cole, *POW/MIA Issues Vol. 1 The Korean War*, p.226.

9) 『한국전란5년지』 1956, p.C95.

10) 「미해명포로 명단 작성경위」 1959. 7. 1, 국방부 인사국. 군 당국 실무자는 일반귀환자 7,861명, 상병귀환자 471명, 억류 중 사망자 868명, 영현귀환자 606명 등 9,806에서 공산측이 넘겨 준 포로명부 7,579명을 뺀 2,227명을 포로명단 교부 후 1953년 7월 전투 시 포로로 인정하는 착오를 범한 경우도 있었다(국군출신 미해명 포로관계 경위, 날짜 없음, 국가기록원).

문에 군 당국에서 포로 문제에 대해 독자적인 대비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전쟁 당시 전란지 편찬에서도 각 군의 전투약사는 정리되었지만, 포로 사항은 소홀히 다루어졌다.¹¹⁾

전쟁 시기 한국 정부가 휴전반대의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에 휴전회담 대표로의 참여는 관심 밖이었고, 휴전협상에서 유엔군 측은 미군이 주도했다.¹²⁾ 정전협정 체결 이튿날, 대국민 성명서나 혹은 이후 신년 메시지를 보내면서 북한 동포에게 공산주의자와의 투쟁을 강조하였지만 ‘미귀환 국군포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¹³⁾

1954년 1월 18일 군사정전위원회 대변인실에서 공산군 측의 유엔군 포로 강제역류에 관한 레이시(J. K. Lacey) 수석대표의 편지를 발표했다.¹⁴⁾ 1954년 8월 17일, 제47차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에서 유엔군 측은 이전에 제시한 규모에 새로운 추가 자료에 의하여 작성된 2,840명(국군 2,264명, 미군 526명, 기타 유엔군 50명)의 포로 인원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미 1953년 9월 11일, 친공적인 버펄 특파원은 격추된 미군기의 일부 조종사들이 억류되어 있음을 시사했다.¹⁵⁾ 이듬해 중국 정부가 포로였던 미군 조종사 11명에 대하여 간첩죄목으로 5~8년형을 내려, 그들을 억류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유엔 참전국

11) 국방부, 『한국전란4년지』, 1955.

12) 정전협정체제가 발표된 후 1991년 3월 한국군 장성인 황원탁 육군소장이 정전위원회 수석위원으로 임명되기 이전까지 유엔군 측 정전위원회 수석위원은 미군 장성이 임명되었다.

13) 『민주신보』 1953. 7. 30; 『한국전란5년지』 1956, pp.C32-33.

14) Office of the Psy Warfare Officer, 8th Army, “Communist Violations of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Sep. 21, 1955, NARA/ 군사편찬연구소.

15) “Proposed Speech on Korean Atrocities by General Clark to UNGA”, Oct. 16, 1953, 25/319(군사편찬연구소 SN 525), p.11.



석방되는 미 공군조종사 11명(U.S. Air Force Museum)

중 미그기에 격추된 승무원들로, 14명 가운데 3명이 전사하고 브라운(Wallace L. Brown), 바디(Eugene Vaddi) 등 11명은 포로가 되었다. 그런데 중국군은 이들을 포로로 대우하지 않고 전쟁범죄자로 군사재판을 실시하여, 베이징 인근 형무소에서 강제로 구금하고 있다가 정전 후 2년이 지난 1955년 8월 3일에 석방했다.¹⁷⁾

1955년 11월 26일, 제67차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유엔군 측은 <표 5-1>과 같이 기존의 2,840명에서 수정된 2,720명(국군 2,224명)의 미귀환포로에 대한 명부를 제출하고 해명을 요구했다. 국군의 경우, 이전의 2,264명 가운데 1954년 9월에서 10월 사이 실시된 영현교환 시 귀환한 40명을 제외한 2,224명이었다.¹⁸⁾ 이를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완전한

16) 국방부, 『한국전란5년지』, 1956, pp.A171-172; 합동참모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1999, p.15; GHQ, FE& UNC, “Command Report” Aug. 1954, 군사편찬연구소 HD 1572, p.32.

17) 월레스 브라운, 『고난의 포로생활』, p.234; “Local POW, Comrade Look Back on Korea”, *San Angelo Standard Times*, May 30, 2010.

18) 국방부 인사국, 「미귀환자포로명단」, 1957.

해명을 받은 즉시 공산 측이 요구하는 북한군과 중국군포로 98,000여 명 개개인에 대한 해명을 약속했다.

〈표 5-1〉 미해명 국군포로 2,224명의 산출 근거¹⁹⁾

7,142명 (1951. 12 공산 측이 제출한 원 명부)

- 205명(상병귀환자 471명 중 원부에 있는 자)
- 4,536(일반귀환자 7,861명 중 원부에 있는 자)
- 228(1953.8, 억류 중 사망자 597명 원부에 있는 자)
- 1(1954년 5월, 억류 중 사망자로 제출한 8명 중 원부 포함자)
- 146(귀환장병 생존을 증언한 자 중 원부에 없는 자)
- 54(1954.7.28, 억류 중 사망자, 탈주 귀환자 등 새로 판명된 자)
- 40명(영현귀환자 중 명부에 있는 자)
- 1(명단 중복)

공산 측은 포로를 강제로 억류하고 있는 측이 유엔군 쪽이라고 반박했다가, 1956년 2월 25일 제69차 군사정전위원회에서 〈표 5-2〉에서처럼 국군포로 2,224명 가운데 736명은 이미 송환했고 206명은 중립국 송환위원회 인도 후 송환을 거부했던 인원이며, 508명은 도망했다고 답변했다. 결국 유엔군사령부에서 요구한 인원은 송환과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이관 등으로 이미 해결되었다고 주장했다.²⁰⁾

19) 「국군출신 미해명 포로관계 경위」, 국가기록원.

20) 국련군총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대한민국 대표부, 「공산측이 해명한 한국출신 포로에 관한 질의 재독촉」 1956. 6. 22, 국가기록원; “Memo of Conversation : Communist Accounting of Unaccounted for UNC Personnel”, March 16, 1956, 군사편찬연구소 SN 1682.

〈표 5-2〉 공산 측의 해명 통계

	도주	기 송환	중립국 이송	사망	자료 없음	중복	누락	계
수(명)	508	736	206	98	654	21	1	2,224
아군 확인	12	517	1	39	35			604

그러나 군 당국에서는 공산 측 해명 자료에 대한 재검증을 통해 2,224명에 대한 명단을 대조한 결과 확인할 수 있는 인원은 604명에 그쳤다. 이 명단에서 확인불가 인원 외에 그 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공산 측이 1951년 12월 제출한 7,142명과 1953년 인도한 부상병 포로명부 437명을 합친 7,579명 가운데 실제로 인수받은 인원 9,806명²¹⁾과 대조하여 미귀환포로 2,725명의 명단을 새로 작성했다. 즉, 공산 측의 포로명단 7,579명 가운데 군적과 일치되는 자가 4,363명이므로 3,216(7,579-4,363)명을 실제 요구할 수 있는 인원으로 파악했다. 이 3,216명 가운데 북한 측의 명단에는 군번이 없으나 아군에서 확인된 자 202명, 동명인자 108명, 중립국 송환희망자와 중복된 자 181명 등 491명을 제외한 2,725명을 송환요구자로 확인했다.²²⁾

1957년 11월에는 위의 2,725명 가운데 일반귀환자 114명, 상병귀환자 9명, 억류 중 사망 82명, 영현귀환자 10명, 중립국 이송자 14명 등 총 233명을 확인했고, 새로 미귀환 인원 34명을 정리하여 2,526명으로 정리했다. 이듬해 1958년 2월 3일부터 장교 1명과 사병 3명을 군사정

21) 일반 귀환자 7,861명, 상병귀환자 471명, 억류 중 사망자 868명, 영현귀환자 606명 등 9,806명에 기초한 미확인 인원 4,535명에 이르고, 성명과 군번 차이자도 908명에 이르렀다(「포로귀환자 통계」, 1956. 8. 6, 국가기록원).

22) 「국방부장관이 육군참모총장에게 : 미귀환포로에 관한 건」, 1956. 12. 28, 국가기록원.

전위원회에 파견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일반귀환자 중 114명, 상병귀환자 9명, 억류 중 사망자 82명, 중립국 이송자 14명 등을 확인하여 미해명포로 명단으로 1,648명을 재정리했다. 이때 유엔군포로는 미군 452명, 영국군 20명, 호주군 9명, 남아공화국군 8명, 터키군 4명, 콜롬비아·룩셈부르크·벨기에·그리스군 각 1명 등이었다.²³⁾

1958년 7월 7일,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유엔군 측은 2,147명(국군 1,648명)으로 수정된 명단을 다시 교부하면서 그 해명을 요구하고, 1959년 1월 22일, 정전위원회에서도 그들에 대해서 개인별로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때 공산 측의 답변으로 국군포로 1명이 삭제되어 1,647명이 되었다.

〈표 5-3〉 미해명 국군포로의 수 변화

정전위원회 등	유엔군 측 주장
1953년 9월 9일	2,410명
1954년 8월 17일	2,264명
1955년 11월 26일	2,224명
	2,242명
1956년 12월	2,725명
1957년 11월	2,526명
1959년 1월	1,647명

그러나 공산 측은 “포로문제를 거부한 것이 바로 유엔군 측이며 해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도 유엔군 측”이라고 다시 반박하면서 98,742

23) 「국군출신 미해명포로 명단 송부」 1958. 6. 26, 국가기록원.

명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1959년 7월 25일 회의에서도 강제 억류한 포로 48,000명의 송환과 98,742명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거듭 촉구했다.²⁴⁾

1960년대에 들어서도 양측의 대립은 계속되었다. 유엔군사령부에서는 1962년 1월 16일과 1963년 2월 23일에 해명요구 서한을 보냈고, <표 5-4>와 같이 1964년 8월 11일 공산 측에 전쟁 중 실종자로 한국군 1,647명, 미군 389명, 터키군 167명, 영국군 16명 등 2,233명과 민간인 21명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1966년 10월 11일 정전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해명을 하지 않는 북한 측의 태도를 비난했다.²⁵⁾

<표 5-4> 유엔사가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 유해 및 실종자 현황(1964. 8)

국가 계	한 국	미 국	터키	영국	남아공	벨기에	콜롬비아	그리스
2,233	1,647	389	167	16	8	3	2	1

이러한 협상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전후부터 계속 존재하였던 자수자나 체포 간첩, 월남 민간인, 귀순자 등을 통해서 포로 관련 내용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이를 적극 활용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1957년 10월까지 북한에서 탈출한 포로의 수는 24명에 이르렀고, 1953년 이후 1985년까지 북한이 남파한 무장간첩 가운데 검거와 자수된 자가 각각 1,546명과 169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관계 당국에서

24) 합동참모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1999, pp.46-48, 69-70, 81-82.

25) 국방정보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1986, pp.183-184; 국방정보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2집, 1993, p.128.

는 자수자나 체포 간첩, 월남 민간인, 귀순자 등에 대한 신문조사에서는 전쟁 중 포로에 대해 확인하지 못했다.²⁶⁾

유엔군 측은 매년 연 1회씩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 수석대표의 서한으로 이들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사망자의 유해 송환을 거듭 요청했다. 하지만 미귀환 유엔군포로에 대한 협상에서 진척이 없자, 유엔군 측은 1982년 12월 21일 제415차 정전위원회에서 지난 29년간 아직 해명이 안된 유엔군포로를 찾기 위해 그들의 해명을 요구하였음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이제 행방불명된 포로들의 시체 매장장소를 확인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²⁷⁾

1985년 8월 28일, 혼(Charles F. Horne III)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는 서한으로 실종 유엔군의 생사확인과 사망자의 유해 송환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같은 해 9월 16일 북한 측이 미군 유해에 대해 ‘적극 찾아 보겠다’고 언급한 후 미군 유해 송환은 진전되었다. 1990년 5월 28일 미군 유해 5구가 인도된 후 일부 영국군 유해를 포함해 2001년까지 360구가 송환되었다. 유엔군 측은 이 보다 앞선 1981년 중국군 유해 2구, 1984년에는 5구, 1989년에는 19구 등을 인도했으나, 국군의 유해는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했다.²⁸⁾

26) 육본, 「미해명 포로명단 작성 경위」(날짜 불상), 중문단 문서; 『대비정규전사』 II, pp.359-360; 정보사 전산실, 『신문조서 및 심리전 자료목록』 1974-89, 1990; 김재현, 전화인터뷰, 울산, 2001. 7. 2).

27) 국방정보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2집, 1993, pp.210-211; 합동정보참모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1999, p.378.

28) 『경향신문』 1981.8.21; 『동아일보』 1990. 5. 28; 국방정보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1986, pp.184-190; 국방정보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3, 1997, p.162; 『군사정전위원회편람』 6, pp.206-210.

2. 공산군 측 주장

공산 측은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유엔군 측의 민간인억류자와 송환거부포로의 석방인원 등을 계속 요구했다. 최근에도 이러한 요구를 반복하고 있다.

전후 북한의 잡지와 논문집인 『청년생활』과 『력사과학』 등에 “미국 측이 포로교환에 대한 쌍방간의 합의를 유린하고 48,000여 명의 조중 측 전쟁포로를 강제 억류했다”고 기술되었다.²⁹⁾ 그들이 이들을 억류하여 장제스(蔣介石)와 이승만 군대에 편입시켰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48,000여 명은 반공포로석방 시 탈출한 27,000여 명과 판문점에서 설득과정 이후 석방된 중국군(14,227명)과 북한 출신(7,580명) 등 송환거부 포로 21,000여 명을 합한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들은 정전위원회와 남한과 협상할 때 줄곧 민간인억류자와 타이완으로 간 중국군 포로를 포함한 98,000여 명에 대한 해명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1953년 9월 9일과 21일 공산 측은 이승만 대통령이 석방한 27,000여 명 포로를 돌려 달라고 반박하면서, 미국 측에서 발표한 자료와 송환자 명단을 대조한 결과 적어도 북한군 포로 83,158명과 15,584명의 중국군포로 등 98,742명이 누락되었다고 제시하면서 이들이 여전히 유엔군 측에 억류되어 있다며 그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엔군 측은 북한군포로 26,867명과 중국군포로 69명이 도망했고 22,243명을 중립국 송환위원회로 이송했으며 37,956명은 민간인억류자로 석방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북한군포로 254명과 중국군포로 4명은 사망했고 한국인 2,013

29) 「미제의 전쟁도발책동을 폭로분쇄하자」, 『청년생활』, 1957. 7, p.2; 박동진, 「조선 정전의 역사적 의의」, 『력사과학』, 1958-5, p.45.

명과 중국인 91명 등 2,104명은 포로로 수용된 적이 없다고 알려졌다.³⁰⁾

1953년 9월 28일 ‘전쟁포로송환위원회’가 해산될 때, 공산군 측은 유엔군 측이 75,801명을 송환했으나 나머지 9만 8,742명 중 중립국송환 위원회로 인도한 22,602명을 제외하고 76,140명에 대한 문제를 해명하지 않았다고 재차 지적했다. 1953년 10월 20일, 김일성과 평터화이는 아직 송환되지 않은 공산 측 포로에 대한 해명에 관하여 유엔군사령관에게 서한을 발송했다.³¹⁾ 1954년 5월 22일 군사정전위원회에서 공산 측 대표 이상조는 이미 요구했던 98,742명에 대한 책임있는 구체적인 해명을 독촉했다.³²⁾

이후 양측 간의 논쟁이 중단되었지만, 1971년 4월 유엔군사령부가 미귀환 유엔군 포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그 해 5월 5일, 군사정전위원회 북한군 대표는 “우리에게 있던 당신 측의 포로와 민간인들은 정전협정의 요구에 따라 이미 넘겨 준지 오래다”라고 답변하면서, 오히려 유엔군 측의 요구가 공산군 측의 포로와 실향민을 강제억류하고 있는 범죄행위를 가리고 세계여론을 오도하려는 책동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들의 포로와 실향민을 강제로 억류하고 있는 것도 유엔군 측이고, 그것을 해명할 책임도 유엔군 측이라고 서면으로 반박했다.³³⁾

이상과 같이 공산군 측은 유엔군의 미귀환 포로의 해명 요구에 대해

30) 『동북조선인민보』 1953. 9. 24; “Accounting for Alleged POW”, Nov. 6, 1953, Dec.11, 1953, 42/333; 합동정보참모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1999, pp.15-17, 32.

31) 『해방후 10년일지』, p.197.

32) 『해방후 10년일지』, p.202. 2005년 제6차 적십자회담에서는 그 규모를 약간 수정하여 남한 측이 정전 당시 북한포로 83,158명을 송환하지 않고 강제억류했다고 주장하였다.

33) 『군사정전위원회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측 수석위원이 연합국측 수석위원에게』 1971. 5. 5, NA.

민간인역류자로 석방된 인원, 반공포로와 중립국 감독위원회 아래 실시된 설득기간 종료 후 석방된 포로 등에 대한 강제역류 주장을 거듭했다. 최근까지도 이러한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³⁴⁾

제2절 역류 국군포로의 규모

북한 정부는 그들이 역류하고 있는 국군포로의 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공표하지 않고 있다. 이미 부상으로 전쟁 중 혹은 정전 직후에 제대한 경우도 있었고, 황해도 배천군 금성리 협동농장에서처럼 1~2명의 포로들이 흩어져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추정하기 매우 어렵다.³⁵⁾ 다행히 정전 후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요구한 미해명 국군포로 1,647명 외에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반 탈북자와 탈북 국군포로가 늘어나면서 그들의 증언을 통해 이미 2006년 11월 현재 생존자 545명, 사망자 898명, 행방불명자 301명 등 총 1,744명이 파악되었다.

재북 포로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 파악된 명단이 공표되지 않고 있으나, 탈북 국군포로와 일반 탈북자가 늘어날수록 그 인원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온성탄광에서는 변호봉·홍기훈·강영철 등이 일했고, 아오지탄광에는 진주 출신 김상호·상주 출신 이정우(의용군) 등, 무산탄광에서는 서울 출신 김영웅을 비롯해, 송종구·김사문·지

34) Office of the Secretariat, UNC MAC, "Armistice Implementation Records 1951-1957," 2/ 333 International Military Agencies, 군사편찬연구소 SN 1913(4)-1.

35) 허재석 부인 증언, 2006. 10. 9.

용구·김갑출 등이 있었다. 전쟁 중 북한군으로 복무한 후 중국에 이주한 최석도는 북한에서 만난 국군포로 김병덕이 남긴 메모를 통해 김기우(공주읍 금학동), 오태환(서대문구 홍제동)의 소식을 전했다. 한 국군포로 배우자는 고건원탄광에서 일했던 포로 가운데 박일영(경기도 출신), 백종철(경상도 출신), 손수돌, 이홍일, 김영길 등을 기억했다.³⁶⁾

조창호 중위에 이어 두 번째 탈북 포로인 양순용은 차인식(서울 출신)·배기묵(대구)·정덕진(전남 진도) 등 100여 명의 포로명단 공개했고, 2000년 탈출해 온 허재석도 북한에서 사망한 포로 43명과 생존자 15명, 행방불명자 5명 등을 공개했다. 사단법인 물망초에서 2013년 4월 29일 고건원탄광과 용북, 하면탄광 지대에서 생존했던 국군포로 116명과 5월 8일에는 검덕광산에서 일했던 600명 가운데 6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³⁷⁾

그런데 정전 후 북한으로부터 돌아온 국군포로의 규모는 <표 5-5>과 같이 송환거부자 326명을 비롯해 사망자를 포함, 모두 11,000여 명에 불과했다. 북한 측의 아군포로 통계 말고도, 상술한 대로 중국군 자료와 구 소련문서로 국군포로의 규모를 일부 확인할 수 있다. 중국군의 전과는 1950년 10월 25일에서 1953년 7월 27일까지, 국군포로 37,532명을 포함하여 유엔군포로가 총 46,088명이었다. 여기에 2009년 군사편찬연구소가 러시아로부터 수집한 구 소련 국방부 문서에 따르면 한국전쟁 3년간 국군포로 41,350명, 미군 등 14,450명을 합쳐서 모두 55,800

36) 「어느 국군포로가 50년 전에 북한에 남긴 글」, 2008.3.9.(<http://blog.daum.net/gsphill/15919150>, 검색일: 2013. 11. 5); KBS, 「어느 인민군 병사의 수첩」, 2011. 7. 3; 최○련 증언, 군포시, 2014. 3. 28.

37) 『연합뉴스』 1998.9.17; 『조선일보』 2001. 9. 9; 「살아서 돌아온 국군포로 허재석의 아오지 탄광 체험 증언」, 『월간조선』 2004. 6; 「북서 노역한 국군포로 69명 명단 나왔다」, 『동아일보』 2013. 5. 9.

명이라고 정리되어 있다. 이는 북한 측이 획득한 국군포로의 규모를 추정할 중요한 근거가 된다.

〈표 5-5〉 국군포로의 귀환 및 사망자 현황³⁸⁾

(단위: 명)

계	상병 포로 귀환자	일반 포로 귀환자	북한군 편입 후 포로된 자	영현 귀환자	역류 중 사망자 (공산 측 통고)	송환 거부자	간헐적 귀환자
11,353	471	7,861 ³⁹⁾	1,174	606	869	326 ³⁹⁾	46

구 소련 국방부 문서에서 미군 및 기타 포로 규모가 14,450명인 점에 대해, 미 국방부 포로실중국 연구자는 이 현황이 약간 부풀려진 것으로 본다며, 실제로는 약 9,000명이라고 지적했다.⁴⁰⁾ 그러나 국군포로의 규모는 북한군이 포로의 규모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체 포로 규모와 미귀환 국군포로, 시베리아 이송포로 등을 규명하는 단서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이미 장용과 존 할리데이가 함께 쓴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 마오』 가운데, 마오쩌둥이 북한에 한국군포로를 강제로 역류하도록 한 인원이 약 6만 명이라고 주장했지만, 구 소련 국방부 문서는 공식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⁴¹⁾

전체 포로규모에 따라 미귀환 국군포로의 규모에 대한 추정도 달라질 것이다. 이미 제2장에서 자세히 언급한 대로 북한군 총사령부는 1951년

38) 육본 부관감실 인사처리과, 「한국군 출신 포로현황」 1958. 7. 31, 육본 기정단.

39) 휴전 직후 통계 및 미군 통계와 1명씩 차이가 있다.

40) George H. Artola(CIV, OSD-DPMO)'s letter, 2009. 4. 23.

41) 장용·존 헬리데이(황의방 외역),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 마오』 하, 까치, 2006, pp.493-494.

6월 25일 전쟁 1주년을 맞이하여 아군포로의 규모를 108,257명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런데 유엔군 측이 제시한 공산군포로의 수는 132,000여 명인데 비하여, 그들이 통보한 국군과 유엔군포로의 수는 국군 7,142명, 유엔군 4,417명 등 11,559명에 불과했다. 이는 이미 공산 측이 일부 발표한 포로의 수와 크게 차이가 있었다.

포로 규모로 108,000여 명이 전쟁 개시 후 1년 간의 통계이므로 휴전까지는 포로가 더욱 많았을 것이다. 그런데 휴전 후 공산 측으로부터 귀환한 국군과 유엔군포로의 총수가 13,000여 명에 불과하므로, 1951년 12월 18일 발표한 포로의 수인 11,000여 명에서 불과 2,000명 정도가 증가된 셈이나, 공산군 측의 발표에 의하면 국군과 유엔군포로의 수는 사상자의 규모와 함께 계속 늘어났다.

전체 국군포로 가운데 북한에 남아있는 미귀환 국군포로 규모를 추정하기에는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거나, 다행히 중국 연구자인 셴즈화는 러시아 학자의 연구 성과를 인용하여 1953년 12월초 북한 주재 소련 대리대사가 본국 외무부에 보낸 문서에서 당시 북한에 억류하고 있는 미귀환 국군포로 규모가 13,094명이라고 주장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포로 가운데 6,430명은 북한군에 복무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내무성과 철도부대의 각종 공사에 동원되고 있었다. 이 외에 남한 출신 의용군 42,262명이 따로 있었다.⁴²⁾

북한 주재 소련대사관의 문서를 신뢰한다면, 남한에 송환된 인원과 북한군과 노동자로 동원된 13,000여 명 외에 나머지는 어디로 사라졌을

42) 「주 북한 소련 대리대사 수주달예프가 몰로토프 외상에게」 1953. 12. 2, 양진삼, 「전쟁기 중국지도부와 북한지도부 사이의 모순과 갈등」,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 2002, p.619; 『연합통신』 2005. 6. 16.

까? 그런데 이 문서상의 미귀환 국군포로 규모는 1951년 6월 북한군 총사령부에서 발표한 수효는 물론 중국군 및 소련 국방부 문서에 나타나는 총계에 비추어 보면 너무 적다. 탈북한 조창호 증위는 남으로 송환되지 못하고 북한 측이 교화소에 잡아 놓은 포로의 수효가 3만 명에서 5만 명쯤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오히려 이 규모가 실상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연구자나 포로 출신들은 5~6만 명으로 추정하기도 한다.⁴³⁾

송환거부 포로의 설득을 위한 중립국송환위원회의 활동에서도 그러한 사실이 일부 드러났다. 1953년 8월 11일, 인도군 대표단은 개성으로 가서 북한군 대표 이상조와 중국군 장군(Ying Kuo Yu)을 만난 후 평양으로 가서 최용건 부수상, 남일 외상, 중국군 최고 정치인민위원 등을 만났다. 그들은 협조적이었으나, 인도군에 넘겨줄 포로가 몇 명 정도 되느냐는 질문에 대답을 피했다. 다만, 아직 심사를 하지 않아서 몇 명이 송환을 거부하는지 알 수 없다고 하면서도 1,000명은 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답변을 하였지만,⁴⁴⁾ 결국 그들은 300여 명만 인도하였을 뿐이다. 또한 1953년 12월초 북한주재 소련 대사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 측이 “수많은 남한의 전쟁포로를 억류하고 있는데, 그들을 북한에서 여러 가지 힘든 육체적 노동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좋으며 반드시 그들의 요구대로 자기의 고향에 돌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들어줄 필요는 없다”⁴⁵⁾는 입장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43) 조창호, 『지옥의 43년』, 육군종합학교 전우회, 『실록 6·25한국전쟁과 육군종합학교』, 1995, pp.1336-1339; 이기봉, 『5만 국군노병포로, 북한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북한』 1998. 6, p.37; 조창호, 『돌아 온 사자』, p.25, 172.

44) 인도국방부 역사부, 『한국에서 인도관리군 역사 1953-54』, KBS6.25 40주년 특별 제작반, 1990, pp.10-11.

45) 沈志華, 『1953年韓國停戰：中蘇領導人的政治考慮』, 『世界史』 2001.(3), p.3.

이러한 사실들은 상술한 대로 1951년 6월 당시 북한군 총사령부가 발표한 포로의 규모와 처리과정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적이다. 북한 측은 10만 여 명의 국군 및 유엔군포로 가운데 정전 후 송환된 포로(13,444 명)와 탈출하거나 석방된 2,000여 명 외에 수용 중 사망자를 포함한 9만 명 이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해명할 책임이 있다. 이 중에는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포로가 일부 포함되지만, 나머지는 모두 국군포로일 것이다.

이 규모는 국방부에서 밝힌 실종자에 근거한 41,000여 명과 차이를 보이나, 이들 포로 가운데 민간인 출신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왕의 국방부 자료에도 학도의용군이나 유격대원을 포함시키지 않았음을 밝혔거니와, 휴전 후 귀환한 국군포로 7,848명의 구성을 살펴보면, 육·해군 등 정규군 외에 군속 287명 경찰 5명, 민간인 383명 등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민간인은 대한청년단체 대원, 학도대, 치안대, 유격대 등의 출신이었을 것이다.⁴⁶⁾

따라서 북한 측이 해명해야 할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의 규모는 최소한 북한주재 소련대사관의 보고에 등장하는 13,094명으로부터, 1951년 6월 북한군 총사령부가 발표한 108,257명을 토대로 하면 포로가 된 후 사망한 유엔군포로를 제외하고 8만 명이 넘는다. 국방부에서 1997년 10월 발표한 실종자 규모인 41,971명의 명단은 북한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46) 『조선일보』 1953. 9. 8.

제3절 북한생활 실태

1. 건설대 대원으로 재편

북한에 억류된 포로는 건설대에 편입되어 북한의 전후 복구과정에서 도로, 철도, 주택 복구와 건설에 동원되다가, 1956년 이후 재배치되었다. 그들의 직업은 대부분 탄광이나 광산 노동자였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포로에 대한 스탈린의 태도는 공식적으로 항복을 금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복하는 모든 자를 반역자로 생각했다. 그는 포로였던 병사들을 믿을 수가 없었다. 독일군의 포위에서 탈출한 모든 병사들도 지뢰매설전담부대로 파견되거나 조사를 받기 위해 특별 강제수용소로 보내졌다.⁴⁷⁾ 중국으로 귀환을 했던 포로들도 영웅적 환대를 약속했지만, 공산당 청년동맹에서 쫓겨났고 덩샤오핑(登小平)이 등장할 때까지 당 이념을 이탈했다는 비난운동이 벌어질 때마다 박해의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전쟁 당시 한 북한포로는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북한에 충성하였으므로 송환된 후 좋은 대우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압록강 변두리에 배치돼 뗏목만드는 일을 하게 된 것에 불만으로 품고 1956년 1월 중국으로 탈출한 경우도 있다. 탈북 국군포로들도 북한으로 귀환했던 포로들이 자유의 이념에 물들은 점 때문에 우대를 받지

47) 드미트리 볼코고노프(한국전략문제연구소역), 『스탈린』, 세경사, 1993, p.183.

못했다고 진술했다.⁴⁸⁾

북한주민도 국군포로를 경계했다. 그 이유는 전쟁으로 적대의식이 강화되었기 때문일 것이다.⁴⁹⁾ 또한 정치적 여건에 따라 경계와 감시를 계속 했을 것이다. 주민들은 휴전 뒤 북한에서 박헌영, 이승엽 등 남로당 출신이 줄줄이 출당을 당하고 국제간첩으로 몰렸을 때나, 국군포로 출신이 인민군에 입대하였다가 전후에 간첩으로 남파되어 동료를 살해하고 자수하였던 사건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그들을 더욱 불신하였을 것이다.

포로들은 정전 후 군사건설국, 건설대 등으로 재편되었다. 내무성 건설대에는 귀환한 북한군포로와 함께 국군포로들로 103여단, 2여단 등이 편제되었다. 인민군에 편입된 포로들도 건설대로 재편된 경우가 많았다. 포로들은 탄광과 광산에 주로 배치되고, 이어서 제철소, 기업소, 농촌 등지로 배치되었다.⁵⁰⁾ 전쟁으로 평양·해주·원산·청진·남포 등의 공장, 주택 등이 크게 파괴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 정부는 이미 전쟁시기부터 복구사업을 서둘렀고 1954~56년까지 ‘인민경제복구발전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공업 총생산액을 1953년에 비해 2.6배로 확대하려고 했다. 석탄 생산의 경우, 1956년에는 400만 톤으로 늘리려고 했다. 이 규모는 1953년에 비해 5.6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각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사무원 수를 기준년도에 비해 1.5배로 늘리려고 했다.⁵¹⁾ 이 시기에 포로들은 전후복구건설 부문과 탄광 등지에 배치되었다.

48) 『동아일보』 1993. 10. 16.; 「한국전쟁이 남긴 보이지 않는 상처」, 『뉴스위크』(한국판), 2000. 6. 21. p.19.

49) 『조선전사』 27, pp.446-479; 박정인, 『풍운의 별』, pp.223-225.

50) 허계석 증언, 2011.6.30.; 오경섭·윤여상·허선행, 『국군포로의 종합적 이해』, p.68.

51) 김일성, 「전후 복구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 1954. 9. 10, 『김일성저작집』 9,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101-105.

군사건설국(제583부대)은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소속으로 1953년 6월 20일, 무력부 제33국으로 창설되었다.⁵²⁾ 제583부대는 비행장건설대대, 공병대대, 도로건설대 등으로 편성되었다. 1954년 8월 경 복구지휘부 여단이 해산된 후 군사건설국으로 재편되었고,⁵³⁾ 철도여단도 1958년 해산된 후 군사건설국으로 흡수되었다. 군사건설국의 임무는 비행장, 군항과 해안방어시설, 군사 교량과 도로, 갯도 등 군사기지 시설을 복구하고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제583부대를 복구대라고 불렀다고 한다.

군사건설국에는 국군포로 외에도 휴전 후 남한에서 귀환한 북한군 포로, 의용군 출신 등도 편성되어 있었다. 당시 북한 당국은 귀환 북한군 포로 가운데 간첩교육을 받고 침투하거나 사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자유로운 사회의 생활을 경험한 만큼 장래에 반동화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⁵⁴⁾

군사건설국의 21개 대대⁵⁵⁾ 가운데 국군포로 규모는 1개 대대에 대개 평균 15~20명의 국군포로가 배정되어 총 약 400명 내외(21개 대대×(15~20명)=315~420명)로 추정할 경우도 있다.⁵⁶⁾ 이보다 약간 더 많게 1개 소대에 포로 4~6명, 1개 중대 16~24명 수준으로 본다면, 전체 규모는 1,344~2,016명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⁵⁷⁾

52) 1990년대 초의 경우, 군사건설국의 전체 규모는 5~6만 명 수준이고, 건설여단은 4,500명 수준이었다.

53) 1953년 9월초 후방총국 산하의 제998부대 전체가 제102건설여단으로 편입되었다고 한다.

54) 조선로동당 선전선동부장 김창만, 「간부당원 동지들에게 고함」, 1953. 9. 1, “CCRAK 8242nd Army Unit Combat Report”, Aug. 1953, 군사편찬연구소 HD 1971.

55) 비행장건설대대와 도로건설대 등이 포함되는 지가 불분명하다. 또한 탈북 국군포로 중 군사건설국 제102여단, 제103여단 등으로 기억하는 점에 비추어 대대의 상급부대인 것으로 보인다.

56) 제20대대 1중대의 경우는 국군포로 출신이 7명으로 상등병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고 한다.

57) 이들도 일부는 1956년 8월경 제대 조치후 무산탄광, 아오지탄광 등지에 배치되었다는 진술에 따르면 함경도 지역의 건설대 인원과 중복될 수 있다.

후방총국 도하작업대는 휴전 후 1956년 시기까지 평양시 건설대로 전환되었다. 이 건설대는 복구사업 종료 후 해체되면서 포로들과 개별 면담을 통해 흥남비료공장, 탄광 등 전국 각지로 분산 배치했다. 그러나 38° 선과 가까운 황해도 은율광산이나 황해제철연합기업소 등지에는 배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표 5-6〉 북한 억류포로 탄광 배치 현황(1953)

(단위: 명)

내무성 건설대		규모
1701부대	아오지탄광 (613탄광, 함북 은덕)	400~600
	아오지탄광(오봉탄광, 함북 은덕)	100
1702부대	학포탄광 (함북 회령시 세천노동자지구 ⁵⁸)/ 공심탄광	500~625
1703부대	성흥광산(평남 회창군)	300
1704부대	성천광산 (평남 성천) → 모나자이트광산 → 검덕광산	400~500
1706부대	천마산광산 → 함북 경원군 하면탄광(함북 셋별 → 상화탄광 ⁵⁹)	500~600
1707, 1708부대	검덕광산(함남 단천)	1,000 ⁶⁰)
	용양광산 (함남 단천)	400
1709부대	고건원탄광 (함북 셋별)	550~1000 ⁶¹)

노동부대와 내무성 건설대에 편성된 경우, 신체허약자를 제외하고는 〈표 5-6〉처럼 정전 직후 대부분 내무성 건설대 1701~1709부대에 편

58) 1985년경 일부는 중봉탄광으로 이동했다.

59) 후에 온성탄광으로 100명이 이동했고, 하면탄광에서 탄이 바닥나자 상화탄광으로 이동했다.

60) 진술자에 따라 기준 시점이 달라 600명이나 2,000명으로 진술한 경우도 있다.

61) 고건원 탄광에는 장교 출신이 많이 배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성되었다. 탄광 가운데에도 대부분 산간벽지에 있는 함경남북도에 배치되었다. 한 포로는 온성지구 탄광, 상화청년탄광, 공심탄광, 무산군 무산탄광 등 탄광마다 내무성 건설대 이름으로 국군포로가 배치되지 아니한 곳이 없었다고 회고했다.⁶²⁾

예를 들어 1953년 7월 25일경, 강원도 화천지구 전투시 포로가 된 최 모는 강동 포로수용소를 거쳐, 1953년 9월에서 1954년 8월 1일까지 함북 은덕군 오봉탄광에 배치되었다가 내무성 건설대 1701부대 1중대에 편입되면서, “여러분들은 포로가 아니라 건설대 대원으로 신분이 변경되었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각 부대는 5개 중대로 구성된 대대규모로, 평양에 소재한 내무성 제2201군부대의 통제를 받았다.⁶³⁾

포로 중 건강 상 탄광, 임산사업소 등에 종사하기 부적합한 경우에는 협동농장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대개 한번 배치 받은 직종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이미 1953년 8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기업소 및 기관 노동자 사무원들이 임의로 직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정령을 채택했다.⁶⁴⁾

그러나 포로들이 탄광에 배치되었다고 해서 특별히 차별대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일반 주민들도 전후에는 대학이나 군대 등에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전후복구와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명분아래 건설 부문과 어렵고 힘든 곳에 배치되었다. 탄광노동자들은 일반 노동자들보다 노임 및 식량배급은 약간 높은 편이었다. 갭내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백미·돼지고기·수산물 등도 공급되었다.

62) “허재석 증언” 2011. 6. 30.

63) 제202부대라고 기억하는 증언도 있다(「‘국군포로’, 47년만에 만났다」, 『SBS』, 1999. 3. 26).

64) 『해방후 10년일지』, p.158.

2. '무의무탁 제대자' 로 처리

북한 정부는 군 병력의 축소를 명분으로 1956년 6월에서 8월말까지 인민군 병력 가운데 순차적으로 모두 8만 명을 제대 조치했다. 이 때 정규군에 편입된 포로들은 민족보위성 명령 제91호로, 시설대 등에 있던 포로들은 내각결정 제43호⁶⁵⁾로 국군포로들에게 '공민증'을 발급하고 사회에 내보냈다. 포로들은 이제 '무의무탁한 제대군인'이 되었다. 이 때 제대한 포로규모는 알 수 없으나, 모두 12,000여 명 수준이라는 소문도 있었다고 한다.



제대되는 군인들을 위한 환송 집회 현지에서 성대히 진행

인민군 육 제민 소속 연합 부대에서

1956년 8월 31일까지 조선 인민군 병력중에서 8만명을 축소할 때 관한 공화국 정부의 명령에 의하여 제대되는 군인들을 환송하는 집회가 인민군 북, 중, 남군 각 부대에서 광범히 진행되고 있다.

6월 23일 인민군 최 발달 소속 군부대 연합 육 제민 소속 연합 부대에서는 제대되는 병병, 포병, 공병, 통신병 등 각 병종 군부대 군인들을 환송하는 집회가 진행되었다.

군부대 장병들을 대표하여 장 광산 장령이 제대 군인들을 환송하는 연설을 하였다.

그는 조선 인민군 병력 축소에 관한 공화국 정부의 명령이 가지는 정치적, 경제적 의의에 언급하면서 앞으로 그는 제대 군인들이 조선 로동당 제3차 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 위업 달성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모범 전선에서 온갖 지혜와 재능과 창조적 열성을 발휘하여

모범적 역군이 될 것을 강조하고 그들의 사업에서 보다 빛나는 성과가 있기를 축원하였다.

이어 육 제민 군관이 공화국 내각 명령 제49호에 근거하여 무의 무탁한 제대 군인들에게는 1인당 2만원씩, 기타 제대 군인들에게는 5천원씩 지급되었으며 피복과 포화 등이 정확히 공급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제대 군인들에게 주는 군부대장의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참가자들의 우렁찬 박수를 받으면서 제대 군인을 대표하여 중 연합 부대 관중 북무 상사였던 김 대박이 답사를 하였다.

그는 먼저 인민군 대렬을 떠나면서 자기들을 별들의 예규적 혁명 투사로 육성 교양하여 준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에 심심한 감사사를 드렸다.

그는 계속하여 자기들을 열렬히 환송하여 주는 전체 부대내 지휘 성원들과 전우들에게

사의를 표하면서 우리 제대 군인들은 인민군대에서 키운 혁명 불꽃의 견인성과 루지를 남김 없이 발휘하여 자기들 앞에 펼쳐지는 인민경제 계획 과제와 과업들을 훌륭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부대의 전우들에게 영광스러운 부대의 전투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도록 인민들의 창조적 노력 성과를 견결히 수호하는 군무 활동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축원하였다.

환송 집회가 끝나자 제대 군인들은 철도역을 향하여 부대를 떠났다.

부대의 전우들은 선별의 정을 금치 못하여 역두까지 따라 나왔다.

부대로부터 역부에 이르는 길 양 옆에는 이 부대 주둔 지역의 수 많은 인민들이 제대 군인들을 환송하여 나왔다.

【조선 중앙 통신】

출처: 『로동신문』 1956. 6. 25.

65) 이 때문에 주민들은 포로들을 '43세대상자'로 불렀다고 한다. 내무상 결정, 혹은 내각 결정 제 143호라고 기억한 경우도 있다(해재석, 『국군포로는 분노의 강을 넘어 살아서 돌아왔다』, p.28).

북한 정부는 내각 명령 제49호에 근거하여 남한 출신 ‘무의무탁한 제대군인’들에게 1인당 2만원씩, 북한 제대군인들에게는 5,000원씩 지급했고, 양복 한 벌과 구두 등을 공급했다.⁶⁶⁾ ‘무의무탁 제대군인에는 북한에 연고가 없는 남한 출신 의용군도 포함되었다. 포로들이 제대비 명목으로 통장을 통해 2만원을 받았던 까닭에 북한 주민들은 그들을 ‘2만원 짜리’로 인식했다. 이 액수는 당시 북한 사회에서는 상당히 큰 돈이어서 북한에 연고가 없는 포로 출신들이 결혼하여 정착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탈북한 국군포로의 배우자는 생활 형편이 여의치 않는 처녀들이 ‘2만원 짜리’한테 시집갔다고 얘기했다.⁶⁷⁾ 시·군당에서 포로를 비롯해 남한 출신을 관리했고 리 단위로 정치보위부원이 그들을 통제했다.

국군포로들은 북한의 ‘공민’이 되었지만, 직업을 선택하는데 자신들의 의사가 크게 제한되었다. 포로들은 탄광, 제철소, 제강, 비날론공장 등에 배치되었다. 이들이 직장에 배치될 무렵, 김일성은 “도처에 석탄이 매장되어 있는데, 석탄더미 위에서 석탄 곤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석탄은 공업의 식량”이라고 증산을 촉구했다. 이때 고참탄광, 아오지탄광, 고건원탄광, 온성탄광, 동관탄광, 궁심탄광 등에 집중 투자되면서⁶⁸⁾ 국군포로들은 탄광에 많이 배치되었다. 일부 포로들은 김책제철소, 성진제강소 등에 배치되기도 하였으나⁶⁹⁾ 직장에서 신뢰를 받지 못해 부차적인 일에 종사했다.

66) 『로동신문』 1956. 6. 25. 제49호에 따라 ‘49호대상자’로 일컬어지기도 했다.

67) 최○련 증언, 군포시, 2014. 3. 28.

68) 김일성, 「석탄은 공업의 식량이다」, 1957. 5. 10, 『김일성저작집』 11, pp.126-130.

69) 1958년 전후 경제재건을 위해 지방에도 1,000여 개의 공장이 생겼다(현호범, 「현시기 지방산업의 의의와 그 발전을 위한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 『경제건설』, 1959. 1, p.29). 따라서 일부 포로는 이러한 공장에도 배치되었을 것이다.

3. 국군포로의 북한생활 실상

북한에서는 “실업자도 거지도 없다. 누구나 일자리를 가지고 무료교육, 무상치료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⁷⁰⁾ 그러나 국군포로들은 일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제철소나, 연합기업소, 기계공장, 운수 부문 등이 아니라, 대부분 탄광에 배치되었다. 즉, 그들은 좋은 직업을 선택할 수 없이, 60세 정년이 되는 1990년대 초 전후까지 줄곧 굴 안에 들어가 막노동을 해야 했다. 탄광에는 출신 성분이 나쁘고 또 죄를 짓고 쫓겨온 사람들이 많이 배치되었다. 북한에서 국군포로들이 어떠한 지위나 직업에 종사했느냐는 그들의 강제역류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조창호와 양순용을 비롯해 탈북포로들은 대부분 탄광이나 광산에서 노동을 했다.⁷¹⁾ 탄광에 배치된 일부 포로들 가운데 소수는 일반 사회에 배치했다. 1955년도 초에 아오지탄광에서 포로 출신 500명 가운데 천천 출신 최기호를 비롯해 7~8명을 선발해서 사회에 내보냈다. 이 이유는 포로들에게 “보라, 저 사람들 일 잘하니까 사회에 나가지 않느냐?”면서 시범적으로 내보낸 것일 뿐이었다.⁷²⁾

전쟁 중 북한군에 자원하여 입대한 의용군의 경우는 북한사회에서 적

70) 김성배, 「나는 세상에 다시 태어났다」, 『로동신문』 1983.12.30; 조승현, 「암흑에서 광명으로」, 『로동신문』 1984.10.20.

71) 김동섭, 「그곳에서 국군포로를 보았다」, 『주간조선』 1996. 10. 24., p.10; 「6.25 포로 셋 복서 함께 살았다」, 『중앙일보』 1996. 12. 12; 「6. 25 국군포로 광산서 '노예노동」, 『조선일보』 1996. 12. 24; 조창호, 『돌아 온 사자』, p.31; 『중앙일보』 2001. 2. 27; 「우석이의 인권」, <http://chunma.yeungnam.ac.kr/~j7300631/buk2.html>(검색일: 2001. 9. 18); 오경섭·윤여상·허선행, 『국군포로문제의 종합적 이해』, p.96.

72) 허재석 증언, 2011. 6. 30.

응하기가 용이했다. 남한 의용군 출신 자녀들은 군에 나가면 군관이 될 수 있고, 대학에도 갈 수 있었으며 어느 당 기관에 당 일꾼도 될 수 있고, 작업반장도 될 수 있었다. 전쟁 초기 인민군에 입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고두만은 이미 1967년 북한의 대외선전 잡지인 『조선』 2월 호에 건설장의 노력영웅으로 소개되었고, 이 해 7월 호에도 이상만이 평양시 기계화사업소 지도원으로 알려졌다.⁷³⁾

의용군 가운데 남한에 있을 때 고등학교나 대학 공부를 한 사람들은 북한에서 지도원 같은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농사나 짓다가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은 천대받았다. 식량 사정이 악화된 후에도 의용군 출신들은 식량고통을 받아도 다만 며칠 분의 강냉이라도 조금 받을 수 있었고, 연료보장비도 다른 사람은 받지 못했지만 군당에서 확인서만 가지고 가면 은행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비해 국군포로 출신들은 지원을 받지 못해, 산에 강냉이와 콩을 심고, 나뭇을 뜯어 먹고 살았다.⁷⁴⁾

의용군 출신들과 달리, 아군에 포로가 되어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다가 전후 북한을 선택한 이들은 천대받고 설움을 받는 처지가 되었다. 충청도 출신으로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북한으로 간 정구찬은 국군포로들처럼 동암광산에서 막노동을 하다가 퇴직했다.⁷⁵⁾

포로 출신 가운데도 북한사회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일부는 노동당에 가입했다. 1952년 3월 양구에서 중국군에 의해 포로가 된 문모는 부상으로 1952년 12월말 제대한 후 직조 공장 노동자로 근무하다

73) 「북한잡지에 실린 국군포로」, 『주간조선』 1996. 10. 31., p.25.

74) 허재석 증언, 2011.6.30.

75) 유영철, 『지옥의 별밤 아래에서』, pp.203-204. 그런데 거제도 포로수용소 명단에서 정구찬은 찾기 어렵다.

가, 1953년에 직업동맹에 가입했다. 그 후 지질탐사대 시추공으로 일하다가 1993년 7월 전쟁 40돌 기념 훈장을 받기도 했다. 또한 석 모는 1962년에 노동당에 가입하여 1972년, 1981년, 1985년에 ‘국기훈장 3급’을 받았으며, 1992년



국군포로가 많았던 검덕광산을 방문한 김정일 위원장(1975.7)

출처: 김복록 등 편, 『영광의 50년』, p. 152.

‘노력훈장’을 받기도 했다. 2001년 1월 남북이산가족의 상봉 때, 그 동안 청진의 나남기계공장에서 근무하였던 김재덕도 가슴에 훈장 4개를 달고 가족을 만났다.⁷⁶⁾

채탄공, 굴진공, 석탄이나 광석을 실어 나르는 운광공 등 탄광 일이 힘든 만큼 급여가 많았고, 성과급도 받을 수 있었다. 북한 정부는 채탄 증산을 위해 증산경쟁운동 상금제·도급제·집단상금제 등을 비롯한 근속연한 가급금·입갱가급금 등(내각 결정 제32, 90, 132호 등)으로 광부들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⁷⁷⁾ 김일성과 김정일은 현지지도를 통해 증산을 독려했다. 1961년 4월 5일 김일성이 검덕광산에 시찰을 나왔고, 김정일은 1975년 7월 검덕광산을 방문하여 지하막장에서 일하는 광부들을 보고 싶다면서 내려온 적도 있었다.⁷⁸⁾ 이때

76) 『남북이산 혈육상봉 - 51년만의 만남 꿈같구나』, 『국제신문』 2001. 2. 27.

77) 『로동신문』 1956. 7. 8.

78) 김복록 등 편, 『영광의 50년』, 평양: 외국문종합출판사, 1995, p.152.

김정일은 광부 중 많은 이들이 남한 출신 포로라는 사실을 알았을지 모른다. 거의 40년 전의 일이다. 김정일 일행은 함경남도 검덕광산, 용양광산, 대흥청년광산 등 단천지구 광산과 문화협동농장 등을 방문했다.⁷⁹⁾ 이에 대해 탈북한 최기호는 “국군포로들의 노예 노동으로 연명하는 불한당 같은 악당들이여”⁸⁰⁾라고 비판했다.

국군포로 출신은 북한에서 부농·지주·기독교신자 등이 분류되어 있는 적대계층이 아니라 동요계층이다.⁸¹⁾ 폐쇄적이고 이중 3중의 감시체제 속에서 국군포로들은 살아남기 위해 불만을 드러내지 못하고 ‘맹종’하면서 살았다. 그들은 국군과 유엔군에 의해 포로가 된 후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귀환한 북한군포로보다⁸²⁾ 나은 대우를 받았다. 일반 노동자와 일부 포로들은 탄광이 농장 기업소에 비해 노임이 높았기 때문에 탄광 배치를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포로들도 60세가 되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에 연로보장, 즉, 연금을 받았다. 특히 채탄공은 연로보장이 비교적 많아 농촌생활보다 나았다고 한다.

전후에는 교화소에 보내진 일부 포로를 제외하고는 ‘강제노동형’이나 강제노역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탄광에서는 8시간 3교대 근무였으며, 간혹 생산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노동시간은 잘 지켜졌다. 의용군 출신 가운데 강의식·문학선·이근수 등처럼 탄광광산 등지에서 복무한 경우도 많았다. 북한군 출신도 공업과 철도 운수부

79) 통일학술정보센터 편, 『김정일 현지도 동향 1994-2011』, 통일연구원, 2011, p.117, 226, 230, 265

80) 최기호 증언, 2011. 7. 12.

81) 『북한정보총람』, 국제정보연구원, 2000, pp.390-391.

82) 정전 후 북한으로 돌아간 원산희는 압록강 변에 배치되어 뗏목을 만드는 일을 하던 중 1956년 1월 중국으로 탈출했다(『북행 6·25전쟁포로 최초로 남한방문』, 『동아일보』 1993. 10. 16). 중국에서도 포로들은 ‘변절자’라고 해서 많은 차별대우를 받았다.

문의 중요한 동력이 되는 석탄공업 분야로의 진출을 강조했다.⁸³⁾ 옌빈(延邊)에서 북한으로 들어온 이들도 탄광에 배치되었다. 즉, 1960년 여름 지린성 옌빈 지역에 대홍수가 났을 때, 이들은 북한에서 공부를 할 수 있고 직장도 희망하는 대로 주선해준다는 소문으로 입북했으나 함경북도 회령의 탄광에 배치되었다. 따라서 시베리아 강제노동수용소의 지하탄갱에서처럼 외롭고 배고프며, 절대적으로 버려진 존재였다는 수준은 아니었다.⁸⁴⁾

그러나 탈북 국군포로들은 북한 사회에서 성분에 따른 차별이 심해 월남가족·지주가족 등과 같이 최하위 계층으로 분류되어 천대를 받으면서, ‘사람 값’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자녀들도 최하층으로 분류되어 대학진학은 물론 군입대도 불가능하며 심지어 결혼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사회생활에서도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북한 당국은 1970년 중반경부터 남한 출신들을 공산대학에 보내어 교육을 시켰으면서도 포로 출신들에게는 공산대학의 입학에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했을 뿐이다. 입당 후에도 직장이나 일상생활에 별다른 변화는 없었으며, 오히려 당원이기 때문에 일을 더 열심히 할 것을 강요받았다. 당원 내에 차별이 있어서 직장에서 승진하는 데에 작업반장 수준에 그치는 등 여전히 제한이 있었다. 같은 작업반장이지만, 포로 출신은 회의 시 발언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북한 정부는 1993년도 7월 27일 전승기념일 40돌을 맞이하여 크게 행사를 하면서도, 인민군에 편입되지 못한 일반 포로들에게는 참석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⁸⁵⁾ 중앙에서 지방까지 인민군대 복무를 했거나, 내무

83) 『로동신문』 1956. 6. 25.

84) Gunther Kowalczyk's interview, 베를린, 2012. 1. 10.

85) 인민군에 편입된 포로들은 전승훈장을 받았기 때문에 탈북한 포로 가운데도 이 훈장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 북한 정부는 일반포로들에게는 이 훈장을 전혀 수여하지 않았다.

서원 일을 했거나, 군수공장에서 일했거나, 피복공장에서 군복을 만들었거나, 농촌에서 쌀 생산을 했거나 모두 참석증을 주었고, 40돌 훈장을 주었다. 북한에서 훈장을 받는다는 것은 식량배급과 연로보장에서 특혜를 받을 수 있었다. 즉 국기훈장 1급에서 노력훈장까지는 다른 게 없어도 만 60세가 되면 연로보장을 받는데 그때 식량을 600g을 주고 자기가 받던 임금의 60%를 지급한다. 국기훈장 2급부터는 메달이 모두 5개가 있어야 임금의 50%를 지급한다. 그런데 전승훈장 혹은 노병훈장은 다른 메달에 상관없이 그 60%를 지급했다. 이러한 훈장이 없는 일반 연로보상자는 임금의 10%와 식량도 300g에 불과했다. 또한 그 참석증이나 노병훈장이 있으면 여행증을 발급받거나 차표를 사는데 우선권이 있었다.⁸⁶⁾

형제나 인척들도 포로 출신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 최기호는 북한에서 의용군으로 끌려 간 동생 최기학을 만났다. 그는 인민군 부대에서 소위로 간부를 하고 있었는데, 포로 출신 형을 만난 후 강제로 전역당해 신창지구 종합탄광으로 배치되었다. 이 때문에 동생 가족들의 원망이 대단했다고 한다.⁸⁷⁾ 처남들 또한 매형이 포로 출신이기 때문에 승진이나 출세에 방해가 되었다. 즉, “처남이 군대에서 10년 복무하고 나온 후 김일성종합대학을 통신 과정으로 수료한 후, 시 보위부장으로 가게 됐는데, 중앙당에서 신원조회를 해 와서 보니까 내가 국군포로니까, 누이하고 매부 사이를 이혼시키면 그 자리에 가고, 아니면 옷 벗으라.”라는 압력을 받자, 결국 처남은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⁸⁸⁾

86) 허재석 증언, 2011. 6. 30; 유영복 증언, 2014. 5. 16.

87) 최기호 증언, 2011. 7. 12.

88) 노사홍 증언, 2011. 6. 29.

포로 출신의 자녀들 역시 상급학교 진학, 군 입대, 진급, 입당, 결혼 등에서 차별을 받았다. 북한 당국은 휴전 후 만일에 통일이 된다면, 포로들을 남한에서 자기네 간부들로 활용하려 했던 방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점차 시간이 경과되면서 그들을 멸시했다. 포로 출신들이 가장 차별을 느낄 때가 자녀들이 상급학교 진학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와 군대에 가지 못한 경우였다. 북한에서는 고등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라고 하지만, 포로 출신 자녀들은 대학에 진학할 수 없었다. 북한 사회에서는 “43호라고 하면 저건 포로자식이다”라는 점을 모두 알고 차별을 했다.⁸⁹⁾ 한 탈북 국군포로는 자녀들이 “아, 난 아버지 때문에 공부를 못합니다.”라고 말할 때 정말 죽을 생각도 나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겠는가, 어째 내 신세가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것만 생각되고 그저 아들한테 면목이 없다고 회고했다.⁹⁰⁾

북한에서도 탄광은 기계설비가 없어서 육체적으로 힘들고, 주거환경도 열악하며 잦은 갱내 사고로 위험했으므로, 북한 주민들도 배치를 받지 않으려 하고 배치된 후에도 전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대개 탄광 광산 노동자의 자녀는 대를 이어 탄광과 광산에 배치되었다.

북한 주민들은 출신 성분을 이유로 포로 출신들과 결혼하려 하지 않아서 결혼도 성분이 비슷한 사람끼리 하고, 심지어 장가를 못가는 경우도 있었다.⁹¹⁾ 자녀들이 결혼하려 할 때도 상대방 측 부모가 포로 출신 자식과는 결혼시킬 수 없다고 하여 혼인이 무산된 경우도 발생했다. 제사공장에서 일했던 한 탈북자는 1980년대 초 성천 제사공장(성천군 장

89) 허재석 증언, 2011. 6. 30.

90) 노사홍 증언, 2011. 6. 29.

91) 「국군포로 실태」, 『한국일보』 2004. 1. 6; 제성호, 『미귀환 국군포로문제 해결방안』, pp.24-27.

림노동자구)에 국군포로 출신 딸 300명 정도가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녀들이 ‘괴뢰군 포로’ 출신이어서 시집가기도 힘들다고 하소연했다는 얘기를 기억했다.⁹²⁾

국군포로 출신 자녀들은 지하철, 지하 미사일 및 활주로 건설, 땅굴 등에 동원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군대에 징집되지 못했다.⁹³⁾ 북한도 요즈음에는 10년 의무복무를 피해 군대를 가지 않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한다. 하지만, 군대를 가면 로동당에 입당하는 것이 매우 수월했다. 대개 군대에서 입당 허용 비율이 80%, 사회에서 20% 정도이기 때문이다.⁹⁴⁾

채탄이나 채광을 오래하면, 폐가 악화되어 제대로 살지 못하고 죽은 포로도 생겼다. 여기에 고건원탄광, 길주 일신탄광 등으로 전전하면서 대우를 받지 못한 점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자살한 경우도 있다. 통일 은 안되지 살아서 뭐하냐며 불만이 많아 탄광에서 적응하기 어려웠던 전라북도 옥구군 대야면 출신인 문○섭은 1991년 자살하고 말았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소위 ‘고난의 행군’ 시절 북한에서 식량난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자, 포로들 가운데에도 일부 아사자가 발생했으나 식량배급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도시민과 달리 산에 농작물을 경작하여 살아 갈 수 있었다. 또한 역설적으로 함경도 지역 탄광에 배치된 국군 포로들은 탈북하기 유리한 조건이 되었다.

92) 김태범 증언, 군사편찬연구소, 2013. 12. 20.

93) 국군포로 손기선의 아들인 손인남은 징집을 당했는데, 개성에 있는 인민군 제2군단 이하의 전쟁이 일어날 경우 초반 5분을 벌기 위한 ‘총알받이 부대’에 배치되어 약 6년간 복무했다. (『동아일보』 20013. 10. 28).

94) 이영대 증언, 군사편찬연구소, 2013. 12. 20.

제6장

국군포로의 러시아 시베리아 이송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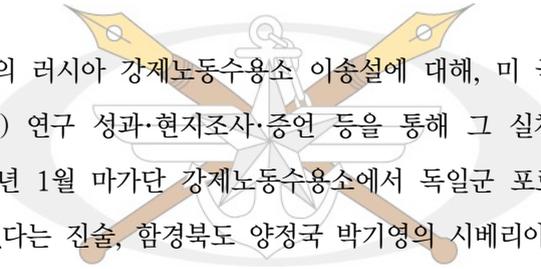
제1절 이송설 제기

제2절 포로 이송 가능성

제3절 시베리아 강제노동수용소 실태

제4절 향후 추진 방안

제6장 국군포로의 러시아 시베리아 이송설



국군포로의 러시아 강제노동수용소 이송설에 대해, 미 국방부 포로실 종국(DPMO) 연구 성과·현지조사·증언 등을 통해 그 실체를 규명하려 했다. 1954년 1월 마가단 강제노동수용소에서 독일군 포로가 한국군포로를 목격했다는 진술, 함경북도 양정국 박기영의 시베리아 수용소의 국군포로에게 먹일 쌀과 강냉이를 이송했다는 증언, 구 소련 군정시기 북한의 반공주의자들을 시베리아 수용소로 보냈던 역사적 경험 등을 비추어 보면, 국군포로의 이송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제1절 이송설 제기

국군포로의 탈북으로 미귀환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2007년 4월 12일자 『한국일보』는 1993년 8월 미·러 합동

포로실종자위원회(the U.S.-Russia Joint Commission on POWs/MIAs, USRJC, 이하 미·러합동위원회로 줄임)에서 6·25전쟁 시기의 미군포로와 실종자를 추적하던 중 강상호 전 북한 내무성 부상 증언, 미군 첩보 보고서 등을 인용하여 “전쟁 중 국군포로 수천 명이 시베리아로 이송되었다”면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송환되지 않는 국군포로들은 북한군과 주민으로 편입되었거나 시베리아 이송 등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자료는 단편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데, 러시아 정부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어 그 실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들의 소련 이송 가능성에 대한 정보와 자료는 당시 북한 언론에서 전혀 찾을 수 없었다. 북한 내각 지도자나 북한과 소련의 군부와 첩보기관에서도 극히 소수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 동안 학계에서는 1930년대 소련 한인들의 강제이주 및 노무인력 동원, 태평양전쟁 말기 소련군 포로가 된 후 시베리아 수용소에 억류된 한인 귀환 문제, 솔제니친과 살라모프의 작품을 통해 강제노동수용소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¹⁾ 국군포로 소련 이송과 관련해서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 외에는 전혀 연구된 적이 없었다.

러시아에서도 1980년대 중반에 이르면서 시작된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정권 교체와 소련 내 민주적인 변혁 덕분에 과거사 공개가 가능해졌고 인권과 외국인 전쟁포로에 대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었다. 구 독일군, 폴란드군, 일본군 전쟁포로의 연구 및 실질적 문제

1) 박민영, 「소련군 포로가 된 시베리아지역 한인의 귀환문제」,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0, 1983; 서상국, 「살라모프와 솔제니친의 수용소에 대한 태도 비교 연구: 노동과 음식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논문집』 34, 1999. 2; 심현용, 「제2차 대전시 소련의 한인 노무인력 동원정책」, 『군사』 45, 2002. 4; 박종효, 「구소련 극동 한인 강제이주의 역사적 배경과 그 실상」, 『군사』 64, 2007. 8; 심현용, 「1930년대 소련 국가권력의 위기와 한인 강제이주」, 같은 책.

해결에 있어 특별한 성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기록들이 완전히 공개된 것은 아니며 따라서 소연방 내무부 전쟁포로 및 억류자 전담국(ГУПВИ, Гла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по делам Военно пленных и Интернированных, 굽비) 체제의 소비에트 수용소에 있던 외국인 전쟁포로의 수감 기록에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고 소련에서 실종된 포로들의 수천 개의 무덤과 그들의 운명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²⁾

다행히 미 국방부에서 미군포로와 실종자를 추적하면서 정리한 연구 조사 활동 성과³⁾는 본 연구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또한 시기와 수용소 위치 등이 다르지만 수용소 실태를 이해하는 데는 소련 군정기 시베리아로 유형된 북한인을 비롯해 미국·러시아 등지의 시베리아 강제노동수용소 연구 및 회고록, 제2차 세계대전 후 시베리아 수용소에 억류되었다가 귀환한 일본군 및 독일군 포로연구 등도 적극 활용했다.⁴⁾

본서에서는 미·러합동위원회의 활동성과 분석, 구소련 지역의 한국전 참전자 및 수용소 목격자' 등의 인터뷰, 강제노동수용소 현지답사 등을 통해 국군포로 소련이송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국군포로의 생존 가능성 등에 대해 검토했다.

미·러합동위원회의 활동 가운데 특히 한국전쟁실무그룹(Korean War

2) 김계르만, 「소연방 내무부 전쟁포로 및 억류자 전담국(굽비(ГУПВИ)) 수용소 군도의 한인 전쟁포로」, 군사편찬연구소 용역과제, 2012.

3) Defense POW Missing Personnel Office, *U.S. Servicemen in Soviet Captivity*, 2008.

4) 알렉산더 돌진(Alexander Dolgun), 『수용소 군도 23년』, 월간 중앙 1975년 9월 별책 부록; 정창중, 『바이칼은 흐르고 있는가』, 고려원, 1991; 김선혁, 『평양에서 서울까지 47년: 한 애국 청년의 시베리아 강제노동수용소 유형 및 유배 체험 후기』, 흥성사, 1996; 阿部軍治, 『シベリア強制抑留の実態: 日ソ両国資料からの検証』, 彩流社, 2005; Ayyub Baghirov, *The Bitter Days of Kolyma*, 2006; Bollinger, Martin J., *Stalin's slave ships*, Praeger, 2003, etc.

Working Group)이 가장 비중있는 그룹이기도 하지만, 국군포로의 이송과 관련해서도 가장 밀접한 까닭에 본서에서는 이들의 연구 활동성과를 충분히 활용했다. 이 가운데 그들이 채록한 증언록과 러시아 문서를 비롯해 1950년대 소비에트 강제노동수용소로부터 귀환한 일본군 및 독일군 포로의 심문 자료도 중요하다. 이 자료들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소장되어 있고 그 규모는 일본군포로 128박스, 독일군포로 1,120박스 등으로 방대하다. 그 외에 미 국방부를 비롯해 일본, 러시아, 이스라엘 등지의 무관부와 영사부, 일본 방위연구소 전사부, 독일 군사사연구소 등의 협조를 받아 관련자의 증언 및 자료 수집 등을 모색했다.

북한군 총사령부의 10만 명 수준이 아니라, 평양 주재 소련대사관의 문서를 따른다고 해도, 전체 국군포로 41,350명 가운데 남한에 송환된 8,000여 명과 북한군과 노동자로 동원된 13,000여 명 외에 나머지 국군포로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이 문서상의 미귀환 국군포로 규모는 북한군이 발표한 포로 규모뿐만 아니라 중국군의 포로 규모 주장과 소련 국방부 문서에 나타나는 통계에 비추어 보면 너무 적다. 결국 송환되지 않는 국군포로들은 북한군과 주민으로 편입되었거나 시베리아 이송 등의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 국방부 문서의 포로통계에 의하더라도, 북한에 억류된 경우 외에 시베리아 등지로 이송된 국군포로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제2절 포로 이송 가능성

1. 미군 보고서의 주요 내용

1993년 8월 보고서(“The Transfer of U.S. Korean War POWs to the Soviet Union”)⁵⁾는 한국전쟁 당시 미군 포로의 러시아 생존여부 확인과 유해 반환을 위해 만든 조직인 ‘미·러시아합동위원회’의 초라스(Peter G. Tsouras), 힌드리치(Werner S. Hindrichs) 소령, 블라서(Danz F. H. Blasser) 상사 등이 작성한 것이다. 이 합동위원회는 러시아와의 회의를 마친 후 결과보고서를 정리했고, 매년 조사 연구 활동의 성과를 보고서로 정리했다.

보고서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안은 미군포로가 소련으로 이송되어 되돌아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는 스탈린 독재 치하에서 국가보안부(MGB) 최고의 비밀계획에 의한 것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보고서에서는 그 대부분이 미군포로 이송설에 대한 것이며, 국군포로 관련 사항은 일부가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보고서 내용은 소련의 미군포로 이송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미국에 대한 군사 및 기술정보 수집 측면과 인질개념으로 접근했다. 첫째, 목적에 대한 근거로는 공중전에서 미소 양국의 항공기술력 차이,

5) Peter G. Tsouras, Danz F. H. Blasser, etc.. “The Transfer of U.S. Korean War POWs To the Soviet Union”, 1993. 8. 26.

제64전투비행단, 포로심문 등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즉, 6·25전쟁에서 지상전은 제2차 세계대전 수준의 무기를 그대로 썼지만, 공중전은 미소 양국이 신기술을 경연하는 장이 되어 첫 현대적 공중전이였다. 보고서에서 6·25전쟁 당시 추락된 미 공군 F-86 조종사들의 대부분이 계급 및 임무의 중요성에 따라 정보 수집을 위해 소련 및 중국 각지에 위치한 수용소로 이송된 것으로 판단했다.

둘째, 이송 목적을 입증하기 위해 1952년 9월 스탈린과 저우언라이(周恩來) 회담에서 스탈린이 유엔군 포로의 20%를 인질로 확보하자고 제안한 사실에 주목했다. 국군포로의 이송과 관련해서, 보고서에서는 이송된 포로 중 수천 명의 한국인이 포함되었다는 전 북한 내무성 부상 강상호의 증언, 유엔연합정찰사령부(U.N. Combined Command for Reconnaissance Activity Korea, CCRAK) 첩보, 나고르스키(Zygmunt Nagorski, Jr.) 기자의 주장 등을 수록했다. 스탈린이 제2차 세계대전의 독일군 및 일본군포로 이용 경험을 통해 미군포로를 잠재적으로 이익이 남는 인질로 여겼을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에서는 수용소에서 미군포로의 목격 범위는 매우 광범위해서 이를 간과할 수 없을 것(We can not dismiss it)으로 평가했다. 또한 소련 제64전투비행단은 한국전에서 북한과 중국군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포로 집결·선별·심문 등에 관한 첩보를 수집했으며, 총참모부의 분석팀을 극동군구에 파견해 하바롭스크에서 미군과 유엔군 포로를 집중 심문했다. 이 작전에 참여했던 코로트코프(Gavril I. Korotkov) 대령은 소련군 총참모부에서 포로에 대한 심문을 허용했고, 내무부에서 포로들을 통제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심문을 받았던 포로들은 귀환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포로들은 하바롭스크 미군 포로 심문센터와 수용소로 보내기 위해 만

저우리(滿洲里)와 포시엣트를 통해 이송되었다. 이르쿠츠크와 노보시비르스크를 통과하여, 포로들이 최종 도착한 곳은 코미(Komi)와 페름(Perm, 현 몰로토프)주였다.

또한 하바롭스크, 이르쿠츠크, 타이셋 등에서 미군 포로를 목격했다는 진술을 정리했다. 포로가 소련으로 이송된 후 장기간 수용되어 있었으므로 소련 시민들에게도 눈에 띄는 경우가 발생했다. 중국군 장교는 미군포로를 직접 소련군에 인도했다고 증언했다. 소련 붕괴 후 이러한 진술은 크게 늘었다. 그러나 목격자들이 진술한 이름을 실종자 명단에서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다. 전 내무부 관리였던 예제르스키(Yuriy F. Yezerskiy) 중장은 소련 당국이 외국인 포로들에게 이름을 바꾸도록 해서 진짜 이름을 쓰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보고서 부록에는 한국전쟁기 미군 실종자 규모, 공산군에 잡혔을 것으로 추정되는 F-86기 31명의 조종사 명단과 정황, 포로가 되었다가 귀환한 조종사 명단, 소련군 포로담당자 명단과 질문지, 보고서 작성에 도움 받은 인사들 명단, 한국전쟁에 참전한 조종사·고문·대공포사단 간부 명단 등이 첨부되었다.⁶⁾

2. 국군포로의 소련 이송설

가. 이송설 등장 과정

전쟁 초기에 이미 국군과 유엔군포로들이 회령을 통해 러시아로 보내

6) Peter G. Tsouras, Danz F. H. Blasser, etc., "The Transfer of U.S. Korean War POWs To the Soviet Union," 1993. 8. 26.

졌다는 첩보는 있었다. 휴전 직후에도 미군포로의 시베리아 이송설은 아군포로들이 귀환하면서 제기되었다. 미국 정부도 약 1,000명의 미군 포로들이 중국으로 실려가서 러시아 열차로 시베리아에 끌려갔다고 파악했다.⁷⁾

보다 구체적인 국군포로의 소련 이송설은 1993년 11월 중순, 국내 언론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미군포로의 러시아 생존여부 확인과 유해 반환을 위해 만든 ‘미·러합동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한국전 때 공산군에 붙잡힌 한국군포로 수천 명이 비밀리에 구 소련으로 끌려갔다”고 보도함으로써 알려졌다. 그 내용은 북한군 2인자로 포로 이송에 관여했던 ‘고간산’ 퇴역 중장이 1992년 11월 이같은 사실을 폭로했다면서, 한국군포로가 집단적으로 소련에 끌려간 사실이 미국 측 문서에 의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되었다. 소련이 당시 이들 한국군을 미군포로 등과 함께 해-육상으로 비밀리에 이동시켰다면서 육로의 경우 만주 횡단철도와 북한에서 러시아 극동 지역인 프리모르크샤로 이어지는 철도편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또 상당수의 포로는 “선박에 실려 동해 및 오오츠크해 연변 구 소련 항구들로 수송된 후 그곳에서 다시 철도편으로 옮겨졌다. 이들 한국군포로 대부분은 시베리아 별판이나 일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3~4백 개소의 비밀 수용소에 보내졌다”고 전했다.⁸⁾

이 당시 국내에 소개된 내용은 매우 짤막했지만, 주미 대사관에서도

7) 『동아일보』 1953.8.16.; 8242nd Army Unit, HQ, CCRAK, “Movement of North Korean Political Prisoners to the Soviet Union: CCRAK # J-1720” Jan. 5, 1953, 38/ 349; Scott Thompson, “POWs said to have been abandoned in North Korea and Siberia”, *National*, Nov.27, 1992, p.62.

8) 「6·25 한국군 포로 구소로 압송」, 『한국일보』 1993.11.18. 당시에 『세계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등에서도 보도했다.

미 국방부 보고서를 입수해 정부에 보냈다.⁹⁾ 하지만 진술자가 전 북한 내무성 부상 강상호¹⁰⁾임을 파악하지 못하고 원문의 ‘Kan San Kho’를 영어식으로 이해하여 고간산으로 기술했다. 이 때문에 아쉽게도 당시에 언론이나 연구자들은 강상호와 직접 접촉하지 못했다.

다만 이듬해 10월 하순, 『연합통신』에서 미 국방부 보고서 내용 중 1992년 8월 인터뷰 가운데 유엔군 포로심문을 담당했다는 코로트코프 박사와 면담한 내용을 보도했다. 전역 후 러시아 국방부 산하 군사사연구소에서 전쟁사를 연구하고 있던 그는 한국전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힌 한국군 일부가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송됐으며 이러한 내용의 비밀 문서가 옛 소련 비밀경찰(KGB) 비밀문서고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쟁 초기 소련극동군총사령관 직속 한국전 전담 정보반에서 장교로 근무하면서 유엔군 포로에 대한 심문을 했을 때 포로 담당 장교들로부터 한국군포로 이송에 관한 얘기를 분명히 들었다고 말했다.¹¹⁾ 그러나 국내에서 국군포로 문제는 1994년 10월 하순 조창호 중위가 탈출해 올 때 비로소 북한에 남아 있는 미귀환 국군포로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후 2007년 4월 중순 『한국일보』에서 1993년 미 국방부 보고서 외에 미 중앙정보국(CIA) 및 연합정찰사령부 첩보보고서를 획득하여 국군

9) 주미대사관, 「한국군 포로 시베리아 이송」, 1994. 1. 10.

10) 강상호는 1910년 소련 연해주에서 태어나 하바롭스크 공산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한 후 1945년 해방을 맞아 북한으로 와서 6·25전쟁 당시 강원도 도당위원장을 역임했다. 1953년 1월 중앙당학교 교장으로 전근되었다가, 1953년 6월에서 1957년까지 북한 내무성 부상 겸 정치국장으로서 일했다. 그는 당 정치교양 및 문화 사업을 맡았으며 김일성을 도와 북한정권 수립에 참여했다(『서울신문』 1990. 6. 23; 「김일성독재체제 혐오 망명, 전 북한 내무성차관 강상호 옹(인터뷰)」, 『국민일보』 1990. 6. 19; 장학봉 외, 『북조선을 만든 고려인 이야기』, 경인문화사, 2006, pp.6-8).

11) 「6·25 한국군포로 중앙아 강제이송/러 한국전전문가」, 『서울신문』 1994. 10. 26.

포로들의 압송경로, 수용소 위치와 규모, 혹독한 생활상 등을 자세히 보도했다. 먼저 1993년 8월 미군 보고서의 강상호 진술, 나고르스키 기자 보도 내용과 미국 중앙정보국의 1952년 9월 2일자 첩보 보고서를 인용하여 국군포로 수 천명이 소련으로 끌려갔다고 밝혔다. 미 중앙정보국 첩보보고서에는 국군포로의 이송 규모를 최소 12,000명으로 언급했으나, 보도에서는 강상호의 진술에 더 무게를 둔 듯 수 천명을 강조했다.¹²⁾

포로의 이송은 1951년 11월에서 1952년 4월까지 태평양 해안과 타타르 해협이 얼어있을 때에는 기차로 치타를 경유해 몰로토프로 옮겨지고, 얼음이 녹았을 경우에는 해상을 이용하는 두가지 경로를 통해 이뤄졌다. 보고서에서는 주로 국군과 남한 정치인들로 이뤄진 포로들이 오후츠크 등 소련 극동항구로 이송된 뒤 야쿠츠크 주변의 콜리마수용소 등으로 보내졌으며, 추크치해 지역으로 이송된 포로들은 최소 12,000명에 달하고 도로공사와 비행장 건설 등에 동원돼 사망률이 높았다고 기록했다.



국군포로 이송 경로 추정지(『한국일보』, 2007. 4. 12)

12) 『한국일보』 2007. 4. 12.

이어서 “반카렘으로 보내진 포로들은 동시베리아해의 니즈니 콜리마스크(Nizhni Kolymask) 지역의 수용소들로 보내 도로공사, 전력발전소, 비행장 건설에 동원됐다”며 특히 “우스트 마이스크와 야쿠츠크 사이에 위치한 국군포로 전용 수용소들은 50~200km 간격으로 500~1,000명이 각각 수용돼 있고 탄광, 토목, 댐 공사 노동을 하고 있다”고 밝힌 뒤 “포로들은 매우 힘겨운 육체노동을 하고 원시적인 생활환경에서 살고 있어 ‘암가(AMGA)’라는 수용소에서는 1952년 2~4월 약 300명이 죽었다”고 밝혔다.¹³⁾

또한 ‘지역 거주 첩보원’에 의해 작성된 연합정찰사령부(CCRACK)의 1953년 1월 5일자 첩보 보고서(#J-1720)는 포로의 규모와 수용소 위치가 중앙정보국 첩보와는 다르게 보고되었다. 즉, “(북한) 노동당 명령에 따라 정치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약 20,000명이 북한 내 여러 감옥에서 1952년 9월 중순 우라기(Uragi)로 옮겨졌다”며 “이들 죄수들은 10월 초에 러시아의 ‘우랄루 전력발전소’(Uralu Electric Power Station)에 노동자로 보내졌다”고 밝혔다. 즉 북한이 한국전쟁 당시 구 소련의 우랄 지역에만 국군포로 6,000명과 민간인 납북인사를 포함한 총 20,000명을 끌고 가 강제노역을 시켰다고 보고되었다.¹⁴⁾

나. 이송 가능성 검토

2007년 4월 언론에서 국군포로의 소련이송 문제를 제기하자, 한국

13) 「CIA 보고서, 중노동 국군포로들 몇 달 새 수백 명 죽어」, 『한국일보』 2007. 4. 17. 2010년에는 KBS와 SBS에서 국군포로 시베리아 이송설에 주목하여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14) 「한국전쟁 국군포로·납북자 우랄지역서만 2만 명 노역」, 『한국일보』 2007. 4. 16.

정부에서 외교경로로 러시아 정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그들은 “법적으로 포로를 이송시킬 수 없었으며, 실제로 없었다”고 말했다. 2007년 4월 한국을 방문했던 모 러시아 해외정보국장은 “한국전 포로 관련 내용은 첩보 계통으로 확인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¹⁵⁾

정전협정 체결 무렵 북한 문화선전성 제1부상을 역임했으나 1957년 소련으로 망명한 정상진은 2007년 5월, 한국 전쟁포로들의 소련 이동보고서 내용은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다. 1951년과 이듬해 소련의 경제상황은 최악으로 포로수용소에 숙식을 제공할 여력이 없었고, 한국전 당시 소련 국적 고려인이 북한에 400여 명이 있었기 때문에 국군포로를 신문하기 위해 소련으로 이송시킬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구 소련 붕괴 후 국군포로 관련 흔적이나 자취를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¹⁶⁾

해방 후 김삼용, 이주하 등과 함께 남로당 지하 총책으로 활동하던 중 1950년 서울 수복 직후 월북했다가 문화선전성 구라파 부장을 역임했으나 1957년 북한을 탈출, 중국을 거쳐 일본에 살고 있는 박갑동은 강상호의 주장에 대해 ‘구국전선’의 활동 관계로 가까운 사이인데 그 얘기를 듣지 못했고 아마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소련 붕괴 후 1990년대 초 연안파 숙청시 소련으로 망명했던 허진을 통해 일본군 포로 가운데 한인이 남아 있는지 확인했었으나 찾지 못했다고 기억했다.¹⁷⁾

1946~48년 소련 군정기 북한에서 시베리아 강제노동수용소에 이송

15) 조성훈, 「6.25전쟁중 국군포로의 소련이송 관련 연구」, p.15.

16) 주 카자흐스탄 무관부 2007. 5.

17) 박갑동 증언, 서울, 2009. 4. 19. 허진은 본명이 허용배(1928~1987)로 전쟁시 북한군 소좌로 전쟁중 연예인을 납치하기도 했다고 한다.

된 반공청년들 가운데 1947년 평양에서 시베리아수용소로 이송된 후 1954년에서 1979년까지 마가단 시에서 살았던 박재욱은 이 지역에 북한에서 온 노동자는 많았으나 전쟁 중에 포로로 왔다는 소문은 듣지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마가단 시에서 1956년에서 1970년까지 살았던 이종순도 당시 5가구 외에 독신으로 30명 정도 살았다고 기억했으나, 남한에서 온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¹⁸⁾ 야쿠츠크 알단 광산에서 1964년에서 1990년까지 근무했던 임동열도 조선인을 만나지도 듣지도 못했다고 기억했다.¹⁹⁾

그러나 미 국방부 포로실종국에서 1990년대 이후부터 계속 미군포로와 실종자를 추적해왔던 한 연구자는 국군포로의 시베리아 이송이 ‘거의 사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베리아로 이송되었다는 한국군포로의 규모가 미군 실종자보다 많기 때문에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²⁰⁾ 이미 전쟁 중에도 미 공군 포로들은 자신들이 시베리아로 끌려갈 것을 크게 두려워했다.²¹⁾

이송 사실 등에 대한 정보는 강상호 전 북한 내무성 부상의 진술 외에 미 중앙정보국, 연합경찰사령부 등의 첩보에 의한 것이다. 물론 첩보 보고서 가운데 “믿을 만하다”는 평가(C 등급)를 받기도 했지만 다른 첩보 보고서보다 강상호의 진술이 보다 중요하다. 이 CIA 첩보 보고서는 소련 내무부 요원 2명과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직원에게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1953년 5월 이 문제를 심층 보도한 미국 나고르

18) 이종순 증언, 2009. 5. 31.

19) 임동열 증언, 2009. 5. 26.

20) 조성훈, 「6·25전쟁 국군포로의 시베리아강제노동수용소 이송설 연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정책연구』 167, 2010. 12, pp.160-162.

21) 월레스 브라운, 『고난의 포로생활』, p.72, 136.

스키 기자가 폭로한 ‘국군포로의 소련 압송 경로와 현지 생활상’과 내용이 거의 일치해, 미 국방부 포로실중국이 2005년 초 작성한 미군포로 실종 진상파악 보고서에서도 증빙 자료로 인용됐다고 그 가치를 부여했다.²²⁾

1992년 11월 미 국방부 포로실중국 조사자와 인터뷰 당시 강상호는 미군 조사팀에게 소련 주재 북한대사였던 이상조와 북한군 작전국장을 역임한 유성철을 추천했다. 휴전협상시 북한대표였던 이상조와는 인터뷰가 실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유성철과의 인터뷰는 강상호와 면담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92년 12월 9일 실시되었다. 그는 포로문제에 대해 북한군이 취급을 안했다고 말하면서 중국 혹은 소비에트로의 이송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런(소비에트 이송) 시나리오 오는 전적으로 가능하다(Such a scenario was entirely possible)고 말했다.²³⁾

휴전 이후 귀환한 국군포로들 가운데 일부는 시베리아 이송설을 들었다고 회고했다. 육군 제8보병사단 16연대로 참전했다가 부상을 입고 포로가 되었다가 귀환 후 수도육군병원에서 치료 후 대구 제1보충대에 편입되어 제대했던 남상봉은 일부 국군포로들이 소련으로 갔다는 소문을 들었으나, 당시에는 흘려들었다고 말했다. 한 귀환 국군포로 출신도 북한 측이 포로교환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해 만포에서 국군포로를 심사한 후 일부 온건한 포로들을 시베리아로 보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기억했다.²⁴⁾

22) 「CIA 보고서, 중노동 국군포로들 몇 달 새 수백 명 죽어」, 『한국일보』 2007. 4. 17. 나고스키 기자는 당시 보도는 미 국방부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SBS, 「소련으로 끌려간 국군 포로 - 그 이송설의 진실」 2010. 6. 25).

23) “Interview with Yu San Chow” Dec. 9, 1992, DPMO.

24) 박성욱 증언, 2008. 12. 22; 남상봉 증언, 2009. 3. 12. 한 귀환용사는 수용소에서 음악도를 꿈꾸는 주인공 안드레이가 ‘독소전쟁’에 참전했다가 제대 후 시베리아 개척사업에 헌신하는 영화인 ‘시베리아대지곡’이라는 영화를 몇 번씩 보여주었다고 기억했다.(최명혁 증언, 군사편찬연구소, 2012. 8. 1).

전 함경북도 양정국 공급과장을 지낸 후 탈북한 박기영의 진술은 보다 구체적이다. 그는 북한에서 양정(糧政)이 인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면서 정전협정 무렵 1개 연대 규모인 약 3,000명의 국군포로를 청진역-두만강역-हत산역으로 보냈다는 문서를 확인했다고 분명히 기억했다. 그는 1958년 10월경 함경북도 양정국의 공급과 지도원으로 배치받았을 때,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3~4년 전에 국군포로들에게 1일 700g씩 계산해서 10여 차례 출고되었으며 비고란에 국군포로 식량이라고 표시되었다고 기억했다. 당시 양정국에는 공급과, 수납과, 수매과 등 4개 과가 있었으며, 나진시·웅기군 등 23개 시군의 양곡 행정을 담당했다. 그는 나진시와 웅기군 등에 직접 나가서 소련으로 양곡이 제대로 보내졌는지 확인했다고 한다. 당시 소련 사람들이 먹지도 않는 쌀과 강냉이를 왜 보내느냐는 그의 질문에 대해, 국군포로들의 식량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기억했다. 또한 그 양곡이 열차로 밤낮으로 30일 동안 걸려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화물칸(북한 은어로는 빵통)과 마대도 튼튼하고 새것으로 해야 한다고 들었다. 포로에게 줄 양곡 수송은 1960년대까지 계속 이루어졌으며, 나중에는 재소 벌목 노동자를 위해서도 함경북도 양정국에서 3개월에 한번씩 강냉이, 쌀 등을 보냈다고 주장했다.²⁵⁾

보다 중요한 증언으로 마가단 지역 수용소에서 귀환한 한 독일군 포로가 명시적으로 한국군포로의 억류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귀환 직후인

25) 박기영 증언, 2009. 5. 18., 6. 5. 이들과 달리 전후에 탄광포로 가운데 일부는 벌목공으로 다녀온 경우도 있었다. 아오지탄광에 배치되었다가 2006년 탈북한 이대봉은 1972년 경 청진공산대학 야간반에서 사권 최종원, 김기두 등이 몽골과 러시아 국경지역에서 벌목공으로 3년간 일하다가 돌아온 사실을 기억했다.(이대봉 증언, 2010. 8. 5., 2014. 4. 16)

1954년 2월 중순 미 공군 심문조사에서 1951년 9월 남한군²⁶⁾ 포로 50명이 마가단의 루드니크 로바(Rudnik Byelova) 수용소로 이곳에서 북쪽으로 100km 떨어진 폴타바(Poltava) 수용소로부터 왔다고 기억했다. 이들 가운데는 일부 장교도 포함되었다. 수용소 동료들이 이들에게 말을 건넸을 때, 그들은 한국전쟁 초기에 북한군에 의해 포로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이 시베리아로 이송된 이유나 언제 소련군에 넘겨졌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했다.

II. UN PRISONERS IN USSR.

When SOURCE arrived in Nov 48 in the forced labor camp next to the gold mine RUDNIK BYELOVA, 3 Chinese Nationalists were already interned here. Fellow convicts told SOURCE these men had been officers. They were treated in the same manner as the other inmates and also worked in the gold mine RUDNIK BYELOVA. Russian guard soldiers told SOURCE the postal address for this camp was KHABAROVSKIY KRAY, RUDNIK BYELOVA, # 283. SOURCE had no opportunity to talk to these men and did not know the reason why they were interned in a forced labor camp. Other fellow convicts who worked with these men in a same brigade told SOURCE that they were being interrogated once monthly by the MVD authorities in the forced labor camp.

During Sep 51 arrived 50 South Korean PWs in RUDNIK BYELOVA from a forced labor camp "POLTAVA" (SOURCE's spelling, coordinates unknown), which was rumored to be 100 km farther N. According to rumors there were some officers in that group, who were also detailed to work in the gold mine and were treated in the same manner as the other inmates. Fellow PWs who spoke to several of these POWs told SOURCE these men had been taken prisoners by North Korean Forces during the early stages of the conflict. SOURCE did not know when these men had been turned over into Russian custody or the reason of their internment.

When SOURCE was being taken in Jun 53 to MAGADAN to be repatriated, 25 of the South Koreans and the 3 Chinese Nationalists were also moved to MAGADAN; 200 forced laborers were concentrated here, of whom all were to be repatriated. SOURCE did not see the remaining 25 South Koreans when they embarked on the passenger boat ILYITZH (SOURCE's spelling) on the 20 Jul 53. The 25 South Korean POWs and the 3 Chinese Nationalists stayed in the forced labor transport until they left the train in CHITA (5203N-11330E). It was rumored that these men were to be repatriated also

독일군 포로의 진술 일부(1954.2)

26) 보쿠타(Workuta) 수용소, 타이셋 등지에서 귀환한 독일군포로들로부터 수용소에서 전쟁 이전 일본군포로 가운데 포함된 조선인, 소련 군정시기 북한인을 보았다는 증언은 확보할 수 있었다. 보쿠타 제40수용소 출신인 글라센납(Patrick von Glasenapp)씨는 수용 중인 조선인 선생으로부터 한국어를 배웠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아마도 그 조선인은 일본군 포로 가운데 일부로 추정된다. 그러나 마가단 지역 콜리마수용소에서 귀환한 생존자는 찾을 수 없었다.(조성훈, “국군포로 소련이송과제 관련 베를린 등지 현지조사 결과 보고”, 군사편찬연구소, 2012. 1. 30).

또한 그는 “1953년 6월 독일군 포로가 송환되기 위해 마가단으로 보내졌을 때, 남한인 25명과 중국인 3명도 마가단으로 이동했다. 이곳에는 약 200명이 모여 있었다. 그해 7월 20일 그가 수송선을 타고 나중 에 치타에서 내릴 때, 한국인 25명과 중국인 3명은 그대로 열차에 있었다. 그들도 귀환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다.”고 진술했다.²⁷⁾

이 시기 콜리마 지역에 수용되었던 러시아인 한 수형자도 조선인(‘Korean’)의 목격 사실을 말했다. 2차 세계대전 후 독일군에 협조한 혐의로 체포되었던 와실리는 1953년 9월경 콜리마수용소에 수용되었다. 그는 러시아 정부가 외국인 수용자에 대해 정확히 말하지 않는다면, 마가단에서 500km 떨어져 있는 호르드니 광산수용소에는 독일인, 폴란드인, 체코인 등과 함께 ‘Korean’이 다수 있었는데 농민은 아니고 인텔리로 보였다고 말했다. 그들은 러시아어를 대강 알아듣는 것 같았으나 말을 잘 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들이 죄목이나 어디서 온지를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전쟁 때 끌려온 것인지 불분명했지만, 언어 능력으로 보아 일제시대 이주한 고려인은 아닌 듯하다고 말했다.²⁸⁾

그런데 <표 6-1>에 나타나는 대로, 러시아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스탈린 치하에서 소비에트에 거주하던 동포들 즉, 고려인도 시베리아

27) “UN Prisoners in USSR”, 7050 the AISW(USAFE), Air Intelligence Information Report 9 to 12, 12 Feb. 1954, Box 957/ Record Group 341, National Archives. 이 문건은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의 1,120 상자의 독일군 포로 심문보고서에서 쉽게 찾을 수 없었으나, 미·러합동위원회의 협조로 입수가 가능했다.

28) 와실리 증언, 2009.5. 한국전쟁 때 기상전대 무선사와 격추된 미군 조종사의 수색대원으로 참전했던 크와테른유크(Igor Georgievich Kvaternyuk, 1928년생)는 1954년 제대 후 시베리아 금광에 배치를 받았을 때, 콜리마 굴락수용소 근방에 있는 많은 독일군과 일본군 포로를 보았다고 증언했다. 그들은 금광에서 금을 캐다가 모스크바로 이송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27년간 시베리아에서 생활하다가 우크라이나에 정착했다(Igor Georgievich Kvaternyuk' interview 2002.1.23). 그는 마가단에서 수용소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국군포로를 목격했을 수도 있지만, 아쉽게도 미군 조사팀은 그에게 한국인을 목격했는지를 물어보지 않았다.

수용소에 있어서, 한국전 당시 포로들과 구분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일본군포로²⁹⁾와 같이 붙잡힌 조선인포로 10,206명 가운데 10,134명은 귀환되거나 석방되었으며 71명이 수용 중 사망하여 1956년 10월 13일 현재 1명만 억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과 혼동되지는 않았을 것이다.³⁰⁾

〈표 6-1〉 강제노동수용소의 고려인 규모(1934~1951)³¹⁾

연도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1951
인원(명)	996	2,371	2,800	2,108	2,512

고려인 연구자인 김영웅 교수는 1993년경 이르쿠츠크대학 재직 시, 1951년 12월경 1,000명 정도의 한인이 여전히 강제노동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다는 문서를 발견했다. 그는 이들이 재소 고려인이 아니라 북조선 혹은 남조선인지 구분은 안되나, 한인으로 추정했다. 그 근거로 문서 상으로도 여권이 박탈된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타이셋(Taishet) 오제르니(Ozernyi)수용소에서 경비대원이었던 모 대령도 그들은 고려인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자신의 장인도 독일

29) 일본 전국강제역류협회에서 시베리아수용소에서 귀환한 포로 가운데 5,000명 정도의 증인록을 채록했다. 이 증인록에는 관동군 시기 조선인 관련 회고가 일부 있으나, 6·25전쟁 시기 포로는 언급되지 않았다. 6·25전쟁의 국군포로를 목격할 수 있는 1953년 이후 귀환한 일본군포로 2,000여 명은 장교출신은 고령이어서 이미 사망했고, 스파이협약자는 노출을 꺼려서 접촉할 수 없었다. 연금을 관리하고 있는 일본 후생성, 평화기금 등의 기록도 가족 외에 다른 사람 기록을 볼 수 없었다. 1956년 귀환 일본군 포로 회고기 가운데 이 노우에(井上平夫, 돗토리 출신, 1922) 씨는 북한의 소련군정기 반소 반공청년 및 벌목노동자 중 노동조건에 저항하여 수용소에 이송된 자들을 목격했다고 회고했다.(조성훈, “국군포로 연구 관련 일본 현지조사 결과보고”, 2012. 5. 8).

30) Andrew E. Barshay, *The Gods Left First*, UCLA Press, 2013, pp.190-191.

31) 심현용, 「제2차 대전시 소련의 한인 노무인력 동원정책」, p.184; Oleg V. Khlevniuk, *The History of the Gulag*, Yale Univ. Press, 2004, pp.318-319.

과 소련전쟁 때 노동군으로 징집되어 툴란수용소에서 억류된 후 1955년경 석방되었기 때문에, 이미 1980년대부터 수용소억류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³²⁾

구 소련의 개혁·개방 이후 연해주 개발사업에 관심을 가졌던 이병화는 2006년경 연해주 빨치산스크에서 남한 출신 진주 강씨를 만났다고 기억했다. 그는 신의주 출신이지만, 해방 후 월남하여 국군에 입대했으나 포로가 되었다고 한다. 캄차카에서 연해주 스몰노야(Smolnoya)에서 산삼을 채취해 생계를 유지했다. 또한 러시아 극동총독실 측 간부가 남한 출신 50여 명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는 댓가로 1인당 10만 달러를 요구한 적이 있다고 회고했다.³³⁾

러시아의 한 연구자는 1950년대 시베리아 수용소에 있는 한국군포로 관련 자료는 러시아연방 국가보안국(FSB)의 모스크바와 옴스크(Omsk), 야쿠츠크 등의 문서고에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전 KGB 요원의 진술을 근거로 포로 가운데 고급 간부들은 소련 비밀경찰형무소인 모스크바 레포토토보감옥(Lefortovo detention centre), 류비안카 감옥(Lubyanka Home Prison), 야쿠츠크 등지에 수용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군포로 등의 시베리아 수용소 등록시, 국적이나 이름을 바꾸어 정리했다³⁴⁾면 문서상 기록으로 찾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외에 소련 군정기 및 북한 정권 초기에 소련군, 김일성 등에 반대하거나 반공활동을 했던 이들을 시베리아 강제노동수용소로 보낸

32) 조성훈, “국군포로 소련이송 과제 관련 모스크바, 훈춘 등 현지조사 결과보고”, 2011. 10. 6.

33) 이병화 증언, 국제농업개발연구원, 2013. 12. 4

34) 특히 사형선고를 받은 자는 마가단 주로 이송시켜 의도적으로 수행자들의 국적을 오기했다.(Д.И. Раизман, Иностранцы -невольники Дальстроя, Магадан, 2009, p.20).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 인민군 출신이나 탈북자 등은 같은 민족인데 국군포로를 중국이나 러시아에 보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북한에서 소련 군정기를 전후하여 반공학생, 청년 등이 반공활동을 이유로 크라스노야르스크, 마가단 등 시베리아수용소로 보낸 적이 있다.³⁵⁾

시베리아 강제노동수용소로 이송된 반공주의자들의 규모는 2,000여 명³⁶⁾이 넘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선혁의 경우는 1946년 2월 4일 신의주에서 첩자 혐의로 체포되어 1950년 10월 15일 시베리아수용소로 이송되었다.³⁷⁾ 임동열은 1947년 3월 하순 “소련군은 해방군이 아니라 적색 제국주의 군대”라는 등의 빠라 살포 혐의로 체포되어 시베리아로 이송되었다. 1차에서 16차까지 2,000여 명이 크라스노야르스크에 이송되었다. 그는 10차로 약 200명이 함께 이송되었으며, 독일에서 수용되었다가 평양으로 이감된 소련인 죄수들, 북한에서 살인·강간·강도 등 소련군 범법자들도 같이 이송되었다고 기억했다.³⁸⁾ 이들과 별도로 박재욱, 한영신 등은 마가단 지역으로 화물선을 타고 이송되었다.³⁹⁾ 또한 1945년 10월 함흥에서 체포된 정창중 등은 중앙아시아 타시켄트 제1류루마(형무소)에서 유형생활을 했다.⁴⁰⁾

임동열은 군사재판에서 10년형을 받고 크라스노야르스크수용소에서

35) 박정인, 『풍운의 별』, 『국방일보』 2009.6.3; 정창중, 『바이칼은 흐르고 있는가』, pp.24-30.

36) 김선혁은 해방 후 북한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소련에 끌려간 사람이 20만 명이라고 주장했다(김선혁, 『평양에서 서울까지』, p.299).

37) 이 중에서 임준일, 신달하 등은 소련에서 처형을 당했다(김선혁, 『평양에서 서울까지 47년 : 한 애국 청년의 시베리아 강제노동수용소 유형 및 유배 체험 수기』, 홍성사, 1996, p.317).

38) 임동열 증언, 2009. 5. 26, 6. 10; 김선혁, 『평양에서 서울까지 47년』, p.77.

39) 박재욱 증언, 2009. 5. 29, 6. 10.

40) 정창중, 『바이칼은 흐르고 있는가』, p.118.

귀환한 주창남은 물건을 압수당했고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자아비판을 받았다고 임동열에게 오지 말도록 편지를 인편으로 보냈다고 했다. 이윤화도 1927년생으로 평양에서 고등중학교 2년생이었는데 1946년 11월 28일 군법회의에서 파괴분자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8년 동안 라조, 엘겐, 깎온 등 강제노동수용소에서 수용되어 있다가, 1953년 2월 석방되었다. 그 후 엘겐발전소에서 노동자로 일하다가 1955년 북한으로 귀환했다.⁴¹⁾

또한 소련 군정 및 북한 정권 초기, 소련의 노동력 부족을 이유로 오호츠크·캄차카 등지로 북한에서 어업 노동자를 파견했다. 광복 후 북한에는 실업자가 많았고, 소련의 동부에서는 인력이 모자랐다. 당시 블라디보스토크, 나호드카(Nakhodka) 및 사할린 지역에 산재한 수산물 가공업분야에 필요한 인력에 충당하기 위해 북한의 노동력이 수입되었다. 당국자들은 소련이 살기도 좋고 돈벌이도 할 수 있다고 선전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 북한 당국과 소련 군정 측이 계약을 체결하여, 북한 노동자들은 8개월 계약으로 돈벌이를 나갔다. 나중에는 계약기간이 2~3년으로 늘어났다. 주로 1925~32년생의 청장년들이 부모와 형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계약금으로 백미 한 포대와 2,000원을 받고 러시아로 떠났다. 1946년에는 주로 독신자들이 갔으나, 1947년부터 기혼자들도 많았다. 태수암의 가족도 아버지와 큰 아버지가 응모했다. 그 규모에 대해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주립대학의 자브로브스카야(Larisa Zaborvskaya) 교수에 의하면 1950년대 러시아 극동연해주 지방에는 북한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을 합해 25,000여 명이

41) 김선혁, 『평양에서 서울까지 47년』, pp. 311-312; Д.И. Раизман, Иностранцы-невольники Дальстроя, Магадан, 2009, p. 82.

넘었다고 한다.⁴²⁾

1949년까지 북한노동자들은 오희츠크시, 하바롭스크, 니콜라이스키 등지로 왔다. 1947년 6월 부모 몰래 어업노동자에 응모했던 강원도 양양 출신인 이천용은 노동자들이 니콜라이스키에서 20~30리마다 떨어져 있는 각 어장에 100~200명씩 배치받았다고 말했다. 중앙아시아 출신 고려인들이 통역으로 지원했다.

사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여서 소련도 궁핍해서,⁴³⁾ 북한 노동자들은 생활 여건이 더 나은 하바롭스크 등지의 도시로 이주해 와서 처음에는 시내 외곽에 살다가, 주로 건설노동자로 생활하면서 점차 시내로 옮겨갔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자 노동자 가운데 일부가 참전을 요구했으나 소련 측에서 이를 거부했다. 1954~1955년 사이에 그들 중 대다수는 북한에 있는 부모 형제들의 생사여부를 확인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귀국했다. 그래도 이 무렵에 하바롭스크 지역만 500명 정도가 남아있어서, 나호드카에 있는 북한 영사관에서 학습조를 만들어 그들에게 사상교육을 시켰다.⁴⁴⁾

그 후 1960년대부터는 별목공도 보냈다. 이들은 포로의 시베리아 이송문제와 무관한 듯이 보이나, 동부 시베리아 지역에서 북한의 노동력을 적극 활용했다는 역사적 사례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⁴⁵⁾

42) 김유남, 「시베리아의 북한 별목노예」, 『자유공론』, 2006. 6.

43) John J. Stephan, *The Russian Far East*, Stanford Univ. Press, 1994, p. 244.

44) 이천용 증언, 2009. 5. 31.

45) 김유남, 「시베리아의 북한 별목노예」, 『자유공론』 2006. 6; 이천용(강원도 양양 출신) 증언, 2009. 5. 31; John J. Stephan, *The Russian Far East*, Stanford Univ. Press, 1994, p.244.

다. 국군포로 이송 의도 및 규모

소련이 국군포로를 시베리아로 이송시켰다면 어떤 의도에 의해 이루어졌을까? 국군포로 등의 이송계획은 누가 주도했을까?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군과 소련군 내부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소련으로 이송되었다는 미군포로들은 대부분 조종사이므로 전투기, 작전 등의 첩보를 입수할 목적으로 보이나, 국군 및 남한인사의 이송은 일부 스파이로 이용할 목적 외에는 대부분 노동력 착취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6·25전쟁 이전 소비에트의 강제노동수용소에서 독일군과 일본군 포로들이 귀환한 후 시베리아 지역에는 인력이 필요했을 것이다. 소련이 일본군포로를 시베리아 지역으로 이송한 이유 중 하나는 일본 패망 직후에 미국과의 갈등 때문이었다. 1945년 8월 18일에서 21일에 걸쳐서 스탈린과 트루먼 대통령은 홋카이도(北海道)를 분점하기 위해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스탈린은 일본 본토의 점령없이 참전한 의의를 소련국민에게 납득시킬 수 없다면서 홋카이도의 점령을 요구했다. 그러나 트루먼은 강력히 거절했다. 이에 따라 스탈린은 홋카이도의 점령 대신 일본병사 63만 명을 시베리아에 이송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노동현장에 배치하도록 했다.⁴⁶⁾ 이러한 정치적 의도 외에 실질적으로 노동력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컸을 것이다.

국군포로 수천 명은 노동력으로서 규모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들을

46) http://www.geocities.co.jp/SiliconValley-PaloAlto/6296/siberia_f.htm.

활용해서 큰 이익이 있었는지 의문이다.⁴⁷⁾ 오히려 북한 측에서 반공주의자들이 공산체제를 부인하면서 폭동을 일으킬 것을 우려하여 시베리아로 내보내는데 적극적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남한의 남북자를 포함하여 2만 명 규모가 사실이라면 노동력 이용 측면도 컸을 것이다.

이송 규모에 대해 1993년 8월 보고서에 강상호는 “수천 명의 국군포로들을 소련의 타이가 지역 및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300~400개 포로 수용소로 이송하는 것을 지원했다면서, 대부분은 타이가 지역으로, 일부는 중앙아시아로 이송됐다고 언급했다(He states in November 1992 that he assisted in the transfer of thousands of South Korean POWs into 300 to 400 camps in the Soviet Union, most in the taiga but some in Central Asia as well.)”고 밝혔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1992년 11월 21일 미·러합동위원회 모스크바 팀 푸세이(Ed Pusey) 외 2명이 모스크바에 있는 강상호의 자택에서 면담을 했을 때, 이송된 국군포로의 규모를 말하지는 않았다. 즉, 미 국방부 보고서에는 강상호의 진술로 수천 명의 남한 포로라고 기술되어 있지만, 1992년 11월 강상호의 인터뷰 기록에는 포로를 명시하지 않고 소련 전역의 수용소로 남북한의 한국인을 보냈다(Kan admitted that he sent Koreans, both north and south, to prison camps throughout the USSR. 밑줄은 필자)고 했을 뿐이다. 이때 그는 내무성이 스파이와 범죄자를 다루고 군은 포로를 배타적으로 다루었다면서, 전쟁 시기와 전후에 미군포로의 중국이나 소련이송 가능성에 대해 알지

47) 흐루시초프와 마오쩌둥은 1954년 20만 명의 중국인들이 시베리아와 극동에서 계절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John J. Stephan, *The Russian Far East*, Stanford Univ. Press, 1994, p.261).

못한다고 말했다. 1995년 2월 28일 미군 조사연구자와 추가 면담에서 미군포로가 소비에트로 이송되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포로의 이송이 있었다면 그 담당은 다른 기관이 아니라 군 내부에서 추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국군포로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을 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었다.⁴⁸⁾

그런데 시베리아수용소로 끌려간 포로의 규모는 1952년 9월 미 중앙정보국 첩보보고서에 따르면 12,000여 명으로 언급되었고, 1953년 연합정찰사령부 보고서에서도 동부 시베리아 지역이 아닌 구 소련의 우랄 지역에만 남한 피랍자, 국군포로 등 20,000여 명이 강제노역을 당하고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20,000여 명 가운데 포로 인원은 6,000여 명이 었다.

미군은 전쟁 당시 북한에 있는 유엔군포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귀환한 포로가 제공하는 정보 이외에 제302군사정보대(MISD), 제6004공군첩보부대(AISS), 연합정찰사령부 등을 통해 수용소 위치와 포로 규모를 계속 추적했다.⁴⁹⁾ 그러나 전체 포로규모와 사망자·북한군 편입 인원 등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용소 외에 탄광, 공장 등에 임의로 배치된 억류포로의 규모에 대한 추적은 제한적이었다. 수용소에서 국군포로를 집단적으로 수용시키지 않고 20~30명, 많게는 50명 단위로 분산시켜⁵⁰⁾ 수용했다고 한다. 하지만 미 국방부 보고서에서는

48) "Interview with Kan San Kho" Feb. 28, 1995, DPMO.

49) CCRAK 8242nd Army Unit Combat Report, April-Aug. 1953, 군사편찬연구소 HD 1967-1971; HQ Partisan Command, FEC LD(K), 8240th AU, "Monthly Command Report" March 4, 1953, CCRAK, 8242nd AU, "Combat Report File" 1952-53, 군사편찬연구소, SN 1965.

50) 2차 대전시 소비에트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을 강제로 노무동원시 풀라건설장 406명, 쉬킨 탄광 157명, 예빠관탄광소 15명 등으로 배치시켰다(심현용, 「제2차 대전시 소련의 한인 노무인력 동원정책」, pp.192-193).

국군포로의 이송 규모에 대해 강상호 외에 첩보자료를 참고하여 수천 명을 언급했을 것으로 보인다.

제3절 시베리아 강제노동수용소 실태

1. 강제노동수용소 건설과 규모

6·25전쟁 중 국군포로들이 구 소련으로 이송되었다면 어느 수용소로 이송되었을까? 강상호는 타이거 지역과 중앙아시아의 300~400개 수용소로 보냈다고 했다. 미군포로들은 만저우리(滿洲里)와 포시엣(Posyet)을 통해 이송된 것으로 보인다. 국군포로의 경우는 만저우리 쪽보다는 포시엣 쪽에서 중동부 시베리아 수용소로 이송된 것으로 보인다. 동부 시베리아로 이송된 후에도 일부는 치타, 몰로토프, 우랄 등으로 이송했다고 한다. 그런데 구 소련 붕괴 후 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 등과 한국이 잦은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생존자가 보고되지 않고 있으므로, 우랄 지역보다 더욱 오지인 동부 시베리아 지역에 있는 콜리마 지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련에서 징벌수단으로 죄수들의 강제노동에 대한 법규가 1918년 1월 제정되어 이듬해 수용소가 처음으로 세워졌다. 첫해에는 4군데만 세워졌던 수용소는 1919년 말에 21개로 늘었다가 1921년에는 122개로 크게 증가되었다. 그후 스탈린 체제가 강화됨에 따라 1920년대 말과 1930년

대 초에 유형자들이 증대되면서, 수용소의 수도 계속 늘어났다.⁵¹⁾

강제노동수용소(forced labor camps)는 구 소련 전국 각지에 단지(complexes)가 있었고, 단지별로 수천 개의 수용소가 있었다. 예를 들면 1947년 당시 217곳에 지부 수용소 2,112개 소, 특별노동대대 392개 소, 특별병원 178개 소 등이 있었다.⁵²⁾ 이러한 수용소에는 유형자들로 가득 채웠다. ‘굴락(Gulag)’은 Glavnoe Upravlenie Lagerei의 약어로 교정노동수용소 본부(the Central Administration of Corrective Labor Camps)를 의미했다. 굴락은 일시적인 비정상적인 기구가 아니라 구 소련 사회구조의 통상적인 한 제도(an organic element)였다.⁵³⁾ 교정노동수용소의 운용은 내무성에서 간여했지만 결국 KGB에 의해 운용되었다.

강제노동수용소에 수용된 인원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나 한 연구자는 1929년에서 1953년까지 1,800만 명이 거쳐 갔고, 그 가운데 300만 명이상이 사라졌다고 분석했다.⁵⁴⁾ 스탈린 시대 이후 억류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의 노동을 했던 교정노동거류지(corrective labor colonies) 형태도 나타났다. 1953년 강제노동수용소에 있는 수형자는 <표 6-2>에 나타난 것처럼 260여 만 명에 이르렀다.

51) 심현용, 「제2차 대전시 소련의 한인 노무인력 동원정책」, p.182; Galina Mikhailovna Ivanova(translated by Carol Flath), *Labor Camp Socialism : the Gulag in the Soviet Totalitarian System*, M.E. Sharpe, 2000, p.67; Oleg V. Khlevniuk, *The History of the Gulag*, Yale Univ. Press, 2004, p.1.

52) The Public Foundation for Peace and Consolation, Incorporated Administrative Agency, p.160.

53) David J. Dallin·Boris I. Nicolaevsky, *Force Labor in Soviet Russia*, New Haven: Yale Univ. Press, 1947, preface.

54) Anne Applebaum, *Gulag: A History*, Broadway Books, 2003.

〈표 6-2〉 강제노동수용소의 수형자 규모⁵⁵⁾

(단위 : 명)

구분	1939	1941	1949	1953	1956
총 수형자	2,051,284	2,405,841	2,587,732	2,624,861	940,880
감옥 재소자	352,508	470,693	231,047	152,614	159,250
수용소 및 노동거류지 (colony)	1,698,776	1,935,148	2,356,685	2,472,247	781,630

소비에트의 강제노동수용소는 솔제니친(Aleksandr Solzhenitsyn)이 1945년에서 1953년까지의 수용소 체험을 바탕으로 쓴 『수용소군도(The Gulag Archipelago)』가 1973년 파리에서 출간됨으로써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이 때문에 그는 국가반역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추방되었다. 브레즈네프(Leonid Il'ich Brezhnev) 시대에 일부 수용소가 폐쇄되었지만, 수용소는 정권의 강압적 요구에 봉사하기 위해⁵⁶⁾ 강제노동 수용소는 계속 유지되어, 심지어 고르바초프(Mikhail Sergeyevich Gorbachyov) 시대에도 일부 남아 있었다. 이제 러시아에서 점차 민주화가 진전됨으로써 수용소에서 정치범은 사라지고, 알콜 중독자·범죄자 등이 많다.⁵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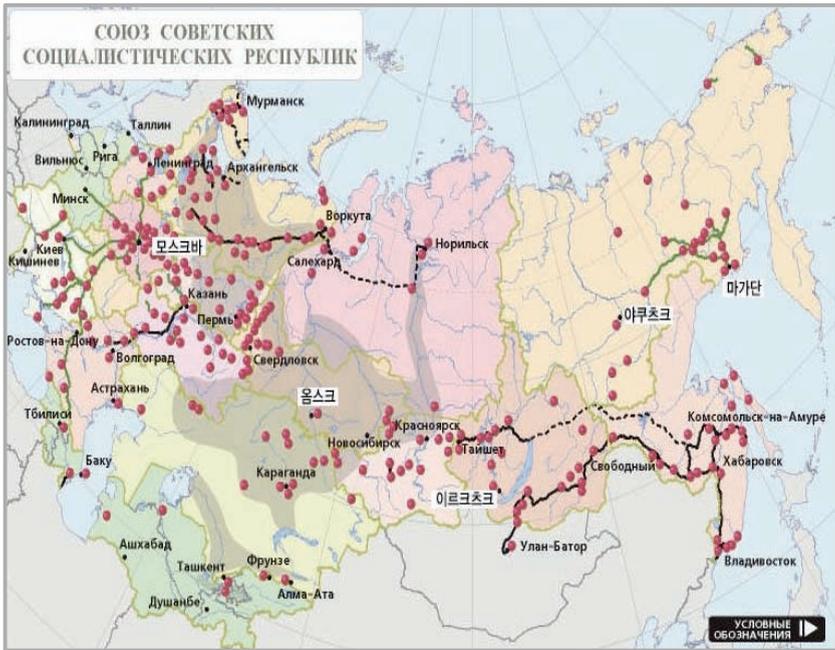
극동 지역의 강제노동수용소는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톡, 사할린, 캄차카, 금 산지인 콜리마 강 유역 등에 있었다. 콜리마 강 유역에서 금이 발견된 것은 1910년이였다. 이후 스탈린 시대에 개발이 본격화되었다.⁵⁸⁾ 금 외에도 우라늄이 많았고, 해안에는 어장이 풍부했다. 솔제니친

55) Galina M. Ivanova, *Labor Camp Socialism*, New York: M. E. Sharpe, p.187.

56) <http://www.osaarchivum.org/files/rip/08.htm>(검색일: 2009. 5. 13).

57) <http://www.azete.com/view/23579>(검색일: 2009. 5. 10).

은 콜리마 지역 수용소를 스탈린시대 제일 규모가 큰 곳으로 서술했다.⁵⁹⁾ 이 수용소 가운데 가장 악명 높은 곳이 콜리마수용소 단지로 크고 작은 수용소가 100개소 이상이 분포되어 있었다.⁶⁰⁾



주요 강제노동수용소 분포도

마가단에서 1932년 강제노동수용소가 처음으로 건설되었다. 마가단 지역 주요 수용소로는 베르락(Berlag), 목호프릿촌(Mokhoplit Village),

58) John J. Stephan, *The Russians Far East*, p.225.

59) Albert Leong, *Centaur: the Life and Art of Ernst Neizvestny*, Rowman & Littlefield, 2002, p.247.

60) A. Shifrin, *The First Guidebook to Prisons and Concentration Camps of the Soviet Union*, Bantam Books, 1982.

마운즈나(Myaundzna) 등이 있었다.⁶¹⁾ 부투기체크 주석광산(Butugychev tin mine) 수용소는 1955년까지 유지되었다가 1958년에 폐쇄되었다. 이곳의 금은 품질이 높아, 제2차 세계대전 시기와 전후 피폐한 소련경제를 지탱할 정도로 많이 생산되었다.

2. 강제노동수용소의 실태와 포로 생존 가능성

가. 강제노동수용소 실태

강제노동수용소의 형태는 공장과 농업노동 콜로니, 목재 벌목 및 반출, 광산노동, 기타 정치범 수용소 등⁶²⁾이 있었다. 스탈린 시대는 노예노동에 의해 하나의 경제를 창출했다. 나치수용소는 죽음의 공장(death factories)으로, 죄수는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 곧 시체로 만들었다. 반면에 러시아 굴락은 부분적으로 경제에 기여하도록 하는 강제노동수용소였다. 특히 소련 정부는 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적은 극동과 북쪽 지역의 개발에 포로, 죄수 등을 이용했다.⁶³⁾ 제2차 세계대전 말기 독일군이나 일본군 등을 대량으로 노동수용소로 이송시킨 목적도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들은 포로라기보다는 노예였다.

강제노동수용소는 스탈린 시대에 소비에트 경제체제의 주요 요소였다.

61) The Joint Commission Support Directorate Of The U. S. Russian Joint Commission, The Gulag Study, April 2000, http://www.coalitionoffamilies.org/gulag_study.html.

62) 강제노동수용소에서 소비에트와 외국 과학자와 기술자 등을 이용해 방위산업 관련 연구를 하는 샤라쉬카(Sharashka)라는 수용소도 있었다.

63) Anne Applebaum, *Gulag: A History*, Broadway Books, 2003, p.xvi; Paul R. Gregory and Valery Lazarev, *The Economics of Forced Labor : the Soviet Gulag*, Stanford, Calif. : Hoover Institution Press, 2003.

스탈린 시대에 공업화는 하나의 주의였다. 이를 위해 스탈린은 노동자의 공급을 목적으로 강제수용소 제도를 완성시켰다. 1924년 권력을 장악한 스탈린은 5개년 계획을 연속해서 추진하면서, 농업중심의 경제에서 거대한 산업콤비나트를 건설하고 시베리아를 개발하여 서방진영과 경쟁하려 했다. 당시 소비에트인들은 누구라도 국가반역죄로 체포될 수 있었다. 빌렌스키(Semyon Vilensky)는 1948년 한 학생 집회에서 스탈린에 대한 코믹한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노동수용소에서 7년간 유형되었다. 줌도독 같은 경우도 포함되었다.⁶⁴⁾ 수용소 생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때로는 내무성(the NKVD)에서 체포자를 할당해서 목표를 채웠다.⁶⁵⁾

수용소 규모는 몇백 명으로부터 수천 명으로 매우 다양해서, 드브라우라크 수용소는 6,000~7,000명에 이르렀다.⁶⁶⁾ 수용소에서 1인당 면적은 1.3평방 제곱미터여서 간신히 옆으로 누울 정도였다. 만약 국군포로 등이 시베리아 수용소로 이송되었다면 여러 수용소에 20~50명 규모로 분산되었을 것이다. 북한에서 반공활동을 하다가 억류된 전인환·이은화 등은 코노야르스크 등지로, 박재욱·장해선·한용신 등은 마포르소우금광, 벨로우금광, 부뜨기체크우라늄광산 등으로 대개 1년마다 이동했다.⁶⁷⁾

수용자의 대우는 최악이었다. 수용소 억류자들은 가끔 나치의 수용소를 연상시켰다. 식사는 죽(porridge), 딱딱한 빵, 약간의 고기 등이었다.⁶⁸⁾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는 방침 아래, 일일 할당량을 달성하면

64) "Stalin's Death Camp Survivors Shed Light on Gulag" Sep. 24, 2008(www.russiatoday.com)

65) "If Good Men Fail", *the Augusta Chronicle* Feb. 17, 1996. 이들 가운데 스탈린 사후 죄의식으로 자살하거나 미친 경우도 발생했다(앤 애플바움(GAGA 통번역센터역), 『굴락』 하, 드림박스, 2004, p.265).

66) 김선혁, 『평양에서 서울까지 47년』, p.114.

67) 박재욱 증언, 2009.6.2 전화 인터뷰.

68)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시베리아 억류 조선인 포로의 기억』 1, 2007, pp.140-141, p.180.

700~800그램을 제공하고 그렇지 못하면 300그램이 제공되었다.⁶⁹⁾ 일본군포로의 경우를 보면, 목표의 126% 이상을 달성하면 흑빵 450그램, 잡곡 500그램, 야채 1,000그램을 제공받았으나, 80% 이하는 흑빵 250그램 잡곡 300그램, 야채는 400그램으로 크게 차이가 났다.⁷⁰⁾

광산은 기계화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곡괭이와 삽 등으로만 땅을 파고 채굴한 광석은 손수레로 밀어 올리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중노동에 비해 식사는 충분하지 않아서 늘 배가 고팠다.⁷¹⁾ 일본군포로 출신으로 결성된 ‘소련장기억류자동맹’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포로에 대한 징벌로 흑한기 옥외 벌세우기·수면금지·협박·폭력 등 외에 식사중단, 식사감량 등을 당했다.⁷²⁾ 아버지와 함께 16살에 수용되었던 비엔(George Z. Bien)은 물리학자인 그의 아버지를 수용 중 잃었고, 자신의 몸무게가 영양실조로 38kg으로 떨어졌다고 회고했다.⁷³⁾ 소련 군정기 시베리아수용소로 이송된 북한 반공청년 사이의 대화 속에서 “빵을 실컷 먹으라고 잔뜩 쌓아 놓은 다음 배가 터지도록 마음껏 먹을 수 있다면, 이 목을 베어가도 괜찮겠어”⁷⁴⁾라는 말처럼 수용소에서의 배고픔이 절절이 배어 있었다.

수형인들은 만족할 만한 방한장비나 식료품도 제공되지 않은 채 동토 속에서 채굴에 내몰렸다. 겨울에 동유럽 방면 수용소는 영하 25~30°도

69) Ayyub Baghirov, *The Bitter Days of Kolyma*, 2006.

70) 阿部軍治, 『シベリア強制抑留の実態：日ソ両国資料からの検証』, p.374.

71) 1930년대 초 대기근이나, 1947년 기근으로 백만 명 이상이 아사했을 무렵에는 급식이 더욱 좋지 않았을 것이다(Russia Publishes Soviet Famine Documents, VOA, 5 March 2009; M. Ellman, “The 1947 Soviet Famine and the Entitlement Approach to Famines”, Cambridge Political Economy Society,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24, 2000, pp.603-630).

72) 若槻泰雄, 『시베리아포로수용소』 상, 이마루출판사, p.303.

73) <http://www.gulag.hu/hungarians.htm>(검색일: 2009. 5. 12).

74) 김선혁, 『평양에서 서울까지 47년』, pp.100-101.

는 수준이었으나⁷⁵⁾ 콜리마 지역은 영하 60도 이하로 떨어졌다. 계절은 사실상 겨울과 여름 뿐이었다.⁷⁶⁾ 강은 남부 시베리아가 5개월 정도 얼어 있는데 비해 북부 시베리아는 8개월 정도 얼어 있었다. 이러한 혹독한 날씨 탓으로, 수용소 당국이 유형자를 죽이려는 의도만 있으면 언제든지 쉽게 가능했다. 소비에트인들도 동상과 추위에 괴로워했다. 아마도 남한 출신 포로들은 추운 이곳에서 첫 겨울을 나기가 무척 어려웠을 것이다. 일교차도 극심해서, 영하 30~40도는 보통이고 심할 때에는 영하 60도에 이르렀다. 지상의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 의복이나 난방이 충분하지 않아서 동사자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일본군 포로들은 수용소의 이름만으로도 암울한 이미지(a dark image)를 갖게 한다고 증언했다.⁷⁷⁾

노동의 종류는 벌목, 광산, 도로 및 철도건설, 공공기관 건설 등이었다. 특히 광산에서 일한 경우, 1951년 플라티늄, 다이아몬드 생산은 전적으로 강제노동수용소 수형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금 생산은 80%가 넘었고 주석은 70%, 구리는 40%, 니켈은 30% 정도였다.⁷⁸⁾ 마가단, 콤소몰스카, 아무르 등을 건설한 사람들은 수용소의 노동자들이었다. 마가단시의 공공건물과 주택의 80% 정도는 일본군 포로를 비롯한 수용소 수형자에 의해 건설되었다.⁷⁹⁾

75) <http://kiuchi.jpn.org/en/nobindex.htm>(검색일: 2009. 3. 21)

76) "Soviet Labor Camp: A TROVE OF PHOTOS", *the New York Times* June 29, 1987.

77)穗에甲子男, 『시베리아俘虜記』, 동경: 光人社, 2009, p.99; The Public Foundation for Peace and Consolation, Incorporated Administrative Agency, "The Japanese Internees and Forced Labor in the USSR after the Second World War", p.185 (<http://www.heiwa.go.jp/en>).

78) Paul R. Gregory·Valery Lazarev, *The Economics of Forced Labor*, p.8.

79) 阿部軍治, 『シベリア強制抑留の実態 : 日ソ両国資料からの検証』, pp.274-302; Albert Leong, *Centaur: the Life and Art of Ernst Neizvestny*, Rowman & Littlefield, 2002, p.248

수형자들은 생산할 당량에 맞추어 가혹한 중노동을 계속 했다. 1930년대 강제노동수용소에서 수형자 가운데 일부는 공포 때문이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자신의 의지대로 노동을 했다고 증언한 이도 있지만, 중노동이



클리마 광산 채굴장 그림(Nikolai Getman, *The Gulag collection*, p. 85)

었던 것은 분명하다.⁸⁰⁾ 스탈린 시대 철도건설, 댐 등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는 계속되었다.⁸¹⁾

경비병도 수형자의 감독 소홀이나 생산량 감소 등을 구실로 끊임없이 숙청했으므로 그 공포 때문에 노동자를 혹사시켰다. 경비병의 규모는 1941년 수형자 5.6명 당 1인이었던 것이 점차 완화되어 1951년에는 8.9명, 1953년에는 10.2명 당 1인으로 줄어들었다.⁸²⁾ 일본군포로 귀환자는 시베리아 노동수용소에서 많은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병은 포로를 자의적으로 학대하지 않았다고 기억했다. 그들은 붉은 군대의 엄한 규율 아래 사적 제재를 금지했다. 그들이 이 규정을 위배하면

80) 포로들에게 노동을 강제한 것은 이들을 범죄인으로 취급한 것이다(阿部軍治, 『シベリア強制抑留の実態：日ソ両国資料からの検証』, p.261).

81) Bernhard, Michael H. "Gulag: Life and Death Inside the Soviet Concentration Camps(review)." *Journal of Cold War Studies* 9.3, 2007, pp.191-195; www.gef.or.jp/forest/hotspot3.htm.

82) Paul R. Gregory·Valery Lazarev, *The Economics of Forced Labor*, p.12.

경비병도 철창 안에 갇혀야 했다.⁸³⁾ 하지만 경비병은 일반 수형자들을 인간으로 여기지 않았다. 죄수들은 어떠한 권리, 심지어 죽을 권리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여겼다.

수형자들은 대개 일요일을 제외한 1주일에 6일, 1일 12시간 이상 일했다. 일본군 포로와 같은 전쟁 포로들은 1일 8시간 노동을 대체로 지켰다. 490개 소의 수용소 중 8시간을 지켰던 곳은 234개 소로 47.8%, 8시간에서 10시간을 일하는 수용소는 49.6%였다.⁸⁴⁾ 그러나 강제노동수용소의 정치범 수형자는 아침 6시에 기상해서 아침 7시에서 저녁 7시까지 대개 12시간 노동을 했다. 1930년대에는 하루 14시간에서 심지어 18시간까지 일했다.⁸⁵⁾ 그 후에도 외국인 노동수용소에서는 실제로 14시간에서 16시간까지 이루어졌다. 이는 중세 농노보다 더 가혹한 것으로 평가됐다.⁸⁶⁾

〈표 6-3〉에 정리된 대로 1942년에는 349일을 노동했던 것처럼 심할 때에는 1개월에 이틀 정도만 쉬고 나머지는 계속 노동을 했다. 감시견이 추위에 노출될 경우 동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하 55°C 이하 일 경우에만 노동을 금지시켰다.⁸⁷⁾

1953년 3월 스탈린이 사망한 후, 굴락체제가 완화되어 몇 차례 사면으로 많은 죄수들이 석방되었다. 이때 많은 정치범도 석방되어 수용소 인근 도시에 정착했다. 흐루시초프가 제20차 공산당 대회에서 스탈린 시대를 비판하면서, 수용소 조건이 개선되었다.

83) Toshio Ikehata, "Four Years in Siberian Labor Camps", p.20.

84)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시베리아 역류 조선인 포로의 기억』 1, p.140; 阿部軍治, 『シベリア強制抑留の実態：日ソ両国資料からの検証』, pp.310-311.

85) Tim Tzouliadis, *The Forsaken*, Penguin, 2008, p.175.

86) 阿部軍治, 『シベリア強制抑留の実態：日ソ両国資料からの検証』, p.262.

87) 솔제니친은 기온이 영하 40도 이하면 일하지 않았다고 기술했다(서상국, 「살라모프와 솔제니친의 수용소에 대한 태도 비교 연구 : 노동과 음식을 중심으로」, p.245).

〈표 6-3〉 강제노동수용소 노동 일수⁸⁸⁾

(단위 : 일)

	1941	1942	1943	1944	1945	1946	1947	1948	1949
계획	293	317	313	300	329	317	312	302	308
실시	335	349	329	328	320	309	296	307	308

나. 사망률과 국군포로의 생존가능성

국군포로가 이송되었다면, 현재까지 단 한 명의 생존자도 확인되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특히 구 소련이 붕괴되고 1990년 6월 러시아와 국교를 수교한 이래, 러시아와 한국은 물적 및 인적 교류가 활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구 소비에트 지역에서 국군포로 탈출자는 없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몇 가지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수용 중 국군포로들이 전원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1952년 9월 2일자 미국 중앙정보국 “한국 전쟁포로의 소비에트 임시수용소(transit camps) 위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는 포로들이 도로공사와 비행장 건설 등에 동원돼 사망률이 높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특히 “암가(Amga)’ 수용소에서는 1952년 2월~4월 사이에 약 300명이 죽었다”고 했다. 언론에서도 이를 중시하여 한 수용소에서만 불과 몇 개월 사이 수백 명이 죽어 나갔으므로, 국군포로들이 지금까지 생존해 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⁸⁹⁾ 그러나 수용소에서 사망률이 높긴

88) Paul R. Gregory·Valery Lazarev, *The Economics of Forced Labor*, p.12.

89) 『한겨레신문』 2007. 4. 13; 「CIA 보고서, 중노동 국군포로들 몇 달 새 수백명 죽어, 『한국일보』 2007. 4. 17. 시베리아에서 일본군포로의 높은 사망률을 6·25전쟁 이전에 알려줬다(『동아일보』 1949. 12. 28).

했지만, 전원 사망은 특별한 정치적 의도가 없는 한 예외적 상황일 것이다. 더욱이 스탈린 사후 수용소 여건이 점차 개선되었기 때문에 1950년대 말까지 생존했다면 이후에도 생존자가 있었을 것이다.

수용 중 사망은 과로, 기아, 질병, 부상, 다른 학대 등에서 비롯되었다. 스탈린 시대 콜리마 강 유역의 강제노동수용소는 높은 사망률로 ‘죽음의 수용소(death camps)’라는 악명을 얻었다. 아무리 건강한 남자라도 이 지역에 이송된다면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였다.⁹⁰⁾ 이 때문에 콜리마수용소는 나치의 아우슈비츠수용소와 함께 최악의 수용소로, 강제노동수용소 가운데 가장 악명이 높은 곳이었다. 정치범이 보충되면서 노동자를 쓰고 버리는 일은 점차 없어졌으나, 최악의 시기에는 배로 도착한 후 광산에서 죽을 때까지 3주에 불과했다고 얘기되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오면 살아 돌아가기 힘들다”라는 말이 있듯이 발자국마다 사람 뼈가 있다고 할 지경이었다.⁹¹⁾



수용소 사망자 묘지 흔적과 노출된 유골(파니카로프 제공)

90) <http://www.fujitv.co.jp/nonfix/library/2005/473.html>

91) 셀гей·I·크스노프(岡田安彦 譯), 『シベリアの日本人捕虜たち』, 東京: 集英社, 1999, p.150; 한○순 증언, 2009. 5. 31.

〈표 6-4〉 시베리아 강제노동수용소 사망률⁹²⁾

연도	1938	--	1941	1942	1943	1944	--	1949	1950	1951	1952	1953	--	1956
사망자수 (명)	108,654		115,484	353,560	267,826	114,481		29,350	24,511	22,466	20,643	9,628		3,164
사망률 (%)	5.35		6.1	24.9	22.4	9.2		1.21	0.95	0.92	0.84	0.67		0.4

〈표 6-4〉에 나타난 것처럼, 사망률이 1942년에는 25%에 이르렀다가 1944년 9.2%, 1949년 1.21%로 점차 낮아졌다.⁹³⁾ 수용소별 사망 통계를 구하기는 어렵지만, 동부시베리아의 콜리마 수용소는 백색 죽음의 땅, 백색 화장장 등 죽음을 의미한 것(Kolyma means death)⁹⁴⁾처럼 사망률이 보다 높았을 것이다. 폴란드 기술자였던 코왈스키(Ludwik Kowalski)는 1938년 체포되어 콜리마수용소로 보내진 다음 2년 후인 1940년에 금광에서 기력 쇠진(exhaustion)으로 사망했다. 소련 공산당 경제전문가였던 바쉬체프스키(Anatolii Mikhailovich Barshchevskii)도 1938년 체포되어 마가단에서 중노동형을 하던 중 5년만에 사망했다.⁹⁵⁾ 한 때 콜리마 지역 사망자의 수를 300만 명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하지

92) 『굴락 1918-1960』, pp.441-442, 阿部軍治, 『シベリア強制抑留の実態 : 日ソ両国資料からの検証』, p.588 재인용.

93)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서 시베리아 수용소에 있던 일본군 포로 60여만 명 가운데 61,855명이 사망하여 약 10%가 사망했다. 일반 장병보다 연령이 높았던 170명의 일본인 장군 포로 가운데 사망자는 32명으로 사망률이 16%가 넘었다(セルゲイ·I·クズネツォフ(岡田安彦 譯), 『シベリアの日本人捕虜たち』, 東京: 集英社, 1999, pp. 219-220; <http://www.nhk.or.jp/etv21c/update/2005/1022.html> <http://www.yomiuri.co.jp/main/news/20050401i211.htm>; <http://www.tamanegiya.com/nonnbee19.10.html>).

94) Tim Tzouliadis, *The Forsaken*, p.158. 태평양전쟁에서 일본군에 포로가 된 27,000명의 미군포로 가운데 사망자는 11,000명에 이르러 사망률이 40%에 이르렀다(Kinue Tokudome, "POW Compensation Bill: Significance for Japan", <http://www.us-japandialogueonpows.org>, 검색일: 2009. 6. 8).

95) <http://www.osaarchivum.org/gulag/txt1.htm>(검색일: 2009.5.20); Ludwik Kowalski, *Hell On Earth: Brutality and Violence Under The Stalinist Regime, Wasteland Press*, 2008.

만 최근 러시아 연구자의 성과에 따르면 1936년에서 1956년까지 유형된 876,043명 가운데 사망한 인원이 120,000여 명으로, 그 사망률은 14% 수준이었다.⁹⁶⁾

북한에서 소련 군정 시대 시베리아로 이송된 반공청년 중에서 마프르 소우금광, 벨로우금광, 부뜨기체크우라늄광산 등에 수용되었던 박재욱, 장해선 등 20명 가운데 김응철이 병으로 사망했다. 크라스노야르스크수용소에 있던 김권진은 결핵으로 사망했다.⁹⁷⁾

수용소에서 높은 사망률에도 불구하고, 스탈린 시대는 수형자의 노동 능력 회복과 사망비율을 줄일 여유가 없다고 무시했다. 그들의 생각으로, “미국에서 중고차를 수리하지 않고 새 차를 구입하는 이유가 그 곳에는 자동차가 넘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한 것”처럼, 소비에트에서는 노동자원이 무한대이므로, “우리도 역시 지치고 병든 노동력을 회복시키는 것보다는 새롭고 건강한 노동력을 공급받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논리였다. 그들에게 죄수는 노동을 하고 있는 동안만 쓸모가 있었다.⁹⁸⁾

기후와 음주 영향 등으로 1950년대~60년대의 러시아 남성 평균수명이 60세 내외였으므로, 국군포로들이 이곳으로 이송되었다고 해도 일찍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 2007년 러시아인의 평균 수명은 67.7세로 남

96) Bollinger, Martin J., *Stalin's Slave Ships: Kolyma, the Gulag Fleet, and the Role of the West*, Praeger, 2003, pp.82-86; Д.И.Раизман, *Иностранцы-невольники Дальстроя*, Магадан, 2009, pp.9-10. 연구자마다 수용소 인원과 사망자 수 추정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Автор, В. Мега·В Даленко, *Жертвы Колымьы*, Магадан, МАОБТИ, 2000, p. 167).

97) 박재욱 증언, 2009.6.2 전화 인터뷰; 임동열 증언, 2009.5.26. 1960년대 수용소에서는 결핵에 걸린 사람이 많았다(앤 애플바움(GAGA 통번역센터역), 『굴락』 하, 드림박스, 2004, p.298).

98) Д.И.Раизман, *Иностранцы-невольники Дальстроя*, Магадан, 2009, p.121.

자는 61.5세이고, 여성은 73.9세로 여전히 러시아 남성의 평균수명은 1950년대 수준에서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⁹⁹⁾ 수용소 가운데에서 주변 환경이 열악한 동부 시베리아 지역의 경우는 평균 수명이 더욱 낮았을 것이다. 러시아 남성의 평균 수명이 60세였던 점에 비추어 봐서, 국군포로의 연령을 전쟁 당시 20대 초반으로 가정하면 1990년대 초에 이 연령에 도달했을 것이다.¹⁰⁰⁾



‘슬픔의 얼굴(Mask of Sorrow)’, 마가단 시 이 기념상은 강제노동수용소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1996년 6월 러시아 연방정부와 마가단 등 7개 시의 재정지원으로 건립되었다.

수용소에서 탈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론 일부 수용소에서 탈출자가 상당수 존재하지만,¹⁰¹⁾ 인근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콜리마수용소 지역으로부터 약 600~1,000km 떨어진 마가단으로 탈출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콜리마 지역에서는 실제로 경비대원이 탈주자에게 발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탈주에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들은 어느 곳이든 탈출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탈출자를 추적할 수 있는 많은 감시견, 경비병 등을 따돌리고 타이가 지대 어디

99) 『세계일보』 2008. 10. 18.

100) 한 탈북자는 북한의 경우도 정치범수용소에서 생활하면 60세를 넘기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김용화(탈북난민인권협회 회장) 증언, 군사편찬연구소, 2009. 3. 6).

101) Oleg V. Khlevniuk, *The History of the Gulag*, Yale Univ. Press, 2004, pp.318-319.

로 탈출할 것인가? 야생동물의 밥이 되지 않고 탈출에 성공한다고 해도 주민이 신고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탈출이 불가능했다. 또한 수형자들 사이에 정보원이 있어서 탈출 음모를 적발했을 뿐만 아니라, 탈출에 실패하여 체포된 자에게는 10년~25년형이 추가되었다.¹⁰²⁾

하지만 스탈린 시대의 공포정치, 비밀경찰 체제의 두려움이 여전히 존재하는 러시아에서 탈출자가 러시아 여성과 결혼하여 은신하면 알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전 반공청년들의 사례나 독일군 포로의 증언처럼 20~50명 규모로 수많은 수용소에 분산 수용됨으로써 석방 후에도 집단으로 거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포로들이 만약 야쿠치야 지역으로 탈출했다면 그 지역 주민이 고려인과 외모가 비슷해서 구별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다만 야쿠치아인이 육식을 많이 해서 튼실한 점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1990년대 초 우수리강 유역에 흩어져 사는 통구스계의 수렵어로민인 나나이족이 모여 사는 곳에 'Koreans'이 살았다고 한다. 나나이족은 한국인과 거의 똑같다고 한다. 이들은 일제 시대 이주한 고려인이 아니라 벽촌에서 나나이족으로 행세하며 살았다고 한다.¹⁰³⁾

이와 같이 국군포로들이 소수민족 속에 숨어 사는 경우에는 찾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포로 출신 1세대가 사망하면 2세대들은 언어불통, 정체성 부족 등으로 그들의 존재에 대해 관심이 없을 것이다. 또한 남한 출신 국군포로와 피랍자들이 수용소에서 석방된 후 마가단에 정착하려 했을 때,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동포들이 모두 북한 출신이었다면 이들의 선

102) Nikolai Getman, *The Gulag Collection*, Jamestown Foundation 2001, p.87; Ayyub Baghirov, *The Bitter Days of Kolyma*, 2006.

103) 한○순 증언, 2009. 6. 2. 1998년 1월 SBS 방송국이 「몽골리안루트를 가다」 특집 방송에서 나나이족과 추코트카 지역 축치족을 찾아 북방 몽골로이드 삶을 소개했다.

택은 더욱 은둔을 택했을 것이다.

다행히 1953년 스탈린 사후, 흐루시초프가 제20차 공산당 대회에서 스탈린 시대를 재평가하면서 강제노동수용소의 러시아인은 많이 석방되었다. 동시에 수용소 여건도 개선되어 8시간 노동제가 다시 도입되었고, 수용소에 남아 있는 죄수들은 친지들에게 편지를 쓰거나 소포를 받을 수 있었고 물품 구입이나 결혼도 가능했다.¹⁰⁴⁾ 석방된 포로는 다시 북한으로 송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미 정전 후 소련 군정시기 반공활동 전력자들에게 귀환 조치를 한 사례가 있었다. 헝가리 출신인 비엔(George Z. Bien)은 스탈린 사후 대부분의 외국인을 원래 조국으로 귀환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¹⁰⁵⁾



제4절 향후 추진 방안

국군포로의 시베리아 이송설에 대해 러시아 국방부의 부인으로 관련 문서를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미 국방부 포로실종국 연구 성과 협조·현지조사·증언 등을 통해 그 가능성에 대해 약간 더 다가갔다. 즉, 1954년 1월 마가단 수용소에서 독일군 포로가 한국군포로를 목격했다는 진술, 함경북도 양정국 간부인 박기영의 시베리아 수용소의 국군포로 용으로 쌀과 강냉이를 이송했다는 증언, 러시아 국방부 문서상의 국군포로 규모 확인, 소련 군정시기 북한 지역 반공주의자들을 시베리아 수

104) 앤 애플바움(GAGA 통번역센터 역), 『굴락』 하, 드림박스, 2004, p.252.

105) <http://www.gulag.hu/hungarians.htm>(검색일: 2009. 5. 12).

용소로 보냈던 역사적 경험 등을 비추어 보면, 아직 러시아 문서에 의한 명확한 근거는 찾지 못했지만, 국군포로의 이송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러시아 정부의 국군포로 관련 자료에 대한 협조와 해명이 필요하다. 소련문서에서도 나타나듯이 국군포로의 규모가 휴전 후 송환된 인원보다 훨씬 많다. 더욱이 포로통계에서 북한군 발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자료 사이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러시아 정부는 이를 적극 해명해야 한다.

러시아 측으로서도 구 소련 정권의 유산이므로 이의 청산을 미룰 이유가 없다. 1993년 10월 13일, 옐친 대통령은 호소카와 일본 수상에게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군 포로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the inhumane treatment)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그는 구 소련의 일본군 포로에 대한 처리가 소비에트 전체주의의 잔영이라면서 대통령으로서 러시아인을 대신해 비인간적 조치(the inhumane conduct)에 대해 사죄했다. 러시아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시베리아 강제노동수용소에서 본국으로 귀환한 외국 수용인의 강제역류에 관한 항의에 대해 사죄문을 보내기도 했다.¹⁰⁶⁾

미군포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이지만 국군포로 시베리아 이송관련 문서가 보존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내무부(ГУПВИ) 문서보존소 공개 및 조사¹⁰⁷⁾를 위해 미국, 스탈린시대 연구

106) http://www.gwu.edu/~memory/data/government/russia_pow.html; Janson Gerhard's interview, 켈른, 2012. 1. 11.

107) 김선혁은 소련 군정기 북한에서 시베리아로 이송된 친구 75명을 찾기 위해 러시아 연방 내무성, 보안성 중앙문서관, 대통령 인권위원회, 옴스크 내무부 등 47곳에 174통의 청원서를 보냈다(김선혁, 『평양에서 서울까지 47년』, pp.324-327).

자 등과 함께 공조를 추진해야 한다. 그동안 미·러합동위원회의 성과가 제한적이지만, 국군포로 이송설의 최종적인 해명을 위해 한·러공동전문가위원회를 조직해 양국의 전문가들이 급비 문서를 비롯해, 사하 공화국(야쿠치야) (Республика Саха(Якутия))이나 마가단 주(Магаданская область) 등 강제노동수용소 지역에 대한 공동연구를 시행해야 한다. 급비 보존부서에는 1939~1955년 사이의 350만 건의 정보가 있는데 모든 국적의 전쟁포로와 억류자의 상황, 숫자, 정치적인 활동, 본국 송환 등에 대한 문건의 보고이다.¹⁰⁸⁾

러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국군포로 중 시베리아강제노동수용소로 이송되었다는 주장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한 때 SBS 방송국에서 러시아 강제수용소의 수형자 명단 일부를 확보해 이들을 역추적하려 했다.¹⁰⁹⁾ 또한 강제노동수용소 관련 러시아연구자들도 확실한 명단을 알려주면 연구자로서 문서 당국에 관련 문서를 요청하겠다는 호의를 나타냈다. 그러나 강제노동수용소 문서 속에는 수형자의 자세한 인적 사항이 정리되어 있으므로(부록 6, 일본군 포로등록카드 참조), 러시아 정부에서 이를 제공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준다면 인명 대조가 훨씬 용이하고 사실관계 확인이 분명해질 것이다.

현지조사 지역을 확대하여 조사한다면 국군포로의 목격에 대한 더 많은 증언사례가 발굴될 수 있을 것이다.¹¹⁰⁾ 북한과 러시아 당국의 부인

108) 김계르만, 「소연방 내무부 전쟁포로 및 억류자 전담국(급비(ГУПВИ)) 수용소 군도의 한인 전쟁포로」, 군사편찬연구소 용역과제, 2012.

109) “소련으로 끌려간 국군포로” SBS, 2010. 6. 25.

110) 서독 정부는 제2차세계대전 후 정부 수준에서 ‘제2차세계대전독일포로의 운명기록을 위한 학술위원회’를 설치하여 18년간 독일포로의 운명에 관한 증언 채록과 기록을 발굴하여 모두 22권으로 정리했다(Paul Carell·Gunter Boddeker, 畔上司 역, 『捕虜』, 동경: 학술연구사, 2001, pp. 652-654).

및 비협조 속에 시베리아 이송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송 지역으로 언급되는 수용소 수형자 및 경비병 등을 비롯해 6·25전쟁에 참전했던 소련군 고문, 통역 등에 대한 인터뷰를 확대하여 구술사료의 축적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모두 80세를 넘고 있어서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면담 기록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시베리아 억류 조선인 포로의 기억』처럼 구술자료집을 발간하여 사료로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소련군에 의해 포로가 된 일본군 가운데 1950년대 귀환한 부사관 및 장교 출신을 면담한다면 국군포로의 목격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소련군에 억류된 일본군포로 609,448명 가운데 1956년까지 남아있던 경우는 장교 258명을 비롯해 모두 841명이었다.¹¹¹⁾ 이들은 연로한데다가 대외 접촉을 꺼려 일본 정부의 협조 없이는 국군포로들이 이송된 지역으로 지목되는 콜리마 지역 출신의 생존자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 다행히 일본 노동후생성에서는 연금 관리를 위해서 일본군포로 귀환자 중 생존자의 연락처를 파악하고 있다. 귀환한 독일군 포로도 이제 고령으로 단체를 해산하고 대개 요양원에 거주하고 있어서 6·25전쟁 시기 극동 시베리아 강제노동수용소 출신을 찾는 일은 제한 사항이 많다.

111) Andrew E. Barshay, *The Gods Left First*, p.190.

제7장

미귀환 국군포로의 귀환대책

제1절 정부 및 포로 단체의 활동과 해결 방안

제2절 북한의 입장 변화 촉구

제3절 국제사회와 협력 추진

제7장 미귀환 국군포로의 귀환대책

미귀환 국군포로 문제는 정부가 국가적 책무를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아직도 북한 측이 국군포로와 납북자는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이산가족 상봉 방식마저 어렵다.

이에 따른 정부와 포로 단체의 활동성과를 검토하고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 유도, 미국, 유엔 등 국제사회의 공조와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촉구를 정리했다.

제1절 정부 및 포로 단체의 활동과 해결 방안

1. 정부 및 포로 단체의 역할

가. ‘국군포로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의 활동

정전 후 유엔군사령부에서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한 3,000여 명의 국군

및 미군포로 문제를 공산군 측에 해명하는 노력을 계속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미귀환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서는 1994년 10월 조창호 소위의 탈북 이후에 비로소 주목했다.

베트남전쟁처럼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포로들의 억류도 길어지자, 미국은 대통령 선거에서 “베트남전쟁 미군포로와 실종자 문제가 선거결과의 중심”이 된 적이 있었다.¹⁾ 휴전 전후에 우리 군 당국이 포로교환으로 귀환한 국군 장병을 통해 포로명단을 토대로 북한에 남아있는 일부 인원만 파악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다. 이미 1955년 9월 정부는 남북인사와 국군포로 송환 문제를 유엔을 통해 추진하려고 했으나, 군사정전위원회에서 2,000명 수준의 국군포로에 대한 해명요구에 그치고 말았다.

조창호 소위의 탈북을 계기로 국방부 인사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포로송환촉구 대책회의’를 구성한 이래 1997년 9월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국군포로 문제는 국가의 본분과 도리에 관한 문제로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1999년 1월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통일부·외교통상부·국방부·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국가보훈처의 국장급을 위원으로 범정부 차원의 ‘국군포로대책위원회’를 설치했다.

‘국군포로대책위원회’에서는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²⁾과 그 시행령을 제정하여 국군포로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 동시에 탈북 후 제3국 체류 중인 국군포로의 송환지원 방안 등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 사회단체를 비롯해 국제적십자사, 미 재향군인회 등에 국군포로 송환 문제를 환기시켰다.³⁾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정부는 6·25전쟁 발발 50주년이 되는 2000년

1) 『경향신문』 1973. 2. 12; 김봉중, 『베트남전쟁의 기억과 미국 외교』, 『미국사연구』 34, p.229.

2) 국군포로 송환경비지원, 귀환포로지원금 지급방식 등을 보완하여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2007년부터 시행했다.

3) 국방부, 『국군포로 문제』, 2004, pp.22-25.

에 북한에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국군포로의 송환을 본격 모색하면서 대한적십자사, 유엔인권위원회 등을 활용하려 했다.⁴⁾ 하지만 유엔이나 국제인권단체 등을 통한 해결방안은 과거의 예에 보듯이 시일이 오래 걸리고 북한이 협조하지 않는 한 실제로 해결되기도 어렵다. 정전 후 유엔군사령부는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전쟁 중 피랍 민간인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나, 휴전 직후 실제로 귀환자는 외국인 19명에 그치고 남한 출신 인사는 단 1명도 없었다. 그 이유는 송환희망자가 없다는 것이었다.⁵⁾

〈표 7-1〉에서처럼 조창호 소위 탈북 이래 2012년 12월까지 국군포로 80명과 포로가족 403명이 국내에 돌아왔으나, 북한 측은 우리 정부의 국군포로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포로는 없다”는 주장과 함께 민간인억류자와 반공포로의 일방적인 석방을 제기하면서 논박을 계속하고 있다. 김경락 북한 측 방문단장(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은 2001년 2월 27일 서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만나 “그들은 의거 입북해 인민군으로 복무했고, 현재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지 억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⁶⁾

〈표 7-1〉 1994년 이후 탈북 국군포로 현황(2012. 9)

년도	계	'94	'97	'98	'99	20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인원 (명)	80	1	1	4	2	9	6	6	5	14	11	7	4	6	3	1	0	0

출처: 『국방백서』, 2012, p.111.

4) 『한국일보』 2000. 1. 28.

5) 『한국전란4년지』, p.A5.

6) 『통일뉴스』 2001. 2. 27.

2005년 제6차 적십자회담에서도 그들은 남한 측이 정전 당시 북한포로 83,158명을 송환하지 않고 강제로 억류했다고 주장했다. 즉, 1952년 3월~10월, 민간인이라는 명분으로 37,952명의 북한군 포로를 석방하여 국군에 강제 편입시켰고, 1953년 6월 포로송환협정 조인 직후 27,000여 명을 강제 석방하여 국군에 편입시켰으며, 1954년 1월 20일과 21일에 석방된 21,900여 명의 북한군 포로들을 포항·군산 등지에 각 각 나누어 국군에 편입시켰다고 반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1951년 6월 25일 북한군 총사령부가 국군과 유엔군포로 규모를 108,257명으로 공식 발표한 후 6개월이 안된 이 해 12월 포로명단을 교부할 때 12,000명도 못 미치는 명단을 제공했던 점을 고려할 때, 국군포로를 미리 북한군과 주민에 편입하는 등 규모를 대폭 조정한 북한 측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 측이 전쟁 중 유엔군이 국제적십자사에 보낸 포로의 수에 근거하여 요구하듯이, 우리 측에서도 1951년 6월 25일 북한군 총사령부가 공식 발표한 포로의 수를 근거로 반박할 수 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주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부인으로 아직도 남북한은 포로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1951년 6월 당시 북한군 총사령부에서 발표한 포로 108,257명에 대한 해명, 전체 포로의 수, 북한군과 주민 편입 규모, 생사 확인 등을 제기하는 동시에, 전쟁 중 남한 출신 의용군과 반공포로 등이 국제적십자사, 중립국송환위원회 등과 같은 중립기구의 감독 없이 일방적으로 석방되었음을 인정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포로의 억류가 냉전체제 아래 잘못 이루어졌다는 인식을 이끌어 내도록 하여야 한다.

국방부에서는 범정부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미귀환 국군포로의 귀환과 탈북포로들의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⁷⁾ 아직도 이 과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포로와 실종자 문제를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이제 60년이 넘고 있어서 포로가 된 국군 장병의 나이는 대부분 80세를 넘어서고 있다.

가족들 가운데 부모 세대는 대부분 세상을 떠났고, 형제 세대에서도 고령화로 그들의 생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포로와 납북자를 비롯한 이산가족의 상봉마저 전혀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가운데, 2011년 3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가 개소되어 국군포로 가족들도 북한에서 인권침해사례로 진정할 수 있게 되었다. 민간단체로서는 사단법인 물망초(이사장 박선영)에서 2013년 5월 13일 방배동에 국군포로신고센터를 열었다.

지난 2013년 4월 말부터 시민단체 물망초에서는 국군포로명단을 연이어 공개해 미귀환 국군포로 문제를 환기시켰다. 실종자, 전사자 가운데 북한에 생존한 것으로 이미 파악된 명단과 사망자 명단은 국방부에서도 가족에게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2007년 8월 현재 일반 탈북자와 귀환 국군포로의 증언을 토대로 국정원이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북한 내에 총 1,770명의 포로 존재를 확인했다. 이 가운데 560명이 생존하고 있고 910명이 사망했으며, 300명이 행방불명자로 파악되었다.⁸⁾

7) 국방부에서는 탈북 귀환용사에 대한 정착지원을 위해 북한인권정보센터와 위탁 계약으로 '국군포로정착지원센터'를 운용하고 있다.

8) 김수암·이금순·최진욱·서은성, 『국군포로·납북자문제』, p.8.

우리나라에서도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사장 이미일)’에서 2001년부터 ‘납북길 따라 걷기 행사’를 매년 개최해왔고, 납북자와 국군포로 등 북한에 억류된 인사들을 기억하기 위해 ‘물망초 배지달기 범국민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0년부터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을 지정하여⁹⁾ 매년 행사를 실시해 전시 납북자 문제를 환기시키고 있다.¹⁰⁾ 정부에서도 ‘포로 및 실종자의 날’의 제정도 적극 검토하여 전쟁으로 인한 포로, 납북자 등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전사자 명부를 국립현충원이나 전쟁기념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가기록원이나 국방부 등에서 미귀환 국군포로와 실종자 명단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이나 미 의회도서관 연방연구부서(FDR), 미 국방부 포로실종국(DPMO) 등의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고, 영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도 포로와 실종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¹¹⁾

전쟁기념관이나 거제도 포로유적관에서도 미귀환 국군포로 실상을 전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쟁기념관의 6·25전쟁 복실(II)에는 북진, 중국군 개입, 후방작전, 휴전협상 등과 관련된 사항이 전시되어 있다. 이곳 전시실 마지막 부분에 끝나지 않는 전쟁에서 납북자 문제를 언급하였으나,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 문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전쟁기념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에서 체계적으로 귀환포로와 탈북포로의 증언

9) 협의회에서는 기념일을 납북자가 발생한 요인이었던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한 6월 28일로 확정하기로 했다(이미일 이사장 전화 인터뷰, 2013. 6. 10).

10) 「전시 납북자를 위해 가슴에 ‘물망초’를 달아 주세요」, 『국민일보』 2013. 5. 26.

11) 영국은 웹에서 포로명단을 직접 확인할 수 없으나, 문서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www.nationalarchives.gov.uk). 심지어 귀환을 거부했던 미군포로 21명의 인명과 행적도 찾아 볼 수 있다.

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¹²⁾ 오스트레일리아 보훈처는 초·중등학생을 위한 “오스트레일리아전쟁포로역사(Australian POWs)” 소책자를 만들어 교육에 보조교재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포로가 되면 오랫동안 계속되는 수용소 생활 중 포로들은 탈출을 도모하게 된다. 그러나 탈출을 시도하다가 붙잡히면 포로들 앞에서 처형될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하다. 한 때 탈북 국군포로들은 ‘3국을 통한 탈북지원’을 희망했다.¹³⁾ 그동안 일부 성과도 있었으나, 이제 포로들이 고령이어서 그들의 탈출을 지원하기는 갈수록 어렵다. 지난 2010년 이후 탈북한 국군포로가 더 이상 없었다.

앞으로는 포로 당사자보다는 유해 반입, 가족들의 탈출이 늘어날 것이다. 아직 이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없다. 따라서 북한과 공식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포로 및 가족의 귀환을 촉진시키기 위한 보상제도가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현지인의 비공식적인 도움으로 탈출할 때, 보상을 하자는 제안은 꾸준히 있었다.¹⁴⁾

나. 미국의 활동과 성과

미국 정부는 포로와 실종자 추적에 적극적이었다. 미 국방부는 6·25전쟁의 정전협정 후 돌아오지 못하거나 시신이 파악되지 못한 실종자를 비롯해 제2차 세계대전, 베트남전쟁 등의 포로와 실종자 문제를 추적하고

12) 조성훈, 「포로문제의 쟁점과 현재적 의의」, 전쟁기념관, 『전쟁과 유물』 5, 2013, pp.68-69.

13) 「죽고 나면 무슨 소용... 지금 대책을 세워 달라」, 『세계일보』 2005. 6. 27.

14) 조성훈·조흥제, 「주요 국가의 귀환포로·실종자 대우 정책 비교」, 『군사논단』 77, 2014 봄, pp.186-188; <http://www.conscript-heroes.com/escapelines/index.html>.

있다.¹⁵⁾ 그들은 한 명의 실종자라도 잊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방침 아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미 한국전쟁 직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군 행동 규범의 개정에서 서명하면서, “미국은 전쟁포로를 잊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모든 전쟁 포로의 석방을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강구할 것”¹⁶⁾이라고 말했다. 미 울포위츠(Paul Wolfowitz) 전 국방부차관(Deputy Secretary of Defense)은 전쟁에서 포로가 되었거나 실종된 경우,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그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든 미국 정부는 그들을 고향으로 되돌아오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 엄숙한 약속(solemn pledge)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3년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 50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실종된 모든 미군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한국전쟁은 진실로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¹⁷⁾

특히 베트남전쟁포로와 실종자에 대한 가족과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미국 정부는 1978년에 ‘포로실종자의 날(National POW/MIA Recognition Day)’을 제정했다. 기념일은 1986년부터 9월 셋째 금요일이다. 이 날은 미 국방부를 비롯해 미국 전체의 공공기관에서 추모행사를 갖는다. 시애틀 시에서는 매년 이날 한국전 참전 용사들이 ‘한국전 포로와 실종자 추모의 날(Annual Korean War Era POW/MIA Remembrance Day)’을 거행해 왔다. 또한 ‘전쟁포로·실종자기(The POW/MIA flag)’는 처음에 전국포로·실종자가족연맹(the National

15) Michael J. Allen, *Until the Last Man Comes Home*, the North Carolina Press, 2009, p.2. 그 규모는 시신의 신분 미확인 및 미회수자 등이었다(http://www.aipowmia.com/koreacw/kwkia_menu.html, 검색일: 2009.5.19). 베트남전쟁에서는 1,800명, 냉전시기 120명을 대상으로 보고 있다.

16) Chandler C. Sherrell, MAJ, USA, “A Historical Analysis of US POW/MIA Repatriation and Remains Recovery”, Fort Leavenworth, Kansas, 1998, p. 2.

17) www.dtic.mil/dpmpo/news/2003-annual-report.htm(검색일: 2006. 9. 25).

League of POW/MIA Families)의 상징에 그쳤으나, 미 의회에서 1990년 8월 포로와 실종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의지의 상징으로 지정했다(USA Public Law 101-355).¹⁸⁾

미 국방부 포로실종국(Defense POW/ Missing Personnel Office, DPMO)은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 베트남전 등에서 실종된 미군을 추적하기 위해 1993년에 창설되었다. 먼저 미·러포로실종자합동위원회((the U. S.-Russia Joint Commission on POWs/MIAs, USRJC)는

엘친(Boris Yeltsin) 러시아 대통령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때 부
 시 대통령과 합의 아래 1992
 년 3월 26일 설치되었다. 이
 에 따라 이듬해 7월 16일 피
 상원 특별위원회의 권고로 포
 로 및 실종자 관련 조직간 연
 계 강화, 그 가족과 시민들에
 게 정보제공 등을 하도록 단



미국 포로·실종자기

일 기구로 포로실종국을 설치했다. 1996년 포로실종국의 법적 지위는 ‘실종자법(Missing Service Personnel Act)’에 의해 포로실종국으로 하여금 실종자에 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 더욱 분명해졌다.

미 포로실종국은 실종자의 조사, 구조, 도주, 회수 등에 대한 국방부 정책을 조율하고 합참·각 전투사령부 등과도 조정하고 있다. 한국전 포로 및 실종자 가운데 귀환자, 사망자, 송환거부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실종자

18) 「한국전 포로와 실종자 잊지 말자」, 『미주 중앙일보』 2010. 9. 22.

로서 계속 추적하고 있다.¹⁹⁾

한국전 실종자의 경우, 그 자취를 찾기 위해 1996년부터 전쟁 중 포로가 되었다가 귀환한 미군포로를 상대로 증언청취(Oral History Program)를 계속하여 2003년에 이미 1,500명이 넘었다. 또한 포로단체들과도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다.²⁰⁾ 전 포로들이나 가족들도 모임을 갖고, 포로 문제에 대해 사회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실종자 추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²¹⁾

Korean War Ex-POW ASSOCIATION
The Forgotten War June 1950 - July 1953
Died: 36,568 Wounded: 103,284 MIA: 8,177

HOME ABOUT US* INFO* INFO NEEDED* THE POW EXPERIENCE REUNIONS* PHOTOS CONTACT US SEARCH

About Us

The Korean War Ex-POW Association was formed in 1976 as a non-profit organization. We are the only association dedicated to representing all Korean War Ex-POWs from the United Nations who joined in the war. The association was formed to provide fellowship and support, assist fellow veterans and spouses with veterans issues, and to educate the public by bringing as much attention and honor to the Korean War POWs. We also ensure that those still Missing in Action are not forgotten and to honor those who died in Prisoner of War camps in North Korea.

미국 한국전 포로협회 홈페이지

19) Office of the Zone Staff Judge Advocate, HQ, KComz, "Report on Operation 'Big Switch'" Feb.28. 54, 국립중앙도서관; Thruston B. Morton, Assistant Secretary to Senator Bricker" Oct. 1, 1953, 「미 국무부 보고서」 1953. 6. 1~1954. 3. 15, 군사편찬연구소 20; Paul M. Cole, *POW/MIA Issues*. 유엔군사령부는 1953년 11월 21 일에는 미군을 952명으로 수정하여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1990년대초에 다시 버려진 미군포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Scott Thompson, "POWS Said to Have Been Abandoned in North Korea and Siberia", *National*, Nov.27, 1992, p.62; Laurence Jolidon, *Last Seen Alive*, Ink-Slinger Press, 1995).

20) www.dtic.mil/dpmo/news/2003-annual-report.htm(검색일: 2006. 9. 25).

21) 미 포로협회: <http://koreawarepow.org>; 미국 포로실종자가족협회: www.pow-miafamilies.org 오스트레일리아한국전실종자넷(www.ausmiakoreanwar.net.au).

특히 미군포로 가운데 구 소련으로 강제 이송됐을 가능성에 대해, 미·러합동위원회는 1992년 3월 모스크바 회의 이래로 2005년 6월까지 19차례 회의를 열었다. 모스크바에서 17번, 워싱턴에서 2번 등 총 19번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 가운데 1993년 12월에 이미 7차 회의를 개최했고 1995년 8월에는 이미 12차 전체회의를 개최할 만큼 처음 5년간에 양국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의욕적으로 수행되었다. 이외에 고위 회의와 수많은 실무자 토의가 있었으며 1999년까지 16차례 회의를 개최했었으나,²²⁾ 그 이후로 러시아 측이 소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귀환자의 수용소 스케치

(출처: 미·러합동위원회 보고서)

미·러합동위원회 산하 한국전쟁실무그룹(Korean War Working Group)의 기본 목표는 미 공군기의 격추 상황을 분명히 밝히고, 포로의

22) "Meeting the Challenge", 1999 Annual Report, DPMO, p. 29.

소련이송 규명에 있었다. 즉, 소련이 한국전에서 미군포로를 이송시켰는지, 그 생사와 정황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군포로와 연관이 있는 문서와 증언을 통해 그 흔적에 대한 정보 정리와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문서자료 수집 및 분석은 러시아를 비롯한 중국·동유럽 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 국립문서기록관청·아이젠하워 대통령 도서관 등도 조사했다.

한국전쟁실무자그룹에서 최근까지 1,000여 명을 인터뷰했고, 다른 그룹까지 합하면 수천 명에 이른다. 조종사, 대공포 장교, 고문, 의사 등 한국전 참전자를 비롯해 강제노동수용소 수형자 출신 가운데 미군을 목격했다는 이들과 인터뷰를 했다. 예를 들면, 2002년 5월 2일부터 31일까지 블라서(Danz Blasser) 분석관을 비롯해 3명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여 한국전 참전자 15명을 인터뷰했다. 이때 인터뷰하려던 10명은 이미 사망했고, 18명은 위치 파악이 곤란하여 실시하지 못했다.

인터뷰한 사람들 중에는 중국 단둥에 주둔할 때 1951년 5월 한 미군 포로를 만났다는 샬레프(Vasily N. Shalev), 통화와 옌지(延吉) 병원에서 중국군 부상자를 진료했던 의사인 쿠즈넛초프(Georgiy G. Kuznetsov)와 소련 태생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북한군에서 여단장을 지냈고, 전후 정보책임자를 역임한 리(Vitaly M. LI) 중장도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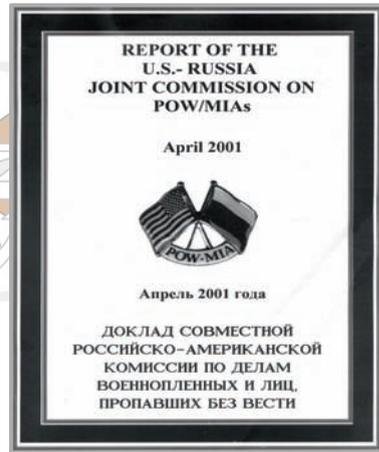
물론 인터뷰에 응한 참전자 가운데 미군 포로이송에 대한 부정적인 경우도 많았다. 예를 들면, 주 북한 소련 대사와 김일성의 군사고문이었던 라주바예프의 군사보좌관인 소지노프(Dmitrevich Sozinov)는 미군 포로의 소련이송에 대해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독이나 체코와 같은 제3국으로 이송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에 메모를 남기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라주바예프도 회고록을 남기지 않았다

고 했다.²³⁾

통역 겸 1952년 북한군 전투훈련을 지원했던 코스틸로프(Valeriy Vasilyevich Kostilov) 예비역 대령은 미군포로의 소련이나 중국 영토로의 이송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다른 기관(other organs)에 의해 처리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²⁴⁾ 다른 기관이라는 것은 KGB와 같은 비밀기구였을 텐데, 미 국방부에서 오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협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구체적인 구술자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의 제한적인 협조로 미군포로의 이송관련 문서자료의 획득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제한된 정보로 추적하는 정도(little peek)다.

그동안 미·러합동위원회의 조사 결과, 일부 격추된 미군 조종사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일부는 유해를 송환했다. 이러한 전투기 격추 정보 등은 유해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 1952년 2월 21일 격추되었던 몰딘(William K. Mauldin) 대위를 비롯해 북한, 러시아, 중국 등지에서 일부 유해를 송환했다. 그러나 미군 측은 아직까지 러시아 내 미군 생존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 현재 러시아 정부는 한국전쟁 중 포



미·러포로실종자합동위원회 보고서 표지(2001. 4)

23) Dmitrevich Sozinov 증언, 1996. 8. 23, Russian Interview Collection, 의회도서관.

24) Valeriy Vasilyevich Kostilov 증언, 1996. 10. 17, Russian Interview Collection.

로가 된 미군들이 소련 영토에 억류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서, 결정적인 증거(conclusive evidence)는 확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미군 측은 그동안 연구조사 활동 결과를 토대로 미군 포로들이 소련으로 이송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there is a high probability)으로 결론을 내렸다.²⁵⁾

2. 송환 우선순위 고려

가. 우선순위

포로들과 그들의 가족이 받았던 고통을 인도적으로 고려하거나,²⁶⁾ “국가를 위해 싸운 자들은 끝까지 보호한다”는 국가적인 의무 차원에서도 미귀환 국군포로 가운데 생존자뿐만 아니라 사망자는 유골도 귀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국군포로의 존재를 부인하는 북한의 태도에 비추어 생존자 우선 외에 순위를 정해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²⁷⁾ 그런데 6·25전쟁 참전자의 연령이 현재 대개 80세 이상이므로 생존자의 귀환이 시급하다. 탈북 국군포로 80명 가운데에도 조창호 예비역 중위를 비롯해 모두 30여 명이 사망했다. 기존에 파악된 500명 규모의 생존자 수도 고령에 따른 질병, 의료혜택의 제한 등으로 매년 사망자가 발생하여 현재는 그 인원이 크게 줄어들었을 것이다.

25) Defense POW Missing Personnel Office, *U.S. Servicemen in Soviet Captivity*, p. 2. 물론 미 국방부 포로실종국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불만도 존재한다(Robert Miller, *America's Abandoned Sons*, Xibris Corp., 2012, pp.594-597).

26) 전쟁에서 한 병사의 죽음이나 실종으로 인한 고통은 가족관계의 네트워크를 통해 몇 배로 증폭되고, 그 기간도 평생 동안 계속된다(존 키건(정병선역), 『전쟁과 우리가 사는 세상』, 지호, 2004, p.27).

27) 김환태, 「물지마식 국군포로 송환추진을 반대한다」, 『BreakNews』 2013. 4. 1.

생존자 외에 첫째, 미귀환 국군포로 가운데 북한 억류에 대해 적극 반항했거나 탈출을 시도하다가 체포되어 감옥이나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거나 과거 수용된 적이 있는 자를 우선 요구해야 한다. 일반 포로는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귀환한 북한군포로보다 나은 대우를 받았지만, 탈출을 시도한 포로들은 북한에서 적대계층이다.²⁸⁾ 이들은 남한에서 ‘비전향 장기수’와 비슷한 처지로 이해하면 쉬울 것이다. 한때 북한이 ‘비전향장기수’의 송환을 줄곧 요구했던 이유와 동일하다. 그러나 북한 측으로서는 이를 가장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휴전 직후 귀환한 국군포로 가운데 장교 비중이 매우 낮아서, 장교를 우선 고려할 수 있다. 그 규모가 작아서 협상에 용이할 수 있으나, 계급차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북한군 정규군에 편입되기보다는 각종 건설대에 편입된 후 광산과 탄광 등에 배치된 인원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에는 임산사업소, 농촌 등지에 배치된 인원이 제외되는 한계가 있다.

넷째, 시기별 접근으로 1953년 6월 8일 포로교환에 관한 합의 이후 발생한 포로 특히 금성전투 등에서 발생한 포로에 대해 우선 귀환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1953년 이전 발생한 포로들이 오히려 뒤로 밀리는 약점이 있지만, 그 범위가 제한되고 생존자의 파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북한 측은 포로교환 시 이때 발생한 포로를 포함시켜 교환했다고 하지만, 미군 포로²⁹⁾ 외에는 당시 송환된 전체 국군포로 인원

28) 제2차 세계대전 중 소련군에 잡혀 강제노동수용소에서 귀환한 한 동독인은 수용소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요소는 25년형이라는 압박감과 장래 희망이 없다는 점이었다고 회고했다(Gunther Kowalczyk's interview, 베를린, 2012. 1. 10.).

29) 『로동신문』, 1953. 9. 9. 미 육군 당국은 1953년 6월과 7월에 포로된 인원 21명과 105명이 모두 귀환했던 것으로 파악했다(Paul M. Cole, *POW/MIA Issues, Vol. 1 The Korean War*, p.224).

이 7,800여 명에 불과했으므로 금성전투에서 거의 3,000명에 이르는 포로 가운데 일부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다섯째, 포로수용소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유해 송환이다. 최근에는 정전 후 탄광에 배치되었다가 사망한 국군포로의 가족들이 북한을 탈출하면서 유골을 가져 온 적이 있지만, 포로수용소에서 사망한 포로는 북한 측과 협상할 때 보다 용이할 것이다. 지난 2005년 10월 압투병 중 숨진 장기수 정순택의 시신을 북한 유족에 송환한 사례도 있다.³⁰⁾ 북한의 핵과 미사일개발로 중단되었지만, 미국 정부는 북한 지역에서 6·25 전쟁 중 미군 유해발굴사업을 통해 일부 성과가 있었다. 미군 유해발굴 사업도 아직 사망했던 포로의 유해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³¹⁾ 정부에서는 남한지역 유해 발굴의 성과를 북한지역으로 확대하려는 방침을 밝혀, 북한 포로수용소에서 사망한 후 돌려보내지 않았던 국군포로들의 유해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졌다.

나. 교화소 수감자

북한과 협상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겠지만, 정부는 기본적으로 정치범 및 교화소에 수감된 후 석방된 자와 행방불명자를 소재 파악과 귀환을 먼저 요구해야 한다. 문제는 폐쇄적인 북한사회에서 '비전향 우익수'가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 사실파악이 어렵다는 점이다. 하지만 전쟁 중에도 휴전협상이 진행되면서 포로들의 대우가 향상되

30) 『경향신문』 2005. 10. 2.

31) 미 국방부 포로실종국(DPMO)과 미군포로 가족 가운데 수용 중 사망한 포로의 매장지를 찾으려고 생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http://www.koreanwar.org/html/korean_war_project_guestbook_3.html).

었고, 최근 일본인 요코타 메구미(横田惠)의 생사확인과 송환요구 과정에서 북한 공작원이 납치한 김영남의 존재를 알게 된 것처럼,³²⁾ 교화소, 정치범수용소 등으로 행방불명된 국군포로의 생사확인과 송환요구가 필요하다.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북한 포로수용소이지만, 이미 전쟁 시기부터 “기회만 있으면, 남으로 넘어간다”는 의지로 적극 탈출을 시도하거나 저항운동을 한 포로들이 존재했다. 탈북 국군포로와 일반 탈북자의 증언을 통해 몇몇 사례를 정리했다.

이미 1952년 7월 10일 강동수용소에서 남한에 충성적인 포로 600여 명과 친북한 포로 100여 명이 충돌해서, 친 남한 포로의 지도자 5명은 즉시 처형되었고, 식사보급이 줄어들었다는 정보가 있었다.³³⁾ 중국군에 포로가 되었던 조창호 중위도 잡힌 날로부터 남쪽으로 탈출한다는 것은 꿈이었다고 한다. 그는 북한군 제8사단에 배치된 후 탈출을 기도하다가 함흥교화소, 아오지특별수용소, 강계교화소 등에서 12년 6개월 간 수용소 생활을 했다. 1952년 1월, 인민군에 편입되어 동부전선 매봉산전투에 참가했으나 3일 만에 탈출하려다가 체포된 한 포로는 당시 회양군 소재 인민군 전선사령부 최고재판소의 수용소에는 탈출혐의로 체포된 포로 70여 명이 수용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 강민형 이등중사는 1952년 6월경 ‘군무자 반역죄’로 20년을 선고받은 후 황해도 등지에서 치안대 활동을 하다가 검거된 자들과 함께 교화소에 수감되었다.

제8보병사단 10연대 오해환 대위(육사 7기생)는 천마수용소에서 1952년 4월경 탈출했다가 체포된 후 여름에 어딘론가 사라져 귀환하지 못했다.³⁴⁾ 제

32) 정진석, 「6·25 피랍민간인 생사확인 시급」, 『조선일보』 2006. 6. 26.

33) 「1952년 9월 6일자 보고」, 『미국중앙정보국 정보보고서』(한국전쟁 자료총서 17), 국방군사연구소, 1997, p.575.

34) 천마수용소에서 조광식·홍희표 중사도 수용소에 오기 전 탈출한 적이 있는 약점 때문인지 포로를 감시하다가 어느 사이에 사라졌다(최명혁, 『나의 등뒤에 그림같은 그 손길』, pp.176-179).

8보병사단 16연대 1대대 3중대 구순옥 중대장, 박덕수 소대장, 최용운 소대장, 최종환 상사 등 25명은 탈출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1952년 7월 하순경 강원도 인제군 이포리 어느 골짜기에서 처형되었다. 당시 함께 있었던 장진환, 이승기 등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20년형을 받아 신의주교화소에서 15년, 평양교화소에서 5년을 지냈다. 신의주교화소에는 전쟁 시기 북한에서 활동한 치안대원, 국군포로들이 다수 수용되었다고 한다.³⁵⁾ 전쟁 이전 월남했다가 포로가 된 김춘희(제3사단)는 다른 북한 출신 국군포로의 경우처럼 북한 억류대상이었을 것이나, 이에 반발하자 1967년까지 강계교화소에 수감되었다가 출소했다.³⁶⁾

철도사령부에서 1952년 3월초 백청기 소위(전라도 출신)가 주동이 되어 김병만, 손서(성)호(경주, 상등병), 이동락 등 40여 명과 ‘대한반공투사단’을 결성했다고 한다. 그러나 곧 발각되어 단원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일반 단원들은 ‘민족반역 반동죄’로 5년 형을 받고 평남 덕천군 특별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만포교화소, 아오지 제1교화소 등을 거쳐 1957년 1월 5일 조기 석방되었다. 이는 1956년 12월경 김일성이 전후 복구공사에 인력이 필요하니 교화소 수감자 가운데 잔여 형기가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을 석방하도록 조치를 내린 결과였다. 하지만 백청기 소위는 1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 병사했고, 김병만은 신의주학생의거와 관련된 사실이 추가로 탄로나 20년형을 언도받아 수감 중 병사했다고 한다. 제103건설여단에 배치되어 있던 변을규는 탈출을 기도하다가 13년형을 받았으나 1957년경 평양 승호리 임시교화소에서 재차 탈옥하려다 체포되어 무기수 독방에 수감 중 사망했다.

전후에 직장에 배치된 후 포로들 가운데 일부는 체제비판 발언으로 불이익을 당했다. 즉, 북한 당국은 모든 파괴된 시설의 재건이 인민생활의 향상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인적 물적 동원을 강화하면서, 이를 의식적으로 반대 또는

35) 장진환 증언, 군사편찬연구소, 2014. 3. 26.

36) 천마수용소에서 서울 영등포 신길동 출신인 이종무는 여러 번 탈출시도, 저항으로 교화소에 갇을 가능성이 크다(귀환 동료 증언, 군사편찬연구소, 2014. 2. 10.).

사보타지하는 사람은 반동분자로 규정하고 엄중히 처단했다.³⁷⁾

노영민(수도사단 제1연대)은 1969년 경 체제비판 발언으로 보위부에 연행된 후 행방불명이 되었고, 차한영은 1980년대 주원탄광에서 근무 중 불순한 언동을 이유로 끌려간 후 소식이 두절되었다. 함경북도 화성군 정치범수용소 가운데 포로 40~50명이 수용되었다. 이들 가운데 김문두(제8보병사단)는 화성군 양정사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남한을 동경하는 발언으로 화성군 정치범수용소에 투옥되었다.

제584부대에 배치된 백남선은 1955년경 국군포로 7~8명과 함께 평을 잡으러 간다며 부대를 이탈한 후 한국으로 탈출을 기도하다가 검거되어 군사재판에서 민족반역죄로 30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 1958년 6월경, 함북 셋별군 고진원탄광에서 포로 3명은 불만을 품고 사무소에 합선을 일으켜 방화를 했다. 이들은 반당 반혁명죄로 고진원탄광 인근 용북인민학교 운동장에서 국군포로와 그 가족, 일반 주민들이 집결한 가운데 공개 총살당했다. 이 사건으로 국군포로들에게 시집간 여성들은 앞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혼을 후회했다고 한다. 그후 1960년 초에도 불평 불만을 하던 포로 4명이 밤중에 요덕수용소로 끌려갔다.³⁸⁾

1958년 8월경³⁹⁾ 아오지탄광 용연청년갱에서 메탄가스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국군포로 39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때 제일 먼저 갱 밖으로 나왔던 백남운이 갱에서 분출하는 가스를 담뱃불로 발화시켜 폭발시켰다는 혐의로 공개 처형되었으며, 관련자 30~40명은 정치보위부로 끌려간 뒤 행적을 알 수 없었다.⁴⁰⁾ 1958년 9월 안병현 공군 중위는 “북한이 개발한 폭격기가 미군의 폭격기보다 성능이 약하다”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함경북도 경원군(현 셋별군) 철도공장 앞에서 공개처형을 당했다.⁴¹⁾

37) 조선로동당 선전선동부장 김창만, 「간부당원 동지들에게 고함」, 1953. 9. 1, “CCRACK 8242nd Army Unit Combat Report”, Aug. 1953, 군사편찬연구소, HD 1971.

38) 최○런 증언, 군포시, 2014. 3. 28.

39) 1959년 3월경으로 기억한 경우도 있었다.

40) 허재석, 『내 이름은 풍간나새끼였다』, pp.48-49.

41) 「박선영, ‘귀환원한 국군포로를 북이 때려죽였다」, 『뉴데일리』 2012. 8. 6.

1970년대 초 고건원탄광에 배치되어 있는 장교 출신 포로들이 지하조직을 결성하여 활동 중 정치보위부에 의하여 발각되어 주동자를 비롯한 70명이 체포된 후 모두 다른 곳으로 압송되어갔다고 한다. 1970년대 말 아오지탄광에서 국군포로 출신들이 모의해서 갱을 폭파했다. 이 사건으로 주모자들은 가족들까지 처형했다고 한다.⁴²⁾

이상과 같이 개별 사례는 일부 알려지고 있으나, 정치범수용소와 교화소에 수감된 적이 있는 국군포로의 총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다. 조창호 중위가 아오지 특별수용소에 수감되었을 때 국군포로 300~400명이 수용되어 있었다고 증언했고, 함흥교화소에서도 수감인원 2,000여 명 가운데 300명 가량이 반공유격대원 출신이었다고 알려졌다.⁴³⁾ 국정원에서 2007년 8월 현재 일반 탈북자와 귀환 국군포로의 증언을 토대로 파악한 북한 내 국군포로 가운데 행방불명자 300여 명이 이 범주에 해당할 것이다.⁴⁴⁾

남한의 비전향 장기수와 달리, 북한에서는 이들에 대한 소재파악이나 지원 등을 거의 할 수 없으므로, 탈북 국군포로와 일반 탈북자를 통해 확보한 명단을 북한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정보 당국에서 탈북자를 상대로 이들에 대한 정보파악에 주력하면 그들의 행방을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3. 이산가족 방문과 영구귀환 방식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북한 측 입장에 대응하여, 이산

42) 장진환 증언, 군사편찬연구소, 2014. 3. 26; 최○련 증언, 군포시, 2014. 3. 28.

43) 조성훈,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p.593.

44) 김수암·이금순·최진욱·서은성, 『국군포로·남북자문제』, p.8.

가족의 틀에서 해결을 모색하는 방안이다. 이미 2000년 6월 제1차 적십자회담에서 북한 측에 “전쟁 후 행방불명자의 생사·주소·확인 등 재결합을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 차원에서 해결하자고 제의했다.

포로 가족들은 포로를 이산가족으로 처리하려는 방침에 대해 반대한다. 2001년 2월 ‘국군 포로가족협의회’(회장 허태석)는 “국군포로 문제는 이산가족과 별도로 정부가 전쟁 중 억류된 포로들을 데려오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남한에서 비전향 장기수를 북으로 돌려보낸 만큼 북한 정부도 이에 상응한 인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⁴⁵⁾

그런데 국군포로들은 고향에 있는 부모 형제를 그리워 귀환을 갈망했으나, 연고도 없는 북한에서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룬 후 출신 성분을 극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적응해 왔다. 그들 중 일부는 북한 로동당에 입당하기도 했다. 또한 탈북 국군포로의 가장 큰 걱정은 여전히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안전 문제였다. 최근 탈북자가 급증하면서 북한 당국이 그곳에 남아 있는 가족에 대한 처벌을 점차 완화했지만, 탈북한 국군포로 가운데에서도 일부는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남한으로 탈출하지 않고 중국에서 가족만 만나고 북한으로 되돌아가려고 했다. 가족 중에 당이나 군에 재직할 사람이 있으면 남한 가족이 탈북을 종용해도 그에 대한 두려움으로 거부한 경우도 있었다. 더욱이 전후 60년이 지나면서 남한에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형제까지 없어서 연고가 거의 없는 경우 재북 가족을 두고 귀환하는 데에는 많은 갈등이 있다.⁴⁶⁾

따라서 정치범수용소와 교화소에 수감된 적이 있는 포로 외에는 인도

45) 『통일뉴스』 2001. 2. 27; 『한국경제신문』 2001. 2. 7.

46) 『북한 아오지 탄광촌 일대에 국군포로 300여 명 집단거주』, 『월간조선』, 2006. 7, pp.151-152.

주의 관점에서 포괄적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다. 비전향 장기수의 경우에는 당사자만 송환되었다. 이 때문에 63명 가운데 7명은 아내와 자녀들 사이에 ‘신 이산가족’이 되었다. 전쟁 당시 의용군으로 월북했다가 남파 간첩으로 장기수였던 신인영의 경우는 어머니와 이별했다.⁴⁷⁾ 부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방문이 여의치 않는 점이 현실이나, 국군포로의 경우도 본인만 송환시키고 가족들은 교류하는 방식으로 가면 될 것이다.

물론 상호방문 이후에 영구 귀환하는 기회는 열어두어야 한다. 그런데 생존자 중에서 전쟁 당시에 휴전 직후에 노동당에 입당한 경우는 송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들은 북한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포로로 취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노동당에 입당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후 타이완으로 갔던 중국군 포로 가운데 친지 방문을 넘어 최근에는 본토로 아주 귀향한 경우도 있다. 북한의 경우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남한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타이완과 중국의 관계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타이완과 중국과의 사이가 호전되고 중국의 지위가 향상되면서 민간 부문에서 친지 방문의 요구가 점차 높아지자, 1987년 초에 타이완 장징궈(蔣經國) 주석이 국민당 중앙위원회에 대륙 친지 방문(返鄉探親)정책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국민당 내에서도 반대가 있었으나, 친지 방문은 곧 허용되었다. 1988년에는 공무원의 대륙방문도 허용했고, 본토의 친지들의 타이완 방문도 허용했다. 이해 11월부터 대륙 출신 군인들도 친지 방문을 위한 체류를 인가하여 중국 본토에 갈

47) 『연합뉴스』 2005. 6. 24; 『한겨레신문』 2002. 11. 10.

수 있게 되었다. 이 정책으로 타이완으로 갔던 중국군 출신 반공포로는 중국 측의 대대적인 환영 속에 상업적 교류를 명목으로 대륙의 고향을 방문했고, 최근 일부 포로들은 중국 본토로 돌아간 경우도 있다.⁴⁸⁾

전쟁 중 공산군 측에 포로가 되었던 미군포로 가운데 송환을 거부하였던 21명은 중국으로 가서 살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18명은 이미 미국으로 돌아



베너리스 가족 사진

아갔다. 중국에서 살고 있는 포로 가운데 베너리스(James Veneris)는 1976년 이후 미국을 몇 차례 방문하였고, 그의 아들은 뉴욕에서 트럭기사로 일했다.⁴⁹⁾

아직 남한에서 석방된 반공포로 가운데에는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은 없지만, 남한에 남은 반공포로들에게도 가족상봉의 기회가 고려되어야 한다. 가족과 고향 대신에 자유를 찾아 남한에 살고 있는 반공포로들은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 것을 우려하여 신청하기를 주저하고 있을 뿐이다.

전쟁 시기와 휴전 직후까지 빨치산 활동을 하다가 체포된 자 가운데 인민군 출신들이 자신들은 ‘전쟁포로’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으로 돌아가

48) 『文史博覽』 2005. 9, 「僅三分之一戰俘返回大陸 자원군戰俘去臺灣始末」, (<http://big5.china.com/gate/big5/news.china.com/20050927>); 翟海源·丁庭宇 등, 『大陸探親及訪問的影響』, 대북 : 국가정책연구자료중심, 1999, pp.11-27.

49) 「한국전쟁이 남긴 보이지 않는 상처」, 『뉴스위크』(한국판), 2000. 6. 21, p.20; 토마스 로저스, 『압록강 포로수용소』, pp.358-359.

기를 원하고 있다. 이들을 국군포로들과 서로 교환할 수 있을 것이다.

전쟁 이후 휴전시기까지 생포된 빨치산은 27,721명과 귀순자 77,898명 등 총 105,619명에 이르렀다.⁵⁰⁾ 1953년 12월에서 1954년 9월 30일까지 생포된 빨치산은 총 402명이었다. 이 가운데 31명은 석방되고 38명은 사망했으며 나머지는 교도소로 이감되었다.⁵¹⁾ 이러한 빨치산 가운데 북한군 출신이 우선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퇴로가 막힌 인민군들 가운데 일부는 지리산·태백산 등지에서 빨치산 활동을 했고, 생포된 후 남원과 광주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다.⁵²⁾ 광주 포로수용소에서 1951년 말에서 1952년 말까지 인민군 출신 포로 가운데 환자와 부상자를 제외하고 2차례 150여 명을 거제도 포로수용소로 이관했다고 한다.⁵³⁾

거제도 포로수용소로 이관되지 않고 광주수용소에 있던 이들은 전쟁 포로로 처리되지 않고, 부역자 처리를 위한 ‘전시하 비상사태 특별조치법’의 위반자로 처벌되었다. 이에 불만을 품고 북한으로 송환을 희망하고 있는 방장련, 박길우, 유기진, 안학섭, 허찬형, 이찬근 등은 송환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⁵⁴⁾ 이들 외에도 빨치산 출신 가운데 북한으로 가기를 원하는 이들은 적극 송환할 수 있을 것이다.

4. 동서독 정치범 교환 방식

지난 2006년 4월 18차 남북 장관급회담에 앞서, 당시 이종석 통일부

50) 『동아일보』, 1950. 11. 10; 『한국전란 1년지』, p.D2; 『한국전란 2년지』, p.D4; 『한국전란 3년지』, p.D1; 『한국전란 4년지』, p.D2; 『한국전란 5년지』, p.D3.

51) 육본 인참부, 『포로관계철』, 1953-54, 육본 기정단.

52) 이태, 『남부군 비극의 사령관 이현상』, 학원사, 1990, pp.31-32.

53) 허찬형·이찬근 증언, 2006. 8. 10.

54) 「인민군 포로도 억류됐다」, 『한겨레21』 326호, 2000. 9. 28.

장관이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측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공장 건설 등 대규모 지원을 할 뜻이 있다”고⁵⁵⁾ 밝힘으로써,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방식이 적극 검토되었음이 알려졌다.

서독에서는 이미 1960년대 초부터 정치범거래가 있었다.⁵⁶⁾ 이는 1969년 브란트(Willy Brandt)의 동방정책과 대표적인 성과의 하나인 1972년 동·서독 사이에 기본조약을 맺기 이전부터 추진되었다. 1950년대부터 수 많은 탈출자가 발생했음에도⁵⁷⁾ 불구하고, 연금수혜자들의 친지 방문 형태이지만 매년 70~80만 명이 동독을 방문할 수 있었다. 또한 서독 정부의 정치범 석방거래 이전인 1962년 서독 개신교 교회에서 비료와 옥수수, 석탄을 제공하여 동독에 구금되어 있던 150여 명의 교회관계자를 석방시킨 적이 있었다.⁵⁸⁾

동서독 사이의 본격적인 정치범 거래는 1963년 동독 변호사 포겔(Wolfgang Vogel)이 1962년 체포된 미국 첩보항공기(U-2) 조종사인 파워스(Gary Powers)와 1957년 미국에서 체포된 소련 스파이 아벨(Rudolf I. Abel)과 교환을 위해 서독 정부와 동독 비밀경찰 슈타지(Stasi)와 협상하여 교환시킴으로써 시작되었다. 이후 서독에서 전독성

55) 「납북자·국군포로 상봉·송환 등 대가…정부, 北에 현금·현물 지급 검토」, 『한국일보』 2007. 3. 13.

56) 프랑스 정부는 1954년에서 1976년 사이 베트남 정부에 프랑스군 묘지 유지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고, 이에 대해 베트남에서는 외국인부대원 1,000여 명을 송환한 적이 있었다(Task Force Omega, INC., “Freedom Now for abandoned POWs”(www.taskforceomegainc.org).

57) 1961년 베를린 장벽 구축 이전에는 서독으로 탈출도 용이해서, 1956년에 279,189명, 1960년 199,188명이 탈출했다. 심지어 동독에 유학하고 있던 북한유학생 중 신동삼, 김재철 등 약 20명이 이미 1957년말에서 1960년까지 서독으로 탈출했다(김학성, 『동서독 인적 교류 실태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6, pp.14-15, 20-22; 『연합뉴스』 2005. 9. 29; 통일연구원 편, 『북한체제 형성과 발전과정 구술자료』, 선인, 2006, p.178, 207).

58) 손기웅,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 통일연구원, 2005. 8, p.1.

(Gesamtdeutsch), 후에 내독성(Innerdeutsch)이, 동독 측에서는 슈타지가 각각 위임을 한 서독 개신교연합회(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소속 변호사들과 동독 측의 포겔 변호사가 석방협상을 담당했다.⁵⁹⁾

당시 서독 정부는 이를 ‘특별한 인도적 노력(special humanitarian efforts)’으로 간주하여 정치범의 인권에 관심이 있었지만, 동독은 체제 유지에 해롭다고 여겨지는 자들의 석방을 통해 비판세력의 약화를 피하거나 인도적 양보를 통한 공산정권의 관용성 과시 외에 ‘특별한 사업(special business)’으로 경제적 이익에 중점을 두었다. 그 대상으로 동독에서 일반 형사범을 끼워 방출하려고 시도한 적도 있었지만, 서독 정부는 서독으로 탈출하려다 체포된 자와 그들을 돕다 체포된 자를 최우선적으로 했다.⁶⁰⁾

동독 정부와 정치범 거래에 참여했던 멘데(Erich Mende) 전 서독 부수상은 이러한 거래가 노예거래와 흡사한(very close to a slave trade) 것으로 평가했다.⁶¹⁾ 하지만 서독 의회 양독관계위원회(the Inter-German Relations Committee) 위원장 레데만(Gerhard Reddemann)은 독재국가와의 협상에서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경제적 거래를 했다고 말했다.⁶²⁾

59) 제성호, 「동서독 간의 정치범 석방거래와 북한 억류자문제 해결방안」, 『인도법논총』 26, 2006, pp.71-72; Mary Elise Sarotte, “Take No Risks(Chinese): the Basic Treaty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Relations”, GHI Bulletin Supplement 1, 2003, pp.110-111; Craig Whitney, *Spy Trader*, Random House: 1994.

60) 제성호, 「동서독 간의 정치범 석방거래와 북한 억류자문제 해결방안」, 『인도법논총』 26, 2006, pp.69-73; http://www.notaufnahmehager-berlin.de/en/ways_to_the_west_342.html(검색일: 2008. 5. 31).

61) James M. Markham, “Germany’s Trafficking in People,” *The New York Times* July 29, 1984.

62) “West Germans Buy Release of Prisoners”, *The New York Times*. August 13, 1983.

1963년 서독 정부는 32만 마르크의 현금을 지불하고 8명의 정치범을 귀환시켰다. 이 때 1인당 4만 마르크는 오늘날 약 1.2억 원에 해당되는 비용이었다. 이 후 서독 정부는 동독 정부에 1964년 880명에 3,500만 마르크, 1965년 1,160명에 4,100만 마르크 등 1989년 통일 직전까지 총 34.6억 마르크(약 1조 7,500여 억 원) 상당의 경제 지원을 해주고 동독 정치범 33,755명의 석방과 215,019명의 이산가족 결합을 성사시켰다.⁶³⁾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이러한 정치범 거래가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지속되었다는 점이다. 즉 이 거래는 1963년 출범한 에르하르트(Ludwig Erhard) 정권시기부터 시작하여 1974년 브란트 수상 of 보좌관 이었던 귀욤(Gunter Guillaume)이 동독 비밀경찰 요원이었던 사실이 드러나 그의 정권이 붕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슈미트(Helmut Schmidt) 정권 아래에서도 1981년 귀욤을 교환하면서까지 이를 계속했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거래가 이미 1980년대 중반 널리 알려진 후에도 지속되었다.⁶⁴⁾

이러한 정치범 거래는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통일 후 현물지원 방식의 한계도 드러났다. 서독 정부는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처음에 현금을 지급했지만, 그 돈이 일반 동독인에게 전달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 현물을 지급했다. 이 때 석방될 정치범의 수가 확정되면 독일개신교연합회의 사회구호복지기구(Diakonie)에서 담당했

63) 손기웅, 「동서독 간 정치범 석방거래」, p.7; 김학성, 『동서독 인적 교류 실태연구』, p.113; “Lessons for Seoul’s NK Policy from German Experience”, *Korea Times* 2006. 4. 19.

64) 김학성, 『동서독 인적 교류 실태연구』, p.17; “West Germans Buy Release of Prisoners”, *The New York Times* August 13, 1983; “Political Prisoners for Sale: Jacob Young with Zofia Smardz in Bonn”, *Newsweek* August 29, 1983, p.32.

다.⁶⁵⁾ 처음에는 동독 정치범의 석방을 대가로 몇몇 동독회사에 물품을 제공했으나, 이미 1965년부터 동독 측은 소비제품보다 외환절약 효과가 크고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원유, 다이몬드, 수은, 구리 등 산업용 원자재를 선호했다. 하지만 실제로 동독에서는 서독의 지원 물품 가운데 대부분을 현금화하기 위해 국제상품시장에 내다팔아, 그 대금이 1974년 이래 호네커(Erich Honecker) 동독 전 수상의 통제를 받는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한다. 이 자금 중 일부는 원자재 수입대금, 동독경제의 유동성 확보에 이용되었지만, 3/5 이상은 동독인을 위한 물품 구입이 아니라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투자되어 결국 11%만 소비재 수입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⁶⁶⁾

따라서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송환받은 대신 북한에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를 지원하는 방안은 동서독 간 정치범 석방거래를 원형으로 하고 있지만 현물 제공의 현금화에 의한 군사비 전용 등의 우려를 피하면서, 국군포로의 존재와 규모 등을 둘러싸고 휴전협상 당시나 최근 각종 남북회담에서와 같은 대립을 반복하지 않으면서 북한 당국을 설득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외에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국군포로 가족에게 인도적 지원을 하는 방식도 적극 고려할만 하다. 왜냐하면,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의 대부분은 그곳에서 결혼을 했고 자녀들이 있다. 설령 탈북을 해도 이미 결

65) "Upheaval in the East", *The New York Times* February 2, 1990; 페터 가이(Peter Gey), 「1949-1989년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간의 경제교류」, 2003, 한독경상학회 국제심포지움; 손기웅,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 p.7.

66) 손기웅, 「동서독 간 정치범 석방거래」, pp.7-9; Matthias Judt, "Häftlinge für Bananen? Der Freikauf Politischer Gefangener aus der DDR und das Honecker-Konto", http://www.vswg.uni-bonn.de/abstract_judt.htm(검색일: 2008. 5. 28).

혼한 아들과 딸 전 가족이 오지 않는 한 새로운 이산가족이 될 뿐 아니라, 남아 있는 가족에게는 정치범수용소, 교화소, 강제이주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북한에 거주하는 국군포로 가족에게 탈북한 경우 지원금을 고려하여 지원을 하는 방식도 고려될 사항이다.

제2절 북한의 입장 변화 촉구

1. 국군포로 문제는 전쟁유산 청산의 핵심

미귀환 국군포로 문제는 엄연히 현존하는 전쟁유산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냉전시대의 대결논리가 아닌 진정한 남북 간 화해협력과 인도주의 관점에서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또한 이 문제의 해결은 남북한의 친화력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⁶⁷⁾

남북관계가 북한의 핵개발과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교착되면서 이전에 이산가족 상봉형태의 교류마저 중단되었다. 하지만 과거와 같이 냉전적 대결과 도발을 계속하려는 것이 아니면, 전쟁의 유산을 치유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이 지나도록 남아 있는 전쟁유산의 청산과 남북한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미귀환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등을 해결하자는 것이다.

67) 홍민, 「남북주민들의 친화력 증진을 위한 사회·문화분야 협력」, 통일연구원,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전략과 과제」, 플라자호텔, 2014. 4. 8.

2년 간의 기나긴 휴전협상이 종결된 후, 송환된 포로와 잔류한 포로, 인도로 간 포로 등을 모두 합하면 약 13,000명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필자의 주장대로, 전체 포로의 규모를 1951년 6월 당시 북한군 총사령부의 보도에 따르면 더욱 그 차이가 많이 난다. 북한에 살고 있는 국군포로들은 1972년 7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될 때, 꿈에도 그리던 남쪽 고향에 갈 날이 멀지 않았다고 기뻐했다고 한다. 그후 김대중 대통령의 북한 방문 때도 희망을 가졌다고 한다.⁶⁸⁾

2007년 4월 10일에서 13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된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남한 측은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의 이산가족 상봉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별도 협의 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북한 측은 이산가족 문제에 포함시켜 해결하자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여 쌍방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쌍방은 “전쟁 시기 및 그 이후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주소확인 문제를 이산가족 문제에 포함시켜 협의·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합의했다.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화해의 첫 단계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제의를 했다.” 그러나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는 구체화되지 못했다.

다만 2000년 6월 남북공동선언 이후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비공식적으로 포함했다. 예를 들면, 1950년 8월 국군에 입대했다가 전사자로 처리되었지만 포로가 된 최인권은 2001년 2월, 3차

68) 유영철, 『지옥의 별밤 아래에서』, p.132, pp.210-211.

이산가족상봉 북한 측 방문단에 포함돼 남한에 왔다.⁶⁹⁾ 지난 2010년 10월 30일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전사자로 처리된 이종렬, 방영원, 윤태영, 이원직 등 국군포로 4명이 북측 상봉자 중에 포함되었다.⁷⁰⁾

이처럼 그동안 국군포로와 납북자 가운데 일부 이산가족 형태로 상봉하는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다시 닫혔다. 이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단절된, 막힌 문을 열어야 한다.⁷¹⁾ 고령의 생존자 상봉도 시급하지만, 국군포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포로 규모와 생사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귀환 국군포로 문제는 북한 측이 국군포로의 존재를 부인하는 입장에서 휴전협상 당시나 군사정전위원회에서와 같은 대립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을 반복해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북한에 남아 있는 포로의 규모와 생존자의 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북한 당국은 냉전시대의 대결논리가 아닌 미귀환 국군포로의 문제를 냉전시대의 희생자들이라는 인식 위에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생존확인과 상봉, 생존한 포로의 의지에 따라 교환 가능한 규모 등을 논의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이 문제의 해결은 남한의 마음을 사는 방안이기도 하다.⁷²⁾

69) 「북측방문단 최인권씨 형제 상봉/돌아온 6·25 전사자」, 『조선일보』 2001. 2. 28.

70) 「상봉 정례화하고 국군포로 더 포함시켜야」, 『국민일보』 2010년 11월 1일자 사설. 2000년에서 2010년까지 정부는 북한 당국에 국군포로 121명의 생사 확인을 요청하여, 이 가운데 28명의 생사 여부를 확인받았다(조성환,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방안 모색」, 『통일문제연구』 56, 2011 하반기, p.310).

71) 박명규, 『남북경계선의 사회학』, 창비, 2012, p.376.

72) 한반도선진화재단 편, 『대한민국의 길』, 한국학술정보, 2012, pp.36-37. 탈북 국군포로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미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포로로 억류되어 있는 자들에게 심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과 후 공산대학에 입학시켜 사상교육을 강화시킨 적이 있었다고 한다.

북한 정부는 전시에 북한군 총사령부에서 발표한 국군포로 가운데 송환된 8,000여 명을 제외하고 해명할 의무가 있다. 구 소련 측 자료에도 나오는 국군포로 중 북한 억류 규모인 13,094명에 명단과 생존여부를 알려야 한다. 시베리아 이송설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하다.

북한 측은 좌익 빨치산에 대해서는 ‘전쟁포로’라고 주장하면서,⁷³⁾ 전쟁 당시 북한의 후방에서 체포된 반공유격대는 포로가 아닌 간첩으로 처리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촉진시키고 ‘분단피해자의 인권 존중’⁷⁴⁾이라는 인도적 고려에 의하여 비전향 장기수를 송환했다. 김영삼 정권 때,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의 북송방침을 확정하여, 1994년 3월 19일 그는 북한 측의 환영을 받으며 판문점을 넘어 북으로 갔다.⁷⁵⁾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후인 9월 2일, 비전향 장기수 63명을 ‘화해의 상징’으로 송환했다.⁷⁶⁾ 북한 당국은 이러한 조치가 남북 사이의 대결관계를 화해·협력관계로 바뀌어 가기 위한 결과였음을 되새겨야 한다.

북한 언론에서는 비전향 장기수들이 북한에 귀환하여 “보람찬 삶과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⁷⁷⁾ 국군포로에게도 남한으로 돌아와 여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들은 2000년 9월에 송환된 비전향 장기수들의 나이를 분석하여 평균 74살 이상이라고 소개하면서, 70대와 80대가 전체의 76% 이상

73) 「전쟁포로인 비전향 장기수들의 송환은 실현되어야 한다」, 『로동신문』 1998. 1. 29.

74) 임동원, 『피스 메이커』, p.474.

75)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 북송 전격 결정」, 『동아일보』 1998. 2. 2.

76) 임동원, 『피스 메이커』, p.474. 이후 ‘전향 장기수’도 추가로 송환하려 했다(법무부는 1956년부터 사상범 가운데 전향자와 비전향자를 구분했다. 김귀옥, 「1960~70년대 비전향장기수와 감옥의 일상사」, 『역사비평』 94, 2011. 2, p.262).

77) 「비전향 장기수들이 보람찬 삶과 행복을 누리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2000. 11. 27.

을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송환된 한 장기수가 79세를 일기로 죽자 “남조선의 감옥에서 당한 악랄한 고문과 정신·육체적 고통에 의해 생긴 불치의 병”으로 돌렸지만,⁷⁸⁾ 국군포로나 피랍된 사람들도 모두 80세를 넘어 90세를 바라보는 연령에 다다르고 있음을 직시하여 포로와 납북자 송환문제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지난 1999년 3월 탈북한 손재술은 1년 뒤 지병으로 사망했다.⁷⁹⁾

2. 수용소 사망포로의 유해 발굴

포로수용소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유해발굴과 함께 이를 귀환시키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⁸⁰⁾ 북한 측은 휴전협상 당시는 물론이고 정전 후에 군사정전위원회에서도 줄곧 국군포로를 전원 송환하였던 것으로 주장하여 왔다. 국군포로 중 사망자도 휴전 후 1953년 10월 3일까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알려진 국군포로 가운데 억류 중 사망인원은 868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억류 중 사망 인원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주요 전투지의 유해발굴을 시도하면서 벽동 포로수용소, 천마포로수용소 등 수용된 국군포로 인원이 많았고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던 수용소를 우선하여 발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⁸¹⁾

미국에서도 남북전쟁을 치른 후 남부 ‘전몰자묘지미화협회,’ ‘남부동맹

78) 『조선중앙통신』 2000. 9. 2, 2001. 5. 1.

79) 『동아일보』 2001. 11. 24.

80) 이미 2007년 11월 제2차 남북 국방장관급회담에서 전쟁 시기 발생한 일반 전사자의 유해발굴 문제를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국방백서』, 2012, p.113).

81) 조성훈, 「6·25전쟁 중 북한포로수용소 실태와 국군포로 사망자 유해발굴 가능성」, p.183.

미망인·고아구호바느질 모임’ 등에서는 남군 병사들의 묘지 가까이 있는 북군 병사 무덤의 풀을 뽑아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갈등이 있었다. “나 같으면 2센트만 받아도 북군 병사 묘지를 모조리 파서, 그 놈들의 뼈를 쓰레기장에 던져버리겠어요!”라고 반대파도 많았다. 이에 대해 어떤 부인은 “어쩌서 그러한 상처를 다시 건드리냐”고 힐난하기도 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주인공인 멜라니는 “여기 모인 여러분 중에는 자신들의 아들이나 남편이나 오빠나 동생 되는 분이 어느 곳에 묻혀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라면서 “우리들은 풀을 뽑는 것뿐만 아니라 꽃도 심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⁸²⁾

이제 남한에서도 인민군 무덤에 국화꽃 한 송이를 꽂아 주고, 북한측도 한국군 무덤을 확인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북한군은 남진 중 전사자를 현지에 묻고 인적 사항과 매장 약도를 덧붙여 ‘희생자 등기표’를 작성했다. 그런데 일부는 아군의 공격으로 후퇴하면서 ‘희생자 등기표’가 노획되었다. 예를 들면, 북한군 제3보병사단 3연대 1대대 소속으로 공격시에 총을 맞아 희생되었던 이재욱(25세, 평남 농강군 양곡면 마영리)은 경남 창녕군 남곡면 신암리에 매장되었다. 김덕호(평북 의주군 광평면 청성리), 이종억(황해도 벽성군 연천면 장방리), 최강북(황해도 장평군 용남면 단정리) 등도 같은 곳에 묻혔다. 이외에도 파주 적군 묘지에 매장되어 있는 북한군 유해와 거제도 포로 수용소 등지에 수용되었던 공산포로 사망자 정보에 대한 제공도 가능할 것이다.

82) 이백만, 『불멸의 희망』, 21세기북스, 2009, pp.390-395.

구이기도 하다.⁸³⁾ 일본에서도 북한에 의해 납치된 7인의 피해자가족이 2001년 2월 하순에 미 정부, 의회, 유엔에 “납치는 테러”라고 호소를 했다.⁸⁴⁾

전시 납북자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미 1950년대에 국제적십자사와 유엔에 호소했다. 1954년 5월 당시 변영태 외무부장관은 국제적십자사에 서한을 보내 피랍민간인의 귀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1956년 5월 2명의 국제적십자사 대표가 한국을 방문하여 대한적십자사와 협의하여 피랍 인사들이 북한에 살고 있는지 생존확인을 위해 7,034명에 대한 조사를 국제적십자사에 보냈으나 북한에서 답신이 오지 않았다. 그 후 정부는 1957년 7월 뉴델리에서 열린 국제적십자사 회의에서 이들의 귀환을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을 요구했다. 1958년 11월 유엔한국대표부에서 전쟁 중 북한에 의해 강제로 피랍된 17,500명의 문제를 제기했으나,⁸⁵⁾ 북한의 협력을 끌어내지 못한 채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는 6·25전쟁납북인사가족회를 비롯해 1969년 12월 11일 피랍된 후 돌아오지 못한 KAL기 납북자⁸⁶⁾ 가족, 북한에서 탈출한 오길남 가족 상봉을 위한 ‘통영의말송환대책위원회’ 등에서도 미 북한인권위원회, 국무부 인권담당자, 의회에 호소했다. 또한 영국·독일 등의 인권단체 등과도 국제적인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6·25전쟁납북인사가족회의 거듭된 노력의 결과 2011년 12월 13일(현지 시간) 미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 민주당 의원 37명이 공동

83) 장형수, 「통일의 국제적 이익 공유를 위한 다자간 경제협력 모색」, 통일연구원,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전략과 과제」, 플라자호텔, 2014. 4. 8.

84) 西岡力, 『납치가족과의 6년전쟁』, 東京: 扶桑社, p.127.

85) Records of Dept of State Political Relations between Korea and Other States 1955-1959, NA.

86) 북한 측은 승무원과 승객 50명 가운데 11명을 돌려보내지 않았다.

발의하여 한국전쟁 국군포로와 실종자 및 민간인납북자의 즉각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 제376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⁸⁷⁾ 하지만 국제사회의 노력에 북한의 변화는 쉽지 않을 것이다. 유엔인권이사회는 2013년 3월 21일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를 설치해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할 임무를 부여했다. 특히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침해에 대한 완전한 책임규명을 염두에 두었으나, 북한 정부는 조사위원회의 입국이나 조사협력을 거부했다.⁸⁸⁾

북한도 전쟁 중 월남자를 “기만과 또 강제로써 북조선의 수십만 주민들을 남으로 납치했다”거나 미군에 의한 양민 학살을 유엔에 호소했다.⁸⁹⁾ 북한에서는 1994년 11월 1일 비전향 장기수 송환을 위해 조선직업총동맹의 성명을 통해 세계 각국의 노동자 조직들이 국제적 지원운동을 벌여줄 것을 호소했다.⁹⁰⁾ 비전향 장기수 출신인 김인서의 송환을 위해 북한 측은 그의 송환을 요구하는 편지를 유엔 인권위원회나 국제적십자사(ICRC) 측에 계속 발송했고, 북한에 살던 딸들이 클린턴 미 대통령과 힐러리 여사에게 그의 송환협조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다.⁹¹⁾

돌아오지 못한 국군과 미군 포로 문제에 대해, 상술한 대로 정전 후에 한국 정부와 유엔군사령부는 주로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해결을 모

87) 6·25전쟁납북인사가족회, 「미 하원 결의안 R. Res. 376 통과 과정」, 2014.3.28.; 『한국일보』 2011. 12. 14.

88) 니시오카 츠토무, 「납치문제를 중심으로 본 COI설치의 배경과 의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국제공조를 통한 민간인납치피해 문제의 해결」, 2013, pp.97-98; 통일연구원, 『2014년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2014.

89) 「유엔 총회 의장·안전보장이사회 의장 귀하」, 『조선중앙년감』 1951-1952, pp.113-115.

90) 『연합뉴스』 1994. 11. 2.

91) 『한겨레』 1997. 7. 14.

색했으나, 성과가 없었다. KAL기 납북자 문제처럼 1970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항공기불법탈취에 관한 규탄결의안 제286호’가 만장일치 통과되는 성과가 있었다. 평양 외국문출판사에서 김일성 업적을 스페인어로 번역하여 스페인어권에 보급하는 일을 담당했던 베네수엘라 출신 아리 라메다가 1967년 9월 27일 ‘국가의 적’으로 체포되어 20년 금고형을 받고 강제노동수용소에서 억류되었다. 이에 대해 국제인권협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1974년 5월 석방된 적도 있다.⁹²⁾ 그러나 독립적인 북한에는 국제사회에 대한 호소가 효과적이지 않다. 더욱이 북한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중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전혀 적극적이지 않다.

유엔참전국 가운데 실종자 문제가 남아있는 우방국과 공동협조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미 국방부 포로실종국(DPMO)과도 상호 긴밀히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과는 유해발굴 업무와 관련하여 협조를 진행하고, 중국·러시아·동유럽 국가 등에서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 베트남전 시기의 미군포로 및 실종자 추적을 위해 관련국 해당 문서 수집, 관련자 인터뷰를 진행해 왔다.

미·러합동위원회 한국전쟁실무그룹에서 추적하고 있는 실종자는 전체 8,177명⁹³⁾ 가운데 포로수용소에서 수용 중 사망자 2,119명, 북한 지역에 매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미군 2,096명, 항공기 격추 지점과 연관된 매장자 412명, 북한 외 지역 53명, 죽음의 행진 중 사망자 959명

92) 「KAL기 납치피해자 못 돌아올 이유없다!」 (<http://www.konas.net>, 검색일 : 2014. 3. 6.); 국방부 정훈국, 『붉은빛 그 하늘아래』, 1984, pp.167-168.

93) 행방불명자 규모를 8,075명으로 파악한 경우도 있다(Anne Leland·Mari-Jana “M-J” Oboroceanu, “American War and Military Operations Casualties: Lists and Statistic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CRS 7-5700), Feb. 26, 2010, p.10).

등 5,945명을 제외한 2,100여 명이였다.⁹⁴⁾ 이 가운데 미·러합동위원회의 발족 이래 그 동안 문서적 접근과 인터뷰를 통해, 일부 실종자에 대한 정황 정보를 수집했고, 그들이 사망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동안의 실종자 확인을 통해 미군 측은 약 300건의 미군 실종자에 대해 추적을 계속하고 있다.⁹⁵⁾

미국 정부는 미군포로와 실종자를 추적하기 위해 러시아와는 물론이고 공식적으로는 1953년 정전과 함께 모든 문제는 종결되었다는 중국 측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중국 외교부와 인민해방군을 비롯해 중국적십자회·재향군인회 등과도 접촉했다. 그 결과 2000년 1월 포로실종국은 중국 외교부의 협조를 통해 포로수용소 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역자들과 인터뷰를 할 수 있었고, 9월에도 4명의 전역자와 인터뷰를 했다. 또한 ‘합동 포로·실종자 발굴부대(Joint POW/MIA Accounting Command, PAC) 팀은 유해발굴을 진행했었다.

미 국방부 포로실종국과의 협조를 넘어서 남한에서 발굴되는 유엔군 유해 발굴과 함께 북한 지역 유엔군 실종자와 유해발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미 1964년 8월 11일 공산군 측에 전쟁 중 실종자로 한국군 외에도 미군 389명, 터키군 167명, 영국군 16명, 남아공화국군 8명 등을 요구했다.

2000년 12월 영국에서도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실종된 영국군인 유가족 100여 명이 북한과 수교를 계기로 실종자에 대해 영국 정부가 다

94) “The Transfer of US Korean POWs to the Soviet Union,” Aug. 26, 1993. 이미 1994년 2월 제8차 미러합동조사위원회에서 한국전쟁 중 미군 실종자 규모로 2,000여 명이 언급되었다(“8th Plenary Session Minutes”, Feb. 28, 1994).

95) 미 국방부포로실종국에서는 한국전 행방불명자(the unaccounted)로 2014년 3월 28일 현재 7,888명으로 발표했다.

시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영국 정부가 강제수용소에 감금됐거나 강제노역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 실종군인들의 행방에 대한 답변을 북한 정부에 요구하기를 원했다. 영국 전국전쟁포로협회는 영국과 미국에서 비밀해제된 기록들을 조사한 결과 실종된 영국군들이 북한과 중국, 소련에 남아있었다는 증거를 찾았다고 주장했다.⁹⁶⁾

2.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 기대

정전 60주년이 지났으나,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는 생사확인도 안되고 있다. 휴전협상에서 공산군 측은 진심으로 합의에 이르러는데 관심이 없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모두 다른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는 지적이 타당한 것 같다.⁹⁷⁾ 미귀환 국군 및 유엔군포로 문제는 휴전협상 시기, 정전협정 후에도 쌍방이 크게 대립하였던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이 문제는 아직도 분명히 밝혀지지 않는 한국전쟁 중 미군포로와 실종자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포로에 관한 정전협정상의 해결해야 할 주요 부분이고, 인도주의적 문제이다.

전쟁 당사국이었던 중국·러시아 등의 책임도 크다. 전쟁 당시 중국군은 북한군과 함께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전쟁포로 관리처’ 혹은 관리훈련처를 편성하여 공동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정전협상 당시 포로의 명단을 교환할 때나 수용소를 관리할 때, 그들은 전체 포로의 규모나 수용 중 북한군 편입, 사망자 등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고 있었

96) 이에 대해 영국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실종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종전 수년 후에도 조사를 실시했으나 실종자들이 잡혀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2000. 12. 18.)

97) William H. Vatcher, JR., *Panmunjom*, p.211.

을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른 그들의 책임있는 해명이 필요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전쟁 기간 중 중국공산당 중앙과 마오쩌둥, ‘지원군총사령부’는 포로 정책을 중시하여 ‘관대한 정책’을 실시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정책에 부응하려면, 그들은 최소한 전쟁 중 그들 군대가 획득한 국군포로 37,532명 가운데 미 송환된 규모에 대해서 해명할 책임이 있다. 1951년 1월 19일 평터화이가 마오쩌둥에 보내는 전문 속에 나타난 한국군 사병 2만 명을 북한군 5개 군단에 나누어 배치하는 안을 제의한 점이나, 중국 출신 연구자는 김일성이 마오쩌둥에게 미귀환 국군포로 규모를 6만 명이라고 진술했던 주장 등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⁹⁸⁾ 더욱이 전쟁 중 중국군의 전과에는 국군의 투항자는 283명에 불과하다.

북한이 한국전쟁 관련 문서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전쟁 당사국이고 ‘조·중연합사령부’를 운용한 중국군의 문서는 전쟁전개 과정, 포로와 실종자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자료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북한을 의식해 6·25전쟁 관련 자료를 매우 제한적으로 공개한다. 이미 6·25전쟁 당사국인 중국과 국교 정상화 당시 포로와 실종자 문제를 검토해야 했으나, 이 문제는 소홀히 되고 말았다.

1955년 8월 중국 정부가 억류하고 있던 미군 조종사 11명을 석방했을 때, 조정환 외무장관 서리는 이들의 석방을 환영하면서, 중국 정권이 아직 불법 비인도적으로 2,263명의 국군 포로와 강제로 납치해간 17,504명의 민간인 등 모두 19,767명의 국군 포로 및 피랍치자를 즉시

98) 정전 후 마오쩌둥은 북한 최용건이 방문했을 때 국군포로 문제를 언급한 적도 있다는 의명의 진술도 있다.

로 석방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⁹⁹⁾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확대하기 위해,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이었던 2013년 6월 29일 중국을 방문 중 류옌둥 중국 부총리와 환담하면서, 경기도 파주 적군 묘지에 매장되어 있는 6·25전쟁 중 중국군 유해 367구를 송환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 양측은 수차례 실무협의를 갖고 중국군 유해 송환에 대해 합의해, 2014년 3월 28일 당초 제안에서 늘어난 437구를 중국 정부에 인도했다. 중국군 유해 송환이 한국 측의 일방적 송환에 그치지 않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한국전쟁 유산의 청산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중국군이 보존하고 있을 휴전협상과 국군포로 관련 자료가 교환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국군포로 가족들의 탈북 시 한국으로 송환을 지연시켜 중국 내에서 대기 기간이 너무 장기화되고 있다. 심지어 2006년 9월 중국 공안 당국은 국군포로 가족 9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으며, 2009년 8월 중국으로 탈출한 국군포로 정 모를 역시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냈다.¹⁰⁰⁾ 중국 공안 당국은 국군포로 및 가족은 일반 탈북자와 구별하여¹⁰¹⁾ 한국으로 신속한 송환에 적극 배려해야 한다.

한편 러시아 정부도 휴전협상, 군사분계선, 포로 등의 문제에 대해 자료 공개를 꺼려하고 있다. 1954년 2월 동부 시베리아 마가단수용소에서 귀환한 독일군 포로는 “1951년 9월 남한군 포로 50명을 마가단의 수용

99) 조정한 외무장관서리, 「괴뢰집단은 납치인사와 전쟁포로를 석방하라」, 『주보』 170, 1955. 8. 10, pp.7-9.

100) 『노컷뉴스』 2007.3.13; 『동아일보』 2010. 2. 26, 8.5.

101) 중국 정부는 일반 탈북자에 대해서 난민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불법 월경한 사람들이라는 인식 아래 북한으로 송환한다는 입장이나, 이는 ‘난민강제송환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윤여상·박성철·임순희,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과 인권실태』, 북한인권정보센터, 2013, pp.28-29).

소에서 목격했으며, 그들은 6·25전쟁 초기에 북한군에 포로가 되었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러시아 국방부는 국군포로의 시베리아 이송 설에 대해서는 이를 부인하면서 관련 자료의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국방부 자료에 의하더라도 국군포로 규모는 41,000명으로 파악되었는데, 귀환자 등으로 파악된 11,000명을 제외해도 미해명된 포로는 약 3만 명에 이른다. 그런데 1953년 12월 평양주재 소련대사관에서 보낸 문서에는 13,000여 명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남아 있다고 명기되어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하다.

러시아로부터는 전쟁 중 북한에서 받은 포로관련 보고문서의 확인 외에 국군포로 가운데 시베리아로 이송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¹⁰²⁾ 전쟁 초기 한때 소련 극동군총사령관 직속 한국전 전담 정보반에서 장교로 근무한 적이 있는 코로트코프 박사는 자신의 직무중 하나가 유엔군 포로에 대한 심문이었다면서 당시 소련군 포로 담당 장교로부터 한국군포로 이송에 관한 얘기를 분명히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전 북한군 간부도 구소련이 한국군포로를 미군포로 등과 함께 해-육상을 통해 비밀리에 소련으로 이동시켰다고 주장했다.¹⁰³⁾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2006년 이래 러시아와 매년 상호 학술교류를 해왔으나, 러시아 측의 민감한 반응을 고려해 국군포로 관련 사료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못하고 휴전협상 관련 사료의 교환을 요구했다. 이

102) 미 국방부 포로실종국(DPMO)에서 미군 실종자를 추적하던 중 구 소련문서에서 발견된 양옥석(Yang Ok Sok) 상사는 1951년 4월 30일 선전 전단을 살포하는 과정에서 원산 남쪽 50마일에서 수송기(C-47)가 추락하여 미군 승무원과 함께 포로가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DPMO, “Next of Kin Notification: Master Sgt Ok Sok Yang” April 15, 2008). 휴전 후 돌아오지 않았던 그가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에 대해 추적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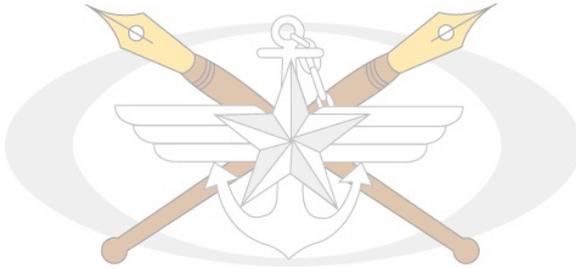
103) 「한국군포로 수천명 6·25때 구소 이송」, 『조선일보』, 1993. 11. 18 ; 「6·25 한국군포로 중앙아 강제이송」, 『서울신문』 1994. 10. 26.

미 2012년 서울에서 학술 교류 시에도 국군포로의 소련이송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다행히 2013년 9월 23~28일간 ‘한·러 국방부간 2013년도 국방교류협력계획’에 의해 러시아 군사학술연구소를 방문하여 정례 군사학술교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측으로부터 6·25전쟁기 포로 연구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노력하자는 답변을 받았다.

2013년 9월 24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양국 군사학술 협력회의에서 자료수집·교환, 발전방안 등을 토의했다. 러시아 측은 자료수집·교환에는 동의했으나, 군사학술연구소·문서보관소 내부 수리공사를 이유로 실제 교환된 것은 없었다. 다만, 양국 공동의 ‘자료조사연구 프로젝트’의 추진을 모색하자고 했다. 필자는 “6.25전쟁기 휴전협상 쟁점 재조명” 가운데 미귀환 국군포로의 실태와 국군포로의 시베리아 이송설의 핵심 사항을 포함시켜, 러시아 측의 관심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N. I. 니키포로프 부소장은 포로 문제는 연례 학술교류 차원과는 달리, 새로운 ‘전쟁포로자료조사연구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동안 러시아 국방부는 국군포로의 시베리아 이송설을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한국 정부도 러시아에 포로 문제에 대해 공식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으므로, 러시아 측 태도 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북한에 남아 있을 포로에 대한 정보를 탈북 국군포로와 일반 탈북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것을 벗어나서 중국과 러시아 정부에 공식 요청해야 한다. 군사편찬연구소를 비롯한 한국 연구자들이 중국군 당국의 공식 협조를 받아 정전협상과 포로수용소 관련자에 대해 증언을 청취하고 옌빈 지역에서 중국군으로 참전한 조선동포 가운데 관련자에게도 체계적인 증언청취가 필요하다. 비공식적으로 조선족 출신 참전자에 대한 구술

사업은 일부 있었으나¹⁰⁴⁾ 중국군 당국의 공식적인 승인없이는 이들과 접촉하여 증언을 청취할 수 없다. 예를 들면, 6명의 한국전 참전 미군 퇴역 군인들이 1952년 중국 상공에서 피격된 C-47기 탑승자 가운데 2명의 조종사와 북한 내 중국군 관할 수용소에서 억류되어 있던 중 실종된 병사들의 정보 수집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였던 경우와¹⁰⁵⁾ 같은 노력이 가능할 것이다.



104) 정현수 외, 『중국조선족 증언으로 본 한국전쟁』, 선인, 2006.

105) *New York Times* Jan. 9, 2001.

부 록

동문회 교우 회고 (상기분) (백제시대부터 2000년)

번호	내역	비고
1	교우회 발족후의 인문적사항 및 교우회 발족후의 활동상의 전경	100
2	교우회 발족후에서의 내세의 신인기 전경과 인문적활동의 개황	10
3	귀여운 신인	10
4	신인상 차이의 향의 구별 특징	10
5	신인상 차이의 향의 구별 특징	10
6	신인상 차이를 선으로 한 인문적향은 거의는 수반으로 한 세후의 향연이다	10
7	신인상 차이를 선으로 한 인문적향은 거의는 수반으로 한 세후의 향연이다	10
8	신인상 차이를 선으로 한 인문적향은 거의는 수반으로 한 세후의 향연이다	12
9	신인상 차이를 선으로 한 인문적향은 거의는 수반으로 한 세후의 향연이다	10
10	신인상 차이를 선으로 한 인문적향은 거의는 수반으로 한 세후의 향연이다	10
11	신인상 차이를 선으로 한 인문적향은 거의는 수반으로 한 세후의 향연이다	10

신인상 차이를 선으로 한 인문적향은 거의는 수반으로 한 세후의 향연이다

1. 신인상 차이를 선으로 한 인문적향은 거의는 수반으로 한 세후의 향연이다
2. 신인상 차이를 선으로 한 인문적향은 거의는 수반으로 한 세후의 향연이다
3. 신인상 차이를 선으로 한 인문적향은 거의는 수반으로 한 세후의 향연이다
4. 신인상 차이를 선으로 한 인문적향은 거의는 수반으로 한 세후의 향연이다
5. 신인상 차이를 선으로 한 인문적향은 거의는 수반으로 한 세후의 향연이다
6. 신인상 차이를 선으로 한 인문적향은 거의는 수반으로 한 세후의 향연이다
7. 신인상 차이를 선으로 한 인문적향은 거의는 수반으로 한 세후의 향연이다
8. 신인상 차이를 선으로 한 인문적향은 거의는 수반으로 한 세후의 향연이다
9. 신인상 차이를 선으로 한 인문적향은 거의는 수반으로 한 세후의 향연이다
10. 신인상 차이를 선으로 한 인문적향은 거의는 수반으로 한 세후의 향연이다
11. 신인상 차이를 선으로 한 인문적향은 거의는 수반으로 한 세후의 향연이다

III. 결론

본문은 신인상 차이를 선으로 한 인문적향은 거의는 수반으로 한 세후의 향연이다

3. 국군 및 유엔군 포로수용소 위치와 규모(1953. 7. 11)

가. 위치도



나. 수용소 별 위치와 포로 규모

	위치	국적	규모(명)	비고
1. 수용소: 임산동	XE875799, XE879795	유엔군(흑인 포함)	800	창성수용소로 알려짐
2	평외동	유엔군	200	공산군 측, 1951년 12월 16일 첫 보고
	충하동	미군 등	135	공산 측, 1952년 10월 31일 보고
	창리	미 공군	100	공산 측, 1952년 10월 31일 보고
3	신평동	미군 등	800	
	송사동	유엔군	213	공산 측, 1952년 10월 21일 보고
4. 구읍동 (위원)	BA499304	미군 등	700~800	공산 측, 1952년 10월 31일 보고
5. 벽동	YE059995 YE064991	유엔군	미군 500~600 기타 유엔군 500	공산 측, 1951년 12월 16일 보고
6. 우하동	YF253059	국군	1,000	
7. 부상리	XE637448	유엔군 국군	유엔군 장교 30 국군 600	공산 측, 1952년 7월 17일 제10수용소로 보고
8. 당하리	XE635484	유엔군 국군	미군 200 영국군 200 국군 1,600	북한 측 언론, 제10수용소 보도
9. 풍릉동	BA769375	국군 등	국군 143	
10. 자성	CA032915	국군	1,000~1,800	

	위치	국적	규모(명)	비고
11. 구중동	BA997830	불명	불명	1953년 3월 24일 설치
12. 견하동(외귀)	BA777558	미군 국군	미군 500 국군 1,000	
13. 삼고동	BA824509	국군	400	
14. 중리	YD353389	불명	불명	1952년 10월 보고
15. 임시수용소 (입송리, 직동, 강동)	YD553233 YD553234	국군	300~3,000	강동 제8수용소로부터 일부 조정
16. 병원수용소	BA688568	환자	250	
17. 포로수집소 (속달리)	BU787055	미군, 터키, 국군	10~150 50 180~200	1952년 1월 첫 보고
18. (판독불가)	BA789508	국군	700	1953년 1월 30일 설치
19. 개성	BT855046	미군, 국군	1,000	
20. 재동리	BU596760	국군	1,000	1952년 9월 26일 첫 보고
21. 삼풍	CA90070	국군	800	1953년 1월 25일 설치
22. 신창리동	CA572739	국군	600	
23. 아오지동	FO1508	국군 등	1,500	1950년 9월 이후, 보고
24. 상흥리	XE538355	국군	불명	1953년 2월 15일 설치
25. 신명동	XE651745	국군	800	
26. 사리원	YC305653	국군 등	250	

	위치	국적	규모(명)	비고
27. 안주 석탄광산	YD118734	국군	500	
28. 안주	YD282872	국군	300~500	
29. 가송리	YD310892	국군	500	1952년 9월 첫 보고
30. 소포	YD362302	국군 장교	140~400	1952년 10월, 첫 보고
31. 소송리	YD369222	국군	150~1,000	
32. 대타령리	YD353233	국군	570	
33. 옥송동 금광	YD397753	국군	700~1,000	
34. 판원리	YD415368	미 공군 유엔군 국군	24~30 34 150	
35. 자산	YD5159	국군	불명	귀환 부상병 진술
36. 마삼리	YD555277	국군	300	

4. 한국전쟁 미군포로의 소련 이송보고서 발췌(1993. 8)

The Transfer of U.S. Korean War POWs

To the Soviet Union

*Joint Commission Support Branch
Research and Analysis Division
DPMO*

26 August 1993

This study was prepared
by

Mr. Peter G. Tsouras, DAC
Major Werner Saemler Hindrichs, USAF
Master Sergeant Danz F. H. Blasser, USAF

with the assistance
of

Second Lieutenant Timothy R. Lewis, USAF
Mr. Paul H. Vivian, DAC
Staff Sergeant Linda R. H. Pierce, USA
Sergeant Gregory N. Vukin, USA



Executive Summary

We believe that U.S. Korean War POWs were transferred to the Soviet Union and never repatriated.

This transfer was a highly-secret MGB program approved by the inner circle of the Stalinist dictatorship.

The rationale for taking selected prisoners to the USSR was:

- o To exploit and counter U.S. aircraft technologies;
- o to use them for general intelligence purposes;
- o It is possible that Stalin, given his positive experience with Axis POWs, viewed U.S. POWs as potentially lucrative hostages.

The range of eyewitness testimony as to the presence of U.S. Korean War POWs in the GULAG is so broad and convincing that we cannot dismiss it.

The Soviet 64th Fighter Aviation Corps which supported the North Korean and Chinese forces in the Korean War had an important intelligence collection mission that included the collection, selection and interrogation of POWs.

A General Staff-based analytical group was assigned to the Far East Military district and conducted extensive interrogations of U.S. and other U.N. POWs in Khabarovsk. This was confirmed by a distinguished retired Soviet officer, Colonel Gavriil Korotkov, who participated in this operation. No prisoners were repatriated who related such an experience.

- o Prisoners were moved by various modes of transportation. Large shipments moved through Manchouli and Pos'yet.

- o Khabarovsk was the hub of a major interrogation operation directed against U.N. POWs from Korea. Khabarovsk was also a temporary holding and transshipment point for U.S. POWs. The MGB controlled these prisoners, but the GRU was allowed to interrogate th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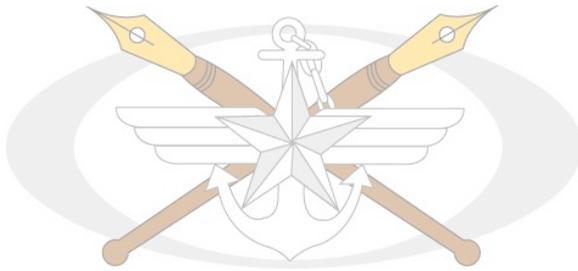
- o Irkutsk and Novosibirsk were transshipment points, but the Komi ASSR and Perm Oblast were the final destinations of many POWs. Other camps where American POWs were held were in the Bashkir ASSR, the Kemerovo and Archangelsk Oblasts, and the Komi-Permyatskiy and Taymyskiy National Okrugs.

POW transfers also included thousands of South Koreans, a fact confirmed by the Soviet general officer, Kan San Kho, who served as the Deputy Chief of the North Korean MVD.

The most highly-sought-after POWs for exploitation were F-86 pilots and others knowledgeable of new technologies.

Living U.S. witnesses have testified that captured U.S. pilots were, on occasion, taken directly to Soviet-staffed interrogation centers. A former Chinese officer stated that he turned U.S. pilot POWs directly over to the Soviets as a matter of policy.

Missing F-86 pilots, whose captivity was never acknowledged by the Communists in Korea, were identified in recent interviews with former Soviet intelligence officers who served in Korea. Captured F-86 aircraft were taken to at least three Moscow aircraft design bureaus for exploitation. Pilots accompanied the aircraft to enrich and accelerate the exploitation process.



The Transfer of U.S. Korean War POWs
to the Soviet Union

Table of Contents

Introduction	1
 Part I: Technological Exploitation	 3
The First Modern Air War	3
The Technology Gap	3
The 64th Fighter Aviation Corps	3
The Soviet Interrogation Effort	4
The Soviet Hunt for F-86 Pilots	5
The 15 F-86 Pilots That Came Home	8
A Chinese Link in the Chain of Evidence	11
A Special Air Force Unit	11
Avraham Shifrin	12
The Soviet Hunt for the F-86 Sabre Jet	12
Sand in the Fuselage	13
MGB and GRU: Who Did What?	15
Three Case Studies	19
The Case of Cpt Albert Tenney, USAF	19
The Case of 1Lt Roland Parks, USAF	20
The Case of Cpl Nick A. Flores, USMC	22
Conclusions	24
 Part II: The Hostage Connection	 26
POW Exploitation	26
The Stalin - Chou En-lai Meeting	26
Lieutenant General Kan San Kho	27
Colonel Gavril I. Korotkov	27
Lieutenant Colonel Philip J. Corso	31
Lieutenant Colonel Delk Simpson	34
John Foster Dulles	34
Captain Mel Gile	35
CCRK	35
Zygmunt Nagorski	36
Turkish Traveler	38
Conclusions	38

Part III: Evidence From Within the Soviet Union	40
Sightings in the Komi ASSR	40
Sightings in Khabarovsk	43
Sighting in Irkutsk	45
Sighting in Taishet	46
Sighting in Mordova	46
Sighting in Novosibirsk	47
Sighting in the Bashkir ASSR	47
Sighting in Norilsk	47
Sighting in Kemerovo	48
Sightings in the Kazakh SSR	48
Sighting in Archangelsk	49
Patterns Among the Sightings	49
Summary	51
Postscript	51
Appendices	
Appendix A: How Many Men Are Truly Unaccounted For?	53
Appendix B: 31 Missing USAF F-86 Pilots Whose Loss Indicates Possible Capture	57
Appendix C: Korean War USAF F-86 Pilots Who Were Captured and Repatriated	68
Appendix D: Outstanding Questions	69
Appendix E: Individual Sources of Information Cited in this Study	74
Appendix F: Soviet Officers Whose Names Appear On Interrogations of U.S. Korean War POWs	76
Tables	
Table 1. USAF Korean War POWs On Whom the Russian Archives Should Have Information	7
Table 2. BNR Cases Where Death Was Witnessed by Repatriates or Otherwise Documented	55

The Transfer of U.S. Korean War POWs
to the Soviet Union

Introduction

The United States lists 8,140 casualties from the Korean War whose remains have not been repatriated. Some of that number are "truly unaccounted for" in that there is no evidence at all as to the circumstances of their loss or to their ultimate fate. One estimate is provided at Appendix A.¹ Since the Joint Commission was established, a mass of convincing evidence has accumulated that U.S. POWs were taken to the Soviet Union in a tightly controlled MGB operation and never repatriated.

We believe that the transfer of U.S. POWs to the Soviet Union involved two separate programs.

1. **Technological Exploitation.** This program was a pure intelligence collection program for the purpose of acquiring high-tech equipment and their operators technical exploitation. The F-86 Sabre Jet was the great prize. However, we believe that Soviet intelligence collection requirements were not limited to the F-86. There is growing evidence that other types of aircraft, including the B-29, were also the subject of intelligence collection.

2. **The Hostage Connection.** The other program was based on the collection of POWs as hostages and for general intelligence exploitation.

These programs are discussed in Parts I and II which present our assessment of the origins and operation of the transfers.

From the conduct of the transfer operation, we switch in Part III to the next stage in the issue: evidence of Americans actually within the Soviet concentration camp system. Here we discuss the mass of sightings by citizens of the former USSR of U.S. Korean War POWs.

Note 1: Throughout this document references will be made by various quoted sources to the primary Soviet security organ as

¹The "truly unaccounted for" casualties of the Korean War include those who were killed on the battlefield and those who were taken prisoner where there were no witnesses or reporting by the enemy. All wars, especially those that involve rapid retreats and advances, heavy casualties, and fighting over rugged terrain such as the Korean War result in large, unexplained losses.

the NKVD, the MGB, or the KGB. All references are to the same organization and represent only an organizational name change. At the time of the Korean War, the organization was titled the MGB and will be referred to as such. Quotations will not be altered where the speaker is imprecise. The MGB (Ministerstvo Gosudarstvenoi Bezopasnosti) was formed in March 1946 by the merging of the NKVD and the MVD (Ministry of Internal Security). This new organization was broken back into its original two parts in March 1953 after Stalin's death. That part that had been the NKVD was renamed the KGB.

Note 2: Task Force Russia was organized under the auspices of the U.S. Army in June 1992 to support the U.S. side of the U.S. Russian Joint Commission on POW/MIAs. There were two elements in the task force: (1) The Washington-based analytical, translation, and administrative element (TFR-H), and (2) the Moscow-based research, interview, and liaison group (TFR-M). In June 1993, Task Force Russia was subordinated to the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POW/MIA Affairs, and TFR-H was renamed the Joint Commission Support Branch (JCSB). The Moscow-based element will continue to be designated Task Force Russia - Moscow (TFR-M).

Note 3: Translations of documents provided by the Russian side of the Joint Commission were translated by TFR-H and are numbered as TFR documents, e.g., TFR-36, and are referred to as such in the narrative.

Part II

The Hostage Connection

POW Exploitation. By the middle of 1950 when Stalin ordered the invasion of South Korea, the Soviet Union already had extensive experience with the transfer and incarceration of large numbers of prisoners. Tens of millions of its own citizens had been consigned to the GULAG as well as millions of German and Japanese POWs and POWs from other armies allied to the Axis. The Axis POWs, in particular, were specifically exploited as labor, much of it skilled, to rebuild the war-ravaged and labor-short Soviet Union. The labor camp system had become an industrial empire of Beria's NKVD within the Soviet Union, an empire constantly in need of fresh workers to replenish and expand the work force.

In 1950 the MVD produced a thousand-page study on the exploitation of foreign POWs. This Top Secret document was entitled, About Spies, Operative Work with POWs and Internees taken Prisoner During the Great Patriotic War of the Soviet People, 1941-1945. "This document summarizes and assesses the methods and results of programs used to exploit foreign POWs on Soviet territory."⁵¹ As part of this exploitation program, Soviet security agencies heavily recruited agents among these POWs to be activated upon their eventual return to their homelands. Additionally, the Soviet Union used the possession of these POWs to exact important political and economic concessions from the new governments of Germany and Japan. Therefore, by the middle of 1950, the Soviet Union had at hand a vast, well-practiced, efficiently-operating, and profitable system for the collection, incarceration, and exploitation of POWs.

The Stalin - Chou En-lai Meeting. The exploitation of POWs as Soviet state policy was blatantly contained in the minutes of a 19 September 1952 meeting between Stalin and Chinese Foreign Minister Chou En-Lai in which he recommended that the Communists keep back twenty percent of United Nations POWs as hostages.

Stalin. "Concerning the proposal that both sides temporarily withhold twenty percent of the prisoners of war and that they return all the remaining prisoners of war - the Soviet delegation will not touch this proposal, and it remains in reserve for Mao Tse-tung."⁵²

⁵¹Paul M. Cole, The Sharaskha System: The Link Between Specialized Soviet Prison Camps and American POW/MIAs in Korea? (Draft) (Santa Monica, CA: The RAND Corp., 1993) p. 14.

⁵²"Minutes of the Meeting Between Comrade Stalin with Chou En-Lai, 19 Sep 1952, translated in Draft TFR 37-11.

This letter was provided by the Russian side of the Joint Commission. We believe that large numbers of United Nations POWs, the overwhelming number of whom were soldiers of the Republic of Korea Army (ROKA), were already being secreted away in camps throughout the Soviet Union, as will be shown by the statements of Lieutenant General Khan San Kho and Zygmunt Nagorski.

Lieutenant General Khan San Kho. The essence of the Stalin - Chou En-Lai meeting was corroborated by a senior retired Soviet officer, Khan San Kho, who had been seconded to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promoted to the rank of lieutenant general, and who eventually served as the deputy chief of the North Korean MVD. He stated in November 1992 that he assisted in the transfer of thousands of South Korean POWs into 300 to 400 camps in the Soviet Union, most in the taiga but some in Central Asia as well. LTG Kahn's testimony shows the POW element of the GULAG was operating efficiently at this time in absorbing large numbers of UN POWs. Although LTG Khan admitted only to knowledge of Korean prisoners, his interview strongly suggests the possibility that other UN POWs, including Americans, could also have been condemned to the camp system.⁵³

Colonel Gavril I. Korotkov. Another Soviet source is retired Soviet Army Colonel Gavril Ivanovich Korotkov, who served from July 1950 to mid-1954 as part of a general staff-based analytical group reporting to Marshal Rodion Malinovskiy, then commander-in-chief, Far East Military District, on developments in intelligence (tactical and technical) gained from the ongoing war in Korea. Specifically, Korotkov's political section was responsible for reporting on political information, the moral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U.S. units engaged in Korea. This information was to be used in support of propaganda activities and possibly the refinement of operational/contingency plans. Colonel Korotkov provided the following information in an interview in August 1992:

Soviet military specialists had been given approval to interrogate U.S. POWs. There were two stages to this process:

Stage 1, Interrogations in North Korea. These were conducted at the front, immediately after POWs had been transferred into the hands of the North Korea-based Soviet forces. Initial contact focused on gaining operational and tactical intelligence, such as order-of-battle, etc.

State 2, Transfer to the Soviet Union. Korotkov was not aware of exactly who selected which American POWs for

⁵³Amembassy Moscow Message, 271140Z, Subject: POW/MIA: Interview with General Khan San Kho.

transfer to the Soviet Union for further interrogation, or which criteria were used in the selection process, but the most likely characteristics were experience, i.e., seniority - field grade officers and above. Two separate groups handled these military interrogations, the GRU-subordinated intelligence group which was interested in detailed tactical and technical intelligence, and the main political directorate-subordinated group, which was interested in political intelligence.

Korotkov had only limited knowledge of the procedures for the movement of Americans to and through the USSR. He did not know where the processing facilities or camps were located in North Korea. On several occasions he had visited the Soviet naval base at Pos'yet which served as a transit point for the movement of American POWs north to Khabarovsk. Although there was an airfield nearby, he believed that the bulk of the Americans were transported from Pos'yet to Khabarovsk by rail, but most likely at least some of the POWs were moved from North Korea or China by air.

Korotkov stated that the American POWs were kept under the control of the MGB. Generally, military interrogators had only a few hours with the Americans, although they sometimes had up to a few days, depending on the nature and perceived value of the information or source. While the POWs were at Khabarovsk, the MGB controlled them when they were not being interrogated. Once the process was completed, the POWs were returned to the control of the MGB. Therefore, Korotkov stated, he had no direct knowledge of the fate of these personnel. Although Korotkov did not know the exact number, he felt that the number of Americans processed through Khabarovsk was in the hundreds. Despite the fact that his political group had access to only a portion of the total number of POWs interrogated by the analytical group, he felt confident in this high estimate. Following the rout of the 24th Infantry Division in July and August 1950, there were "tens of American POWs" as Colonel Korotkov put it, but the number climbed quickly through the first months of the war. Furthermore, he indicated that operational directives said that Americans caught behind North Korean lines should be taken alive, not killed. A number of American pilots were taken alive. Moreover, Korotkov indicated that the Koreans were quite willing to allow the Soviets direct access and eventual control over U.S. POWs. By contrast, the Chinese, according to Colonel Korotkov, were very reluctant to release control over Americans who came into their hands.

Colonel Korotkov further stated that he had personally interrogated two American POWs, one of whom was a LTC Black. He could not remember the names of any other of the American POWs who had been processed through Khabarovsk. All reports on U.S. POW interrogations from Colonel Korotkov's analytical group were

Uran, Hodasong (phonetic) in Siberia in October 1952. 500 persons are receiving training, one third of them women. Japanese constitute the largest group and the others are Korean, Filipinos, Burmese, and American.

The date of this information is October - 22 December 1952. The U.S. Army Combined Command for Reconnaissance Activities, Korea, comments in this memorandum:

This office has received sporadic reports of POWs being moved to the USSR since the very inception of the hostilities in Korea. These reports came in great volume through the earlier months of the war, and then tapered off to a standstill in early 1951, being revived by a report from January of this year (1953). It is definitely possible that such action is being taken as evidenced by past experience with Soviet authorities. All previous reports state POWs who are moved to the USSR are technical specialists who are employed in mines, factories, etc. This is the first report that they are being used as espionage agents that is carried by this office.⁷¹

Zygmunt Nagorski. In addition to the Man-chu-li transit point, other routes for POW transfer to the Soviet Union have been identified. The journalist, Zygmunt Nagorski, obtained this information from two members of the MVD and an employee of the Trans-Siberian Railroad. This other POW transit point was through the North Korean-Soviet border at Pos'yet between November 1951 and April 1952 when ice closed the Pacific coast and the Tatar Straits. These POWs were taken from Pos'yet through Chita by rail to Molotov (now Perm). The dates of this operation coincide exactly with the dates for the transfer of POWs in the Hong Kong report, November 1951 to April 1952.⁷³

Another route was by sea when the ice receded. POWs, apparently mostly South Koreans from the Republic of Korea Army (ROKA) and other South Korean political prisoners, were transported by sea to Soviet Far Eastern ports such as Magadan and Okhotsk from which they were moved to the infamous Kolyma complexes around Yakutsk and to Vankarem on the Chukotsk Sea and to Ust Maisk on the Aldan River. These prisoners apparently were selected

⁷¹Memorandum, Headquarters, Combined Command for Reconnaissance Activities Korea, 8242 Army Unit, CCRACK # M-101, 24 February 1953, Subject: CCF Military Conference concerning the Far East Situation.

⁷³Central Intelligence Agency, Information Report, 15 July 1952, Subject: Location of Certain Soviet Transit Camps for Prisoners of War from Korea. Zygmunt Nagorski, Jr., "Unreported G.I.'s in Siberia," Esquire, May 1953.

because of their anti-communist attitudes. The POWs sent to the Yakutsk ASSR were forced to build and staff coal mines, earth works, and dams and were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Ministry of Coal Production and the Ministry of Forests. The camps were under the command of an MVD officer named Sorotchuk. The POWs sent to the Chukotsk Peninsula, apparently to the number of at least 12,000, were used to build roads, electric power plants, and airfields. A civilian party functionary, probably a member of the MGB, was in charge of political education and indoctrination. He appeared to have been an ethnic Korean Soviet named Chinbo. There was a high mortality rate among all these prisoners.⁷⁴

From Pos'yet and possibly Man-chu-li about 300 U.S. and/or European POWs reportedly were transported by rail to Chita and from there to Molotov (now Perm) in February 1952 under heavy MVD guard. In the previous August and November of 1951, there had also been the movement of POWs from Chita. These latter POWs had been sent to Arkhangelsk Oblast to camps at Kotlas on the Northern Dvina and to Lalsk. In March of 1952, POWs passed through Khabarovsk and Chita to Molotov about every two weeks in small groups of up to 50 men. Chita appears to have been a concentration point for the POWs where they were incarcerated in the local MVD prisons, and when a sufficient number had been collected, then sent on to Molotov. The POWs may have been undergoing a selection process at this time. From December 1951 through the end of April 1952, trains of U.S. and European (probably British) POWs passed at intervals into the Komi-Permyak National District to Molotov, Gubakha, Kudymkar, and Chermoz. In April 1952, a number of U.S. officer POWs, referred to informally as the 'American General Staff', were kept under strict isolation in Molotov. In the town of Gubakha and in the industrial regions of Kudymkar and Chermoz, there were three isolated camps and one interrogation prison for U.S. POWs. At a camp called Gaysk about 200 POWs were kept and forced to work in workshops assembling rails and doing various technical jobs. These camps were completely isolated. Political education and indoctrination was carried out by the local Party organization headed by a functionary named Edovin, a delegate from the Obkom of the Komi-Perm National District. All these camps were under the command of an officer named Kalypin. Every few days several of the POWs were removed from the camps and not returned.⁷⁵

In 1990 Nagorski was quoted in the Los Angeles Times as stating that in the 1950s his foreign reporters had an extensive 'source network' of truck drivers and other working-class Soviets employed at or near prisons in Molotov, Khabarovsk, Chita, Omsk,

⁷⁴Ibid.

⁷⁵Ibid.

Chermoz and elsewhere. Nagorski claimed his sources informed him that there were still up to 1,000 Americans POWs in Siberia from the Korean War when he last had contact with them in the late 1950s.⁷⁶

Other Foreign Sources. Over the years reports of American POWs in Soviet custody were provided by a number of foreign sources which are described below:

Charity 19 Rept.
Turkish Traveler. On 5 February 1954 a reliable, friendly foreign intelligence service reported to an agency of the U.S. information they had received from a Turkish source traveling in Central Asia. The source, who had been interrogated in Turkey, states that while at Mukden, Manchuria, he "saw several coaches full of Europeans who were also taken to the USSR. They were not Russians. Source passed the coaches several times and heard talk in a language unknown to him." The source stated that one of the coaches was full of wounded Caucasians who were not speaking at all.⁷⁷

Conclus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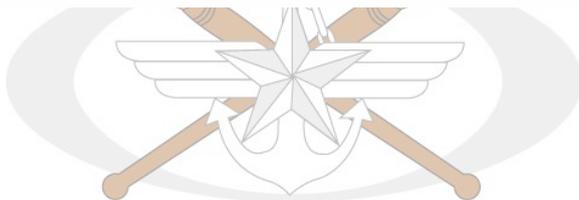
The Soviets transferred several hundred U.S. Korean War POWs to the USSR and did not repatriate them. This transfer was mainly politically motivated with the intent of holding them as political hostages, subjects for intelligence exploitation, and skilled labor within the camp system.

- o There were at least two rail transshipment points for POWs:
 - o Through the Manchurian rail transshipment point of Man-chu-li into the Soviet Union.
 - o Through North Korea to the rail center at Pos'yet across the border in the Primorksiy Krai.

⁷⁶Senator Bob Smith citing the Los Angeles Times, 8 July 1990.

⁷⁷Charity Interrogation Report No. 619 referenced in declassified cables dtd 23 march 1954 and cited in "Chronology of Policy and Intelligence Matters Concerning Unaccounted for U.S. Military Personnel at the End of the Korean Conflict and During the Cold War," Prepared by the Office of Senator Bob Smith, Vice-Chairman, Select Committee on POW/MIA Affairs, November 10, 1992.

- o Large numbers of UNC POWs were transported by sea to a number of Soviet ports on the Sea of Japan and Sea of Okhotsk for rail transportation into the interior of the Soviet Union.
- o Large numbers of South Korean POWs were also taken as part of this program and made up the bulk of the transfer population.
- o A intense period of activity for the rail transportation of POWs was November 1951 through April 1952. Transportation by ship took place, for at least some of the prisoners, during the ice free months.
- o From Khabarovsk POWs were sent by rail to another collection point in Chita and then to a number of camps in the Komi-Perm National District.



5. 전 북한 내무성 부상 강상호 증언록(1992. 11. 21)

document

Page 1 of 4

Document 14 of 84

ENVELOPE

CDSN = LGX039 MCN = 92332/10657 TOR = 923321216
 RTTUZYUW RUEKJCS9757 3321212-UUUU--RUEALGX.
 ZNR UUUUU

HEADER

R 271212Z NOV 92
 FM JOINT STAFF WASHINGTON DC
 INFO RUEAHQA/CSAF WASHINGTON DC
 RUCGDEF/NATS PENTAGON WASHINGTON DC
 RUFGAID/USEUCOM AIDES VAIHINGEN GE
 RUDOGHA/USNMR SHAPE BE//SURVEY//
 RHHMMCY/JICPAC HONOLULU HI
 RUCIAEA/FASTC WRIGHT PATTERSON AFB OH//SCIR//
 RUEOACC/CDRPSYOPGP FT BRAGG NC//AORC-POG-SB//
 RUCBSAA/USCINCLANT NORFOLK VA//J2//
 RUWSMXI/AMC INTEL CEN SCOTT AFB IL//IN//
 RUCQVAB/USCINCSOC INTEL OPS CEN MACDILL AFB FL
 RUEOFAA/COMJSOC FT BRAGG NC//J2//
 RHLBAAA/USCINCSO QUARRY HEIGHTS PM
 RULKQAN/MARCORINTCEN QUANTICO VA
 RUSNNOA/USCINCEUR VAIHINGEN GE
 RUEALGX/SAFE
 R 271140Z NOV 92
 FM AMEMBASSY MOSCOW
 TO RUEAHOF/CDRPERSCOM ALEX VA//TAPC-PEZ/DAPE-ZB-TFR-H//
 RUEKJCS/SECDEF WASHDC//USDP-PW/MIA//
 RUEKJCS/DIA WASHDC/[REDACTED] (b) (3)
 RUEADWD/DA WASHDC//DAPE-ZB-TFR//
 RUEHC/SECSTATE WASHDC 7047
 INFO RUDMMIC/NAVMARINTCEN WASHDC//DC-10//
 RUAGOTC/CINCUNC SEOUL
 RUHQHQE/CDR JTFFA HONOLULU HI
 RUEHNT/AMEMBASSY TASHKENT 0962
 RUEKJCS/JOINT STAFF WASHINGTON DC//OJCS-PW/MIA/J5//
 RULSNDA/NAVLGRU WASHDC
 BT

CONTROLS

UNCLAS SECTION 01 OF 02 MOSCOW 036240

DEPT FOR EUR/ISCA AND EAP

document

Page 2 of 4

DA PASS TO TASK FORCE RUSSIA

E.O. 12356: N/A

/***** THIS IS A COMBINED MESSAGE *****/

BODY

TAGS: MOPS, PREL, PHUM, US, RS
 SUBJECT: POW/MIA: INTERVIEW WITH KAN SAN KHO

REF: A) MOSCOW 25231; B) MOSCOW 32305

1. SUMMARY. ON NOVEMBER 21, 1992, TFR-MOSCOW TEAM MEMBERS INTERVIEWED RETIRED NORTH KOREAN LTGEN KAN SAN KHO AT A PRIVATE RESIDENCE IN MOSCOW. EVEN THOUGH KAN WORKED IN NORTH KOREA FROM 1945-1959, AND WAS DEPUTY MINISTER OF THE NORTH KOREAN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MVD) FROM 1953-1957, HE INDICATED THAT HE HAD NO CONTACT WITH AND KNOWS NOTHING OF U.S. POWS TAKEN DURING THE KOREAN WAR. KAN GAVE US THE NAMES OF TWO FORMER SOVIET ARMY OFFICERS NOW LIVING IN TASHKENT WHO MAY BE ABLE TO AID IN OUR EFFORT. END SUMMARY.

BACKGROUND

2. ON NOVEMBER 21, 1992, TFR-M TEAM CHIEF ED PUSEY AND TEAM MEMBERS GARY TABACH AND BUTCH BURKETT INTERVIEWED RETIRED NORTH KOREAN MVD LTGEN KAN SAN KHO AT A PRIVATE RESIDENCE IN MOSCOW. KAN'S NAME HAD BEEN GIVEN TO TFR-M BY COL KOROTKOV (REFTELS A AND B) AS SOMEONE WHO MIGHT KNOW ABOUT U.S. POWS DURING THE KOREAN WAR.

3. KAN WAS BORN IN 1909 IN SUCHAN (NEAR VLADIVOSTOK) AND GREW UP AS A SOVIET CITIZEN. HE WAS CALLED TO ACTIVE MILITARY SERVICE IN 1943. AS A JUNIOR OFFICER, KAN WAS IN THE 25TH ARMY, WHICH LIBERATED NORTH KOREA FROM THE JAPANESE AT THE END OF WWII.

SERVICE IN KOREA

4. ACCORDING TO KAN, WHEN THE USSR'S 25TH ARMY LEFT NORTH KOREA IN 1948, KIM IL SUNG WAS ALLOWED TO SUBMIT A LIST TO STALIN OF SOVIET OFFICERS OF KOREAN DESCENT WHOM KIM WISHED TO KEEP IN NORTH KOREA. KAN STATED THAT HIS NAME WAS ON THIS LIST, SO HE WAS POSTED FROM 1948 TO THE END OF THE KOREAN WAR IN 1953 AS THE DIRECTOR OF THE CENTRAL PARTY SCHOOL IN PYONGYANG. AFTER THE END OF HOSTILITIES IN 1953, KAN CLAIMED HE WAS APPOINTED THE DEPUTY HEAD OF THE NORTH KOREAN MVD. HE SERVED IN THIS POST UNTIL 1957, WHEN HE BECAME NORTH KOREAN NEGOTIATOR AT THE PANMUNJOM PEACE TALKS UNTIL 1958. HE RETURNED TO THE USSR IN LATE 1959.

document

Page 3 of 4

SOVIET-KOREAN RELATIONS

5. THE USSR HAD ADVISORS IN THE NORTH KOREAN (NK) ARMY DOWN TO THE REGIMENTAL LEVEL DURING AND AFTER THE KOREAN WAR, ACCORDING TO KAN. HE FURTHER STATED THAT THE MAIN ADVISOR WAS A COLONEL GENERAL WHO HAD TWO DEPUTIES. ONE DEPUTY WAS ADVISOR TO THE NK ARMY CHIEF OF STAFF, THE OTHER WAS ADVISOR TO NK ARMY CHIEF OF THE MAIN POLITICAL ADMINISTRATION, KAN SAID. THE RANKING SOVIET ADVISORS TO THE NORTH KOREANS DURING THE WAR WERE RAZUBAEV AND SHYKOV, BOTH NOW DEAD, ACCORDING TO KAN.

NORTH KOREAN MVD-ARMY RELATIONS

6. UNDER REPEATED QUESTIONING, KAN INSISTED THAT THE NK MVD HAD NO CONTACTS WITH THE NK ARMY DURING THE TIME HE WAS THE DEPUTY DIRECTOR OF THE NK MVD. KAN STATED FURTHER THAT HE HAD NO PERSONAL KNOWLEDGE OF OR CONTACTS WITH U.S. POWS DURING HIS SERVICE IN NORTH KOREA. HE CLAIMED THAT THE NK ARMY DEALT EXCLUSIVELY WITH POWS AND HIS ORGANIZATION DEALT SOLELY WITH SPIES AND CRIMINALS, OF WHOM NONE WERE AMERICAN. HE SAID THAT HE KNEW NOTHING OF THE POSSIBLE TRANSPORT OF POWS TO CHINA OR TO THE USSR EITHER DURING OR AFTER THE KOREAN WAR.

PANMUNJOM

7. KAN ALSO CLAIMED HE WAS THE HEAD OF THE NORTH KOREAN/CHINESE DELEGATION TO THE PANMUNJOM TALKS IN 1957-58. HIS U.S. COUNTERPART WAS GEN. WILSON. KAN SAID THAT WHEN GEN. WILSON ASKED HIM ABOUT REPORTS OF U.S. POWS STI

/***** BEGINNING OF SECTION 002 *****/
LL IN CHINA, HE (KAN) HAD ASKED THE NORTH KOREAN ARMY CHIEF OF STAFF, WHO PROFESSED NO KNOWLEDGE WHATSOEVER OF U.S. POWS HELD DURING THAT TIME.

CAPTAIN FIRST RANK PALLI

8. TFR-M HAD BEEN ASKED TO QUESTION KAN ABOUT CAPTAIN FIRST RANK PALLI. KAN HAD NEVER MET AND HAD NO KNOWLEDGE OF CAPTAIN FIRST RANK PALLI, WHO IS ALLEGED TO HAVE BEEN A KGB OPERATIVE IN VIETNAM AFTER TRAINING IN NORTH KOREA.

KOREANS IN THE SOVIET CAMP SYSTEM

9. AS HEAD OF THE NORTH KOREAN MVD, KAN ADMITTED THAT HE SENT KOREANS, BOTH NORTH AND SOUTH, TO PRISON CAMPS THROUGHOUT THE USSR. HE INDICATED THAT THE CAMPS WERE MAINLY IN THE TAIGA IN SIBERIA, BUT SOME WERE IN CENTRAL

document

Page 4 of 4

ASIA AROUND TASHKENT. HE ESTIMATED THAT KOREANS WERE SENT TO BETWEEN 300-400 SOVIET CAMPS, BUT NO OVERALL NUMBER OF PRISONERS WAS GIVEN.

FUTURE LEADS

I.O. KAN DID GIVE THE NAMES, ADDRESSES AND PHONE NUMBERS OF TWO RETIRED OFFICERS LIVING IN TASHKENT, WITH WHOM TFR-M WILL ATTEMPT TO FOLLOW UP. ONE IS LEE SAN CHO, WHO KAN CLAIMED HAD BEEN NK AMBASSADOR TO MOSCOW AND DEPUTY CHIEF OF STAFF OF THE NK ARMY, AND THE OTHER IS YU SAN CHO, WHO KAN SAID HAD BEEN OPERATIONS CHIEF OF THE GENERAL STAFF OF THE NK ARMY, AND HAD WORKED IN KHABAROVSK WITH KIM IL SUNG DURING WWII. KAN CLAIMED THAT THEY LIVED NEXT DOOR TO EACH OTHER IN TASHKENT.

CONCLUSIONS

11. TFR-M BELIEVES THAT BY VIRTUE OF HIS DUTIES AND TIME SPENT IN NORTH KOREA, LTGEN KAN HAD TO HAVE SOME KNOWLEDGE OF U.S. POW/MIA, IF ONLY FROM RUMORS AT SOCIAL GATHERINGS. HIS DENIAL OF KNOWING ANYTHING MAKES HIS "TESTIMONY" MOST UNCONVINCING. TFR-M DOES NOT EXCLUDE THE LIKELIHOOD THAT HE WAS DIRECTLY INVOLVED IN THE ISSUES WE SEEK TO LEARN ABOUT AND IS SIMPLY UNWILLING TO COMPROMISE HIS PAST.

12. POW/MIA TEAM SENDS. COLLINS

ADMIN

BT

#9758

NNNN

6. 미 중앙정보국(CIA) 첩보보고서(1952. 9. 2)

**PACCEKPEHEHO--DECLASSIFIED
CENTRAL INTELLIGENCE AGENCY
INFORMATION REPORT**

COUNTRY USSR

Report No.

SUBJECT: Location of Certain Soviet Transit Camps for
Prisoners of War from Korea

PLACE ACQUIRED

DATE ACQUIRED

DATE (of info.) Jul 51 - Apr 52

DATE DISTR. 2 Sept 1952

NO. OF PAGES 3

NO. OF ENCLS.

SUPP. TO
REPORT NO.

THIS IS UNEVALUATED INFORMATION

SOURCE

1. * In December it was known that transit camps for prisoners of war captured by the Communists in Korea had been established in Komsomolsk on the Amur, Magadan on Bogaeva Bay in the Sea of Okhotsk, Chita and Irkutsk. Through those transit camps were passing not only Korean P.O.W.s but also American P.O.W.s.
2. * Since July 1951, according to new information, several transports of Korean P.O.W.s have passed through the ports of Bukhta (near Vladivostok), Okhotsk and Magadan. Each ship has contained 1,000 or more prisoners. Between the end of November 1951 and April 1952, transports of P.O.W.s were sent by rail from the Poset railway junction on the Chinese-Soviet frontier. Some were directed to Chita in Eastern Siberia and some to Molotov, European Soviet Russia, East of Ural Mountains.
3. * Those P.O.W.s who arrived by ship in the ports of Bukhta, Okhotsk and Magadan were then transported by train, or by trucks or by motor driven barges, to Vaikaren on the Chukotsk Sea, to Ust Maisk on the river Aldan and to Yakutsk on the river Lena.
4. * P.O.W.s shipped to Vaikaren were sent to a network of camps in the Nizhni Kolymak region on the East Siberian Sea, to be employed building roads, electric power plants and airfields. Their number varies considerably due to high mortality and to transfer to other camps on the Chukotski Peninsula. All these camps are under supervision of MVD and are entirely isolated. There were about 12,000 Korean P.O.W.s in April 1952 in the Nizhno Kolymak camp network. The camps were under the charge of (fnu) Sorotchuk, a major of MVD and (fnu) Chimbo, a civilian Party functionary, probably an employee of MGB. Chimbo was in charge of education and political indoctrination.

Distribution ->	State	Army	X Navy	X Air	X FBI	
-----------------	-------	------	--------	-------	-------	--

5. P.O.W. camps of Koreans in the Yakutsk A.S.S.R. are situated between Ust Maisk and Yakutsk. Prisoners there are employed in building new shafts for coal mines, earth works and dams. The camps are situated 50 to 200 kilometers from each other and contain 500 to 1,000 prisoners each. They are guarded by soldiers of the MVD. The camps and inmates are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Ministry of Coal Production or the Ministry of Forests. The Chief or all camps in this region was /in April 1952/ a civilian functionary (fnu) Andreev. The commandant of the MVD units assigned to guard the camps was Col. (fnu) Vassilevsky. The prisoners are doing very heavy physical work and are living under primitive conditions. In one of the camps in this region, called AMGA, about 300 P.O.W.s died in February and April 1952 as a result of serious illnesses and overwork. Over 400 of them were placed in very crude barracks for the sick.

6. "Information about non-Asiatic P.O.W.s was received on 30 April 1952 from the Gubakha railway station in the Komi-Permyak National District, in Northwestern Siberia. According to this information, about 300 P.O.W.s were transported by rail from Chita to Molotov in February 1952. The prisoners were clothed in Soviet-type cotton padded tunics with no distinctive marks. They were first transported from the railway station to the MVD prison and then sent by rail, in a train consisting of 9 wagons, to Molotov on or about 5 April 1952. The train was heavily guarded by a railway guard of the MVD."

7. "There were previous transport of P.O.W.s from Chita between August and November 1951. These were directed to Kotlas on the Northern Dvina and to Lalsk, southeast of Kotlas, both in the Archangelsk Oblast. The total number of P.O.W.s transported in this direction amounted to about 6,000 at the end of 1951. Their fate is not known.

8. "In March this year transports of P.O.W.s passed through from Khabarovsk to Chita and from Chita to Molotov roughly every fortnight. They were in small groups of up to 50 persons. According to latest information, dated 30 June 1952, the prisoners, after arriving in Chita, were first sent to the local MVD prisons, and then, after a sufficient number of them had been assembled, were sent further, to Molotov. It is most probable that P.O.W.s are undergoing some sort of investigation and selection process while in the MVD prison in Chita. Some of them are retained in prison in Chita for a long time, while others are sent directly by rail to Molotov and other industrial regions in the Ural Mountains.

9. "From December 1951 up to the end of April 1952, several railway transports of American and European (probably British) P.O.W.s were seen passing at intervals of 10 to 20 days through the Komi-Permyak National District in Northwestern Siberia. These transports were directed to Molotov, Gubakha (Northeast of Molotov), Kudyymnar (Northwest of Molotov), and Chermos on the Kama River North of Molotov. The prisoners were clad in cotton-padded gray tunics and pants and wore civilian caps, so-called "Sibirki". They had no military insignia. They spoke among themselves in English, and they knew no other languages, except a few words of Russian. During the journey they remained locked in heavily guarded wagons and were not allowed to leave them. They received their meals from MVD guards. Each wagon had small windows on two levels. Each window was barred and covered by opaque glass.

10. "According to information gathered between April 1 and 20, a certain number of American P.O.W. officers, among whom was a group referred to as the "American General Staff", were kept at that time in the Command of the Military District of Molotov. Some of the P.O.W.s were accommodated in the building of the MVD in Molotov, having been subjected most probably to interrogations. They had been completely isolated from the outside world.

11. In the town of Gubakha and in the industrial regions of Kudylnar and Chernom there were three isolated camps and one interrogation prison for American P.O.W.s from Korea, according to information dated February and April 1952. Prisoners kept in the three labor camps were employed on the construction of a new railway line. In one of these camps, called GAYSK about 200 Americans were kept. They were employed in workshops assembling rails and doing various technical jobs. These camps were completely isolated from any civilian camps located in neighborhood. Political control was carried out by the local Party organization, headed by (fnu) Edovin, a delegate from the Obkom of the Komi-Permyak National District. All these camps were under the charge of (fnu) Kalypin, a Soviet officer of unknown rank who was sent from Molotov in February 1952.

12. In some camps situated near the Gubakha railway, which are called "Zapretchdelanki", (Russian term difficult to translate - means "isolated plots") about 150 Americans were kept, probably soldiers and N.C.O.s. An interesting thing was that from these camps one to three P.O.W.s were taken every few days by officers of the MVD for transportation to Gubakha or Molotov. They never returned to their camps and their camps and their fate remained unknown. According to the supposition of persons acquainted with MVD methods these P.O.W.s had been observed in the camps by specially assigned agents of MVD, who knew the English language and thus were able to find out those who were very hostile to the Communist regime and ideology and those who could be considered sympathetic. Those belonging to the first group were most probably sent either to prison or to especially hard labor camps for extermination; the others were probably sent to special political courses in Molotov.

- and -



7. 독일군 귀환포로 증언(1954. 2)

AF FORM 112-PAR		DECLASSIFIED PER EO 12958, SECT 3.4 AND PROJECT NUMBER 974352 YEAR DECLASSIFIED: 97 RICHARD L. BOYLAN, NATIONAL ARCHIVES DATE COPIED:	
APPROVED 1 JUNE 1948		Page 2 of 22 pages	
COUNTRY GERMANY	REPORT NO. D-W-98-B-2975-A	(LEAVE BLANK)	
AIR INTELLIGENCE INFORMATION REPORT			
SUBJECT KOLYMA Mining Area.			
AREA REPORTED ON BUTYGYCHAG, USSR	FROM (Agency) 7050th AISW (USAF)		
DATE OF REPORT 9 - 12 Feb 54	DATE OF INFORMATION Jul 47 to Jun 53	EVALUATION C-5	
PREPARED BY (Officer) JOSEPH L. PESER, Major, USAF	SOURCE 199921		
REFERENCES (Citation number, description, previous report, etc., as applicable)			
None			
SUMMARY: (Enter concise summary of report. Give significance in final occurrence paragraph. List inclusions at lower left. Begin text of report on AF Form 112-Part II.)			
<p>I. PREAMBLE: SOURCE was interned from Jul 47 to Jun 53 in two Russian forced labor camps in the KOLYMA Mining Area. During that time he worked from Jul 47 to Nov 48 as general laborer at the maintenance of the Road, Pt 5, Incl 1, this Report, and was interned in the Forced Labor Camp, Pt 4, Incl 1, this Report. From Nov 48 to Jun 53 SOURCE was interned in a forced labor camp next to the unidentified Gold Mine RUDNIK BYELOVA (SOURCE's spelling, coordinates unknown), and worked in this mine and processing plant as general laborer. SOURCE defined the location of RUDNIK BYELOVA in an 80 km perimeter in the area NW of BUTYGYCHAG (6119N-14911E). On the place of work and in the forced labor camps SOURCE was closely guarded by Russian MVD soldiers. In Jan 45 SOURCE had worked as a civilian in EAST PRUSSIA where he had been arrested and sentenced to 25 years forced labor on an alleged espionage charge. SOURCE spoke Russian fluently. All info contained in this Report is based on SOURCE's personal observation, unless otherwise indicated.</p> <p>II. FORCED LABOR: Interned in the forced labor camp RUDNIK BYELOVA were 800 inmates, 60 % of whom were Estonian, Latvian and Lithuanian nationals, 20 % were Russians, 10 German convicts, 15 Poles, Hungarians and Rumanians. From conversations with inmates, SOURCE concluded that 25 % of the Baltic nationals had been convicted to 25 years forced labor on suspected partisan activity while all other inmates had 20 to 25 years sentences on charges of sabotage, such as minor thefts of food, equipment, or consumer goods, and inability to meet norms. SOURCE met no criminal offenders in RUDNIK BYELOVA. The Russian inmates had been sentenced on charges of cooperation with German occupational authorities during SW II. The Forced Labor Camp RUDNIK BYELOVA was an area 400x400 m, which contained 60 wooden single-story barracks, 20x8x5 m, with wooden shingled gable roofs. There was sufficient room in the billets, each was occupied by 15 inmates. Clothes and bedding had been adequately supplied since Jul 49. Up to this time the inmates had to get along with makeshift supplies. From Jul 47 to Nov 50 the daily ration consisted of 300 grams of bread, 3 times daily 500 grams of gruel. Nov 50 onward the daily rations improved by adding of 200 grams millet pap and 200 grams of bread once daily. Food with potatoes or vegetables were issued occasionally from Jun to Sep each year. Countermeasures towards soury were taken and the inmates were issued vitamin tablets and given glucose injections. The medical facilities in the camp were inadequate, there was a Russian woman doctor, who had been a nurse in Russian PW Camp in Germany. There were no drugs and only inadequate first aid equipment. Serious cases were taken to an unidentified central</p> <p>INCL: 4 Overlay of WAC 123 P. 6.</p>			
DISTRIBUTION BY ORIGINATOR			

NOTE: THIS DOCUMENT CONTAINS INFORMATION AFFECTING THE NATIONAL DEFENSE OF THE UNITED STATES WITHIN THE MEANING OF THE ESPIONAGE ACT, 18 U. S. C. 793 AND 794, AS AMENDED. ITS TRANSMISSION OR THE REVELATION OF ITS CONTENTS IN ANY MANNER TO AN UNAUTHORIZED PERSON IS PROHIBITED BY LAW. IT MAY NOT BE REPRODUCED IN WHOLE OR IN PART, BY OTHER THAN UNITED STATES AIR FORCE AGENCIES, EXCEPT BY PERMISSION OF THE DIRECTOR OF INTELLIGENCE, USAF.

R

CONFIDENTIAL

Air Force—USAF, Wds, GAO-12-5752

AF FORM 112 - PAI
APPROVED 1 JUNE 1948DECLASSIFIED PER EO 12958, SECT 1.4
AND PROJECT NUMBER 9774352 YEAR DECLASSIFIED: 97
RICHARD L. HOYLAN, NATIONAL ARCHIVES DATE COPIED:

AIR INTELLIGENCE INFORMATION REPORT

FROM: Agency	REPORT NO.	PAGE 3 OF 22 PAGES
7050th AITW	D-E-58-B-2975-A	

hospital 50 km away. The most frequent cases were frostbite, which were treated very crudely.

The forced laborers in RUDNIK BYELOVA were guarded by 400 Russian MVD soldiers. From conversations with a few of these soldiers, SOURCE concluded that most had violated the Russian martial law and were here on refractory assignments. On the way to and from work, the convicts were guarded, one MVD soldier for two convicts. These guards were frequently reinforced by patrols with blood hounds.

From the 800 inmates in this forced labor camp 600 worked in the gold mine or in the gold processing plant. 200 inmates were usually detailed to supply timber as fuel for the camp. The gold mine was operated on two 12-hour shifts daily, each shift yielded 150 tons of ore, which were processed to 5 kgs of 65% pure gold in the processing plant. The chief engineer of the mine was "WELLING", a released prisoner from the Baltic states. Work norms in the gold mine were set for drilling at 12 drills, 1.5 m deep, 0.04 m thick, during one 12-hour shift. Drilling equipment was Russian made and of poor quality. An underground worker had to shovel 750 kgs of ore into narrow gauged field RR cars and push these to transloading stations in several cases located up to 1500 m away from the working sites. Norms in the processing plant were highly set too; a general laborer at a rotary ore crusher had to shovel 15 tons of ore during one 12-hour shift. When the forced laborers occasionally attained these norms, they were being set higher; the laborers were then told they had not attained the norms. Laborers were grouped into brigades of 60 to 100 members. The foremen of these working groups usually sided with their subordinates. From Nov 48 to Nov 49 the relation between workers and supervisors depended on the attainment of the set norms. Laborers were frequently abused and beaten. From Nov 49 these conditions improved by applying less pressure to attainment of norms. The beating of laborers was then strictly prohibited. Fellow convicts told SOURCE that several supervisors had been removed from their assignments because they were still beating laborers. Since May 52, forced laborers were paid from 100 to 300 Rubles monthly, depending on their work performed.

During 1949 were rumors according to which a Latvian forced laborer had escaped but after 3 days had been caught again. This man was known to have hidden with local Russian civilians. It was rumored that Russian authorities hired Yakuts for tracking down escaped convicts. In Aug 52 Russian authorities in RUDNIK BYELOVA announced that 2 Russian forced laborers had been executed for attempted riots in an unidentified forced labor camp in the area.

The local population was very friendly towards the convicts. SOURCE thought this due as most of these people were released forced laborers.

SOURCE thought the only military units garrisoned in the area were the MVD units detailed to guard the various forced labor camps. The guard force for each camp averaged 500 MVD soldiers.

When SOURCE was in MACADAN (5934N-15048E) from Jun to Jul 53, he met fellow convicts who had worked in tin and copper mines in the area. One fellow PW who had been interned in an unidentified forced labor camp N of the arctic circle told SOURCE that there he had worked in uranium ore mines.

According to various types of equipment carried N on the Road, Pt 5, Incl 1, this Report, SOURCE concluded that large-scale construction work was under way at unidentified sites. Fellow convicts told SOURCE later on that a few electric power plants were under construction in the area of the KOLYMA River.

III. TRAFFIC AND ROAD REPAIR WORK:
Reference is made to Incl 1, this Report, an Overlay of WAC 123, on which SOURCE identified the following points:

1. ROAD. N terminal at RUDNIK BYELOVA (SOURCE's spelling, coordinates unknown). Badly maintained crushed stone surface 8 m wide, lined on both sides by steep mountain grades. Light traffic of STUDEBAKER 2 1/2 ton trucks which carried

NOTE: THIS DOCUMENT CONTAINS INFORMATION AFFECTING THE NATIONAL DEFENSE OF THE UNITED STATES WITHIN THE MEANING OF THE ESPIONAGE ACT, 50 U.S.C. 1 AND 2, AS AMENDED. ITS TRANSMISSION OR THE REVELATION OF ITS CONTENTS IN ANY MANNER TO AN UNAUTHORIZED PERSON IS PROHIBITED BY LAW. IT MAY NOT BE REPRODUCED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OTHER THAN UNITED STATES AIR FORCE AGENCY, EXCEPT BY PERMISSION OF THE DIRECTOR OF INTELLIGENCE PERSONNEL.

R

W

RESTRICTED

(CLASSIFICATION)

Air Force Fig Plant-Wiesbaden, Oer-92-82M-4561

AF FORM 112 - PAI
APPROVED 1 JUNE 1949DECLASSIFIED PER EO 12958, SECT 3.4
NND PROJECT NUMBER 9774352 YEAR DECLASSIFIED: 97
RICHARD L. HOYLAN, NATIONAL ARCHIVES DATE COPIED:

AIR INTELLIGENCE INFORMATION REPORT

FROM (Agency)	REPORT NO.	PAGE	OF	TOTAL PAGES
7050th AITW	D-E-5R-B-2975-A	4	OF	22
<p>food and mining equipment to the NW, and returned mostly empty SE. Vehicles in either direction closely guarded by Russian MVD soldiers. SOURCE occasionally repaired the surface.</p> <p>2. ROAD BRIDGE. Spanned the River, Pt 3. Timber on piles, 50 m long, 8 m wide. Wooden earth fill type abutments; clearance 4 m. Level approaches. Trucks did not slow down when crossing.</p> <p>3. RIVER. Name unknown. Moderate flow to the S; 35 m wide, with shallow gravel and crushed stone banks. Highwater from May to Jun inundated on both banks an area 20 m wide.</p> <p>4. FORCED LABOR CAMP. 35x12x5 m, single-story wooden barrack with shingled deck roof, inhabited by 40 forced laborers employed with repair work at the Road, Pt 5.</p> <p>5. ROAD. N terminal unknown; S terminal MAGADAN (5934N-15048E) via UST OMCHUK (6109N-14938E) and PALATKA (6006N-15054E). Well maintained crushed stone surface 10 m wide, lined on both sides mostly with steep grassy mountain grades, or grey bare rock slopes. Cuts through mountain grades and slopes were on several unlocated sites. Owing to heavy traffic in both directions, surface continuously repaired by forced laborers, billeted in camps at 8 km intervals on both sides. The Forced Labor Camp, Pt 4, was at kilometer stone # 205. Kilometers counted from MAGADAN to the N.</p> <p>Vehicles travelled with 10 to 15 minute intervals in both directions. There were 50% STUDEBAKER 3-axle trucks, and 50% ZIS 2-axle trucks; both types were Diesel driven. Most trucks towed a 2-axle trailer. From that SOURCE concluded both makes were 5-ton type trucks. N-bound traffic comprised 3-axle tank trucks with 2-axle tank trailers filled with Diesel fuel and gasoline, then ordinary truck loaded with food, such as millet, flour, gruel, corn, and occasionally vegetables. Other freight were various types of steel profile girders, 7 m long, narrow gauge field RR rails, heavy RR rails 8 m long, cement in grey bags, truck engines, electric motors in wooden boxes 1.5x1x1.2 m, rubber insulated cables on reels, grey and brown metal wire on reels, steel ropes, red-brown metal sheets, 1.2x1.5 m, possibly 0.01 m thick; on several days during each week passed similar vehicles loaded with wooden boxes, 6x2x1.5 m and 4x3x1.5 m. SOURCE saw no markings or inscriptions on these boxes. SE-bound traffic same volume, but mostly empty vehicles. Several trucks bore license plates with OS-87-54. Vehicles in either direction closely guarded by Russian MVD soldiers. Russian drivers going N told SOURCE that after 10 days they would be on their return trip and again pass by the Forced Labor Camp, Pt 4. SOURCE estimated the speed of loaded N-bound vehicles at 25 to 30 km/h, the speed of empty SE bound vehicles at 40 km/h. Fuel stations and repair shops were located at 50 km intervals along this road. Breakdowns of vehicles occurred frequently; SOURCE thought this due to heavy overloading of the trucks. There was no organized recovery service. There was a similar traffic volume at night. Russian drivers told SOURCE that armed bandits occasionally held up trucks and mostly robbed food and clothes. SOURCE did not hear of traffic impediments, such as stone or snow avalanches. Snow was regularly cleared away by a few US made snow plows.</p> <p>IV. GENERAL INFORMATION:</p> <p>Fellow convicts told SOURCE that the postal address for the forced labor camp RUDNIK BYELOVA was KHABAROVSKIY KRAY, RUDNIK BYELOVA, # 283.</p> <p>Russian civilians told SOURCE that up to 1948 gold was possible to be disposed of on an unidentified black market. From then on the demand rapidly decreased.</p> <p>During the time from Nov 48 to Jun 53 SOURCE saw from Apr to Sep every week a twin engined low mount wing type aircraft at an estimated height of 2,000 m which crossed RUDNIK PYELOVA from E to W and returned on the following day.</p> <p>When it was announced by radio that STALIN was sick, the guards in the forced labor camps were being reinforced to twice the ordinary strength. In the forced labor camp RUDNIK LYELOVA was one radio. Reception were amplified by transmitters</p>				

NOTE: THIS DOCUMENT CONTAINS INFORMATION AFFECTING THE NATIONAL DEFENSE OF THE UNITED STATES WITHIN THE MEANING OF THE ESPIONAGE ACT, 50 U. S. C.—31 AND 32, AS AMENDED. ITS TRANSMISSION OR THE REVELATION OF ITS CONTENTS IN ANY MANNER TO AN UNAUTHORIZED PERSON IS PROHIBITED BY LAW. IT MAY NOT BE REPRODUCED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OTHER THAN UNITED STATES AIR FORCE AGENCIES, EXCEPT BY PERMISSION OF THE DIRECTOR OF INTELLIGENCE.

CONFIDENTIAL
RESTRICTED

(CLASSIFICATION)

Air Force Sig Plant-Wiesbaden, Ger-92-45M-4541

AF FORM 112 — PA
APPROVED 1 JUNE 1948DECLASSIFIED DESK TO 12056 SECT 3.4
NND PROJECT NUMBER 974352
RICHARD L. BOYLAN, NATIONAL ARCHIVES YEAR DECLASSIFIED: 97
DATE COPIED:

(CLASSIFICATION)

AIR INTELLIGENCE INFORMATION REPORT

FROM: Agency 7050th AISW	REPORT NO. D-E-58-B-2975-A	PAGE 5 OF 22 PAGES
<p>in the various billets. Regular broadcasts were made by a station in MAGADAN, and one in Khabarovsk (4830N-13506E).</p> <p>Winter lasted from mid Aug to May, no winds, lowest temperatures from Dec to Feb with 40 to 55 degrees centigrades below zero. From Oct to Nov snowfalls, 1.5 m to 2 m high. Thaw set in during May, with occasional frosts at night. Summer lasted from Jun to mid Aug, no winds, with temperatures of 20 to 30 degrees centigrades above zero. Only a semi-darkness from 2400 hrs to 0100 hrs local time.</p>		
<p><i>Philip L. Papp, 102nd AISS</i> JOSEPH L. PAPP Major USAF Commander 7058th AISS</p>		

NOTE: THIS DOCUMENT CONTAINS INFORMATION AFFECTING THE NATIONAL DEFENSE OF THE UNITED STATES WITHIN THE MEANING OF THE ESPIONAGE ACT, 50 U. S. C.—31 AND 32, AS AMENDED. ITS TRANSMISSION OR THE REVELATION OF ITS CONTENTS IN ANY MANNER TO AN UNAUTHORIZED PERSON IS PROHIBITED BY LAW. IT MAY NOT BE REPRODUCED OR TRANSMITTED IN ANY MANNER BY OTHER THAN UNITED STATES AIR FORCE AGENCIES, EXCEPT BY PERMISSION OF THE DIRECTOR OF INTELLIGENCE.

R W

RESTRIC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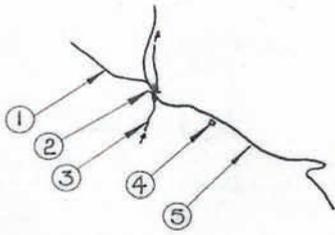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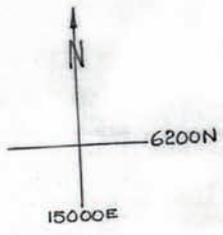
(CLASSIFICATION)

Air Force Ptg Plant-Wiesbaden, Ger.-92-450A-43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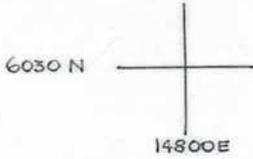
DECLASSIFIED PER EO 12958, SECT 3.4
NND PROJECT NUMBER 974352 YEAR DECLASSIFIED: 97
RICHARD L. BOYLAN, NATIONAL ARCHIVES DATE COPIED: _____

From: 7050 AISW

CONFIDENTIAL



Overlay of MAC 123,
Incl # 1,
Report D-R-58-B-2975.A



R

CONFIDENTIAL

AF FORM 112-PAR		
APPROVED 1 JUNE 1948		
DECLASSIFIED PER EO 12958, SECT 3.4 NND PROJECT NUMBER <u>9774352</u> YEAR DECLASSIFIED: <u>97</u> RICHARD L. BOYLAN, NATIONAL ARCHIVES DATE COPIED: _____		
COUNTRY	REPORT NO.	(LEAVE BLANK)
GERMANY	D-E-58-B-2975-0	
AIR INTELLIGENCE INFORMATION REPORT		
SUBJECT		
UN Prisoners in USSR.		
AREA REPORTED ON	FROM (Agency)	
BUTYCHAG, USSR	7050th AIGW (USAF)	
DATE OF REPORT	DATE OF INFORMATION	EVALUATION
9 to 12 Feb 54	Nov 48 to Jul 53	C-3
PREPARED BY (Officer)	SOURCE	
JOSEPH L. FESER, Major, USAF	199921	
REFERENCES (Central number, direction, previous report, etc., as applicable)		
None		
SUMMARY: (Enter concise summary of report. Give significance in final one-sentence paragraph. List inclusions at lower left. Begin text of report on AF Form 112-Part II.)		
<p>I. <u>PREAMBLE:</u> SOURCE was interned from Nov 48 to Jun 53 in a forced labor camp next to the gold mine RUDNIK BYELOVA (SOURCE's spelling, coordinates unknown); Reference is made to Report A. In Jun 53 SOURCE together with other forced laborers was taken to the Forced Labor Camp, Pt 5, Incl 1, Report B, in MAGADAN (5934N-15048E). Concentrated here were 200 forced laborers who were scheduled to be repatriated. From MAGADAN these people travelled by passenger ship to NAKHODKA (approximate coordinates 4250N-13254E), where they boarded a freight train for the trip on the Transsiberian Railroad. SOURCE spoke Russian fluently. All info contained in this Report is based on SOURCE's personal observation, unless otherwise indicated.</p>		
<p>II. <u>UN PRISONERS IN USSR.</u> When SOURCE arrived in Nov 48 in the forced labor camp next to the gold mine RUDNIK BYELOVA, 3 Chinese Nationalists were already interned here. Fellow convicts told SOURCE these men had been officers. They were treated in the same manner as the other inmates and also worked in the gold mine RUDNIK BYELOVA. Russian guard soldiers told SOURCE the postal address for this camp was KHABAROVSKIY KRAY, RUDNIK BYELOVA, # 283. SOURCE had no opportunity to talk to these men and did not know the reason why they were interned in a forced labor camp. Other fellow convicts who worked with these men in a same brigade told SOURCE that they were being interrogated once monthly by the MVD authorities in the forced labor camp. During Sep 51 arrived 50 South Korean PWs in RUDNIK BYELOVA from a forced labor camp "POLTAVA" (SOURCE's spelling, coordinates unknown), which was rumored to be 100 km farther N. According to rumors there were some officers in that group, who were also detailed to work in the gold mine and were treated in the same manner as the other inmates. Fellow PWs who spoke to several of these POWs told SOURCE these men had been taken prisoners by North Korean Forces during the early stages of the conflict. SOURCE did not know when these men had been turned over into Russian custody or the reason of their internment. When SOURCE was being taken in Jun 53 to MAGADAN to be repatriated, 25 of the South Koreans and the 3 Chinese Nationalists were also moved to MAGADAN; 200 forced laborers were concentrated here, of whom all were to be repatriated. SOURCE did not see the remaining 25 South Koreans when they embarked on the passenger boat ILYITSH (SOURCE's spelling) on the 20 Jul 53. The 25 South Korean POWs and the 3 Chinese Nationalists stayed in the forced labor transport until they left the train in CHITA (5203N-11330E). It was rumored that these men were to be repatriated also.</p>		
0 INCL.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  JOSEPH L. FESER Major USAF Commander 7050th AIGW </div>		
DISTRIBUTION BY ORIGINATOR		

NOTE: THIS DOCUMENT CONTAINS INFORMATION AFFECTING THE NATIONAL DEFENSE OF THE UNITED STATES WITHIN THE MEANING OF THE ESPIONAGE ACT, 50 U.S.C. 31 AND 32, AS AMENDED. ITS TRANSMISSION OR THE REVELATION OF ITS CONTENTS IN ANY MANNER TO AN UNAUTHORIZED PERSON IS PROHIBITED BY LAW. IT MAY NOT BE REPRODUCED IN WHOLE OR IN PART, BY OTHER THAN UNITED STATES AIR FORCE AGENCIES, EXCEPT BY PERMISSION OF THE DIRECTOR OF INTELLIGENCE, USAF.

R

CONFIDENTIAL

Air Force-USAFE, Wdn, G-1-173-572

8. 일본군 포로등록 카드

3710 200 Г 0800

МВД—СССР

Гла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по делам о военнопленных и интернированных

СОВ. СЕКРЕТНО

Арх. № ОЯ390445

УЧЕТНОЕ ДЕЛО	№ № актов или свидетель- ств	№ № р.к. дел
	47	45764
	32/р	

На военнопленного Котляма
(фамилия)

Сейзи
(имя и отчество)

Дело закончено в связи с репатриацией

„31“ мая 194г.

3110 200 Γ 0800

極秘

ソ連邦内務省

軍事捕虜抑留者業務総管理局

文書 No. OЯ 390445

登録文書

収容所または 特設病院の番号	登録文書 の番号
N. 7	45164
33収容所支部	

捕虜の氏名

片山清次

本件は引揚げにより完了した

1949年7月31日

3110 2001-080-1

Гла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МВД СССР по делам о военнопленных и интернированных

Учетное дело № 45164

Лагерь № 7

Дата прибытия в лагерь
194 г.

ОПРОСНЫЙ ЛИСТ

1	Фамилия	Карпович
2	Имя	Сергей
3	Отчество	
4	Год рождения	1923
5	Место рождения	Озюк р-он Нижегородская у. Дачный поселок 2-й 25/35
6	Адрес до призвания (последне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о перед призванием в армию)	Озюк р-он Нижегородская у. Морозовский ул. Ушаков 25/30
7	Национальность	Русский
8	Родной язык	русский
9	Какие еще языки владеет	нет
10	Подданство или гражданство	русское
11	Партийность	б/п
12	Вероисповедание (религия)	Буддизм
13	Образование: а) общее б) специальное в) военное	а) в школе б) в школе в) нет
14	Профессия и специальность до службы в армии	Заготовщик
15	Стаж работы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и	2 года
16	В какой армии противника состоял	Квантунская
17	Призван в армию по мобилизации или поступил добровольно	
18	Когда призван (или поступил в армию)	12 1944
19	Род войск	обоз
20	В какой (последней перед плене- нием) части служил	136 км. 88 обоз 20 км
21	Матрикулярный номер	45164
22	Чин или звание	солдат
23	Занимаемая должность в части	продовольств

3 1 1 0 2 0 0 Γ 0 8 0 1 ~ 3

ソ連邦内務省軍事捕虜抑留者業務総管理局

登録文書 No. 4 5 1 6 4

収容所 No. 7

収容所への到着年月日

194... 年 (以下無記入)

身 元 調 査 書

1	姓	片 山
2	名 前	清 次
3	父 称	
4	生 年	1 9 2 3
5	出 生 地	大阪市西淀川区 第2本町 55番地
6	召集前の住所 (軍隊への召集前の最後の居住地)	福井県吉田郡森田町稻多25-90
7	民 族	日 本 人
8	母 国 語	日 本 語
9	その他に話せる言語	な し
10	国 籍	日 本
11	(省略)	(省略)
12	信 仰 (宗 教)	仏 教 徒
13	教 育 歴 a) 普通教育 b) 専門教育 c) 軍人教育	a) 6学年 b) 3年 c) なし
14	軍隊勤務前の職業及び専門	畜産技手 (注 公務員の誤記)
15	専門分野での勤務歴	2 年
16	敵国のどこの軍隊に務めていたか	関 東 軍
17	軍隊に徴集されたのは動員に基づいてかあるいは志願だったか	
18	いつ軍隊に召集されたか (あるいは入隊したか)	1 9 4 4 年
19	部 隊 の 種 類	輜 重 隊
20	どの部隊 (捕虜になる直前の最後の) で軍務についていたか	第126師団第88輜重部隊
21	名 簿 の 番 号	4 5 1 6 4
22	軍の位または称号	兵 士
23	部隊で占めていた地位	兵 卒

3 1 1 0 2 0 0 1 0 8 0 2

24	Какие игры играли	нет
25	Взят ли пленный или сделан добровольно	по капитуляции
26	Когда взят (или сдался) в плен	август 1945.
27	Где взят в плен	2. Одокали
28	Собственное положение (возраст или месяц)	20 лет
29	Семья, имя и отчество жены и детей, их возраст, род занятий и точный адрес местожительства	Z
30	Тоже отец и мать	Отец: Катаяма Саогу - 1896 мать: Катаяма Коми - 1897. no n 6
31	Тоже братья и сестры	Катаяма Саогу - 1926 Катаяма Мицунага - 1930 Катаяма Кацухико - 1933 no n 6
32	Собственное положение отца	Служащий
33	Социальное положение отца	Служащий
34	Искусственное положение отца	не служил

24	どのような褒章を得ているか	なし
25	捕虜にとられたか自発的に投降したか	無条件降伏に基づいて
26	いつ捕虜にとられたか又は投降したか	1945年8月
27	どこで捕虜にとられたか	横道河子市
28	家族状況(独身か又は妻帯しているか)	独身
29	妻及び子供の姓名と父称、年齢、職業、及び居住先の正確な住所	
30	父親及び母親について 同様に	父：片山歳次 1896年 母：片山こま 1897年 第6項に同じ
31	兄弟及び姉妹について 同様に	(省略) 第6項に同じ
32	父親の階層的状況	勤め人
33	父親の社会的地位	勤め人
34	父親の資産状況	無産階級
35	軍事捕虜の社会的地位と資産状況	勤め人、無産階級
36	ソ連邦に居住したことがあるかどうか (どこで、いつ、何に従事していたか)	なし
37	親戚か知合いの中の誰かがソ連邦に住んでいるかどうか(彼らの姓名、父称、年齢、勤務先、職業、居住地)	なし
38	かつて裁判あるいは取調べを受けたことがあるかどうか、いつ、どこで、誰によって、何の罪で有罪判決を受け、どこで服役していたか	なし
39	他のどのような国に行ったことがあるかどうか、いつからいつまで、何に従事していたか	なし
40	軍隊に召集される前の実践的活動すべてを詳細に列挙すること	1942年から1944年まで畜産技手として働いていた (注“畜産技手”は14と同じく誤記)

3 1 10 2007 0803

36	Социальное и душевное положение военнопленного	Смущенный не широк
38	Проживал ли в Советском Союзе (где, когда и чем занимался)	Нет
37	Кто из родственников и знакомых проживает в СССР (их фамилии, имена, отчества, возраст, место работы, род занятий, местожительство)	Нет
38	Был ли под судом или следствием, когда, где, кем и за что осужден, где отбывал наказание	Нет
39	В каких дружках государством бывал. С какого и по какое время, чем занимался	Нет
40	Перечислить подробно всю практичес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до призвания в армию	с 1942 по 1946 г. работал Завхозом в колхозе

3110 2001 0804

41 Подпись воспроизведенного и дата вы-
полнения старого листа

31/12.92

片山清次

СЛОВЕСНЫЙ ПОРТРЕТ: Рост В. среднего телосложение правильное
 цвет волос Черный глаза серые
 нос правильный лицо правильное

ОСОБЫЕ ПРИМЕТЫ:

Должность, звание и фамилия сотрудника, заполнявшего старый лист :

Политручник офицер и.и. Рудольфов

Отметки о движении

Приказ. С. 3. 12. 1992 31.12.921708-49. ПЕРЕДАЧА В ЛИТЕРА
РЕПАТРИАЦИИ N: 383

3110 200 Γ 0804

41	軍事捕虜の署名及び アンケート用紙記入の年月日	1947年5月31日 片山清次 (自署名)
----	----------------------------	--------------------------

人 物 的 特 徴: 背丈 平均より高い 体つき 正常
 髪の色 黒色 眼 黒色
 鼻筋 真直ぐ 顔立ち 整っている

特 記 事 項

アンケート用紙を記入した職員の職務、称号、姓
 当直将校 中尉 クドリャフツェフ

移動についての記録

3収容所支部に到着した、第12収容所支部から 1949年7月31日

15108-49
 送還収容所No.383へ引き渡された

3110 200 Γ 0805

証 明 証

私、“片山清次”は、第7収容所に所在していた間に、何も没収されなかったということ
 を証明いたします。

참 고 문 헌

1. 제1차 사료

「국방부장관이 육군참모총장에게 : 미귀환포로에 관한 건」 1956. 12. 28,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편, 『남북한 관계 사료집 1-25, 1995-199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 2006.

심지화 편, 『6·25전쟁 : 러시아 문서보관소의 비밀 해제 문서』, 상·하,
대북 : 중앙연구원근대역사연구소, 2003.

외무부 역, 『한국전쟁 관련 소련극비 외교문서』, 14, 1994.

육군본부 편, 『한국전쟁 사료』, 199, 1985-1990.

육본 인참부, 「포로관계철 1953-54, 육본 기록정보관리단.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한국전쟁기 빼랍』, 2000.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빨치산자료집 7, 1996.』

『로동신문』, 『민주조선』, 『조선인민군』.

『인민일보』, 『해방군보』, 『동북조선인민보』.

『조선중앙년감』, 1951-1985.

CCRAK 8242nd Army Unit Combat Report, April-Aug. 1953, 군사편
찬연구소 HD 1967-1971

Chinese People's Committee for World Peace, *UN POWs in Korea*,
Peking : China, 1953.

Great Britain, Ministry of Defense, *Treatment of British Prisoners of
War in Korea*, London : H.M.S.O., 1955.

The Chinese People's Committee for World Peace, *The Struggle for
the Armistice in Korea*, Peking : 1953. 9.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S.*,
Washington D.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55-1985.

U. S. Senate Committee, *Hearing before the Subcommittee on Korean War Atrocities Part 1-3*, 1953. 10-12.

Wringer Reports: Reports of Returning POWs and Detainees Under Japanese Control.

2. 논 저

1) 논 문

-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 「북한억류 한국군 포로들의 실태보고서」, 『새물결』, 1995. 10.
- 김귀옥, 「1960~70년대 비전향 장기수와 감옥의 일상사」, 『역사비평』 94, 2011. 2.
- 김정민, 「국군포로와 이산가족들에 대한 노동당의 정책」, 『북한』, 1998. 6.
- 서상국, 「살라모프와 솔제니친의 수용소에 대한 태도 비교 연구: 노동과 음식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논문집』 34, 1999. 2.
- 서상국, 「수용소 공간 비교 연구: V. 살라모프, S. 도블라토프, A. 솔제니친을 중심으로」, 한국노어노문학회, 『노어노문학 20-3』, 2008. 9.
- 서주석,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문제 연구」, 『북한조사연구 2-1』, 1998.
- 서주석, 「미국의 대북한 포로 및 유해 송환정책」, 『군사』 35, 1997.
- 신 율, 「이산가족 정책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연구」, 한국국제정치학회 춘계 학술회의, 2001. 4. 13
- 심현용, 「1930년대 소련 국가권력의 위기와 한인 강제이주」, 『군사』 64, 2007. 8.
- 이기봉, 「5만 국군노병포로, 북한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북한』 1998. 6.
- 이기봉, 「북괴포로수용소」, 조선일보사, 『전환기의 내막』, 1982.
- 제성호, 「국군포로 및 납북자문제 해결방안」, 『국가전략』 7-1, 2001.
- 제성호, 「동서독간의 정치범 석방거래와 북한 억류자문제 해결방안」, 『인도법논총』 26, 2006.

- 조성훈, 「미국자료를 통해 본 휴전협상의 지연 요인 연구」, 『정신문화연구』 23-2, 2000년 여름호.
- 조성훈, 「미귀환포로」,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 조성훈, 「포로문제의 쟁점과 현재적 의의」, 전쟁기념관, 『전쟁과 유물』 5, 2013.
- 조성훈, 「국군포로 문제의 발생과 송환방안 모색」, 국방부 군비통제과, 『한반도군비 통제』 2010.6.
- 평화재단, 「북한주민의 인권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2006.9.
- 허만호, 「북한어류 한국군포로의 송환: 법리적 판단과 협상론의 한계를 넘어」, 『성곡논총』 29-2, 1998 소련 국가권력의 위기와 한인 강제이주」, 『군사』 64, 2007. 8.
- Bernhard, Michael H., “Gulag: Life and Death Inside the Soviet Concentration Camps(review)”, *Journal of Cold War Studies* 9.3, 2007.
- S. I. Kuznetsov, “The situation of Japanese prisoners of war in Soviet camps(1945-1956)”, *The Journal of Slavic Military Studies*, Vol.8, Issue 3 September 1995.
- Ivan P. Aleksakhin. Kolymskie etapy. In : Kraevedcheskie Zapiski, 1989. No. 16.

2) 저 서

- 강철환, 『수용소의 노래, 시대정신, 2003.
- 고상진·전도명, 『조선전쟁시기 감행한 미제의 만행』, 사회과학출판사, 1989.
- 곡애국·증범상, 『조남기전』, 연길: 연변인민출판사, 2004.
- 국방부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단, 『6·25전쟁 국군 유해소재 증언집』, 2001.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유해소재 분석지도, 2010.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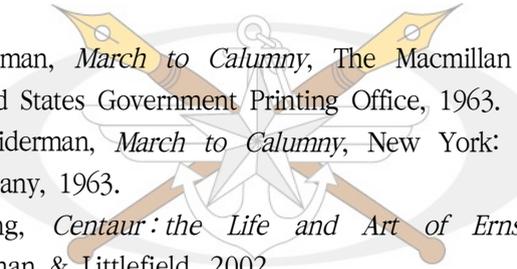
- 국방부 정훈국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란 1년지』-『 한국전란 5년지』951-1956.
- 국방부, 『국군포로문제: 실상과 대책』, 국방부, 1999.
- 국방부, 『조국은 당신들을 잊지 않습니다』, 2007.
- 국방정보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1-3』, 1986, 1993, 1997.
- 국사편찬위원회·한양대 한국학연구소, 『소비에트시대 고려인의 노래 1~3』,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5.
- 국제문제연구소 편, 『력사가 본 조선전쟁』,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3.
- 국회, 『국회속기록』 1950-54, 국회사무처.
- 『공화국영웅전 1-2』, 민청출판사, 1958.
- 권영훈, 『고려인이 사는 나라, 까자흐스탄』, 열린책들, 2001.
- 권태면, 『북한에서 바라 본 북한』, 중명, 2005.
- 김계르만, 『한인이주의 역사』, 박영사, 2005.
- 김계동,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 서울대출판부, 2000.
- 김복동, 『국군포로 현황과 실태』, 1998. 12.
- 김상훈 등, 『새로운 전선에서』, 민청, 1963.
- 김석영, 『판문점 20년』, 진명문화사, 1973.
- 김석영, 『판문점』, 신문화사, 1972.
- 김석중, 『식품』, 극동문제연구소, 1991.
- 김선혁, 『평양에서 서울까지 47년: 한 애국 청년의 시베리아 강제노동수용소 유형 및 유배 체험 수기』, 흥성사, 1996.
- 김수암·이금순·최진욱·서은성, 『국군포로·납북자문제』, 통일연구원, 2007.
- 김행복, 『한국전쟁의 포로』, 국방군사연구소, 1996.
- 남정옥, 『이승만 대통령과 6·25전쟁』, 한국학술정보, 2010.
- 동북군정대학길림분교교사연구회편, 『광휘적족적』, 연변인민출판사, 2006.
- 량동수·백운송, 『미제를 타승한 강철의 령장』,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 리인모, 『신념과 나의 한생』,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3.
- 마크 클라크(김형섭 역), 『다뉴브강에서 압록강까지』, 국제문화출판사, 1981.
- 문영대, 『우리가 잃어버린 천재화가, 변월룡』, 켄쳐그라피, 2012.
- 미셸 푸코(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 나남출판, 2007.

- 박남식, 『실낙원의 비극』, 문음사, 2004.
-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월 1, 2, 나남, 1996.
- 박정인, 『풍운의 별』, 홍익출판사, 1990.
- 박종철 외, 『헝가리의 북조선 관련 기밀해제문건』, 선인, 2013.
- 박진홍, 『돌아 온 패자, 역사비평사, 2001.
- 배동걸, 『북한포로수용소를 찾아서』, 1962.
- 백응태, 『거제도에서 판문점까지』, 대원출판사, 1987.
- 백학순, 『노태우정부와 김영삼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세종연구소, 2012.
- 보리스 박·니콜라이 부가이(김광환·이백용역), 『러시아에서의 140년간』, 시대정신, 2004.
- 솔제니친(유재동 역), 『수용소군도』, 고려문학사, 1990.
- 송중환, 『북한 협상행태의 이해』, 오름, 2002.
- 송효순, 『대석방, 신현실사, 1976.
- 신순남, 『수난과 영광의 유민사』, 국립현대미술관, 1997.
- 신화봉(최태순 역), 『휴전선이 열리는 날』, 한국논단, 1993.
- 심헌용편, 『6.25전쟁 연구경향 및 사료해제』, 군사편찬연구소, 2009.
- 안소니 파라-호커리(김영일 역), 『한국인만 몰랐던 파란 아리랑』, 한국언론인협회, 2003.
- 알렉산더 돌전(Alexander Dolgun), 『수용소 군도 23년』, 월간 중앙 1975년 9월 별책 부록.
- 앤 애플바움(GAGA 통번역센터역), 『굴랏 상·하, 드림박스, 2004.
- 양대현, 『역사의 증언』, 형설출판사, 1993.
- 『영광스러운조선인민군』, 조선로동당출판사, 1958.
- 윌리엄 린드세이 화이트(조영철 역), 『한국전쟁 포로』,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6.
- 윤석률, 『복수의 불길』, 선동원사, 1963.
- 윤여상·구현자·김인성·이지현, 『북한 구금시설 운영체계와 인권실태』, 북한인권정보센터, 2011.
- 윤여상·박성철·임순희,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과 인권실태』, 북한인권정보센터, 2013,

-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고려대학교출판부, 2004.
- 윤정식, 『두번하는 생일』, 지평, 1998.
- 이금순 외, 『북한 정치범수용소』, 통일연구원, 2013.
- 이용석, 『죽은 자들의 증언: 유해발굴』, 인사이드엔뷰, 2013.
- 이운규, 『들리지 않던 총성 종이폭탄』, 지식터미, 2006.
- 임익순, 『내 심장의 파편』, 시월, 2013.
- 오경섭·윤여상·허선행, 『국군포로 문제의 종합적 이해』, 북한인권정보센터, 2008.
- 장기홍, 『울음보가 터진 남자: 시베리아 별목장 탈출기』, 성심도서, 1993.
- 장용준 헬리데이(황의방 외역), 『마오: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 까치, 2006.
- 정상진, 『아무리 만에서 부르는 백조의 노래』, 지식산업사, 2005.
- 정창중, 『바이칼은 흐르고 있는가』, 고려원, 1991.
- 정책기획관실 기본정책과, 『국방백서』, 2012.
- 정현수 외, 『중국조선족 증언으로 본 한국전쟁』, 선인, 2006.
- 제성호, 『미귀환 국군포로문제 해결방안』, 통일연구원, 1999.
-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군 포로들에 대한 미국침략자들의 만행에 관한 자료집』, 평양: 국립출판사, 1954.
- 『조선인민군 중국인민지원군과의 공동작전』, 평양: 로동당출판사, 1951. 8.
-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 1~3,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
- 『조선전사 25-26』,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1.
- 조선중앙통신사, 『해방 후 10년일지 194555』, 평양: 1955.
-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선인출판사, 2010.
- 조창호, 『돌아 온 사자』, 지호출판사, 1995.
- 주 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 총영사관, 『러시아 극동·동시베리아 지역별 개황』, 2005.
- 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 1~2』, 고려원, 1990-1991.
- 『중국군 장군들의 한국전쟁 회고』, 공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2004.
-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부(한국전략문제연구소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세경사, 1991.

-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전쟁사』
1-3, 군사편찬연구소, 2003-2005.
-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연변조선족자치주위원회 문사자료학습선전위원회편,
『우리 겨레의 장군들, 민족출판사, 2005.
- 『지원군영웅전, 평양민청출판사, 1958.
- 『지원군의 하루 1-3, 민족출판사, 1959.
- 최덕신, 『내가 겪은 판문점』, 삼구문화사, 1955.
- 최태환박해강, 『젊은 혁명가의 초상, 공동체, 1989.
- 터너 조이, 『공산주의자는 어떻게 협상하는가?』,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3.
- 토마스 로저스(이덕형 역), 『압록강 포로수용소』, 해동문화사, 1988.
-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09.
-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편,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집』 1~2, 2006, 2009.
합동정보참모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1999.
- 허만호,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 명인문화사, 2009.
- 허재석, 『국군포로는 분노의 강을 넘어 살아서 돌아왔다, 작은 숲, 2006.
- 허재석, 『내 이름은 동간나새끼였다, 원북스, 2008.
- 竹内錦司, 『シベリア収容所』, 국서간행회, 1982.
- セルゲイ クズネツォフ(荒井雅子 譯), 『ロシアに渡った日本人』, 東洋書店, 2004.
- セルゲイ·I·쿠즈네프(岡田安彦 譯), 『シベリアの日本人捕虜たち』, 集英社, 1999.
- 長勢了治, 『シベリア抑留全史』, 동경: 原書房, 2013.
- 全國強制抑留者協會, 「전후강제억류자의 노고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집약편
집보고」 상·하, 東京: 平成21年度.
- 平和祈念事業特別基金, 『シベリア強制抑留者が語り斷ぐ勞苦 6』, 平和祈念事業特
別基金, 1996.
- 阿部軍治, 『シベリア強制抑留の実態: 日ソ両国資料からの検証』, 彩流社, 2005.
- Paul Carell(畔上司 譯), 『捕虜』, 東京: Gakken, 2001.
- 郭維敬, 『世界第一等的戰營』, 북경: 중국사회과학출판사, 2010.
- 桂蘭·李宗儒, 『統領万岁軍』, 북경: 중국청년출판사, 2004.
- 杜平, 『在志願軍總部』, 해방군출판사, 1989.

- 邊麗君·馮金暉, 『朝中戰俘遣返內幕』, 北京: 華藝出版社, 1990.
- 舒云, 『楊勇上將』, 북경: 해방군문예출판사, 2005.
- 孫阿冰 편, 『李鍾玄戰鬪日記』, 북경: 해방군출판사.
- 穗예甲子男, 『시베리아俘虜記』, 동경: 光人社, 2009.
- 王柰慶, 『聯合國軍 戰俘紀事』, 北京: 解放軍出版社, 2000.
- 任桂蘭·李宗儒, 『統領萬歲軍』, 북경: 중국청년출판사, 2004.
- 任陣興九, 『조선전장 一干天』, 군사과학출판사, 2003.
- 張澤石, 『我的朝鮮戰爭: 一個志願軍戰俘的自述』, 북경: 시사출판사, 2000.
- 程來儀, 『朝鮮戰爭戰俘之迷』,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2000.
- 中國人民解放軍75200部隊政治部編, 『浴血朝鮮』, 解放軍出版社, 2001.
- 吴信泉, 『朝鮮戰場1000天—39軍在朝鮮』, 遼寧人民出版社, 1996.

- 
- Albert Biderman, *March to Calumny*, The Macmillan Com., N.Y.: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3.
- Albert D. Biderman, *March to Calumny*,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63.
- Albert Leong, *Centaur: the Life and Art of Ernst Neizvestny*, Rowman & Littlefield, 2002.
- Andrew E, Barshay, *The Gods Left First: The Captivity and Repatriation of Japanese POWs in Northeast Asia 1945-1956*,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3.
- Anne Applebaum, *Gulag: A History*, Broadway Books, 2003.
- Arden A. Rowley ed., *U. S. Prisoners of War in the Korean War*, Korean War Ex-POW Association, 2002.
- Ayyub Baghirov, *The Bitter Days of Kolyma from Azerbaijan International*, 2006.
- Bong K. Lee, *The Unfinished War: Korea*, New York: Algora Publishing, 2003.
- Cyril Cunningham, *No Mercy No Leniency*, Leo Cooper, 2000.
- Cyril Cunningham, *No Mercy, No Leniency*, South Yorkshire, Leo Cooper, 2000.

- David Green, *Captured at Imjin River*, Pen & Sword Books, 2011.
- Deborah Kaple, *Gulag Boss*, Oxford Univ. Press, 2011.
- Defense POW Missing Personnel Office, *U.S. Servicemen in Soviet Captivity*, 2008.
- Eckard Michel, *Deutsche in der Fremdenlegion 1870-1965*, Schoningh, 1999.
- Galina Mikhailovna Ivanova (translated by Carol Flath), *Labor camp socialism: the Gulag in the Soviet totalitarian system*, M.E. Sharpe, 2000.
- H. H. Wubben, "American Prisoners of War in Korea: A Second Look at the "Something New in History" Theme", *American Quarterly* vol. 22, no.1, Spring, 1970.
- Iwao Peter Sano, *One Thousand Days in Siberia: The Odyssey of a Japanese-American POW*,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99.
- James F.Schnabel, Robert J.Watson(채한국역), 『한국전쟁』, 상·하,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90-1991.
- Janusz Bardach·Kathleen Gleeson, *Surviving Freedom: After the Gulag*,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3.
- Jehanne M Gheith·Katherine R. Jolluck, *Gulag Voices*, Palgrave Macmillan, 2011.
- Josef M. Bauer, *As Far As My Feet Will Carry Me*, Skyhorse Publishing, 2008.
- K. S. 티마야(라운도 역), 『판문점일기』, 소나무, 1993.
- Karlo Štajner, *Seven thousand days in Siberia*, Edinburgh: Canongate, 1988.
- Larry Zellars, *In Enemy In North Korea*, The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1991.
- Laurence Jolidon, *Last Seen Alive*, Ink-Slinger Press, 1995.
- Lewis H. Carlson, *Remembered Prisoners of a Forgotten War*, New York: ST. Martin's Press, 2002.

- Lothar Scholz, *Im Namen von Marx-Engels-Lennin-Stalin*, VGB-Verlagsgesellschaft Berg mbH, 2000.
- Lynne Viola, *The unknown gulag: the lost world of Stalin's special settlements*,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Martin J. Bollinger, *Stalin's slave ships: Kolyma, the Gulag fleet, and the role of the West*, Praeger, 2003.
- Martin J. Bollinger, *Stalin's Slave Ships: Kolyma, the Gulag Fleet, and the Role of the West*, Praeger Publishers, 2003.
- Michael J. Allen, *Until the Last Man Comes Home*, the North Carolina Press, 2009.
- Nicolas Werth, *Cannibal Island: Death in a Siberian Gulag*,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7.
- Nikolai Getman, *The Gulag collection: paintings of the Soviet penal system*, Jamestown Foundation 2001.
- Pat McGrath Avery, *They Came Home: Korean War POWs Tell Their Stories*, branson creek press, 2004.
- Paul Polian, *Against Their Will*, Budapest: CEU Press, 2004.
- Paul M. Cole, POW/MIA Issues: Vol.1, *The Korean War*, National Defense Research Institute, 1994.
- Paul R. Gregory and Valery Lazarev, *The economics of forced labor: the Soviet Gulag*, Stanford, Calif.: Hoover Institution Press, 2003.
- Peter Caston ed., *Prisoners of War Korea 1950-1953: the British Army*, London: London Stamp Exchange, 1976.
- Philip D. Chinnery, *Korean Atrocity!*,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2000.
- Richard M. Bassett and Lewis H. Carlson, *And the Wind Blew Cold: The Story of an American Pow in North Korea*, Kent State Univ. Press, 2002.
- Richard Peters and Xiaobing Li, *Voices of from the Korean War*, the Univ. Press of Kentucky, 2004.

- Robert Conquest, *Kolyma: the Arctic death camps*, London : Macmillan, 1978.
- Robert Miller, *America's Abandoned Sons*, Xibris Corp., 2012.
- Robert W. Pelton, *Unwanted dead or Alive Part 1: The Betrayal of American POW's Following WWII Korea and Vietnam*, Createspace, 2010,
- Ruth Derksen Siemens, *Remember Us: Letter's From Stalin's Gulag*, Pandora Press, 2007.
- S. P. MacKenzie, *British Prisoners of the Korean War*, Oxford: Oxford Univ. Press, 2012.
- Sergei I. Kuznetsov (translated by Yasuhiko Okada), *Shiberia no Nihonjin Horyotachi (The Japanese POWs in Siberia)*, Tokyo : Shueisha, 1999.
- Sheila Miyoshi Jager, *Brothers at War*, New York: W.W. Norton & Company, 2013.
- Simeon S. Vilensky, *Till My Tale Is Told: Womens Memoirs of the Gulag*, 2001.
- Sydney D. Bailey, *The Korean Armistice*, New York : St. Martin's Press, 1992.
- Tim Tzouliadis, *The Forsaken*, the Penguin Press, N.Y., 2008.
- Tomasz Kizny, *Gulag: Life and Death inside the Soviet Concentration Camps 1917-1990*, Firefly Books, 2004.
- Varlam Shalamov and John Glad, *Kolyma Tales*, 1995.
- William C. Latham Jr., *Cold Days in Hell: American POWs in Korea*", Texas A&M Univ. Press, 2012.
- William H. Vatcher, Jr., *Panmunjom*, New York: Frederick A. Prager, INC., 1958.
- William(Bill) Richardson, *Valleys of Death: A Memoir of the Korean War*, N.Y.: Berkley Calber, 2010
- Wladyslaw John Cieslewicz, *History of Russian gold mining through 1965*, Golden, Colorado, 1984.

Д.И, Раизман, Иностранцыневольники Дальстроя, Магадан, 2009.

Поэзия узников ГУЛАГа: антология составитель, С.С. Вил
енский Междунаро дный фонд “Демократия” : Материк
2005.

3. 인터넷 홈페이지 등

강제노동수용소 온라인아카이브스(Forced Labor Camps on-lineexhibition

Open Society Archives): <http://www.osaarchivum.org/gulag/>

국사편찬위원회(www.history.go.kr) 한국사데이터베이스·전자자료관

러시아 수용소 메모리얼 : <http://memorial.ru>

미 국방부 포로실종국(DPMO) : www.dtic.mil/dpmo

미 의회 연방연구부(Federal Research Division): www.loc.gov/rr/frd

미 포로협회: <http://koreawarexpow.org>

미국 포로실종자가족협회 : www.pow-miafamilies.org

샬라모프 학회(The Shalamov Society): <http://www.shalamov.com>

일본평화기념사업특별기금 : <http://www.heiwa.go.jp>(해산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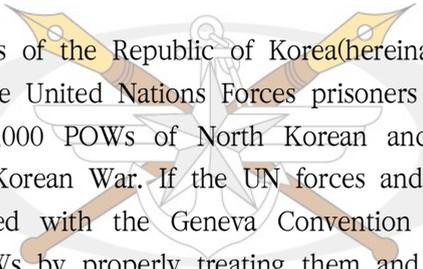
폴란드 및 동유럽현대사 센터 : <http://www.karta.org.pl>

헝가리 소비에트굴락 연구단체 : <http://www.gulag.hu> 등

Korean War and ROK POWs

Cho, Sung-hun

1



There were lots of the Republic of Korea(hereinafter referred to as 'ROK') and the United Nations Forces prisoners of war('POWs') while about 170,000 POWs of North Korean and Chinese were captured in the Korean War. If the UN forces and the communist side had complied with the Geneva Convention relative to the treatment of POWs by properly treating them and returning them after the War, the POWs issue could have been resolved.

During the Armistice negotiation, however, the communist forces omitted a large portion of ROK POWs from the POWs list, registering them as North Korea military personnel or resident: Thus, there are still a large number of ROK POWs who have yet to be returned to South Korea. After 2nd Lieutenant Cho, Chang-ho escaped from North Korea in October 1994, some family members of ROK POWs who died in North Korea bringing recently the remains of the deceased with them. Also deserving mention is the issue of UN or the US forces personnel who had gone missing.

This year marks the 61th anniversary of the Armistice Agreement

that suspended the Korean War. The issue, however, has not yet been resolved. Regarding that most of those veterans are over 80 years old, that is an urgent matter. The Korean War cannot be said to have ended in the true sense of the word, until the unreturned POWs come back to their home towns.

This book seeks to find a way to address the issue of 'ROK POWs of No Return,' by reviewing the POW treatment by the communist forces and the negotiation process after the Armistice. The issue of the unreturned ROK POWs from North Korea caused much controversy during the Armistice negotiation. North Korea kept denying their presence although some POWs escaped to South Korea immediately after the signing of the Armistice Agreement.

The fundamental cause of the issue of the unreturned ROK POWs lies in the POWs policy of North Korea. North Korea, unlike the UN Forces, did not announce the accurate number of POWs, did not inform the Red Cross, and removed many of the POWs from the lists when exchanging the POW lists, assigning them into the North Korean military or as North Korean residents. When exchanging POW lists in December 1951, North Korea delivered the number of ROK and UN POWs as mere 11,559. This included about 7,000 ROK POWs, which represents gross distortion of the truth. This number is vastly different from 65,368 announced by North Korean military after 9 months from the war, or 108,257 announced by the North Korean Supreme Command in June 1951.

South Korea did not have accurate number of POWs and missing persons amid continued retreat against North Korea's advance, and the task became even more difficult as the prisoners and missing persons included police men, guerrillas and laborers. For these reasons, we need to start our discussion with the

number 108,257, officially announced by the North Korean command. The number of POWs captured by the Chinese forces alone is 46,088 including 37,532 ROKs. And according to documents from the Russian Department of Defense, the number of prisoners is up to 55,800, including 41,450 ROKs.

The ROK and UN POWs captured during the war had to go through the 'Death Marches' during transfer, and many of them died at the POW camps. Almost 12,000 of them died in captivity.

The unreturned ROK POWs in total can be changed according to the way we count them. There could be many POWs left North Korea doesn't tell. Based on 108,257 announced by the North Korean command in June 1951, the number of POWs to be accounted for by North Korea exceeds 90,000 including UN POWs, if we leave out the returned prisoners and ROK prisoners who escaped from North Korea.

Unreturned ROK prisoners, after the registration into the North Korea military or as North Korean residents, became the 'citizens' of North Korea as 'veterans with nowhere to return'. Most of them were allocated to mines without any freedom to choose their jobs, and subject to severe discrimination based on their status, filling the lowest rank along with the families of those who went to South Korea and the families of former landlords.

Although the ROK government has expressed its responsibility and strong will to solve the issue of unreturned ROK POWs, with North Korea still adhering to its original position that there are no ROK POWs or abductees to North Korea, the resolution of the issue seems to be still far-fetched: even the way of separated

families reunion during the Korean War can be very limited.

The ROK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has been making efforts for return of the unreturned ROK POWs and settlement of those who escaped from North Korea, even organizing an all-government committee dedicated to the goal. The issue, however, has yet to be resolved. At this juncture, we need to remind the ROK people of the issue of POWs and missing persons. The U.S., a nation which experienced numerous wars, including the 2nd World War, the Korean War, and the Vietnam War, designated a day each year as the 'National POW/MIA Recognition Day.' The Committee of Families of Abductees to North Korea during the Korean War has been holding the 'Walk along the Path of Abduction' event since 2001 and the 'National Forget-me-not Badge Wearing Event' since 2011. This organization set a day for remembering the 'Korean War Abductees' and has been hosting events every year to raise the awareness of the issue.

Among unreturned POWs, South Korea needs to first demand the return of those who are or had been incarcerated in prisons or political prisoner camps for actively resisting detention or attempting to escape. To understand their situation, it is helpful to think of them as North Korean equivalent of 'unconverted long-term political prisoners' in South Korea. Not to mention those surviving today, the deceased POWs also need to be returned to their families after excavating their remains. Such excavation should first focus on camps with large numbers of ROK POWs as well as high casualties, such as Byeokdong(Pyoktong) Camp and Cheonma Camp.

Another course of action worth considering is to provide humanitarian aid to families of ROK POWs residing in North Korea. Most ROK POWs detained in North Korea got married there

and had children. Even if the detainees manage to escape from North Korea, such escape only create more separated families unless the whole family will cross the border together. Then, the remaining members will be subject to a series of disadvantages that include political prisoner camps, offender camps, and deportation. For these reasons, South Korea needs to consider providing financial aid to families of ROK POWs.

Although some of the ROK POWs and abductees to North Korea were temporarily reunited with their families through the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program, North Korea has yet to spur the efforts to recognize the existence of POWs from the Korean War and resolve various related issues in a humanitarian way under the premise that the POWs are the victims of the Cold War Era. After all, North Korea is the one that has the most accurate knowledge regarding the total number of POWs from the War and the number of POWs remaining and surviving in North Korea, apart from some surviving POWs identified as a part of resolving the legacy of the Korean War. Resolving these issues will contribute to forming a friendly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the responsibility to account for the unreturned ROK POWs that its Supreme Command announced during wartime, except for the 8,000 who returned to ROK. The government should also release the list of detainees, including the 13,094 POWs mentioned in the said USSR document, including those who died at the POW camps, and whether those listed are alive. It also needs to provide acceptable explanation for the suspicion that the POWs were transferred to forced labor

camps in Siberia.

Chinese and Russian governments also need to do their part. The Chinese forces formed and cooperated the ‘DPRK Army and Chinese People’s Support Forces for POWs Management Department.’ Therefore, it is likely that the Chinese military had knowledge of the total number of prisoners, the number of those registered into the North Korean military, and the number of those who died. The Chinese government, however, has been somewhat sparing in disclosing the records related with the Korean War in consideration of its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The Chinese government has the responsibility to account for at least the unreturned POW’s of the 37,532 captured by its forces. Regarding Peng Dehuai’s letter sent to Mao Zedong on January 19, 1951 that mentioned a plan to allocate 20,000 ROK soldiers to five North Korean corps and the claim of a Chinese researcher that Kim, Il-sung told Mao Zedong that the number of unreturned ROK POWs is around 60,000, the Chinese government should disclose the relevant records. Moreover, the Chinese records of its participation in the Korean War states that the number of ROK POWs who surrendered is only 283.

The Russian government has also been reluctant to disclose the records related with such issues as the Armistice negotiation,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and POWs. A German POW who returned from a labor Camp in Magadan, Eastern Siberia stated that he “witnessed 50 ROK POWs there in September 1951” and heard that “they had been captured by North Korea at the early stage of the Korean War”. The Russian Ministry of Defense, however, denied any allegations of transferring ROK POWs to Siberia, and refused to provide the relevant records. In addition, according to records of the Russian Ministry of Defense, the number of ROK

POWs is 41,000. Even if we set aside 11,000, including those identified as having returned to ROK, the number of POWs unaccounted for is close to 30,000. Russia needs to provide detailed explanation for this.

As I finish writing this book, what overwhelms me is a sense of 'fearful responsibility' that this book may not be sufficient to convey the horrors and sacrifices that ROK and UN POWs went through during the 'Death Marches', their camp life, and their lives as detainees after the Armistice. Moreover, I am filled with painful regret that the issue of 'unreturned ROK POWs' and those missing has yet to be resolved even after 60 years since the Armistice. I am looking forward that this book may contribute to resolving the issues.

In this publication, I made my best efforts to describe the sufferings and sacrifices of UN POWs, including those from the United States, thus commemorating them along with the ROK POWs. I dedicate this book to the members of the ROK forces and UN soldiers who became POWs and could not return to their homelands.

● 찾아보기 ●

(ㄱ)

감시체제	208	공화국 영웅	18
강계	62	관대정책	58, 60, 91, 169
강계 포로수용소	90	광주 포로수용소	286
강계교화소	280	교정노동수용소	242
강동 제8포로수용소	109	구국투쟁동맹	175
강동 포로수용소	69, 202	구술사업	306
강상호	216, 220, 223, 224, 226, 239, 241	구읍등	66
강제노동수용소	242, 245, 260	구타	72
강제노동형	208	국가보안부	219
강제송환	131	국가인권위원회	267
강태무	109, 121, 126	국군 포로가족협의회	283
개성	17, 196	국군포로 및 납북자송환촉구	6
거제도 포로수용소	97, 198, 206, 277	국군포로대책위원회	5, 264
거제도 포로유적관	268	국군포로신고센터	267
건설대	198, 199	국기훈장	210
검덕광산	193, 207	국립문서기록관리청	218
경찰	15, 50	국립현충원	268
고간산	222, 223	국민방위군	51
고건원탄광	193, 204, 212, 281	국사편찬위원회	9
고근홍	180	국영농장	127
고려인	232	국제법	71
고르바초프	243	국제적십자	134
고산진	79	국제적십자사	59, 61, 138, 140, 264, 266, 297, 298
고지쟁탈전	21	군사건설국	199, 200
고지전	22	군사정전위원회	5
고참탄광	204	군사정전위원회	10, 179, 180, 181, 184, 263, 264, 299
공민	179, 204	군속	50, 51
공민증	164, 203	굴락	242
공산대학	209	굽비	217, 259
공습	86		

궁심탄광	202, 204	노동부대	124
궤기대회	101, 106	노력영웅	206
귀순자	188	노력훈장	207, 210
귀환군집결소	171	노무단	15
귀환용사	170	노무부대	141
귀환용사회	11	노무사단	50
금성전투	28, 160, 277, 278	노무자	50
금성천	28	노무현	292
김광연	89	노병대회	105
김대중	292	노병훈장	210
김선혁	234	노보시비르스크	221
김영삼	173		
김영웅	232		
김일성	36, 56, 79, 83, 101, 109, 112, 124, 156, 157, 159, 204, 207, 233, 300, 303	(ㄷ)	
김정일	207	단양	27
김화	28	대전	41
		대전교도소	77
		대한적십자	265
		대한적십자사	265
		덕천전투	20, 180
		털레스	170
(ㄴ)		명샤오핑	198
나고르스키	220, 224, 227	독일군포로	218
나나이족	256	동관탄광	204
나호드카	236, 237	동암광산	206
낙동강전선	42	두평	56
남로당	118	던	10, 57, 161
남북 장관급회담	286		
남북 적십자회담	5		
남북공동선언	4, 5, 292	(ㄹ)	
남북공동성명	292	레이시	183
남아공화국군	161, 187	레포르토토보감옥	233
남일	196	루드닉크 로바	230
남한 출신	265	류비안카 감옥	233
남북자	6, 290, 292, 295	리비	141
내무성 건설대	50, 127, 199, 201, 202	리지웨이	141
노동당	206	리커닝	135, 140

(口)		박승일	180
마가단	227, 229, 230, 234, 235, 244, 248, 255	박의 궁전	85
마넨	92, 174	박헌영	25, 79, 97, 101, 112, 199
마오쩌둥	26, 140, 156, 159, 169, 303	반공유격대	294
만저우리	241	반공포로	28, 110, 119, 131, 192, 285
만포	62	백두진	154
만포진	60, 69	버켓	106, 183
매봉산전투	279	별목공	237
매장지	99	베르락	244
맥아더	19	베트남전쟁	7
맥클루어	144	벽동	56, 60, 67
몰로토프	224, 241	벽동 포로수용소	82, 89, 98, 295
무산탄광	192, 202	변영태	136, 141, 144, 155
무의무탁한 제대군인	179, 203, 204	병사구	47
무장간첩	188	병적부	18
문관	51	보상	269
문용섭	181	복구공사	93
물망초	193	복구대	200
미 국방부 포로실종국	174, 215, 227, 228, 257, 268, 300	복구사업	199
미 중앙정보국	223	부사관포로	65
미·러 합동포로실종자위원회	215	부시	271
미귀환 국군포로	133, 145, 158, 291	부투기체크 주석광산	245
미하일 고르바초프	216	부평 포로수용소	155
미해명포로	187	북진	86
민간인	188, 197	북진 포로수용소	69
민간인억류자	33, 119, 131, 133, 136, 146, 149, 150, 190	북한 억류 국군포로 송환위원회	20
민족보위성	203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299
민족보위성 청사 건설	127	북한군 총사령부	8, 19, 25, 27, 31, 33, 37, 102, 163, 194, 196, 197, 218, 266, 292, 294
(ㅂ)		브란트	287
박갑동	226	블라디보스토크	236
박근혜	304	비군인	48, 50
박기영	229	비날론공장	204
		비전향 우익수	278
		비전향 장기수	5, 10, 277, 284, 294, 299

비정규군	48	시베리아 강제노동수용소	226
빨치산	285	시베리아 이송설	305, 306
빨치산스크	233	시베리아 이송포로	194
		시베리아강제노동수용소	10
(八)		시설대	164
사단법인 물망초	267	신의주교회소	280
사회간접자본	290	실종자	18, 22, 39, 42, 44, 46, 48,
살상	18	49, 139, 188, 197, 216, 271, 303	
상급학교	211	실향민	149, 191
상병포로	175	쉬위웬푸	56
상병포로 교환협정	159	손튼	80
상호방위조약	153		
상화청년탄광	202	(○)	
선전센터	69	아무르	248
선전영화	108	아사자	212
설득전쟁	166	아오지탄광	192, 204, 205, 281
세균전	107, 175	아우슈비츠수용소	252
선즈화	195	아이젠하워	153, 270
소련군사고문단	36	안성	25, 41
솔제니친	216, 243	안전통행증	16
송호성	121, 126	암가	225
송환거부포로	152	압록강	198
송환설명단	165	야쿠츠크	224, 227, 233
송환원칙	131	야쿠치야	256, 259
수도사단	30	양린	67
수용소 올림픽	91	양순용	193, 205
수용소군도	243	양용	28
수원전투	25	양정국	215, 229
순천	78	엘겐	236
슈미트	289	연로보상자	210
스미스부대	41	연로보장	208
스탈린	72, 159, 198, 219, 220,	연로보장비	206
242, 243, 245, 249, 250,		연평도 포격사건	291
252, 254, 256, 257		연합기업소	205
승호리	68, 93	연합정찰사령부	63, 223, 225, 227, 240
시베리아	209, 246, 254	영구수용소	81, 85

영구수용소로	63	유격대	15, 79, 197
영국군	42, 65, 66, 67, 161, 188	유격대원	50
영국군포로	84	유골	276
영덕	82	유성철	228
영덕전투	73	유엔 인권위원회	299
영변	126	유엔인권위원회	265, 297
영양실조	79	유해	222, 304
영천전투	78	유해 송환	189, 278
영현	38	유해발굴	295
영현교환	184	은울광산	201
영현귀환자	186	의무적	147
엘친	258, 271	의용군	105, 114, 131, 146, 147, 148, 195, 200, 204, 205, 208, 210
오봉탄광	202	의정부	72
오산	25, 41, 80	이건호	75
오폭	87	이르크츠크	221, 235
오호츠크	236	이명환	47
은성탄광	192	이상조	110, 137, 228
은정	19	이승만	152, 153, 158, 170, 182, 190
움스크	233	이승엽	118, 199
웅진반도	36	이인모	10, 294
왕양공	56	이종석	286
왜관	77	이질	79
외교관	34	이항구	46
외국인 선교사	34	이형근	44, 142
요덕수용소	61	인도주의	71, 84, 136, 283, 291
요코타 메구미	279	인천상륙작전	16
용초도	171, 175	일본군포로	4, 218, 249
우라기	225	일신탄광	212
우랄지역	241		
우수리강	256		
우시 포로수용소	90	(丕)	
우시군	65	자발적 송환	131
운광공	207	자살	176, 212
운산	19	자원송환원칙	143, 144, 145, 152, 159
원용덕	153	작업반장	209
원닝턴	106	잔류	5



저우언라이	56, 220	존 할리데이	194
적군 묘지	296	존슨	88, 173
전단	17	주원탄광	281
전몰자묘지미화협회	295	주입	106
전범	95	죽음의 병원	88
전범과	83	죽음의 행군	55, 74, 87, 94
전범행위	98	중립국감시위원회	61
전쟁기념관	268	중립국송환위원회	155, 157, 162, 164, 165, 168, 190, 196, 266
전쟁범죄자	184	중앙평화위원회	69
전쟁포로·실종자기	270	즉결처분	78
전향포로	103	증언록	218
정상진	226		
정전협정	62, 124, 132, 134, 156		
정치교육	11		
정치범수용소	60, 283	채탄공	207
제20병단	28, 30	천마	62
제218부대	126	천마 포로수용소	89, 108
제24보병사단	17	천마광산	68
제64전투비행군단	21	천마수용소	88
제64전투비행단	219, 220	천안함 피격사건	291
제9병단	30	철도사령부	126, 280
제네바협약	3, 58, 61, 72, 90, 124, 140, 143	철도여단	125, 200
제사공장	211	철로병단	117
제천	27	체포자 명단'	18
조·중연합사령부	56, 303	초산	19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25	최기호	208
조국평화통일위원회	5	최덕신	136, 139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전쟁포로 관리처	302	최석	180
		최석도	193
조선족	306	최영수	180
조이	138	최하층	209
조중연합사령부	31	추락확인증	22
조창호	3, 4, 7, 111, 115, 173, 205, 223, 265, 276, 279, 282	출신 성분	211
조치원	25	치안대	33, 149, 197
		치안대원	27
		치타	224, 231, 241



친지 방문	284	트루먼	41
침략전쟁	101	티마야	165

(ㄱ)

카투사	42
카파운	85
갑차카	236, 243
캐나다군	161
코로나코프	220, 223, 305
코미	221
코스틸로프	275
콜롬비아군	161
콜리마	231, 243, 248, 249, 252, 260
콜리마수용소	224, 252, 253, 255
콤포스모스카	248
콩밭수용소	85
쿠즈넛초프	274
크라스노야르스크	234
크라스노야르스크수용소	254
클라크	3, 119, 155, 157

(ㄷ)

타시켄트	234
타이가	239, 241, 255
타이거	80
타이셋트	221, 232
타이완	142, 152, 190, 284
탄광	205
탈북 국군포로	192
탈출	255, 269, 279
태국군	42
터키군	42, 66, 161, 187, 188
터키군포로	80, 106
투항	16, 104, 148
투항자	103
틀란수용소	233

(표)

평터화이	26, 29, 37, 122, 157, 303
폐름	221
편입	63, 110, 112, 133, 139, 140, 216, 266, 277
편입된	115
편지 교환	90
평양교화소	280
평택	25, 41
평화계곡	106
페렘	79
포겔	287
포로	18
포로 학대	84
포로교환	158
포로교환협정	160, 164
포로명단	45, 61, 109, 112, 133, 134, 143, 186

포로실종국	7
포로실종자의 날	270
포로우대	72
포로후송	75
포시엣	241
폴타바	230
표무원	109, 121, 126
프랑스군	66, 161
필리핀군	161

(ㅎ)

하면탄광	193
하바롭스크	220, 237, 243
학도의용군	197
학살	94

한강방어선	41	혼	189
한국전쟁실무그룹	217, 273, 300	훗카이도	238
한장리	90	황해제철연합기업소	201
함북 회령포로수용소	114	후방총국	55, 124, 126, 201
함흥교화소	282	휴전반대	183
합동포로실종자위원회	215	흐루시초프	250, 257
חתן역	229	흑빵	247
해리슨	180	흑인	20
해방전사	100, 102, 105, 115, 124	흑인포로	65
해방전쟁	100, 102		
해설	164	(3)	
헨리	83	3대 기율	58
행방불명	45		
행방불명자	278	(6)	
허재석	193	6·25전쟁 남북자 기억의 날	268
허진	226	6·25전쟁 남북인사가족협의회	268
현리전투	51, 93	6·25전쟁 남북인사가족회	298
현물지원	289		
현지지도	207	(8)	
협상전쟁	131	8항주의	58
호네커	290		
호르드니	231	(N)	
호주	42	N. I. 니키포로프	306
호주군	161, 187		



필자 후기

포로연구는 단순히 포로의 발생, 수용소 관리, 귀환 과정을 정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전쟁사의 성격까지도 드러낼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 국제전쟁이었던 한국전쟁은 미국, 영국, 터키 등 유엔참전국의 포로와 실종자 문제와도 연결된다. 또한 수용소 같은 ‘감옥’의 장치는 전후 북한 사회를 관통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도 전쟁 시기 국군과 유엔군포로들이 겪었던 ‘죽음의 행군’, 포로수용소, 정전 후 억류생활 등에서 끔직한 고통과 희생을 제대로 담아냈는지 ‘두려운 책임감’이 앞선다. 더욱이 정전협정 60주년이 지나서도 아직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와 실종자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가득하지만, 이번 국군포로연구를 통해 이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기를 고대한다.

이 책을 마무리하는 데에는 정승조 전 국방부 정책실장, 최복진 전 군사편찬연구소장, 문성묵 전 군비통제차장, 박길성 전 군비통제과장, 김동주 군비통제과장 등의 격려와 지원에 감사드린다. 방선주 박사, 미 국방부포로실종국(DPMO) 연구자, 박종효 교수, 심헌용 박사 등의 협조에 크게 힘입었으며, 정전 후 귀환한 포로, 탈북한 포로, 일반 탈북자 등의 면담은 포로 당시와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크게 도움이 되었다. 거제도에서 포로묘지를 찾아다닐 때, 도와주었던 김창욱 친우의 친절함도 기억하고자 한다.

거친 원고를 꼼꼼히 읽고 조언해주신 이동일 전 국방사 부장,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께도 감사드린다. 장삼열 국방사 부장을 비롯해 남정옥 책임연구원, 김창규 책임연구원, 김진섭 중령, 이상호·박동찬·김경록 등 연구소 연구원의 지적도 논지와 문맥, 표지 디자인 등을 다듬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본서는 한국의 자유를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 싸우다 포로가 되었던 국군을 비롯한 유엔군 장병들의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에게 드린다.

2014년 6월

저자 씀



저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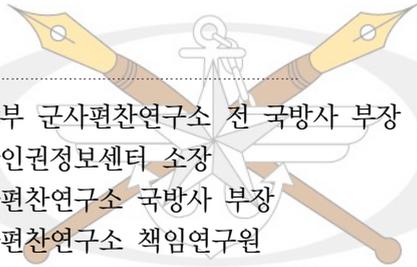
조성훈(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문학박사)

『한국전쟁과 포로』, 『군사분계선과 남북한 갈등』, 「한국전쟁 후 ‘중
국군 위협’에 대한 한미의 대응」, 「6·25전쟁 휴전협상 중 남한출신
의용군 누락배경과 해결방안」 등 다수



감 수

이동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 국방사 부장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장삼열 군사편찬연구소 국방사 부장
남정옥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6·25전쟁과 국군포로

2014년 6월 25일 인쇄

2014년 6월 30일 발행

발행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TEL : 709-3191 FAX : 709-3111

발행인 이 양 구
디자인·인쇄처 국군 인쇄창(14058468)

The Korean War and ROK POWs

KOREAN DEATH MARCHES



미국 포로·실종자기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ND



9 791155 980088

ISBN 979-11-5598-008-8